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419-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 2023-26 | 2023.12.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이순미 | 부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장~제7장 집필

김수린 | 부연구위원 | 제3장, 제4장 집필

나현수 | 연구원 | 제2장 집필, 연구 지원

이슬아 | 위촉연구원 | 자료 수집 및 연구 지원

(주)리서치앤리서치 | 설문조사 실시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이 순 미 (부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수 린 (부연구위원)

나 현 수 (연구원)

이 슬 아 (연구원)

제1장 202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조사 내용	13
4. 조사 방법 및 자료 처리	15
5. 조사 한계 및 해석의 주의점	29

제2장 여성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1. 여성농업인의 인적 특성	31
2. 농가 특성	36

제3장 경제·사회 활동 참여 현황

1. 영농 활동	49
2. 생활시간 사용	70
3. 농외 소득활동 현황	78
4. 지역사회 활동	91

제4장 교육·자격·건강 등 역량 현황

1. 교육 경험과 욕구	101
2. 자격증 보유 현황과 수요	112
3.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116
4. 건강상태	130

제5장 양성평등 현황

1. 농촌의 여성 지위와 성평등 수준	139
2. 성역할에 대한 태도	144
3. 성평등에 대한 인식	150
4. 성별 규범에 대한 태도	155
5. 가족 내 성평등 수준	159
6. 마을 성평등 수준	162
7. 농촌의 여성 안전 인식과 경험	165
8. 성평등 교육	173

제6장 농촌생활 만족도와 정책 요구

1. 농촌생활 만족도	177
2. 농업 유지 전망 및 농촌 계속 거주 의향	182
3.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186
4. 여성농업인을 위한 과제 인식	191

제7장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요약	199
2. 정책 시사점	215

부록

1. 응답자 특성	221
2. 2018년 대비 통계 변경 내역	223
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표	229

제1장

〈표 1-1〉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차수별 주요 변경 이력 12

〈표 1-2〉 조사 항목 14

〈표 1-3〉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조건 15

〈표 1-4〉 전국의 농업경영체 수 18

〈표 1-5〉 지역별 농업경영체 수 19

〈표 1-6〉 성별/지역별 농업인 수 20

〈표 1-7〉 지역 및 읍면동별 표본배분(표본크기=2000명) 22

〈표 1-8〉 지역 및 읍면동별 표본배분(표본크기=500명) 23

〈표 1-9〉 조사 개요 25

제2장

〈표 2-1〉 여성 귀농인의 연고지 유형(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34

〈표 2-2〉 여성농업인의 학력 수준: 특성별 비교 36

〈표 2-3〉 여성농업인의 혼인상태: 특성별 비교 37

〈표 2-4〉 여성농업인의 가구형태: 특성별 비교 38

〈표 2-5〉 다인가구 여성농업인의 가구구성원(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38

〈표 2-6〉 여성농업인의 자녀 동거 및 자녀의 영농 도움 여부: 특성별 비교 ... 39

〈표 2-7〉 여성농업인 특성별 자녀의 농업승계 전망 41

〈표 2-8〉 여성농업인의 영농규모: 특성별 비교 43

〈표 2-9〉 여성농업인의 농업소득: 특성별 비교 45

〈표 2-10〉 농업소득을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의 특성 45

〈표 2-11〉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지위: 특성별 비교 47

〈표 2-12〉 여성농업인의 자산 보유 현황(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48

제3장

〈표 3-1〉 여성농업인의 농업 종사 기간: 특성별 비교	50
〈표 3-2〉 여성농업인의 주관적 직업 지위: 특성별 비교	53
〈표 3-3〉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특성별 비교	55
〈표 3-4〉 여성이 50% 이상 담당 농작업 종류(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57
〈표 3-5〉 여성이 50% 이상 담당 경영일(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59
〈표 3-6〉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인식: 특성별 비교	61
〈표 3-7〉 기후변화가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식: 특성별 비교	63
〈표 3-8〉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식: 특성별 비교	65
〈표 3-9〉 농업생산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방안(1순위): 특성별 비교	67
〈표 3-10〉 건강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방안(1순위): 특성별 비교	69
〈표 3-11〉 생산 및 돌봄노동시간: 성별 비교	71
〈표 3-12〉 여성농업인의 생산 및 돌봄노동시간: 특성별 비교	72
〈표 3-13〉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개인 및 수면시간: 특성별 비교	74
〈표 3-14〉 여성농업인의 희망하는 일상생활 시간 조절: 특성별 비교	77
〈표 3-15〉 지난 1년간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여부: 특성별 비교	79
〈표 3-16〉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종류(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81
〈표 3-17〉 지난 1년간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특성별 비교	82
〈표 3-18〉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농외 근로시간: 특성별 비교	84
〈표 3-19〉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참여 의향: 특성별 비교	85
〈표 3-20〉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희망 이유(1순위): 특성별 비교	87
〈표 3-21〉 여성농업인의 희망 농외 소득활동 종류(1순위): 특성별 비교	89
〈표 3-22〉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어려움(1순위): 특성별 비교	91
〈표 3-23〉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조직 참여 여부(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93

〈표 3-24〉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조직 미참여 이유(1순위): 특성별 비교	95
〈표 3-25〉 여성농업인의 농축협 참여 현황: 특성별 비교	97
〈표 3-26〉 여성농업인의 농축협 조합 미참여 이유(1순위): 특성별 비교	98
〈표 3-27〉 여성농업인의 정부 위원회 활동 경험 여부: 특성별 비교	100

제4장

〈표 4-1〉 여성농업인의 지난 1년간 교육 경험 여부: 특성별 비교	102
〈표 4-2〉 지난 1년간 여성농업인이 받은 교육 종류(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104
〈표 4-3〉 여성농업인이 받은 교육 중 유익했던 교육(1순위): 특성별 비교	106
〈표 4-4〉 여성농업인들이 향후 받고 싶은 교육(1순위): 특성별 비교	108
〈표 4-5〉 교육 참여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1순위): 특성별 비교	111
〈표 4-6〉 여성농업인의 자격증 보유 현황: 특성별 비교	112
〈표 4-7〉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이 된 자격증 종류(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114
〈표 4-8〉 향후 취득 희망 자격증 종류(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116
〈표 4-9〉 디지털 기술 역량: 성별 비교	118
〈표 4-10〉 여성농업인의 스마트폰/PC 정보 검색 역량: 특성별 비교	119
〈표 4-11〉 여성농업인의 이메일/메신저 활용 역량: 특성별 비교	121
〈표 4-12〉 여성농업인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활용 역량: 특성별 비교	122
〈표 4-13〉 여성농업인의 온라인 예약/쇼핑/결제 시스템 활용 역량: 특성별 비교	124
〈표 4-14〉 여성농업인의 온라인 공공행정 서비스 활용 역량: 특성별 비교	125
〈표 4-15〉 여성농업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용 역량: 특성별 비교	127
〈표 4-16〉 여성농업인의 키오스 활용 역량: 특성별 비교	128
〈표 4-17〉 여성농업인의 셀프주유소 활용 역량: 특성별 비교	130

〈표 4-18〉 여성농업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특성별 비교	132
〈표 4-19〉 지난 1년간 우울 및 자살생각 경험 여부: 특성별 비교	134
〈표 4-20〉 여성농업인의 현재 가장 큰 고민(1순위): 특성별 비교	137

제5장

〈표 5-1〉 거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인식: 특성별 비교	141
〈표 5-2〉 여성농업인의 농촌 성평등 수준 인식: 특성별 비교	143
〈표 5-3〉 여성농업인의 농가와 마을에서의 성역할 인식: 특성별 비교	147
〈표 5-4〉 여성농업인의 사회 일반에서의 성역할 인식: 특성별 비교	149
〈표 5-5〉 여성농업인의 성평등 인식: 특성별 비교	154
〈표 5-6〉 여성농업인의 성별 규범에 대한 태도: 특성별 비교	158
〈표 5-7〉 여성농업인의 가족 내 성평등 수준 인식: 특성별 비교	161
〈표 5-8〉 여성농업인의 마을 성평등 수준 인식: 특성별 비교	164
〈표 5-9〉 여성농업인의 여성폭력 수용도: 특성별 비교	168
〈표 5-10〉 여성농업인의 피해자 책임론 인식: 특성별 비교	169
〈표 5-11〉 농촌의 여성 안전 수준과 폭력피해 두려움: 특성별 비교	171
〈표 5-12〉 성평등 교육 경험 및 향후 참여 의향: 특성별 비교	174
〈표 5-13〉 성평등 교육 필요성 인식: 여성농업인 특성별 비교	176

제6장

〈표 6-1〉 여성농업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특성별 비교	178
〈표 6-2〉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평가: 특성별 비교	181
〈표 6-2〉 여성농업인의 향후 5년 이내 농업 지속 전망: 특성별 비교	183
〈표 6-3〉 여성농업인의 농촌 계속 거주 의향: 특성별 비교	185

〈표 6-4〉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상위 10순위(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189
〈표 6-5〉 농업농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1순위): 특성별 비교	193
〈표 6-6〉 농촌에서 여성 활동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1순위): 특성별 비교	195
〈표 6-7〉 여성농업인을 위한 과제: 특성별 비교(1순위)	198

제7장

〈표 7-1〉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요약표	208
---------------------------------	-----

부록

〈부표 1〉 응답자 특성	221
〈부표 2〉 2018년 대비 2023년 실태조사의 주요 변경	223
〈부표 3〉 2023년 조사항목 및 신규 대비	226

제2장

〈그림 2-1〉 여성농업인 유형 32
 〈그림 2-2〉 여성농업인 유형별 연령 분포 32
 〈그림 2-3〉 여성 귀농인의 귀농 시기 33
 〈그림 2-4〉 연고지 유형(중복응답): 성별 비교 34
 〈그림 2-5〉 학력 수준: 성별 비교 35
 〈그림 2-6〉 가구형태: 성별 비교 37
 〈그림 2-7〉 자녀의 농업승계 전망 40
 〈그림 2-8〉 경영주 성별에 따른 영농규모 42
 〈그림 2-9〉 경영주 성별에 따른 농업소득 44
 〈그림 2-10〉 농업경영체 지위: 성별 비교 46
 〈그림 2-11〉 여성농업인의 자산 보유 현황(중복응답) 48

제3장

〈그림 3-1〉 농업 종사 기간: 성별 비교 49
 〈그림 3-2〉 여성농업인의 주관적 직업 지위 인식 51
 〈그림 3-3〉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별 주관적 직업 지위 인식 ... 52
 〈그림 3-4〉 농업일 담당 비중: 성별 비교 54
 〈그림 3-5〉 여성농업인이 50% 이상 담당하는 농작업 종류(중복응답) 56
 〈그림 3-6〉 여성농업인이 50% 이상 담당하는 경영일(중복응답) 58
 〈그림 3-7〉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성별 비교 60
 〈그림 3-8〉 기후변화가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성별 비교 62
 〈그림 3-9〉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성별 비교 64
 〈그림 3-10〉 농업생산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방안(1순위): 성별 비교 66

〈그림 3-11〉 건강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방안(1순위): 성별 비교	68
〈그림 3-12〉 사회참여, 개인 및 수면시간: 성별 비교	73
〈그림 3-13〉 희망하는 일상생활 시간 조절: 성별 비교	75
〈그림 3-14〉 지난 1년간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종류(중복응답)	80
〈그림 3-15〉 지난 1년간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농외 근로시간	83
〈그림 3-16〉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희망 이유(1순위)	86
〈그림 3-17〉 여성농업인의 희망 농외 소득활동 종류(1순위)	88
〈그림 3-18〉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어려움(1순위)	90
〈그림 3-19〉 지역사회 조직참여 여부(중복응답): 성별 비교	92
〈그림 3-20〉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조직 미참여 이유(1순위)	94
〈그림 3-21〉 농축협 참여 현황: 성별 비교	96
〈그림 3-22〉 여성농업인의 농축협 조합 미참여 이유(1순위)	98
〈그림 3-23〉 중앙정부·지자체 운영 위원회 활동 경험 여부	99

제4장

〈그림 4-1〉 지난 1년간 받은 교육 종류(중복응답): 성별 비교	103
〈그림 4-2〉 지난 1년간 받은 교육 중 유익했던 교육(1순위): 성별 비교	105
〈그림 4-3〉 향후 받고 싶은 교육(1순위): 성별 비교	107
〈그림 4-4〉 교육 참여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1순위)	109
〈그림 4-5〉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자격증의 도움 여부	113
〈그림 4-6〉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이 된 자격증 종류(중복응답)	114
〈그림 4-7〉 여성농업인의 향후 취득 희망 자격증 종류(중복응답)	115
〈그림 4-7〉 주관적 건강상태: 성별 비교	131
〈그림 4-8〉 지난 1년간 우울감 및 자살생각 경험 여부: 성별 비교	133
〈그림 4-9〉 현재 가진 가장 큰 고민(1순위): 성별 비교	135

제5장

〈그림 5-1〉 거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인식: 성별 비교	140
〈그림 5-2〉 농촌의 성평등 수준 인식: 성별 비교	142
〈그림 5-3〉 성역할 인식: 성별 비교	145
〈그림 5-4〉 성평등 인식: 성별 비교	151
〈그림 5-5〉 성별 규범에 대한 태도: 성별 비교	156
〈그림 5-6〉 가족 내 성평등 수준 인식: 성별 비교	159
〈그림 5-7〉 마을 성평등 수준 인식: 성별 비교	162
〈그림 5-8〉 여성폭력에 대한 태도: 성별 비교	166
〈그림 5-9〉 여성농업인이 느끼는 농촌의 여성 안전과 폭력 피해 두려움	170
〈그림 5-10〉 여성폭력 목격시 대응행동: 성별 비교	172
〈그림 5-11〉 성평등 교육 참여 여부 및 향후 참여 의향: 성별 비교	173
〈그림 5-12〉 성평등 교육 필요성 인식: 성별 비교	175

제6장

〈그림 6-1〉 전반적 삶의 만족도: 성별 비교	177
〈그림 6-2〉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평가: 성별 비교	179
〈그림 6-3〉 향후 5년 이내 농업 지속 전망: 성별 비교	182
〈그림 6-4〉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와 이용도(중복응답)	187
〈그림 6-5〉 여성농업인 정책 경험자의 정책 만족도	191
〈그림 6-6〉 농업농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	192
〈그림 6-7〉 농촌에서 여성 활동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	194
〈그림 6-8〉 여성농업인을 위한 과제	197

1

202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필요성과 목적

1.1. 조사의 필요성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8조, 「통계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5년마다 추진되는 국가승인통계(제114036호)로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중요성이 큰 조사이다.
 - 2003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최초 실시된 이래, 2018년 제4차 실태 조사가 완료되었고, 2023년은 제5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기이다.
- 지난 5년간 농업·농촌 환경은 지속가능 농업, 디지털 농업 전환, 다기능 농업 확대, 지방분권화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 및 지위 상승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김이선 외, 2021).
 - 사회적 경제, 먹거리 분야 활성화, 온라인 유통체계 확대 등은 여성농업인의 활동 범위를 확대시키고, 그에 따라 성별 분업이 다소 유연해지거나 사

회경제적 지위 격차가 완화되는 등 성평등의 긍정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된다(김이선 외, 2021: 175).

- 그러나,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성별 분업이 강화되고 성별 생산성 격차, 사회경제적 지위 및 권한 차이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기후위기와 지속가능 농업 전환 상황에서 농업인구의 초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에 따른 늘어난 노동 부담이 노동집약적 작업을 부여받은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노동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디지털 농업 전환 과정에서 농업 기계화의 진전과 활용 역량이 성별에 따라 커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농업소득 감소 상황에서 농가소득 유지를 위한 농외 소득활동 부담도 여성에게 가중되고 있다(김이선 외, 2021: 176).

-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자체 농정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여성 농업인의 행정과 연계된 활동 참여도 여전히 저조하며(정은미 외, 2013; 이순미, 2021), 다수의 복지 시책들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 간 복지 격차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 주력 생산연령층 여성농업인의 감소가 급격한 것에 대응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 유지,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정책 수요 발굴 및 관련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농업인은 여전히 농업의 주력 인력으로 역할하지만 최근 10년간 여성 농업인 수의 변화는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 비중 모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특히 농업생산 핵심연령층인 40~60대 농업인 수의 급감은 여성에게서 더 크고 급격하므로(김이선 외, 2021), 핵심연령층 여성농업인의 영농 유지를 위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와 더불어,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 여성 등 농촌에 신규로 유입되는 여성들의 농촌 정주 및 농업 진입을 위한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 농업·농촌의 미래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성농업인 인력 육성에서 농촌 성평등으로 확장된 정책 목표를 고려한 농촌 성평등 증진 및 성인지적 농업·농촌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한 보장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문제인 농촌 성차별 구조 개선이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21-2025)은 농촌 성평등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법」의 목적과 정부의 책무에 성평등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평등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11.30.).
 - 농업·농촌 개발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와 실천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성평등에 관한 FAO 정책 2020-2030’은 농업·농촌 개발에서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 성취를 목표로 하여 성별 동등 발언권과 의사결정권, 각종 자원에서의 동등한 권리와 접근, 경제적 기회 및 소득과 경제적 혜택에 대한 동등 권한과 접근, 성별 노동부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FAO, 2020).
 - 따라서 각종 권한과 기회 접근 등에서의 성평등 현황과 의식을 조사하여 농촌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1.2. 목적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주체로서의 성장과 삶의 질 개선, 농촌지역 성평등 증진을 위한 실태와 정책 수요 조사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기존 및 신규 여성농업인들의 경제 및 사회 활동, 교육 현황, 양성평등 인식 등을 조사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농촌 정주 및 영농 유지를 위한 정책 수요, 여성농업인 핵심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제5차 여성농업인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정책의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 추진 개선방향 도출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정책 수요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제5차 여성농업인기본계획의 전략 및 세부과제별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를 제공한다.
 - 연령, 유형별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유형별 맞춤형 정책 발굴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농촌의 성평등 의식, 양성평등 수준, 안전 실태와 의식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실태 및 정책 요구

2.1.1.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

- 여성농업인 문제는 ‘역할과 지위 불일치’로 대변되어 왔고, 이는 지난 40여 년간 여성농업인 연구와 정책의 핵심 테마였다(김주숙, 1982; 조형, 1981; 권영자, 1987; 김종숙·정명채, 1992; 정기환, 1997; 김영옥·김이선, 1999; 강혜정·마상진, 2007; 정은미 외, 2012; 임소영 외, 2021).
- 농업 주력 인력의 여성 비율 및 여성 스스로의 주체적 인식 증가는 여성농업인이 영농보조자가 아니라 농업 생산 주체임을 명확히 보여주지만, 생산자 지위 및 자산 소유 등의 성별 격차 완화 속도는 더딘 실정이다.

- 2020년 기준, 농업종사자와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48.4%, 50.6%로 농업 주력 인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고(통계청, 2020), 2017년 기준 가족노동력 투입시간 중 여성 비중은 30.0%, 고용노동력 투입시간 중 여성 비중은 72.7%로 높다(엄진영·김선웅, 2019). 또한 여성농업인의 53.9%는 자신이 전체 영농활동의 50% 이상을 담당한다고 인식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8).
 - 여성이 농업 생산에서 주력인력으로 역할하지만 경제 및 경영권은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 11월 기준, 농업경영주 중 여성은 29.7%이고, 2022년 10월 기준 농협 조합원 중 여성은 33.9%, 농협 대의원 중 여성은 21.1%, 농협 임원 중 여성은 9.6%로 낮다(농림축산식품부, 2023). 또한 농지, 주택 등을 소유한 여성농업인은 45.3%로 남성의 절반에 불과하고, 500만 원 이상 현금(예금)을 보유한 여성농업인은 57.7%로 남성보다 16.8%p 낮다(임소영 외, 2021).
- 공동경영주 제도는 여성의 농업인 지위 인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법적 정의가 미흡하여 제도적 지위로 불충분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 정은미 외(2020)는 공동경영주를 온전한 법적 지위로 만들기 위해 경영주 외 농업인이 아닌 경영주의 하위 범주로 규정하고 겸업 금지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김이선 외(2021)는 경영주, 공동경영주의 위계적 구분이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두 지위를 구분하는 제도의 전면적 개편, 예컨대 복수경영주 제도로의 개편을 제안하였다.

2.1.2.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강화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들이 교육·훈련 기회의 확대에 주목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여성은 생산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따른 시간의 부족, 농업 보조인력이라는 주·객관적 인식으로 인해 영농 및 경영 관련 교육의 참여 기회가 부족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여성 대상의 별도 교육과정 설치를 제안하였다(임선희 외, 2001; 이호철 외, 2002; 김수옥·박은희, 2003; 윤준상, 2007; 홍은파, 2010).
 - 특히 윤준상(2007)은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세분화를 통해 현실 및 능력,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고려한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이나 수료증 등으로 동기를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 최근에는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융복합 등 부가가치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여성농업인의 부가가치 농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 부가가치 농업은 생산 능력을 단일 가치로 평가하기보다 건강, 생태, 환경, 안전, 문화유산 등 비시장적 가치 창출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여성농업인의 전문가적 위치 획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허미영, 2004; 정은미 외, 2012; 임소영 외, 2020).
 - 정은미(2015)는 중규모 이상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창업에 필요한 기술, 지식, 홍보 방법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며 일정기간 후 스스로 창업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고, 중소규모 이하 여성농업인의 경우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원을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을 전략으로 해야 함을 제안함. 또한 창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지원은 물적 지원보다 농가에서의 소규모 가공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제정 및 허가 간소화의 제도 개선과 서류 구비와 같은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2.1.3.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 청년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성인지적 개선과 여성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들이 제안되었다(이순미 외, 2020; 태희원 외, 2021).

- 이순미 외(2020)는 후계농업인을 포함한 청년여성농업인은 스스로를 농업경영자로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농업경영에 임하지만 여성 비하와 성적 대상화, 여성을 농업보조자로 보는 통념 등으로 인해 농지와 시설 등 영농 기반 확보, 기술, 생산자 조직 참여 등에서 남성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생산 기반 마련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성차별 개선, 인권, 안전, 복지 정책의 동반이 필수라 강조하였다.
- 태희원 외(2021)는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업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 영농현장 및 농촌지역의 성평등 문화 정착, 청년농업인 지원 플랫폼 전반의 성인지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무연고지로 귀농한 비혼 청년여성들은 영농과 농촌생활 전반에서 취약성이 가장 커서 쉽게 빈곤 상태에 처하기 쉽고 성폭력 위험도 높음을 지적하고 여성 1인 영농가구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를 강조하였다.

2.1.4. 농촌 성평등과 여성 인권

○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결과 소형 농기계·농작업 편이장비 개발보급, 농가도우미 제도, 농촌 보육, 능력 개발 등 생산 영역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주요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가사, 돌봄 등 비공식 노동의 여성 전담 구조를 충분히 문제화하지 못했고, 농촌사회 전반의 성차별 구조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김영옥 외, 2005; 임선주·정경운, 2016).

- 여성농업인은 생산과 재생산의 이중노동 수행으로 노동시간 총량이 남성

보다 1시간 44분 더 길다. 이는 비농업인의 성별 시간 차이의 2배 이상으로 높은 수치이다(통계청, 2019). 또한 마을의 봉사활동은 여성의 무료 봉사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48.6%로 높다(임소영 외, 2021).

- 2017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55.2%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현재 거주 지역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는 23.7%만이 만족한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비율이 더 높지만 현재의 양성평등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농촌진흥청, 2017).

○ 농촌지역의 보수적 인식은 청년여성농업인과 귀농·귀촌 여성들의 정착을 저해하는 핵심적 장애물로 지적된다.

- 여성농업인의 18.4%가 마을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과 편견, 성적 농담이나 여성 비하 발언,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임소영 외, 2021).
- 가족 단위로 귀농·귀촌한 기혼 여성들은 순종적 며느리 역할을 기대하는 보수적 시부모와 마을 주민으로 인한 집 밖·사회와의 단절, 역할 과중과 육체적 소진, 시간 부족, 자아의 상실 등의 고충을 겪는데(꿈지모, 2005; 진명숙·박성정, 2012; 박성정 외, 2012; 박신규 외, 2013; 성지혜, 2013; 진양명숙, 2014), 이로 인한 귀농·귀촌 여성들의 심리적 부적응은 역귀농·귀촌의 중요 이유가 된다고 지적되었다(마상진 외, 2021).
- 귀농·귀촌한 비혼여성들의 관계 어려움은 훨씬 더 성적 통제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 비하와 성적 대상화, 성희롱, 결혼 권유와 강제 중매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적 통제와 여성 비하는 농지, 영농시설, 정보, 생산자 네트워크에서의 여성 소외를 야기하고, 지자체의 담당자들은 '출가외인' 통념으로 비혼여성 지원을 꺼려하는 등 자원 배분에서의 실질적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이순미, 2023).

○ 가부장적 인식 외에도 실질적인 여성 안전 인프라 부족으로 성범죄 및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 읍면 거주 인구 중 야간보행시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은 여성 42.8%, 남성 17.7%로 차이가 크다(김홍주 외, 2021: 162). 농촌에서 야간보행시 여성이 느끼는 두려움은 ‘인적이 드물어서’가 가장 많지만 남성의 두려움은 ‘보행 안전시설 부족’ 때문이 가장 많아서 여성은 성폭력 등 범죄로 인한 불안울 크게 느끼는 반면, 남성은 낙상, 자동차 사고 등 사고에 대한 불안이 더 큰 차이가 있다(이순미 외, 2022).

2.1.5. 여성농업인 정책 및 추진체계 관련 연구

○ 여성농업인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과제 구성에 대한 여성농업계의 공감은 높은 편이나(이순미 외, 2020), 정책 성과 및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데 여기에는 정책 추진체계, 즉 중앙-지자체-농촌 현장 간의 정책 전달 체계가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김영옥 외, 2005; 정은미 외, 2013; 임소영 외, 2020).

- 김영옥 외(2005)는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중간평가 연구에서 광역지자체간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실적에서 차이가 크므로, 사업 종류 및 예산 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공무원, 전문가 그룹, 중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가 차원 기본계획 및 지역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정책 추진 실적 및 차기 연도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정책 책무성과 사업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제안하였다.
- 정은미 외(2013)는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주체들이 각자 파편화되어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중간지원조직 활용 등의 이해관계자 협력체계를 갖출 것

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여성농업인단체나 여성농업인센터가 정책파트너로서 민간역량을 발휘하여 행정의 변화를 이끌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이순미(2021)는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조직을 둔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전달, 차별적 정책 수행, 정책 거버넌스 작동 등의 성과가 있음을 실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농촌여성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 ‘전담’을 보장하는 직제 개편, 농촌여성 정책 관련 공무원들의 정책의 목표와 범주에 대한 보편적 합의 형성,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민간 주체의 정책 역량 강화,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체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 조성은 외(2022)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평가 및 개발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중앙 차원의 여성농업인 지원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2.2.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관련 연구

2.2.1.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연혁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2003년에 1차 조사가 실시되었고, 각 차수별로 시계열 변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본 설문문항 구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조사 주기인 5년 동안의 변화된 사회·정책적 환경과 여성농업인의 정책 욕구 변화를 측정하는 설문항목을 추가 구성하는 구조로 추진되어 왔다.

- 제1차 실태조사는 여성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가구현황, 농업 종사 현황 및 지위 의식, 복지 실태, 정책 수요 등을 면접조사하였다(김영옥·김이선, 2003).

- 제2차 실태조사는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역사회 활동, 정책 인지도 및 의향, 정책 수요 항목을 추가하였다(강혜정, 2008). 여성농업인 제2차 기본계획(2006~2010) 수립 당시 여성농업인 직업 지위의 공식화와 경제적 기여에 대한 평가 및 적절한 보상이 중요 의제로 부각되어 관련 실태 파악 및 정책 수요 조사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안석 외, 2018: 5).
- 제3차 실태조사는 여성농업인의 고령화와 다문화가족 증가라는 인구학적 변화를 정책이 고려하도록 65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과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을 분리하여 총 3종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표본규모는 3,000명으로 1차, 2차 실태조사보다 1,500명이 많다. 노동 및 가사노동 시간, 출산 및 산후조리 현황 등의 조사항목을 삭제하고 자녀 사항, 토지 임대차 현황, 소득 분배 및 가사 분담률, 의료서비스 이용, 여성농업인센터 관련 항목, 다문화가족 인식 항목을 추가하였다(정은미 외, 2013).
- 제4차 실태조사는 여성농업인 복지 사업 일부의 지자체 이양, 복지 및 공공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정부통계 생산 확대 등의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출산 경험, 농업소득 관리 주체, 건강보험 가입 현황, 노인돌봄 재가서비스 이용 현황, 장애인 서비스 이용 현황, 여성농업인센터 이용 현황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영농 작업, 일상생활 도움 필요, 초등자녀 돌봄 현황 등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고령 여성농업인은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신 다문화가정과 귀농 여성농업인을 분리하여 조사하였다(안석 외, 2018).

〈표 1-1〉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차수별 주요 변경 이력

조사	조사 주요내용
1차 실태조사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1,500명 • 4개 부문 32개 문항: 가구일반현황(6), 농업종사현황(12), 복지실태(8), 정책수요(6)
2차 실태조사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1,500명 • 5개 부문 62개 문항: 가구현황(24), 활동실태(14), 정보화 및 의식(5), 복지실태(11), 정책수요(8)
3차 실태조사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3,500명(일반 1,600명, 고령여성농업인 900명, 다문화여성 500명) • 일반: 6개 부문 85문항: 기본사항(15), 가구현황(15),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현황(13), 교육현황(5), 복지현황(20), 정책수요 및 향후계획(17) • 고령 여성농업인: 6개 부문 84문항: 기본사항(15), 가구현황(17),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현황(13), 교육현황(3), 복지현황(24), 정책수요 및 향후계획(12) • 다문화 여성: 6개 부문 81문항: 기본사항(29), 가구현황(15),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현황(8), 교육현황(4), 복지현황(19), 정책수요(6)
4차 실태조사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2,000명(일반 1,500명, 귀농여성 250명, 다문화여성 250명) • 일반: 6개 부문 76문항: 기본사항(13), 가구현황(12),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현황(13), 교육현황(6), 복지현황(19), 정책수요 및 향후계획(13) • 귀농여성: 6개 부문 76문항: 기본사항(13), 가구현황(12),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현황(13), 교육현황(7), 복지현황(18), 정책수요 및 향후계획(13) • 다문화여성: 6개 부문 81문항: 기본사항(26), 가구현황(14), 농촌지역 다문화 가족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현황(7), 교육현황(5), 복지현황(18), 정책수요(11)

자료: 통계청 통계설명자료(<https://www.narastat.kr/metascv/svc/SvcMetaDcDtaPopup.do>, 검색일: 2023. 4. 2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2.2.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개선 연구

○ 전세봄 외(2022)는 통계청의 품질개선 컨설팅 연구에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의 단위 및 조사대상의 적정성, 유사통계 비교, 조사목적 대비 조사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표본 규모 확대, 표본설계 개선, 조사표 수정을 제안하였다.

- 유사성이 높은 통계로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농촌진흥청),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실태조사(여성가족부), 여성 관리자패널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를 비교검토하고 1) 조사대상 비교군으로 남성을 포함할 것, 2) 조사 정확성 및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 증액 필요를 지적하였다.
- 표본설계 개선안으로는 지역(9개 도 및 특광역시, 총 10개 광역) 및 동/읍

면부를 층화기준으로 하여 누락되는 지역이 없이 확률표집하도록 하고, 오차한계를 2%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적정 표본규모로 4천 명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조사표 개선안으로는, 여성농업인, 다문화여성, 귀농여성을 분리조사했던 것을 단일화하고, 조사 중복 회피를 위해 복지현황 영역은 삭제하고 농외 소득 관련 항목 강화, 양성평등 및 안전 영역 신설을 제안하였다.

3. 조사 내용

○ 2018년 실태조사와 대비하여 여성농업인 조사표를 단일화하고 유사통계와의 중복 회피 및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 내용을 수정하였다.¹⁾

- ‘농어업인등 복지실태조사’ 중복 회피를 위해 복지 영역을 삭제하였다.
-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경제·사회활동 참여 현황 영역에서 기후위기 영향 및 대응 관련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양성평등 현황 영역을 신설하였다.
- 정보화 관련 조사내용을 기기 보유 여부에서 무인/온라인 활용 역량 조사로 수정하였다.

○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 조사 내용은 7개 영역 7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기본사항 6, 가구현황 8, 경제·사회활동 참여 현황 22, 교육 현황 8, 건강 현황 4, 양성평등 현황 13, 정책수요 및 향후계획 9

○ 남성농업인 조사 내용은 여성농업인 조사문항 중 일부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7개 영역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2018년 대비 조사항목 변경 상세 대조는 부록 2에 담았다.

- 기본사항 4, 가구현황 4, 경제·사회활동 참여 11, 교육 4, 건강 4, 양성평
등 의식 10, 정책 수요 및 향후 계획 5

〈표 1-2〉 조사 항목

조사 항목	여성농업인	남성농업인
PART A. 기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여부 및 년도 ○ 혼인 상태 ○ 연고지 ○ 학력 ○ 출신국적 ○ 한국어 실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여부 및 년도 ○ 혼인 상태 ○ 연고지 ○ 학력
PART B. 가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현황 ○ 자녀의 농업승계 관련 ○ 농사 규모 ○ 농업 소득 ○ 본인 명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현황 ○ 농사 규모 ○ 농업 소득
PART C. 경제·사회 활동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에 종사한 기간 ○ 직업 지위 ○ 농사일 담당 비중 ○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처 ○ 생활시간사용 현황 ○ 농업 외 소득활동 ○ 참여 단체 및 조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에 종사한 기간 ○ 농사일 담당 비중 ○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처 ○ 생활시간사용 현황 ○ 농업 외 소득활동 ○ 참여 단체 및 조직 관련
PART D. 교육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교육경험 ○ 가장 유익했던 교육 ○ 향후 받고 싶은 교육 ○ 자격증 관련 현황 ○ 여성의 교육참여를 위한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년간 교육경험 ○ 가장 유익했던 교육 ○ 향후 받고 싶은 교육
PART E. 건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 상태 ○ 우울감 경험 여부 ○ 자살 생각 여부 ○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건강 상태 ○ 우울감 경험 여부 ○ 자살 생각 여부 ○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
PART F. 양성평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지위 ○ 성역할 인식 ○ 성폭력 피해 경험 ○ 성평등 인식 ○ 성폭력 인식 ○ 성교육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지위 ○ 성역할 인식 ○ 성폭력 인식 ○ 성교육 관련
PART G. 정책 수요 및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삶의 만족도 ○ 농업·농촌 평가 및 전망 ○ 농업·농촌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 ○ 여성의 활동력 넓히기 위한 필요 사항 ○ 온라인/무인 서비스 활용 능력 ○ 각 정책별 인지도/참여여부/참여 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삶의 만족도 ○ 농업·농촌 평가 및 전망 ○ 온라인/무인 서비스 활용 능력

4. 조사 방법 및 자료 처리

4.1. 조사대상

-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 제1호)을 말하며, 여성농업인의 자격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5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이다.

〈표 1-3〉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조건

1. 1천 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본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2022년 8월 1일~2023년 7월 31일 사이 최소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만 15세 이상 여성이며, 논·밭 등 경지를 1,000㎡(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가의 구성원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되나, 농업 외의 일이 주업인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가구에 2명 이상 여성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일에 대한 비중이 더 높은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남성농업인의 경우 조사대상의 선정에서 여성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4.2. 표본 설계

4.2.1. 표본설계내역

- **(목표 모집단)**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정의(시행령 제3조 1항의 1호~3호)를 충족하는 전국의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이다.
- **(조사 모집단)**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및 남성농업인이다.
 - 정부 통계에서 ‘농가’는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정의(시행령 제3조 1항의 1호~3호)를 충족하는 가구”로 정의되며,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농가로 정의하지 않는다(통계청, 2020). 즉 농업인 정의를 충족하는 가구원이 한 명이라 있으면 농가로 정의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인구는 농업인 및 농업인과 동거하는 비농업 세대원으로 구성된다.
 - 농가 여성인구가 여성농업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 중에는 여성농업인이 없는 농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농림어업총조사의 농가를 여성농업인 확률표집을 위한 모집단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성농업인 자격 확인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의 명부 작성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이에, 영농 사실 확인을 통해 농업인 정보를 등록하고 현행화하는 농업경영체DB가 여성농업인 조사 모집단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의무가 아니고 경영체 분리 등의 관행으로 경영체DB의 신뢰성이 질문될 수 있겠으나 농업인수당 및 공익직불제 등으로 농업인 대부분이 등록해 있음을 감안할 때 조사모집단으로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 **(표본추출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체DB」(2023년 4월 30일 기준)중 여성농업인이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이다.
 -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농업경영체는 제외하였다.

- **(표본추출법)** 다단계층화계통추출법으로 확률표집을 수행하였다. 지역별 공표가 가능하도록 10개 지역으로 1차 층화하고, 동부 및 읍면부로 2차 층화하여 층을 구성하였다.
 - 1차 층화: 특·광역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차 층화: 동/읍면 지역
- **(표본추출)** 농업경영체를 1차 추출단위(psu)로, 여성농업인을 2차 추출단위(ssu)로 하여, 층내 동(시군)/읍면(리), 경영체DB 성명으로 내림차순 정렬 후 계통추출하였다.

4.2.2. 모집단 및 추출틀 분석

- 조사 모집단인 전체 농업경영체 수는 1,811,377개이며, 추출틀인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업경영체는 1,167,804개이다.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통계서비스(자료갱신일: 23.3.17)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해 준 농업경영체 데이터(자료갱신일: 23.4.3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두 자료의 자료 갱신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서비스 집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17개 시도 중 8개 특광역시 내에 있는 농업경영체 비율이 매우 작고 (0.7~2.1% 내외), 농업 정책이 주로 도농복합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특광역시를 하나의 층으로 하여 9개 도와 함께 총 10개의 층으로 분류하였다.
- 전체 농업경영체와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업경영체의 지역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특광역시는 1.6%p, 경상남도는 1.5%p, 경기도는 1.3%p, 그 외 광역시

도는 1%p 이내로 여성 포함 농업경영체 수가 적지만 지역별 분포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1-4〉 전국의 농업경영체 수

단위: 개, %

지역	행정 구역	전체 농업 경영체 수		여성이 포함된 농업 경영체 수		전체 농업 경영체 수		여성이 포함된 농업 경영체 수	
		수	%	수	%	수	%	수	%
특광역시	서울	23,917	1.3	10,075	0.9	202,099	11.2	111,992	9.6
	부산	21,556	1.2	12,038	1.0				
	대구	37,373	2.1	21,736	1.9				
	인천	25,030	1.4	14,565	1.2				
	광주	29,999	1.7	16,209	1.4				
	대전	23,887	1.3	12,080	1.0				
	울산	27,062	1.5	17,279	1.5				
	세종	13,275	0.7	8,010	0.7				
도농 복합도	경기	222,758	12.3	128,087	11.0	222,758	12.3	128,087	11.0
	강원	110,079	6.1	69,247	5.9	110,079	6.1	69,247	5.9
	충북	116,188	6.4	73,894	6.3	116,188	6.4	73,894	6.3
	충남	201,438	11.1	135,739	11.6	201,438	11.1	135,739	11.6
	전북	164,912	9.1	107,580	9.2	164,912	9.1	107,580	9.2
	전남	244,773	13.5	164,415	14.1	244,773	13.5	164,415	14.1
	경북	281,376	15.5	186,405	16.0	281,376	15.5	186,405	16.0
	경남	213,346	11.8	155,038	13.3	213,346	11.8	155,038	13.3
	제주	54,408	3.0	35,407	3.0	54,408	3.0	35,407	3.0
전국		1,811,377	100.0	1,167,804	100.0	1,811,377	100.0	1,167,804	100.0

○ 특광역시 및 9개도를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특광역시는 동부에 더 많은 농업경영체가 있는 반면, 9개 도에서는 읍면부 지역에 농업경영체가 몰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지역별 농업경영체 수

단위: 개, %

지역	읍면동	전체 농업경영체 수		여성이 포함된 농업경영체 수			
			%		%		
특광역시	동부	202,099	152,414	75.4	111,992	79,921	71.4
	읍면부		49,685	24.6		32,071	28.6
경기	동부	222,758	96,114	43.1	128,087	50,479	39.4
	읍면부		126,644	56.9		77,608	60.6
강원	동부	110,079	23,621	21.5	69,247	12,656	18.3
	읍면부		86,458	78.5		56,591	81.7
충북	동부	116,188	25,131	21.6	73,894	12,680	17.2
	읍면부		91,057	78.4		61,214	82.8
충남	동부	201,438	28,547	14.2	135,739	16,047	11.8
	읍면부		172,891	85.8		119,692	88.2
전북	동부	164,912	40,761	24.7	107,580	24,254	22.5
	읍면부		124,151	75.3		83,326	77.5
전남	동부	244,773	22,068	9.0	164,415	13,270	8.1
	읍면부		222,705	91.0		151,145	91.9
경북	동부	281,376	56,142	20.0	186,405	32,333	17.3
	읍면부		225,234	80.0		154,072	82.7
경남	동부	213,346	45,419	21.3	155,038	29,664	19.1
	읍면부		167,927	78.7		125,374	80.9
제주	동부	54,408	26,136	48.0	35,407	15,973	45.1
	읍면부		28,272	52.0		19,434	54.9
전국	동부	1,811,377	516,353	28.5	1,167,804	287,277	24.6
	읍면부		1,295,024	71.5		880,527	75.4

○ 지역 및 성별 농업인 수 현황을 보면, 전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수는 2,554,638명이며, 그중에서 여성이 1,170,957명, 남성은 1,383,681명으로 나타난다.

- 여성이 포함된 농업경영체만 놓고 봤을 때 등록된 농업인 수는 1,879,778명이며, 여성 1,170,957명, 남성은 708,821명으로 나타난다.
- 남성으로만 구성된 농업경영체는 표본추출틀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남성

농업인 통계산출에서는 전체 농업경영체상의 남성농업인 수를 모집단으로 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표 1-6〉 성별/지역별 농업인 수

단위: 명, %

지역	전체 농업경영체의 농업인 수						여성이 포함된 농업경영체의 농업인 수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특광역시	263,473	10.3	113,386	9.7	150,087	10.8	171,763	9.1	113,386	9.7	58,377	8.2
경기	305,779	12.0	126,947	10.8	178,832	12.9	206,055	11.0	126,947	10.8	79,108	11.2
강원	158,334	6.2	69,455	5.9	88,879	6.4	115,080	6.1	69,455	5.9	45,625	6.4
충북	166,472	6.5	74,212	6.3	92,260	6.7	122,013	6.5	74,212	6.3	47,801	6.7
충남	293,017	11.5	136,543	11.7	156,474	11.3	223,336	11.9	136,543	11.7	86,793	12.2
전북	231,534	9.1	108,255	9.2	123,279	8.9	171,466	9.1	108,255	9.2	63,211	8.9
전남	339,233	13.3	165,379	14.1	173,854	12.6	255,737	13.6	165,379	14.1	90,358	12.7
경북	405,571	15.9	187,082	16.0	218,489	15.8	304,751	16.2	187,082	16.0	117,669	16.6
경남	311,995	12.2	154,440	13.2	157,555	11.4	250,855	13.3	154,440	13.2	96,415	13.6
제주	79,230	3.1	35,258	3.0	43,972	3.2	58,722	3.1	35,258	3.0	23,464	3.3
전국	2,554,638	100.0	1,170,957	100.0	1,383,681	100.0	1,879,778	100.0	1,170,957	100.0	708,821	100.0

4.2.3. 표본크기 결정

- 조사의 표본크기는 가용 조사인력 및 예산, 조사 소요시간 등 조사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작성되는 통계의 표본오차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본 조사의 경우 10개 지역 및 동/읍면 수준에 따라 모집단 분포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 여성농업인의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오차의 한계가 $\pm 2.19\%p$ 내외로 관리될 수 있도록 총 2,000명을 표본크기로 결정하였다.
- 남성의 표본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의 표본 규모를 2,000명으로 유지하면서 비교군으로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오차의 한계가 $\pm 4.38\%p$ 내외로 관리될 수 있도록 총 500명을 표본크기로 결정하였다.

4.2.4. 표본배분

- 조사대상의 층간 이질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표적인 표본배분 방법으로 비례배분, 제곱근비례배분, 네이만배분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지역별 조사비용과 분산에 대한 기존 자료가 미비하기에, 분산을 고려하지 않고 층의 크기만 반영하여 추정량의 분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례배분과 제곱근비례배분 방법을 고려하였으며, 네이만배분의 경우 분산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분산을 0.5로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 표본의 크기를 2,000개로 하여, 시도별, 동/읍면별(동부/읍면부) 20개 층으로 비례배분, 제곱근비례배분, 네이만배분 방법으로 표본을 배분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 비례배분의 경우, 각 층별 오차한계가 6.0%p~20.9%p로 상당히 큰 수준이며, 네이만배분 역시 각 층별 오차한계가 6.0%p~21.0%p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곱근비례배분의 경우는 7.4%p~13.9%p로 비례배분과 네이만배분에 비해 층별 오차한계의 차이를 어느 정도 보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허용오차가 여전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 본 조사의 중요한 목적은 지역별 여성농업인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각 지역 내 일정 수준 이상의 정도(precision)를 갖는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군까지 표본배분을 고려하였지만 특광역시 동부(시군: 70개, 표본수: 127개)의 경우 시군수에 비해 표본이 충분히 크지 않아 시군별 표본이 1~2개 정도만 배분이 되어 조사 및 결과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특광역시 동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대해 제곱근비례배분으로 일정 이상의 표본이 배분될 수 있게 하였다.
 - 승인통계 공표수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 10개 지역별 표본배분 결과, 비례배분의 경우 각 층별 오차한계는 제주 외 모든 지역에서 10%p 이내, 네이만배분의 경우 각 층별 오차한계는 제주 외 모든 지역에서 10%p 이내, 제

공급비례배분은 각 층별 오차한계는 모두 10%p 이내로 나타나 공급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표 1-7〉 지역 및 읍면동별 표본배분(표본크기=2000명)

단위: 명, %

지역	읍면동	비례배분		제공근비례배분		나이만배분	
		표본크기	오차한계	표본크기	오차한계	표본크기	오차한계
특광역시	동부	137	8.4	127	8.7	137	8.4
	읍면부	55	13.2	80	11.0	55	13.2
경기	동부	86	10.6	101	9.7	87	10.5
	읍면부	133	8.5	125	8.8	133	8.5
강원	동부	22	20.9	50	13.9	22	21.0
	읍면부	97	9.9	107	9.5	97	10.0
충북	동부	22	20.9	50	13.9	22	21.0
	읍면부	105	9.6	111	9.3	105	9.6
충남	동부	27	18.9	57	13.0	28	18.7
	읍면부	205	6.8	155	7.9	205	6.8
전북	동부	42	15.1	70	11.7	42	15.2
	읍면부	143	8.2	129	8.6	143	8.2
전남	동부	23	20.4	52	13.6	23	20.6
	읍면부	258	6.1	174	7.4	259	6.1
경북	동부	55	13.2	81	10.9	55	13.2
	읍면부	264	6.0	175	7.4	264	6.0
경남	동부	51	13.7	77	11.2	51	13.7
	읍면부	215	6.7	159	7.8	215	6.7
제주	동부	27	18.9	57	13.0	27	18.7
	읍면부	33	17.1	63	12.3	33	17.0

○ 남성농업인의 경우 표본의 크기를 500개로 하여, 시도별, 동/읍면별(동부/읍면부) 20개 층으로 여성농업경영체와 동일하게 공급근비례배분으로 표본배분하였고, 결과는 〈표1-8〉과 같다.

- 여성농업인과 동일한 공표수준인 10개 지역별 표본배분 결과, 각 층별 오차한계는 12~18%p 이내로 나타났다. 단, 남성농업인의 경우에는 여성농업인의 비교군으로 공표 범위는 전국이다.

〈표 1-8〉 지역 및 읍면동별 표본배분(표본크기=500명)

단위: 명, %

지역	표본크기	오차한계	읍면동	제공근비례배분	
				표본크기	오차한계
특광역시	52	13.6	동부	32	17.3
			읍면부	20	21.9
경기	56	13.1	동부	25	19.6
			읍면부	31	17.6
강원	40	15.5	동부	13	27.2
			읍면부	27	18.9
충북	41	15.3	동부	13	27.2
			읍면부	28	18.5
충남	53	13.5	동부	14	26.2
			읍면부	39	15.7
전북	49	14.0	동부	17	23.8
			읍면부	32	17.3
전남	56	13.1	동부	13	27.2
			읍면부	43	14.8
경북	64	12.2	동부	20	21.9
			읍면부	44	14.8
경남	59	12.8	동부	19	7.0
			읍면부	40	15.5
제주	30	17.9	동부	14	26.2
			읍면부	16	24.5

4.2.5. 표본추출

○ 여성농업인의 경우 시도별, 동/읍면별(동부/읍면부) 층화를 한 후 각 층에 표본을 배분하고, 배분된 표본의 크기대로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시군구, 읍면동리, 경영체DB의 경영주 성명으로 정렬 후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 특광역시의 동 지역은 내재적 층화변수(‘구단위’)를 사용하여 정렬한 후 계통추출 실시

- 도(9개)의 읍면부는 시군별 표본을 배분 후 내재적 층화변수(‘리단위’)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 실시
 - 추출된 농업경영체에서 여성농업인 한 명만 선정하여 조사
 - 추출된 농업경영체에서 여성농업인이 여러 명일 경우 1) 농업경영주, 2) 농업활동 비중이 높은 1명, 3)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적용하였다.
- 남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에서 추출된 표본 2,000개 중 500개를 추출하여 여성+남성농업인 조사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추출된 표본에서 남성농업인이 여러 명일 경우 여성농업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 실제 조사를 수행했을 때 표본 농업경영체의 적격 여성농업인(남성농업인)이 없을 경우 교체 표본 농업경영체를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를 제외한 나머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예비표본을 추출하였다.
- 예비표본 역시 다단계층화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실제 표본의 10배수만큼 선정하고,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각각의 방법으로 예비표본을 추출하였다.
- 층별 모집단 수가 작아서 전수조사를 한 경우: 예비표본은 없다.
 - $(\text{층별 모집단 수} - \text{층별 표본 수}) \leq (\text{층별 표본 수} \times 10)$ 의 경우: 층별 모집단 수에서 표본 수를 제외한 모든 농업경영체를 예비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text{층별 모집단 수} - \text{층별 표본 수}) > (\text{층별 표본 수} \times 10)$ 의 경우: 층별 모집단에서 표본 수를 제외한 농업경영체 중에서 표본 수의 10배에 해당하는 수만큼 예비표본을 추출하였다.

〈표 1-9〉 조사 개요

조사대상	▪ 농업경영체 명부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15세 이상의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표 본 수	▪ 여성농업인: 2,003명 / 남성농업인: 502명
조사지역	▪ 10개 권역: 특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본추출	▪ 층화계통추출
가 중 치	▪ 조사 모집단(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맞춰 가중치 설계 및 적용
조사방법	▪ 가구 방문을 통한 대면면접조사
조사기간	▪ 2023. 08 ~ 2023. 09

4.3. 가중치 설계

○ 가중치는 설계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로 구분되며, 설계가중치는 표본추출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진 값으로 산정한다. 여성농업인실태조사의 1차 추출단위는 농업경영체이고 2차 추출단위는 여성/남성농업이다.

- 일반적인 추정에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값은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한 추정값은 심각한 편향(bias)을 발생시킬 수 있다.

4.3.1. 농업경영체 가중치 작성

가) 설계 가중치

$$w_{hi}^D = \frac{N_h}{n_h}$$

- N_h : 층 h의 여성농업인이 등록된 전체 농업경영체 수
- n_h : 층 h의 여성농업인이 등록된 농업경영체 표본크기

나) 무응답 조정 가중치

○ 무응답 조정 가중치는 추출확률에 단위 무응답을 보정한 가중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w_{hi}^R = \frac{N_h}{R_h}$$

- N_h : 층 h의 여성농업인이 등록된 농업경영체 표본크기
- R_h : 층 h의 여성농업인이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조사경영체 수

다) 최종 가중치

○ 최종 가중치 = 설계가중치 X 무응답 조정 가중치

4.3.2. 농업인 가중치 작성

가) 설계 가중치

$$\text{농업경영체 가중치} \times \left(\frac{1}{\text{농업경영체 내 조사 농업인 추출률}} \right)$$

나) 사후 층화 조정

○ 가중치 조정단계에서 사후층화 조정을 위해 전체적으로 지역(10), 동부/읍면부(2) 구분에 따라 20개층의 모집단을 고려하며, 표본설계에서 고려된 표본의 층별 여성(남성)농업인 분포가 조사 시점의 층별 여성(남성)농업인 분포와 다를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사후 층화 가중치를 고려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계수를 계산하였으며, 특히 남성농업인의 경우 모집단과 추출틀 간 편향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text{사후층화조정계수} = \frac{\hat{E}_0}{\hat{e}_0}$$

\hat{E}_0 : 지역별, 동부/읍면부별 모집단 농업인 수(남,여)

\hat{e}_0 : 지역별, 동부/읍면부별 추정 농업인 수(남,여)

다) 농업인에 대한 최종 가중치

- 다른 일반적인 복합표본조사(complex sample survey)와 마찬가지로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의 가중치도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하였으며, 더불어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여부를 반영하여 최종 가중치를 작성하였다.

- 농업인에 대한 최종 가중치 = 농업인 설계가중치 × 사후층화 조정계수

4.3.3. 추정

- 평균 추정에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bar{Y} = \frac{\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h=1,2,\dots,H$ 는 층의 수(권역×동부/읍면부 20개)
- $i=1,2,\dots,n_h$ 는 h 층 내의 표본 수(표본 농업경영체)
- j =표본 농업경영체 내 여성/남성농업인
- m_{hi} =층 h 에서 i 번째 농업체의 응답 여성/남성농업인 수
- w_{hij} 는 h 층의 각 여성/남성농업인 응답자에 대해 산출된 가중치

- y_{hij} 는 h 층 i 번째 농업경영체 내 j 번째 응답자의 변수값
- 평균추정에 대한 분산추정식,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hat{V}(\bar{Y}) = \sum_{h=1}^H \hat{V}(\bar{Y}_h), \quad \hat{V}(\bar{Y}_h)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이때, f_h 는 추출율, $e_{hi} = \sum_{j=1}^{m_h} w_{hij}(y_{hij} - \bar{y})/w \dots$ 이며, $\bar{e}_h = \frac{\sum_{i=1}^{n_h} e_{hi}}{n_h}$.

$$SE(\bar{Y}_h) = \sqrt{Var[\bar{Y}_h]} \quad RSE[\bar{Y}_h] = \frac{SE(\bar{Y}_h)}{\bar{Y}_h}$$

○ 비율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hat{p} = \frac{\sum_{h=1}^H \sum_{i=1}^{n_h} \sum_{j=1}^{m_h} w_{hij} y_{hij}}{\sum_{h=1}^H \sum_{i=1}^{n_h} \sum_{j=1}^{m_h} w_{hij}}$$

- $h=1, 2, \dots, H$ 는 층의 수(권역×동부/읍면부 20개)
- $i=1, 2, \dots, n_h$ 는 h 층 내의 표본 수(표본 농업경영체)
- j =표본 농업경영체 내 여성/남성농업인
- m_{hi} =층 h 에서 i 번째 농업체의 응답 여성/남성농업인 수
- w_{hij} 는 h 층의 각 여성/남성농업인 응답자에 대해 산출된 가중치
- y_{hij} 는 특정 속성을 가지면 1, 그렇지 않으면 0임.
- 비율추정에 대한 분산추정식,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hat{V}(\hat{p}) = \sum_{h=1}^H \hat{V}(\hat{p}_h), \quad \hat{V}(\hat{p}_h)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이때, $e_{hi} = \sum_{j=1}^{m_h} w_{hij}(y_{hij} - \hat{p})/w \dots$ 이며, $\bar{e}_h = \frac{\sum_{i=1}^{n_h} e_{hi}}{n_h}$, $w \dots = \sum_{h=1}^L \sum_{i=1}^{n_h} \sum_{j=1}^{m_h} w_{hij}$ 이다.

$$SE(\hat{p}_h) = \sqrt{Var[\hat{p}_h]} \quad RSE[\hat{p}_h] = \frac{SE(\hat{p}_h)}{\hat{p}_h}$$

5. 조사 한계 및 해석의 주의점

- 조사대상 및 모집단의 차이로 인해 농림어업총조사 등 공식 통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농업인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림어업총조사(혹은 농림어업조사) 결과와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 본 조사의 결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본 조사는 조사 모집단 및 표본추출 방법의 차이로 인해 제4차 여성농업인 실태조사(2018) 이전 결과와의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므로 시계열 비교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 자료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을 조사모집단으로 하여 확률표집한 이번 조사는 도시(동부) 지역 거주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읍과 면 지역 거주 여성농업인만을 조사한 이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와 결과가 상이할 수 있다.
- 본 조사결과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이라는 조사 모집단의 특성상 농업에 전업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75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과 2종 겸업농 비율이 높은 전체 여성농업인의 경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료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은 「농업식품기본법」의 농업인 정의 중 경지면적만을 인정하고 있어(유찬희 외, 2022: 47), 등록 농업인은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공동경영주는 농업 외 유급노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야 하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은 전업농 성격이 강하다.
- 모든 비율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기재하였으며, 따라서 경우에 따라 합계가 99.9% 혹은 100.1%로 100.0%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2

여성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1. 여성농업인의 인적 특성

1.1. 여성농업인의 유형과 연령

○ 여성농업인 중 여성 귀농인은 12.2%, 다문화 여성농업인은 0.6%, 계속 농업에 종사한 내국인 여성농업인은 87.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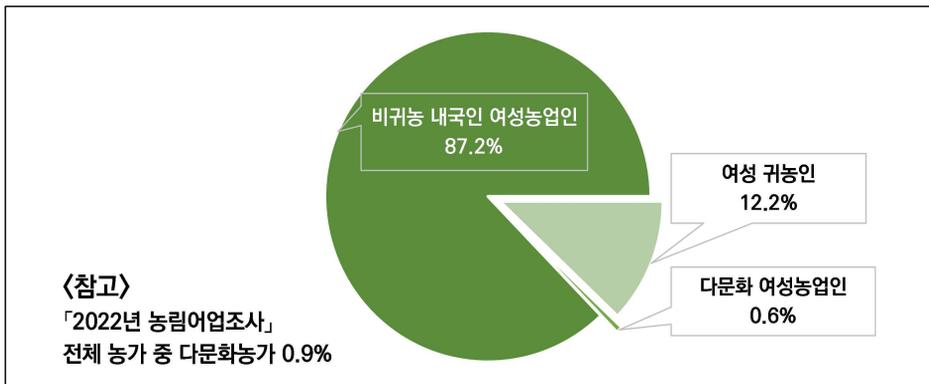
- 2022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가 중 다문화 농가는 0.9%이므로, 다문화 농가 중 결혼이주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대략 2/3 정도라고 유추할 수 있다.

○ 여성농업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40.9%, 70대 이상 38.0%, 50대 14.8%, 40대 이하 6.3% 순이었다. 2022년 농림어업조사의 여성농업인 연령 분포와 비교하여²⁾ 60대의 비율이 70대 이상보다 높은 것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의 특징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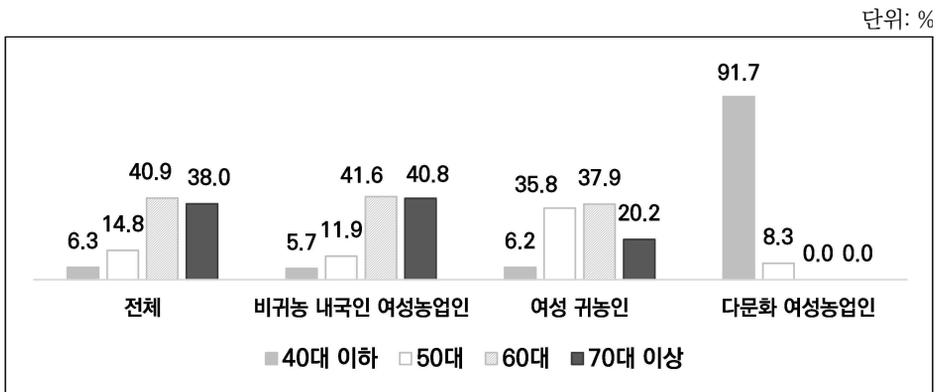
²⁾ 통계청의 2022 농림어업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농가의 여성인구 중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여성은 40대 이하 6.0%, 50대 16.7%, 60대 36.4%, 70대 이상 40.9%이다.

- 비귀농 내국인 여성농업인은 60대(41.7%)와 70대 이상(40.8%)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 귀농인은 60대가 37.9%, 50대가 35.8%로 50대의 비율이 매우 높다. 다문화 여성농업인은 40대 이하가 91.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chi^2=231.254$, $p<.001$).³⁾

〈그림 2-1〉 여성농업인 유형



〈그림 2-2〉 여성농업인 유형별 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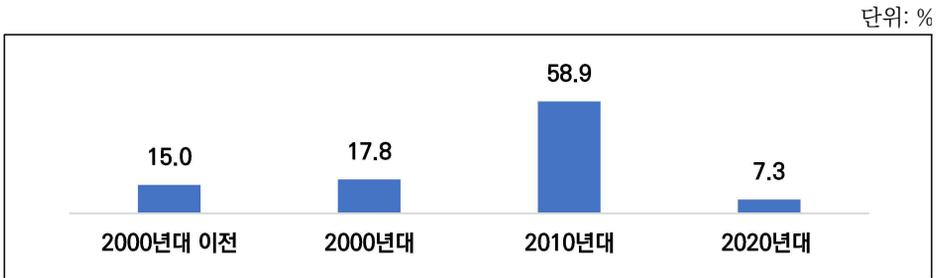


3) 다문화 여성농업인 표본이 적어서 이후 실태조사 분석결과에서는 다문화 여성농업인의 귀농 여부에 따라 비귀농 여성농업인과 여성 귀농인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2. 여성 귀농인의 귀농 시기 및 연고지 유형

○ 여성 귀농인이 귀농한 시기는 2010년대가 58.9%로 가장 높고, 2000년대 17.8%, 2000년대 이전 15.0%, 2020년대 7.3% 순으로, 귀농 후 평균 경과 기간은 14.6년이다.

〈그림 2-3〉 여성 귀농인의 귀농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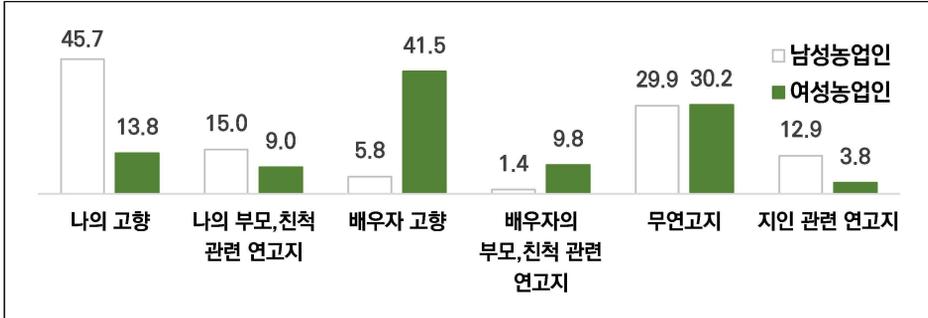


○ 여성 귀농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51.3%가 배우자의 연고지인 반면 남성 귀농인은 60.7%가 자신의 연고지로 귀농을 하여 지역 선택의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귀농인의 연고지 유형은 ‘배우자의 고향’(41.5%)과 ‘배우자의 부모/친척 관련 연고지’(9.8%)를 합쳐서 배우자의 연고지인 비율이 51.3%로 높고, ‘나의 고향’(13.8%), ‘나의 부모/친척 관련 연고지’(9.0%)를 합쳐서 자신의 연고지인 비율은 22.8%로 낮다. 여성들은 자신의 연고지보다 ‘아무 연고가 없는 곳’(30.2%)으로 귀농하는 비율이 오히려 더 높다.
- 반면 남성 귀농인은 ‘나의 고향’이 45.7%, ‘나의 부모/친척 관련 연고지’가 15.0%인 반면 ‘배우자의 고향’(5.8%)과 ‘배우자의 부모/친척 관련 연고지’(1.4%) 비율은 극히 낮다. 무연고지로 귀농한 비율(29.9%)은 여성과 유사하다.

〈그림 2-4〉 연고지 유형(중복응답): 성별 비교

단위: %



주: 중복응답 결과를 사례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음.

○ 여성 귀농인의 연고지 유형은 연령과 가구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 40대 이하와 50대 여성 귀농인은 배우자의 연고지로 귀농한 비율이 각각 65.3%, 65.0%로 60대 이상에 비해 25%p 가까이 높다. 반면 60대 이상은 무연고지로 귀농한 비율이 60대 39.7%, 70대 이상 43.8%로 높다.
- 현재 1인가구인 여성 귀농인은 66.2%가 자신의 연고지로 이주한 반면 부부가구인 여성 귀농인은 56.6%가 배우자의 연고지에서 살고 있다.

〈표 2-1〉 여성 귀농인의 연고지 유형(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전체		나의 고향	나의 부모/친척과 관련된 연고지	배우자의 고향	배우자의 부모/친척과 관련된 연고지	아무런 연고지 없는 곳	친구/선배 등 지인과 관련된 연고지
		N	비율						
연령	40대 이하	15	100.0	21.8	19.0	44.4	20.9	7.3	4.3
	50대	88	100.0	14.1	3.7	57.3	8.7	16.7	4.0
	60대	92	100.0	13.9	13.9	31.1	9.9	39.7	1.6
	70대 이상	49	100.0	10.8	5.3	31.8	8.1	43.8	7.6
가구 형태	1인가구	12	100.0	50.9	15.3	24.6	3.0	9.8	1.0
	부부가구	176	100.0	8.7	10.1	47.3	9.3	29.8	3.3
	기타	56	100.0	22.3	4.3	25.9	12.9	35.7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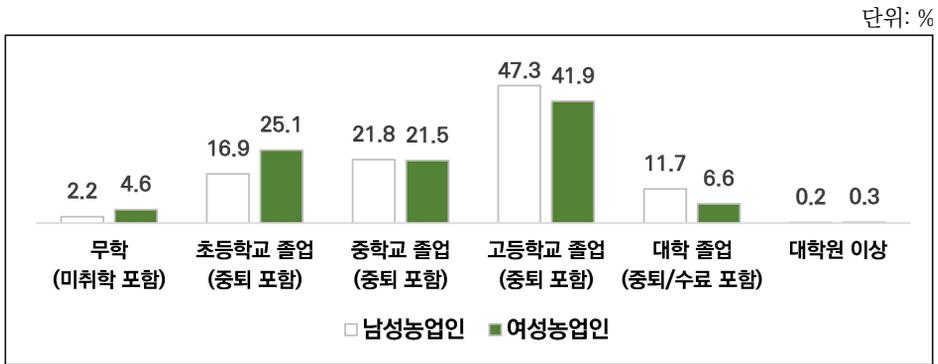
주: 복수응답 결과를 사례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음.

1.3. 여성농업인의 학력 수준

○ 여성농업인의 학력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51.2%로 높고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이 41.9%, 전문대학 재학 이상이 6.9% 순으로 조사되었다.

- 남성은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47.3%, 전문대학 재학 이상이 11.9%, 중학교 졸업 이하 40.8%로 여성농업인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다($\chi^2=92.368$, $p<.001$).

〈그림 2-5〉 학력 수준: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간에도 귀농 여부 및 연령에 따라 학력 수준의 차이가 있다.

- 비귀농 여성농업인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54.7%, 고등학교 졸업(중퇴)이 39.5%인데 비해 여성 귀농인은 고등학교 졸업(중퇴)이 59.3%이고 전문대학 재학 이상도 14.7%로 고학력 비율이 높다($\chi^2=89.127$, $p<.001$).
-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42.0%가 전문대학 재학 이상 고학력자이고, 50대는 77.4%가 고등학교 졸업자인데 비해 60대 이상은 중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매우 높다. 특히 70대 이상은 86.3%가 중학교 졸업 이하이다($\chi^2=1133.277$, $p<.001$).

〈표 2-2〉 여성농업인의 학력 수준: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무학 (미취학 포함)	초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중학교 졸업 (중퇴 포함)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전문대학 재학 이상 (중퇴/수료 포함)	대학원 이상	x ²
		사례수	비율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4.9	27.5	22.3	39.5	5.6	0.2	89.127 ***
	여성 귀농인	244	100.0	2.4	7.8	15.8	59.3	13.6	1.1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	-	0.9	57.1	41.8	0.2	1133.277 ***
	50대	296	100.0	-	0.9	6.2	77.4	15.2	0.3	
	60대	821	100.0	0.7	13.8	27.7	53.5	3.8	0.6	
	70대 이상	761	100.0	11.3	50.8	24.2	13.2	0.5	-	

주: ***p<.001.

2. 농가 특성

2.1. 가구 및 가족 특성

2.1.1. 가구 구성 및 형태

○ 여성농업인의 혼인상태는 유배우 상태가 85.5%로 가장 많고, 이혼/사별이 13.9%, 미혼이 0.5%이다.

- 여성 귀농인이 유배우 상태인 비율이 91.8%로 더 높고, 비귀농 여성농업인은 사별/이혼 비율이 14.9%로 더 높다($x^2=13.397$, $p<.01$).
- 60대 이하 연령대의 여성농업인은 92% 이상이 유배우 상태이며, 40대 이하의 미혼(4.8%), 70대 이상은 사별/이혼(26.2%)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x^2=202.006$, $p<.001$).

〈표 2-3〉 여성농업인의 혼인상태: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미혼	유배우	사별/이혼	x ²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0.5	85.5	13.9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0.5	84.7	14.9	13.397**
	여성 귀농인	244	100.0	1.2	91.8	6.9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4.8	93.6	1.6	202.006***
	50대	296	100.0	0.3	93.6	6.1	
	60대	821	100.0	0.5	92.3	7.2	
	70대 이상	761	100.0	-	73.8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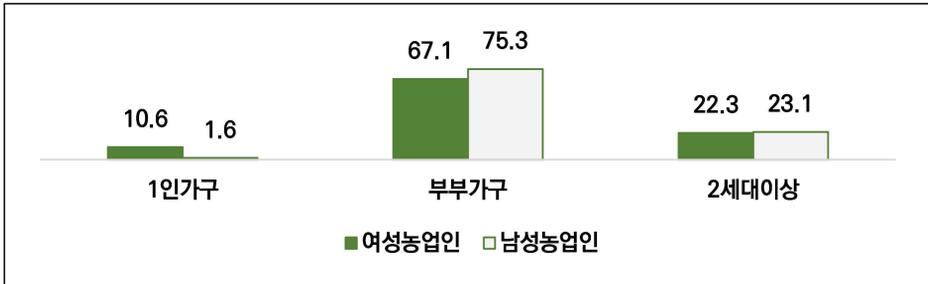
주: **p<.01, ***p<.001.

○ 여성농업인의 가구유형은 ‘부부가구’ 67.1%, ‘2세대 이상/기타’ 22.3%, ‘1인가구’ 10.6%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농업인은 ‘부부가구’가 75.3%로 높고 ‘1인가구’는 1.6%로 매우 낮다($x^2=161.228$, $p<.001$).

- 여성농업인의 ‘부부가구’ 비율에 상응하여 가구원 수는 2명인 경우가 68.8%로 가장 높고 평균 가구원 수는 2.25명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6〉 가구형태: 성별 비교

단위: %



○ 여성농업인의 가구유형은 귀농 여부, 연령,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부부가구 비율은 여성 귀농인, 60대 이상, 공동경영주 및 (공동)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한 경우에 높다. 반면 40대 이하는 86.7%가 2세대 이상/기타 가구형태이고 70대 이상은 1인가구 비율이 다른 연령대의 3배 이상 높다. 여성이 경영주인 농가는 세 유형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표 2-4〉 여성농업인의 가구형태: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1인가구	부부가구	2세대 이상/ 기타	x ²
		N	비율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11.4	66.5	22.2	9.513**
	여성 귀농인	244	100.0	4.9	72.2	22.9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2.3	11.0	86.7	534.717***
	50대	296	100.0	3.3	53.8	42.9	
	60대	821	100.0	6.0	79.6	14.4	
	70대 이상	761	100.0	19.8	68.2	12.0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38.8	36.8	24.5	539.312***
	공동경영주	554	100.0	1.1	81.1	17.9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2.8	73.5	23.7	

주: **p<.01, ***p<.001

○ 40대 이하 여성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2세대 이상/기타' 가구는, 동거 가구 원으로 배우자 80.9%, 자녀 87.2%, 부모 17.9%, 손자녀 8.8%로 나타나, 자녀와 함께 사는 2세대 가구 혹은 손자녀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로 구성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5〉 다인가구 여성농업인의 가구구성원(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그 외
		N	비율					
가구 형태	부부가구	1,345	100.0	100.0	0.0	0.0	0.0	0.0
	2세대 이상/기타	446	100.0	80.9	87.2	17.9	8.8	1.9
연령	40대 이하	123	100.0	94.1	80.6	17.2	0.0	3.6
	50대	287	100.0	96.3	38.0	10.0	0.1	0.0
	60대	770	100.0	97.7	11.9	3.8	1.5	0.4
	70대 이상	611	100.0	91.8	14.7	0.1	4.5	0.2

주: 중복응답 결과를 사례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음.

2.1.2. 자녀 동거 및 자녀의 영농 도움

○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22.1%이다.

-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의 88.3%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는 미성년 자녀와의 동거이며, 자녀가 성인인 6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자녀와의 동거율은 60대가 12.0%, 70대 이상이 14.8%로 낮다.

○ 작년 한 해 자녀가 최소 10일 이상 농사일을 도왔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60.6%로 자녀로부터의 도움 비율은 높은 편이다.

- 자녀가 농사일을 도와준 비율은 비귀농 여성농업인(61.9%), 60대(62.5%)와 70대 이상(71.3%)의 노년층, 공동경영주(68.4%)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영농규모가 대규모인 농가보다 중대규모 이하 농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표 2-6〉 여성농업인의 자녀 동거 및 자녀의 영농 도움 여부: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자녀 동거 여부		자녀가 영농을 도왔음		
	N	비율	동거함	χ^2	도왔음	χ^2	
여성농업인(전체)	1,760	100.0	22.1	-	60.6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531	100.0	21.9	.215	61.9	15.207
	여성 귀농인	229	100.0	23.2		51.7	**
연령	40대 이하	112	100.0	88.3	391.034 ***	20.3	177.08 ***
	50대	283	100.0	38.5		48.2	
	60대	756	100.0	12.0		62.5	
	70대 이상	609	100.0	14.8		71.3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271	100.0	36.5	46.568 ***	55.7	64.538 ***
	공동경영주	543	100.0	15.5		68.4	
	경영주 외 농업인	946	100.0	21.8		57.4	
영농 규모	소규모	1003	100.0	24.4	9.093 *	61.2	121.260 ***
	중소규모	380	100.0	28.4		59.4	
	중대규모	261	100.0	29.1		64.8	
	대규모	116	100.0	21.4		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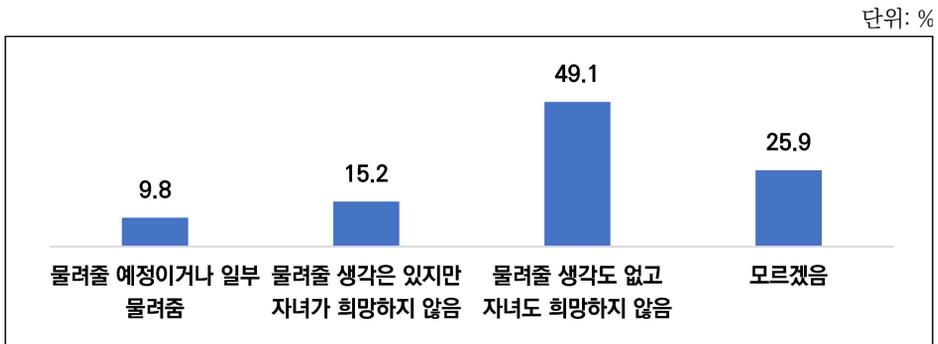
주 1) 자녀가 있는 사례 중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 자녀가 영농을 도와준 비율을 표시함.

2) *p<.05, **p<.01, ***p<.001.

2.1.3. 자녀의 농업승계 전망

○ 자녀의 농업승계가 이루어졌거나 예정인 비율은 9.8%로 낮다. ‘물려줄 생각은 있지만 자녀가 희망하지 않는다’(15.2%)를 포함하면 25.0%의 여성농업인들은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주길 바라고 있다. 반면 49.1%는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그림 2-8〉 자녀의 농업승계 전망



○ 자녀의 농업승계 전망은 연령과 농업경영체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귀농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다.

- 70대 이상 고령여성농업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녀가 농업을 승계했거나 할 예정인 비율이 15.8%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다. 자녀가 희망하지는 않지만 물려줄 생각이 있는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14%~16% 수준으로 유사하다. 그러나 40대 이하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44.5%로 가장 높다($\chi^2=64.970$, $p<.001$).
-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업인은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에 비해 자녀의 농업 승계를 바라지 않는 비율이 20%p 가까이 높다. 경영주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데(30.9%), 경영주 내 젊은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높은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chi^2=56.857$, $p<.001$).

- 영농규모가 클수록 자녀의 농업승계 및 승계 예정 비율이 높다. 대규모인 농가는 ‘자녀에게 물려줄 예정이거나 일부 물려준’ 비율이 17.6%이고 ‘물려줄 생각은 있지만 자녀가 비희망’하는 비율은 34.7%로 상당히 높다($\chi^2=150.090, p<.001$).

〈표 2-7〉 여성농업인 특성별 자녀의 농업승계 전망

단위: 명, %

구분	전체		물려줄 예정이거나 일부 물려줌	물려줄 생각은 있지만 자녀가 희망하지 않음	물려줄 생각도 없고 자녀도 희망하지 않음	모르겠음	χ^2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1,760	100.0	9.8	15.2	49.1	25.9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531	100.0	10.0	15.3	49.1	25.5	1.525
	여성 귀농인	229	100.0	8.2	14.3	48.8	28.7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271	100.0	11.8	15.1	42.2	30.9	56.857 ***
	공동경영주	543	100.0	6.6	12.5	62.4	18.6	
	경영주 외 농업인	946	100.0	11.0	16.8	43.5	28.7	
연령	40대 이하	112	100.0	4.3	14.5	36.7	44.5	64.970 ***
	50대	283	100.0	7.8	14.1	47.2	30.8	
	60대	756	100.0	6.5	16.1	53.7	23.7	
	70대 이상	609	100.0	15.8	14.6	46.6	23.0	
연령	소규모	1,003	100.0	5.4	10.4	55.7	28.5	150.090 ***
	중소규모	380	100.0	16.5	15.4	48.5	19.6	
	중대규모	261	100.0	13.3	24.8	36.6	25.2	
	대규모	116	100.0	17.6	34.7	22.0	25.6	

주: *** $p<.001$.

2.2. 농가경영체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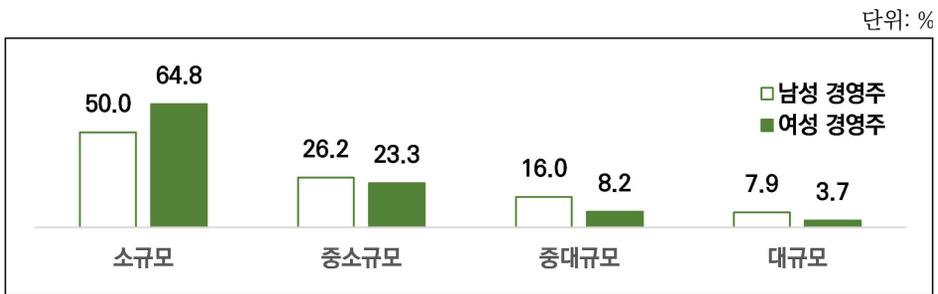
2.2.1. 영농규모

- 여성농업인의 평균 경지면적은 0.98ha로 남성농업인의 평균 경지면적 1.15ha 보다 0.17ha가 적다($t=-2.612, p<0.01$). 구간별로는⁴⁾ 소규모 농가가 58.6%,

중소규모 농가가 21.1%로 여성농업인이 속한 농가경영체의 79.7%가 중소농에 해당한다. 다만, 이 비율은 여성농업인이 속한 농가 전체의 경지면적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남성 배우자 혹은 가구원이 소유하거나 경작하는 면적을 포함한 것이어서 엄밀한 성별 비교로 보기는 어렵다.

○ 이에 따라 경영주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성별로 영농규모를 비교해보면, 여성이 경영주인 농가의 영농규모는 소규모인 비율이 64.8%로 가장 높다. 이는 남성 경영주 농가(50.0%)와 비교하여 14.8%p나 높은 수치이다($\chi^2=42.344$, $p<.001$).

〈그림 2-9〉 경영주 성별에 따른 영농규모



4) 영농유형별로 아래 표와 같이 영농규모 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복합영농의 경우 규모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하였다.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안석 외, 2018)에서는 영농규모를 5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조사결과 중대 및 대규모 농가 비율이 낮아 중대규모와 대규모를 '대규모 농가'로 합치고 중규모 농가를 중대규모로 하여 4개 구간으로 구분하였다.

〈영농유형별 영농규모 구분 기준표〉

	소규모	중소규모	중대규모	대규모
논	1ha 미만	1-3ha미만	3-5ha미만	5ha 이상
밭	0.3ha 미만	0.3-0.5ha 미만	0.5-1.5ha 미만	1.5ha 이상
과수	0.2ha 미만	0.2-0.7ha 미만	0.7-2.5ha 미만	2.5ha 이상
시설	0.2ha 미만	0.2-0.5ha 미만	0.5-2ha 미만	2ha 이상
한우	20	20-49	50-99	100
젖소	50	50-69	70-99	100
돼지	1000	1000-1999	2000-2999	3000이상
닭	2만 미만	2만-4만 미만	4만-8만 미만	8만 이상

자료: 안석 외(2018: 180)를 수정함.

○ 귀농 여부에 따른 여성농업인 영농규모의 차이는 없으나 연령과 농업경영체 지위에 따른 차이는 있었다.

- 50대와 60대 여성농업인은 중대규모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40대는 대규모 농가 비율, 70대 이상은 소규모 농가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chi^2=107.464$, $p<.001$).

- 농업경영체 지위를 막론하고 여성농업인의 영농규모는 소규모 중심이지만, 공동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중대규모 비율이 높다($\chi^2=26.652$, $p<.001$).

〈표 2-8〉 여성농업인의 영농규모: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소규모	중소규모	중대규모	대규모	χ^2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58.6	21.1	14.2	6.0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58.0	21.5	14.4	6.1	2.055
	여성 귀농인	244	100.0	62.9	18.3	13.1	5.7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51.6	21.9	12.3	14.2	107.464***
	50대	296	100.0	54.4	21.9	13.5	10.1	
	60대	821	100.0	50.0	25.0	19.7	5.3	
	70대 이상	761	100.0	70.7	16.5	8.9	3.9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64.8	23.3	8.2	3.7	26.652***
	공동경영주	554	100.0	57.6	19.1	16.1	7.3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56.3	21.3	16.0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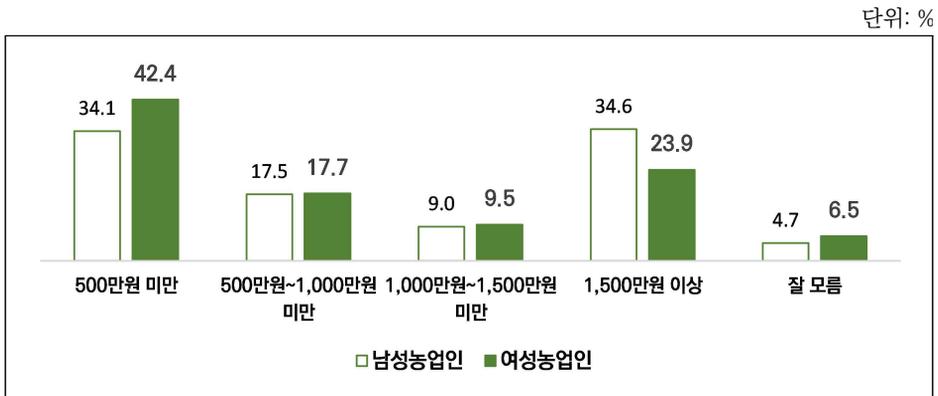
주: *** $p<.001$.

2.2.2. 농업소득

○ 여성농업인이 속한 농가경영체의 작년 한 해 연간 농업소득은 '500만 원 미만'(35.9%)과 '1,500만 원 이상'(32.3%)으로 이원화된 경향을 보였다. 응답 분포의 성별 차이는 없는데 남녀 각자의 농업소득이 아니라 농가의 농업소득이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 경영주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보면 성별에 따른 농업소득 분포의 차이는 크다. 여성 경영주의 농업소득은 '500만 원 미만'이 42.4%, '500만 원 ~ 1,000만 원 미만'이 17.7%로 나타나 같은 구간의 남성 경영주 응답값인 34.1%, 17.5%에 비해 저소득 구간의 비율이 높다($x^2=23.614$, $p<.001$).

〈그림 2-10〉 경영주 성별에 따른 농업소득



- 여성농업인의 연령, 가구형태, 농업경영체 지위에 따라 농업소득 분포의 차이가 있다.
 - 연령별로는 60대 이하의 전 연령층에서 1,500만 원 이상 소득 비율이 가장 높고 70대 이상은 500만 원 미만이 42.6%로 가장 높아 고령 여성농업인의 농업소득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x^2=115.771$, $p<.001$).
 - 1인가구 여성농업인의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에 몰려 있어(70.8%) 다인가구 여성보다 농업소득이 현저히 낮다($x^2=48.925$, $p<.001$).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인 여성은 둘 다 500만 원 미만(둘 다 42.4%) 비율이 가장 높고, 공동경영주 여성은 55.5%가 1,500만 원 이상의 농업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x^2=203.033$, $p<.001$).

〈표 2-9〉 여성농업인의 농업소득: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500만 원 미만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500만 원 이상	잘 모름	x ²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34.1	17.5	9.0	34.6	4.7	4.381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35.9	18.4	8.3	32.3	5.1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35.0	18.9	8.2	32.4	5.5	8.839
	여성 귀농인	244	100.0	42.4	14.3	8.8	31.7	2.7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31.8	16.7	4.3	35.7	11.5	115.771 ***
	50대	296	100.0	27.1	16.5	13.5	37.9	5.0	
	60대	821	100.0	33.5	15.4	6.7	41.0	3.5	
	70대 이상	761	100.0	42.5	22.6	8.7	20.3	5.9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42.4	17.7	9.5	23.9	6.5	203.033 ***
	공동경영주	554	100.0	18.7	14.8	6.9	55.5	4.0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42.4	20.7	8.5	23.3	5.1	
가구형태	1인가구	212	100.0	49.1	21.5	10.1	13.3	6.0	48.925 ***
	부부가구	1,345	100.0	35.1	18.1	7.4	35.0	4.4	
	2세대 이상/기타	446	100.0	32.0	17.8	10.2	33.2	6.8	

주: ***p<.001.

○ 한편, 전체 여성농업인의 5.1%는 농업소득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은 47.7%가 70대 이상, 57.0%가 부부가구, 66.0%가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나타나 고령 여성농업인이거나 남성이 경영주로 있는 농가경영체의 여성으로 짐작된다.

〈표 2-10〉 농업소득을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의 특성

단위: 명, %

농업 소득 모름 (전체)	귀농 여부		연령				농업경영체 지위			가구 형태		
	비귀농	귀농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경영주	공동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1인가구	부부가구	2세대 이상/기타
215	209	7	36	33	44	103	22	142	51	19	123	74
100.0	97.0	3.0	16.6	15.3	20.3	47.7	10.4	66.0	23.6	8.9	57.0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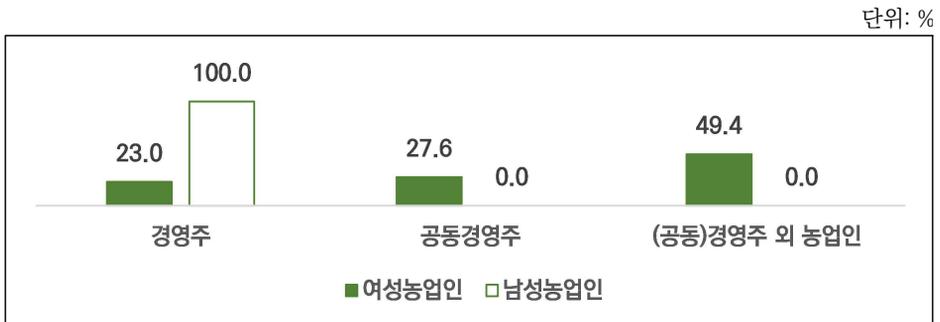
2.3. 농업경영체 내 여성농업인의 지위

2.3.1.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지위는 경영주가 23.0%, 공동경영주가 27.6%,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은 49.4%로 남성농업인 모두가 경영주인 것과 상이하다.

- 2022년 12월 말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남성농업인은 91.9%가 경영주이고, 1.7%가 공동경영주, 그 외 농업인이 6.4%이다.⁵⁾ 본 조사가 여성농업인이 속한 농업경영체가 모집단인 것을 고려할 때 여성과 함께 농사일을 하는 남성은 거의 모두가 경영주로 등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1〉 농업경영체 지위: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는 연령, 혼인상태, 가구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연령이 젊고, 배우자가 없거나, 1인가구인 경우 경영주 비율이 높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사별, 이혼 후 남성의 경영주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여성이 농업경영주가 되는 지배적 경로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모든 연령대에서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60대와 70

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 서비스 <https://uni.agrix.go.kr/docs7/biOlap/fix Type.do?reportId=report01>(검색일: 2023. 10. 2.)

대 이상에서 그 비율이 51%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고 50대는 공동경영주, 40대 이하는 경영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chi^2=25.438$, $p<.001$).

- 유배우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비율이 53.6%로 높고, 미혼/비혼 및 사별/이혼한 여성농업인은 경영주 비율이 현저히 높다($\chi^2=468.873$, $p<.001$). 혼자 사는 여성농업인의 대부분은 경영주(84.1%)이고, 부부가구와 그 외 가구형태에서는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이 절반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부부가구의 여성이 공동경영주인 비율이 33.4%로 다른세대/기타 가구보다 높다($\chi^2=539.312$, $p<.001$).

〈표 2-11〉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지위: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전체		경영주	공동경영주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χ^2
		N	비율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22.5	27.9	49.6	1.794
	여성 귀농인	244	100.0	26.4	25.8	47.8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32.2	24.9	42.8	25.438***
	50대	296	100.0	29.1	30.2	40.7	
	60대	821	100.0	19.1	29.7	51.2	
	70대 이상	761	100.0	23.2	25.0	51.9	
혼인 상태	미혼/비혼	11	100.0	58.5	23.8	17.7	468.873***
	유배우	1,713	100.0	14.7	31.7	53.6	
	사별/이혼 등	279	100.0	72.4	3.0	24.7	
가구 형태	1인가구	212	100.0	84.1	2.8	13.1	539.312***
	부부가구	1,345	100.0	12.6	33.4	54.0	
	2세대 이상/기타	446	100.0	25.2	22.2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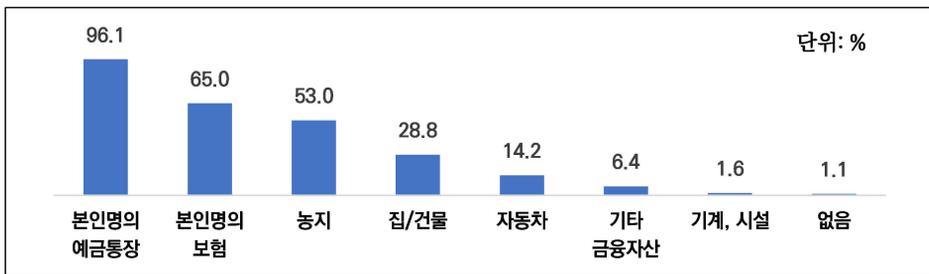
주: *** $p<.001$.

2.3.2. 여성농업인의 자산 보유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가진 여성농업인의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 자산 종류로는 ‘본인명의 예금통장’이 96.1%로 가장 높고, ‘본인명의 보험(65.0%)’, ‘농지(53.0%)’, ‘집/건물(28.8%)’, ‘자동차(14.2%)’, ‘기타 금융자산(6.4%)’, ‘기계/시설(1.6%)’ 순으로 나타났다.

- 여성농업인의 자산 현황에서 특히 이슈가 되는 농지는 절반 이상의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 귀농인(62.8%)과 경영주 여성(71.7%)의 농지 소유 비율이 평균보다 10%p~20%p 이상 높다.
- 농지 외 집/건물의 부동산 소유 비율은 28.8%로 높지 않지만 경영주 여성은 51.5%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다른 여성들에 비해 경제적 주도권이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농)기계/시설 소유 비율은 1.6%로 매우 낮고 농업 생산과 경영을 대표한다는 경영주 여성도 4.0%로 소유 비율이 낮아, 기계에 대한 여성 접근성은 거의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2〉 여성농업인의 자산 보유 현황(중복응답)



주: 중복응답 결과를 사례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음.

〈표 2-12〉 여성농업인의 자산 보유 현황(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구분	전체		본인명의 예금통장	본인 명의 보험	농지	집/건물	자동차	기타 금융 자산	기계/시설	소유 자산 없음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96.1	65.0	53.0	28.8	14.2	6.4	1.6	1.1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96.3	63.2	51.7	28.1	13.2	6.9	1.6	1.2
	여성 귀농인	244	100.0	94.6	77.3	62.8	33.4	21.1	2.9	1.5	0.1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95.6	61.5	71.7	51.5	22.1	5.9	4.0	0.2
	공동경영주	554	100.0	97.8	67.5	53.9	28.9	15.5	8.7	1.8	1.0
지위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95.3	65.1	43.8	18.2	9.7	5.3	0.4	1.6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94.2	78.8	47.2	32.1	39.9	12.0	6.2	1.7
	50대	296	100.0	96.3	83.6	60.4	33.6	30.8	7.4	2.7	1.1
	60대	821	100.0	96.7	75.8	52.5	24.9	15.8	9.1	1.0	0.6
	70대 이상	761	100.0	95.6	43.8	51.6	30.6	1.7	2.2	1.1	1.6

주: 중복응답 결과를 사례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음.

3

경제·사회 활동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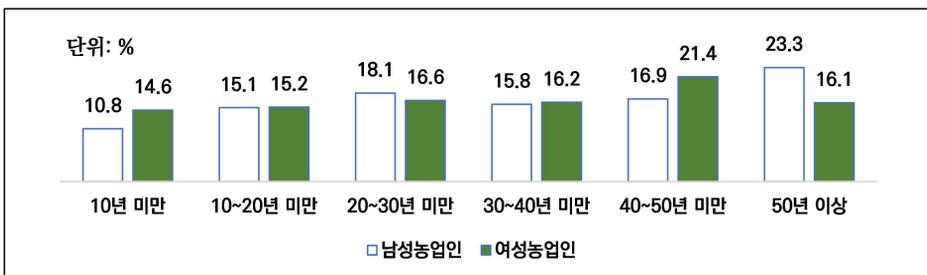
1. 영농 활동

1.1. 농업 종사 기간

○ 여성농업인의 농업 종사 기간은 평균 29.4년으로, 남성농업인(31.6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짧다($t=-4.237, p<.001$).

- 구간별로 살펴보면 여성농업인은 40~50년 미만 종사한 비율(21.4%)이 가장 높고 남성농업인은 20~30년 미만 종사한 비율(18.1%)이 가장 높다.

〈그림 3-1〉 농업 종사 기간: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의 농업 종사 기간은 귀농 여부, 농업경영체 지위, 연령, 농업소득 수준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 비귀농 여성농업인(31.8년),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30.4년)의 농업 종사 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농업 종사 기간이 길다.
- 농업소득을 모른다고 답한 집단의 농업 종사 기간(24.8년)이 가장 짧고 그 다음으로 가장 소득이 낮은 500만 원 미만(28.7년)과 가장 소득이 높은 구간인 1,500만 원 이상(28.6년)의 농업 종사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표 3-1〉 여성농업인의 농업 종사 기간: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년

구분	전체		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50년 미만	50년 이상	평균	t / F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10.8	15.1	18.1	15.8	16.9	23.3	31.6	-4.237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14.6	15.2	16.6	16.2	21.4	16.1	29.4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9.7	13.4	17.4	17.0	24.2	18.2	31.8	26.417
	여성 귀농인	244	100.0	49.8	27.8	10.7	10.0	0.8	0.9	12.2	***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18.8	20.0	15.7	13.4	12.1	20.0	27.6	4.139*
	공동경영주	554	100.0	13.2	8.2	20.7	25.0	24.5	8.5	29.0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13.5	16.9	14.7	12.5	23.9	18.6	30.4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52.7	41.8	2.9	2.6	0.0	0.0	9.2	731.564 ***
	50대	296	100.0	33.8	29.3	20.3	14.3	2.3	0.0	15.5	
	60대	821	100.0	12.7	15.6	23.7	23.3	22.7	2.0	25.9	
	70대 이상	761	100.0	2.9	4.9	9.7	11.5	30.9	40.3	41.9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18.9	16.0	17.0	9.8	18.7	19.6	28.7	5.994 ***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100.0	11.4	14.1	10.9	16.6	27.6	19.4	32.1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100.0	12.0	13.8	13.9	15.8	16.8	27.8	32.6	
	1,500만 원 이상	647	100.0	10.1	14.1	22.1	24.2	21.5	7.9	28.6	
	잘 모름	103	100.0	28.6	22.4	3.2	9.3	24.0	12.6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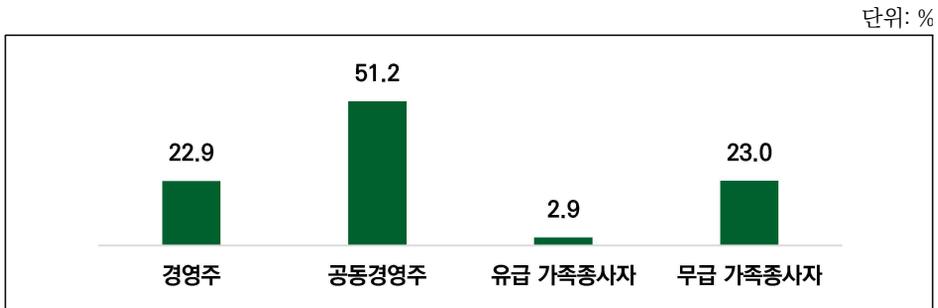
주: *p<.05, ***p<.001

1.2. 직업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

○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와 여성농업인들의 주관적 직업 지위는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51.2%는 자신을 공동경영주로, 23.0%는 무급 가족종사자로, 22.9%는 경영주라고 인식하고 있다.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는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49.4%, 공동경영주 27.6%, 경영주 23.0%이다(〈그림 2-10〉 참조).

〈그림 3-2〉 여성농업인의 주관적 직업 지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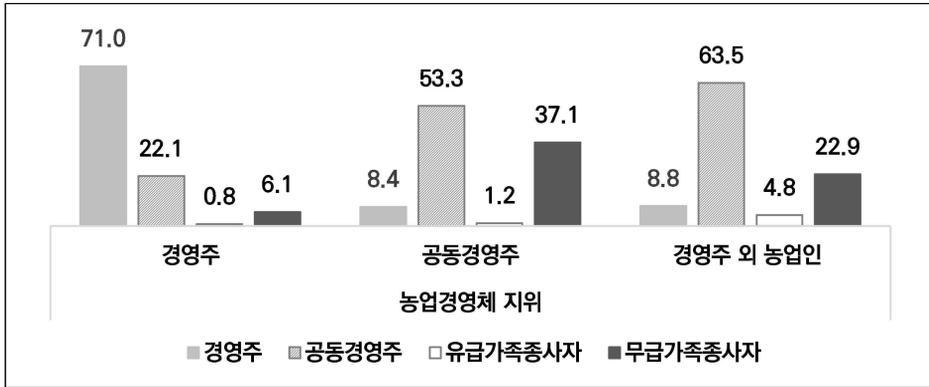


○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와 주관적 지위 인식의 불일치가 큰 경우는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이고,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들의 주관적 지위 인식도 등록 지위와 상당히 불일치한다($\chi^2=832.497$, $p<.001$). 이와 같은 차이는 제도적 지위와 실제 역할 및 권한의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가 경영주인 여성농업인의 22.1%는 자신을 공동경영주라고 인식하며, 6.1%는 무급가족종사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여성농업인의 37.1%는 자신을 무급가족종사자라고 인식하며 8.4%는 경영주라고 인식하고 있다.
-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한 여성농업인의 63.5%는 자신을 공동경영주로, 8.8%는 경영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3-3〉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별 주관적 직업 지위 인식

단위: %



○ 여성농업인이 인식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는 연령과 영농규모, 농업소득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 경영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는 여성농업인은 40대 이하(31.1%)에서 가장 많았으며, 70대 이상(26.5%), 50대(20.5%), 60대(19.3%)의 순이었다. 50대와 6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신을 공동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chi^2=42.323$, $p < .001$).
- 영농규모가 작을수록 자신을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소규모 농가(25.1%)와 중소규모 농가(24.2%)의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는 비율이 중대규모 및 대규모 농가보다 높다. 대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자신을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7.2%로 매우 낮고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38.0%로 높다($\chi^2=50.833$, $p < .001$).
- 영농규모와 마찬가지로 농업소득이 낮을수록 자신을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농업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들은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는 비율이 33.0%, 33.9%로 다른 소득 집단에 비해 10%p 이상 높다($\chi^2=96.844$, $p < .001$).

〈표 3-2〉 여성농업인의 주관적 직업 지위: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제		경영주	공동 경영주	유급 가족종사자	무급 가족종사자	χ ²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22.9	51.2	2.9	23.0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23.2	51.0	3.0	22.8	0.967
	여성 귀농인	244	100.0	20.9	52.5	2.4	24.2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31.1	42.6	1.5	24.8	42.323 ***
	50대	296	100.0	20.5	60.2	1.4	17.9	
	60대	821	100.0	19.3	55.7	2.7	22.3	
	70대 이상	761	100.0	26.5	44.2	3.9	25.4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25.1	50.0	1.9	23.0	50.833 ***
	중소규모	423	100.0	24.2	51.6	4.4	19.9	
	중대규모	285	100.0	19.1	53.9	5.9	21.1	
	대규모	121	100.0	7.2	54.3	0.5	38.0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27.3	55.8	2.9	14.0	96.844 ***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100.0	23.9	51.8	4.4	19.9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100.0	25.0	45.4	6.5	23.1	
	1,500만 원 이상	647	100.0	17.3	48.3	1.5	33.0	
	잘 모름	103	100.0	21.3	44.2	0.6	33.9	

주: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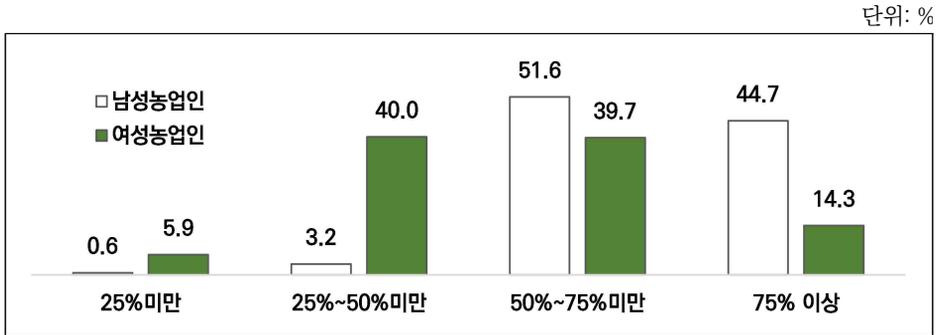
1.3. 농사일 참여 현황

1.3.1. 농사일 담당 비중

○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전체 중 평균 50.2%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남성농업인(73.3%)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었다($t=-37.082$, $p<.001$).

- 농사일 담당 비중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여성농업인은 25%~50% 미만과 50~75% 미만을 담당한다는 비율이 40.0%, 39.7%로 나타나 남성농업인의 51.6%가 50~75% 미만을 담당한다는 결과와 차이가 있다.

〈그림 3-4〉 농업일 담당 비중: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의 평균적인 농사일 담당 비중은 농업경영체 지위, 연령, 영농규모, 농업소득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 여성 귀농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56.6%)이 비귀농 여성농업인(49.3%)보다 많다($t = -4.384, p < .001$).
 - 경영주 여성농업인이 농사일의 69.5%를 담당하여, 공동경영주(45.0%)와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44.1%)보다 농사일 담당 비중이 많다($F = 182.709, p < .001$).
 - 50대의 농사일 담당 비중(55.4%)이 다른 연령대보다 많고, 40대 이하는 46.2%의 농사일을 담당한다고 하여 가장 농사일 비중이 적다($F = 8.769, p < .001$).
 - 영농규모가 소규모인 농가가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농사일 비중이 51.6%로 가장 높지만 중소규모 및 중대규모 농가와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대규모 농가는 여성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42.9%로 적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 = 11.158, p < .001$).
 - 농업소득도 영농규모처럼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높다. 여성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가장 큰 집단은 500만 원 미만(52.9%)이고 농업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인 집단은 그보다 여성농

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이 적다. 그러나 농업소득 간 차이보다 농업소득을 모른다고 응답한 집단의 농사일 비중(44.8%)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적다($F=5.277, p<.001$).

〈표 3-3〉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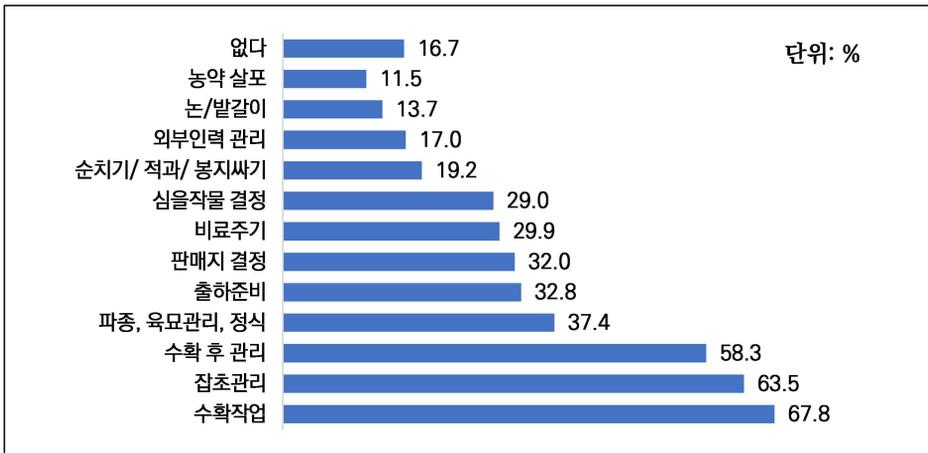
구분	전체		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 이상	평균	t / F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0.6	3.2	51.6	44.7	73.3	-37.082 ***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5.9	40.0	39.7	14.3	50.2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6.0	41.8	39.2	13.0	49.3	-4.384 ***
	여성 귀농인	244	100.0	5.3	27.0	43.8	23.8	56.6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2.3	19.0	34.1	44.7	69.5	182.709 ***
	공동경영주	554	100.0	4.0	53.3	36.4	6.3	45.0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8.7	42.4	44.2	4.7	44.1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13.4	37.7	34.3	14.5	46.2	8.769 ***
	50대	296	100.0	4.7	31.6	44.1	19.6	55.4	
	60대	821	100.0	3.8	41.7	45.9	8.6	48.3	
	70대 이상	761	100.0	7.4	41.9	32.4	18.4	50.8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6.1	41.2	34.3	18.4	51.6	11.158 ***
	중소규모	423	100.0	4.0	40.0	45.0	10.9	49.5	
	중대규모	285	100.0	6.9	33.2	52.1	7.8	48.2	
	대규모	121	100.0	8.6	44.8	44.8	1.8	42.9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7.7	29.9	44.0	18.4	52.9	5.277 ***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100.0	7.7	44.4	33.5	14.3	48.2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100.0	4.4	41.1	40.0	14.4	51.0	
	1,500만 원 이상	647	100.0	3.6	45.7	40.2	10.4	48.9	
	잘 모름	103	100.0	4.3	57.1	28.6	10.0	44.8	

주: *** $p<.001$.

1.3.2. 여성농업인이 50% 이상 담당 농작업 종류

○ 여성농업인이 50% 이상 담당하는 농작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종류는 ‘수확 작업’(67.8%)이었으며, ‘잡초관리’(63.5%), ‘수확 후 관리’(58.3%), ‘파종, 육묘관리, 정식’(37.4%) 등의 순이었다. 주로 손노동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작업에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투입 비중이 높다.

〈그림 3-5〉 여성농업인이 50% 이상 담당하는 농작업 종류(중복응답)



주: 중복응답 결과를 사례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음.

○ 여성농업인이 50% 이상 담당하는 농사일의 종류를 귀농 여부, 농업경영체 지위, 연령, 영농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역시,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한 작업은 ‘수확작업’으로 나타났다.

- 경영주 여성농업인은 다른 여성에 비해 판매지 결정, 작물 선택, 외부인력 관리 등 농업생산 결정과 관련한 일을 50% 이상 담당한다는 응답률이 높다.
- 50% 이상 담당하는 농작업이 없다는 응답은 공동경영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4〉 여성이 50% 이상 담당 농작업 종류(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수확 작업	잡초 관리	수확 후 관리	판매지 결정	파종/ 육묘 관리/ 정식	출하 준비	비료 주기	심을 작물 결정	외부 인력 관리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67.8	63.5	58.3	32.0	37.4	32.8	29.9	29.0	17.0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65.9	62.1	56.6	32.0	36.7	32.4	30.2	28.4	16.3
	여성 귀농인	244	100.0	80.9	74.2	70.8	31.7	43.0	36.0	27.6	33.2	22.0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76.9	68.9	66.4	51.0	45.8	39.5	45.2	42.6	30.1
	공동경영주	554	100.0	60.2	62.4	50.3	24.6	29.2	26.9	21.8	13.7	13.9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67.7	61.6	59.1	27.2	38.1	33.1	27.2	31.3	12.6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65.9	45.2	47.6	27.9	34.7	37.1	20.8	19.2	20.3
	50대	296	100.0	77.3	70.3	62.9	30.9	38.3	31.8	32.1	28.4	19.9
	60대	821	100.0	68.5	61.1	60.2	35.6	37.0	33.4	28.9	28.3	15.3
	70대 이상	761	100.0	63.5	66.5	56.3	29.1	38.0	32.0	31.5	31.6	17.0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69.3	63.3	57.6	36.2	37.1	30.8	29.7	33.9	16.2
	중소규모	423	100.0	67.2	67.3	61.4	22.5	41.9	35.2	30.7	25.2	16.1
	중대규모	285	100.0	66.7	63.0	60.9	31.6	38.7	37.1	30.9	19.2	18.5
	대규모	121	100.0	56.7	54.1	49.0	24.7	21.7	34.7	25.9	17.7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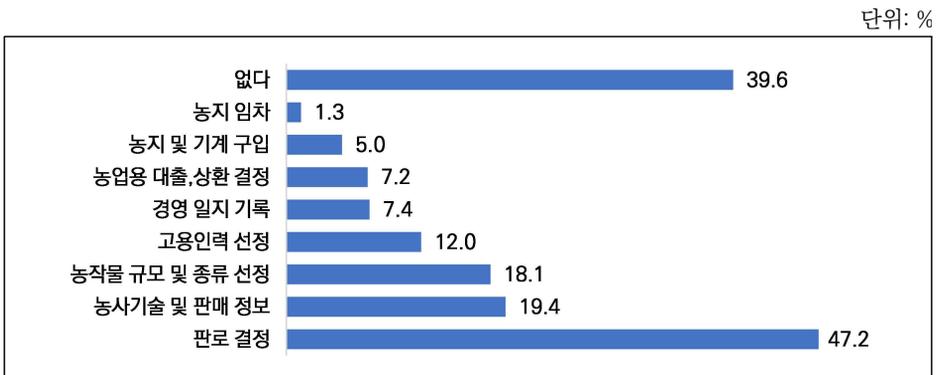
구분	전체		논/밭 같이	순치기 /적과/ 봉지 싸기	농약 살포	방역 위생 관리	축산 먹이 주기	기타 사육 관리	축사 청소 퇴비 처리	착유	없음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13.7	19.2	11.5	0.7	1.1	0.5	0.4	0.0	16.7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14.3	19.3	11.6	0.6	1.2	0.5	0.4	0.0	18.2
	여성 귀농인	244	100.0	9.9	18.6	11.1	1.3	0.1	0.3	0.1	0.0	6.3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28.1	22.3	24.6	1.8	0.9	0.8	0.7	0.1	7.4
	공동경영주	554	100.0	10.8	16.1	7.7	0.5	1.4	0.6	0.5	0.0	24.8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8.7	19.4	7.6	0.3	1.0	0.4	0.1	0.0	16.5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14.3	23.5	10.9	1.7	1.7	1.7	0.5	0.0	16.5
	50대	296	100.0	10.9	21.4	10.0	2.2	1.6	1.0	1.5	0.1	12.2
	60대	821	100.0	10.7	22.3	9.2	0.4	1.2	0.2	0.1	0.0	17.1
	70대 이상	761	100.0	18.0	14.2	14.7	0.3	0.6	0.5	0.1	0.0	18.1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15.8	12.3	11.3	0.2	0.3	0.1	0.1	0.0	17.8
	중소규모	423	100.0	9.7	29.7	10.6	0.9	0.7	0.7	0.4	0.1	15.3
	중대규모	285	100.0	14.3	28.2	14.2	0.8	3.5	1.4	0.4	0.0	12.1
	대규모	121	100.0	6.6	28.1	10.4	4.2	4.1	1.5	2.7	0.0	21.7

주 1) 중복응답 결과를 사례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음.
 2)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1.3.3. 여성농업인이 50% 이상 담당하는 경영일 종류

- 여성농업인이 50% 이상 담당하는 경영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작업은 ‘판로결정’(47.2%)이었으며, ‘농사기술 및 판매 정보’(19.4%), ‘농작물 규모 및 종류 선정’(18.1%), ‘고용인력 선정’(12.0%) 등의 순이었다.
- 대출과 상환 결정, 농지 및 기계 구입, 농지 임차 결정에서 여성이 50% 이상 역할한다는 응답 비율은 10% 이하로 낮다. 재배 및 생산 결정에는 여성의 참여율이 높지만 자금, 농지, 기계 관련한 경영 결정은 남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0% 이상 담당하는 경영일이 없다는 응답 비율도 39.6%에 달했다. 농작업에서 여성이 50% 이상을 담당하는 일이 없다는 응답 비율(16.7%)과 비교하면 (<그림 3-5>), 여성은 농사일에는 주력 노동력으로 참여하지만 농업경영에는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여성농업인이 50% 이상 담당하는 경영일(중복응답)



주: 중복응답 결과를 사례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음.

- 여성농업인이 50% 이상 담당하는 경영일의 종류를 귀농 여부, 농업경영체 지위, 연령, 영농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판로 결정’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 이상 담당하는 경영일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 경영주 여성농업인은 모든 경영일 종류에서 50% 이상 담당한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 더 높다. 그러나 경영주 여성일지라도 농지와 기계 관련한 경영일을 50% 이상 담당하는 비율은 낮다.
-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농사 기술 및 판매정보’(31.4%), ‘대출 및 상환 결정’(16.0%), ‘농지 및 기계 구입’(10.3%)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업 경영일의 종류가 다른 연령대보다는 다양한 편이다. 동시에 ‘50% 이상 담당 경영일이 없다’(47.1%)는 응답률도 높아 40대 이하 여성의 농업 경영 참여도 이질성이 다른 연령대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 영농규모가 대규모인 농가의 여성농업인 ‘50% 이상 담당하는 경영일이 없다’는 응답이 44.9%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표 3-5〉 여성이 50% 이상 담당 경영일(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판로 결정	농사 기술, 판매 정보	농작물 규모, 종류 선정	고용 인력 선정	농업용 대출/상환 결정	경영일지 기록	농지 및 기계 구입	농지 임차	없음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47.2	19.4	18.1	12.0	7.2	7.4	5.0	1.3	39.6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45.6	19.5	17.2	12.2	6.7	7.0	5.2	1.4	41.1
	여성 귀농인	244	100.0	58.7	19.2	24.6	10.3	10.8	10.3	3.1	0.6	29.0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67.6	36.7	30.3	18.8	16.0	15.8	8.5	2.4	20.4
	공동경영주	554	100.0	40.0	16.6	11.0	8.3	3.8	7.8	7.3	0.1	39.7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41.8	13.0	16.5	10.8	5.0	3.3	2.0	1.5	48.5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42.0	31.4	15.9	14.3	16.0	9.1	10.3	1.2	47.1
	50대	296	100.0	61.3	23.0	20.4	12.6	11.7	11.6	3.6	3.0	30.2
	60대	821	100.0	46.7	18.3	16.6	12.6	4.8	8.8	3.5	1.1	37.8
	70대 이상	761	100.0	43.1	17.3	19.2	10.7	6.7	3.9	6.1	0.9	44.0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48.7	17.3	19.2	9.2	5.1	4.9	4.8	1.1	41.9
	중소규모	423	100.0	46.4	23.4	17.0	13.4	9.8	7.7	4.5	1.2	38.9
	중대규모	285	100.0	47.7	22.6	17.3	16.7	11.1	16.7	7.0	1.9	28.9
	대규모	121	100.0	34.4	19.3	13.9	22.9	9.8	8.8	3.4	2.9	44.9

주 1) 중복응답 결과를 사례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가 100%를 넘을 수 있음.

2)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1.4.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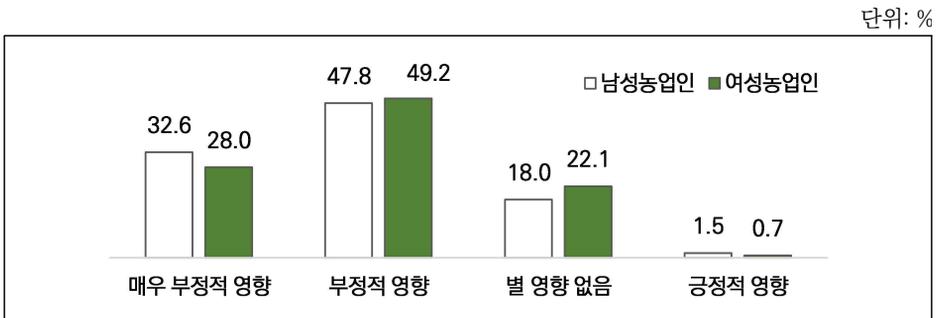
1.4.1.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

가) 농업생산에 대한 영향

○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 모두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남성농업인의 인식이 더 부정적이었다($t=3.095, p<.01$).

-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매우 부정적 +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여성농업인 77.2%, 남성농업인 80.4%이다.

〈그림 3-7〉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이 인식한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귀농 여부, 연령, 농업소득에 따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매우)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여성 귀농인의 비율은 79.9%로 비귀농 여성농업인(76.8%)과 비교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t=2.480, p<.05$).
- 농업경영체 지위의 경우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83.0%)이 경영주(77.7%)나 공동경영주(66.3%)보다($F=32.585, p<.001$),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

대에서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매우)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고(각각 80.1%, 80.7%), 70대 이상은 ‘별 영향이 없다’는 응답(27.4%)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F=5.403, p<.01).

- 농업소득의 경우,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매우)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농업소득을 잘 모른다고 답한 집단(97.3%), 1천만 원~1천5백만 원 미만(87.8%)에서 높게 나타났다(F=47.796, p<.001).

〈표 3-6〉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인식: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매우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긍정적 영향	평균	t / F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32.6	47.8	18.0	1.5	1.89	3.095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28.0	49.2	22.1	0.7	1.96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26.8	50.0	22.5	0.8	1.97	2.480	
	여성 귀농인	244	100.0	36.2	43.7	19.5	0.6	1.85		*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30.7	47.0	22.0	0.3	1.92	32.585	
	공동경영주	554	100.0	18.8	47.5	32.5	1.2	2.16		***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31.8	51.2	16.4	0.6	1.86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39.9	38.9	20.0	1.1	1.82	5.403	
	50대	296	100.0	37.4	42.7	19.0	0.9	1.83		**
	60대	821	100.0	23.4	57.3	18.7	0.6	1.96		
	70대 이상	761	100.0	27.2	44.6	27.4	0.8	2.02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27.8	53.1	17.8	1.3	1.93	47.796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100.0	26.7	49.7	23.3	0.3	1.97		***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100.0	30.8	57.0	12.0	0.2	1.82		
	1,500만 원 이상	647	100.0	21.2	46.3	31.8	0.6	2.12		
	잘 모름	103	100.0	71.4	25.9	2.8	0.0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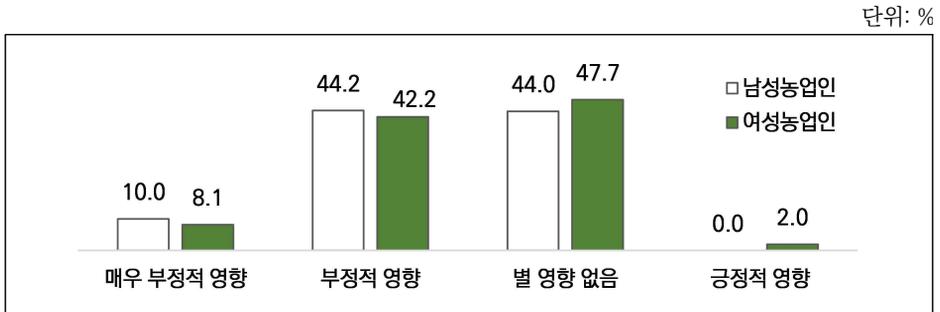
주: *p<.05, **p<.01, ***p<.001.

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영향

○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 모두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남성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보다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t=2.823, p<.01$).

- 기후변화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매우 부정적 +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여성농업인 50.3%, 남성농업인 54.2%였다.

〈그림 3-8〉 기후변화가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이 인식한 기후변화가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귀농 여부, 농업경영체 지위, 연령, 농업소득에 따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매우)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여성 귀농인의 비율은 64.3%로, 비귀농 여성농업인(48.4%)과 비교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t=5.915, p<.001$).
- 농업경영체 지위의 경우,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경영주 외 농업인(54.1%), 경영주(53.3%), 공동경영주(41.2%)의 순이었다. 사후검정 결과, 공동경영주와 그 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2.391, p<.001$).
- 연령의 경우 50대(58.4%)에서 기후변화가 신체적 건강에 더 (매우)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50대는 40대 이하와 60대보

다, 40대 이하와 60대는 70대 이상과 비교하여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F=3.151, p<.05).

- 농업소득의 경우 기후변화가 신체적 건강에 (매우)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농업소득을 잘 모른다고 답한 집단이 86.1%로 가장 높고, 1,500만 원 미만까지는 농업소득이 높을수록 신체 건강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아졌으나, 1,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57.2%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집단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F=24.383, p<.001).

〈표 3-7〉 기후변화가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식: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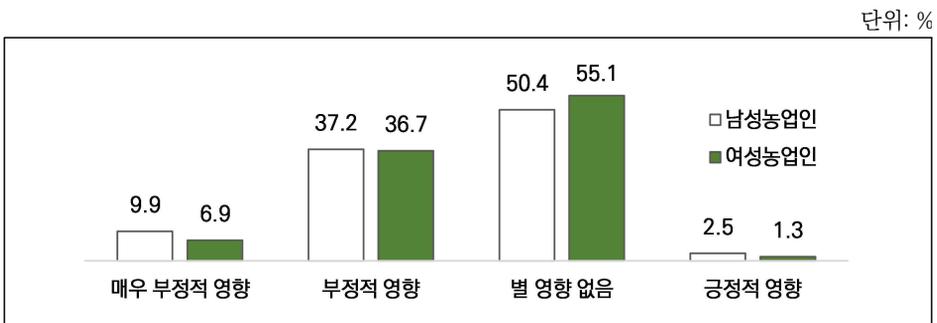
구분	전체		매우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긍정적 영향	평균	t / F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10.0	44.2	44.0	1.9	2.38	2.823 **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8.1	42.2	47.7	2.0	2.43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7.0	41.4	49.4	2.2	2.47	5.915 ***
	여성 귀농인	244	100.0	16.3	48.0	35.1	0.5	2.20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7.2	46.1	45.4	1.2	2.41	22.391* **
	공동경영주	554	100.0	3.0	38.2	56.3	2.6	2.58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11.4	42.7	43.9	2.0	2.36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7.8	43.3	49.0	0.0	2.41	3.151 *
	50대	296	100.0	7.8	50.6	41.2	0.4	2.34	
	60대	821	100.0	7.5	43.0	48.3	1.2	2.43	
	70대 이상	761	100.0	9.0	37.9	49.3	3.7	2.48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14.3	35.7	46.3	3.7	2.40	24.383* **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100.0	6.2	46.3	47.1	0.4	2.42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100.0	3.5	52.6	38.8	5.1	2.45	
	1,500만 원 이상	647	100.0	3.0	39.4	57.2	0.4	2.55	
	잘 모름	103	100.0	12.0	74.1	13.9	0.0	2.02	

주: *p<.05, **p<.01, ***p<.001.

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영향

○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 모두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정신적 건강에 별 영향이 없거나(여성 55.1%, 남성 50.4%),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여성 43.6%, 남성 47.1%)으로 인식하였으며, 남성농업인이 다소 더 비판적이었다($t=2.675, p<.01$).

〈그림 3-9〉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이 인식한 기후변화가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귀농 여부, 농업경영체 지위, 농업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고, 연령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 (매우)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여성 귀농인의 비율은 61.3%로, 비귀농 여성농업인(41.1%)과 비교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t=6.486, p<.001$).
- 농업경영체 지위의 경우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경영주 외 농업인(49.2%)이고, 경영주(43.7%), 공동경영주(33.4%) 순으로 부정적 인식 비율이 낮다. 사후검정 결과 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F=24.823, p<.001$).
- 농업소득의 경우 기후변화가 정신적 건강에 (매우)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농업소득을 잘 모른다고 답한 집단이 76.8%로 가장 높

았고, 1천 5백만 원 이상에서는 33.4%로 가장 낮았다. 그 외 소득 구간의 부정적 인식 비율은 평균 응답비율(47.1%)과 유사하다(F=22.076, p<.001).

〈표 3-8〉 기후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식: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매우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별 영향 없음	긍정적 영향	평균	t / F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9.9	37.2	50.4	2.5	2.45	2.675 **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6.9	36.7	55.1	1.3	2.51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5.5	35.6	57.5	1.4	2.55	6.486 ***
	여성 귀농인	244	100.0	16.7	44.6	37.8	0.9	2.23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6.2	37.5	54.8	1.5	2.52	24.823* **
	공동경영주	554	100.0	3.0	30.4	65.1	1.5	2.65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9.3	39.9	49.6	1.2	2.43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5.6	35.9	57.4	1.1	2.54	2.594
	50대	296	100.0	8.9	40.6	49.9	0.6	2.42	
	60대	821	100.0	6.7	38.0	53.4	1.9	2.51	
	70대 이상	761	100.0	6.4	34.0	58.6	1.0	2.54	
농업 소득	500만원 미만	719	100.0	13.1	32.1	53.4	1.4	2.43	22.076* **
	500만원~1,000만원 미만	368	100.0	3.8	42.7	52.6	0.8	2.50	
	1,000만원~1,500만원 미만	166	100.0	4.4	44.5	45.5	5.6	2.52	
	1,500만원 이상	647	100.0	3.0	30.4	65.9	0.6	2.64	
	잘 모름	103	100.0	2.5	74.3	23.1	0.0	2.21	

주: **p<.01, ***p<.001.

1.4.2.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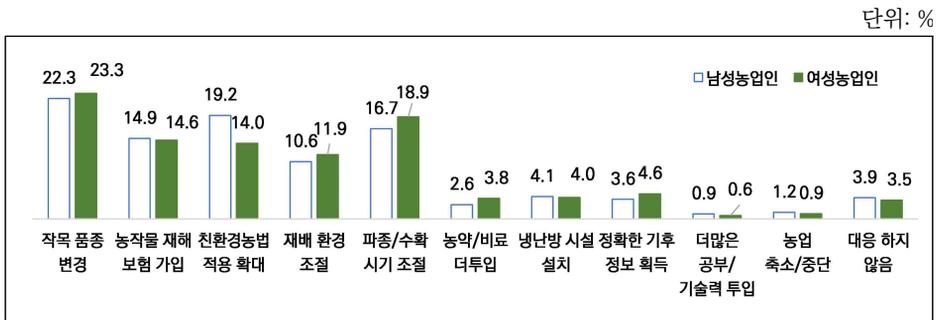
가) 농업생산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 여성농업인의 96.5%는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생산 조절 등의 대응 활동을 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하고 있거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방안은 ‘작목 품종 변경’(23.3%)이며, ‘파종/수확 시기 조절’(18.9%),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14.6%), ‘친환경 농법 적용 확대’(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냉난방 설치, 기후 정보 획득, 더 많은 공부와 기술력 투입 등은 극히 일부의 여성농업인만 행하고 있었고, 농업을 축소/중단하는 일은 거의 없다.

- 남성농업인 역시 '작목 품종 변경'(22.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그다음으로 '친환경 농법 적용 확대'(19.2%), '파종/수확 시기 조절'(16.7%),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1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chi^2=25.929$, $p<.01$).

〈그림 3-10〉 농업생산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방안(1순위):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1순위는 집단 간 차이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귀농 여부, 농업경영체 지위, 영농규모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작목 품종 변경'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연령별로는 가장 응답률이 높은 항목이 다르다.

- 귀농 여부와 무관하게 1순위 대응으로 '작목 품종 변경'이 가장 높지만, 비귀농 여성농업인 (22.2%)보다 여성 귀농인(30.5%)의 응답이 더 높다($\chi^2=46.703$, $p<.001$).
- 농업경영체 지위 유형 모두에서 '작목 품종 변경'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공동경영주 여성의 응답률(25.7%)이 다른 집단보다 높고,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은 '파종 및 수확 시기 조절'(20.9%) 응답률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chi^2=38.044$, $p<.01$).

- 연령에 따라 가장 응답률이 높은 대응 방안이 다르다. 40대 이하는 '재배 환경 조절'(25.6%), 50대와 70대 이상 여성농업인은 '파종/수확 시기 조절'(50대 20.8%, 70대 이상 22.3%), 60대는 '작목 품종 변경'(29.3%)을 가장 많이 꼽았다($x^2=110.617$, $p<.001$).
- 영농규모별로도 모든 집단에서 '작목 품종 변경'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소규모 농가와 대규모 농가는 '파종, 수확 시기 조절'(소규모 20.2%, 대규모 19.8%) 응답률이 그에 못지 않게 높다. 또한 중소규모와 중대규모 농가는 다른 집단에 비해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응답률(중소규모 17.1%, 중대규모 18.8%)이 상대적으로 높다($x^2=72.954$, $p<.001$).

〈표 3-9〉 농업생산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방안(1순위):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작목 품종 변경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친환경 농법 적용 확대	재배 환경 조절	파종 수확 시기 조절	농약 비료 추가 투입	냉 난방 시설 설치	정확한 기후 정보 획득	더 많은 공부·기술 투입	농업 축소 중단	대응 하지 않음	x^2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411	100.0	22.3	14.9	19.2	10.6	16.7	2.6	4.1	3.6	0.9	1.2	3.9	25.929	
여성농업인(전체)	1553	100.0	23.3	14.6	14.0	11.9	18.9	3.8	4.0	4.6	0.6	0.9	3.5	**	
귀농 여부	비귀농	1355	100.0	22.2	15.1	14.6	11.6	19.2	4.1	4.3	4.5	0.2	1.0	3.1	46.703
	귀농	198	100.0	30.5	10.7	10.0	14.1	17.1	1.4	1.6	5.6	3.0	0.3	5.7	***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363	100.0	20.9	12.3	17.1	11.1	17.7	3.5	3.9	6.4	0.8	1.2	5.0	38.044
	공동경영주	367	100.0	25.7	13.4	17.4	13.8	15.8	4.5	3.1	2.5	0.9	1.4	1.6	
	경영주 외 농업인	823	100.0	23.2	16.1	11.1	11.4	20.9	3.6	4.3	4.8	0.4	0.6	3.6	
연령	40대 이하	100	100.0	19.2	12.7	11.1	25.6	9.8	2.8	8.8	8.2	0.7	0.0	1.1	110.617
	50대	240	100.0	15.8	17.9	17.9	7.7	20.8	3.0	6.6	3.1	1.8	0.7	4.8	
	60대	665	100.0	29.3	15.8	13.3	11.7	16.9	2.3	2.7	4.7	0.6	0.5	2.3	
	70대 이상	548	100.0	19.9	12.0	13.7	11.4	22.3	6.1	3.5	4.6	0.0	1.7	4.8	
영농 규모	소규모	881	100.0	20.8	12.5	15.4	12.4	20.2	5.1	2.6	5.3	0.5	1.4	3.7	72.954
	중소규모	345	100.0	30.0	17.1	12.7	11.1	17.6	0.7	4.6	2.5	0.3	0.5	2.9	
	중대규모	224	100.0	23.9	18.8	11.3	10.5	15.8	3.1	7.2	4.1	0.4	0.3	4.6	
	대규모	103	100.0	20.5	14.4	11.7	13.0	19.8	4.4	6.1	7.3	2.5	0.0	0.3	

주 1)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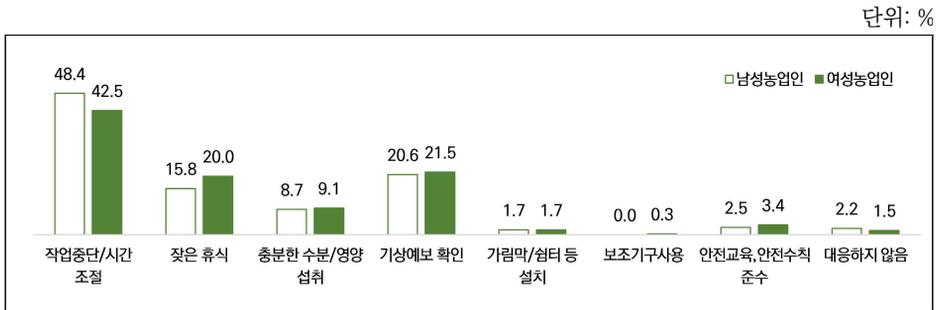
2) ** $p<.01$, *** $p<.001$.

나) 건강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 여성농업인이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거나 가장 관심 있는 대응 방안 1순위는 ‘폭염·폭우 시 작업중단/작업시간 조절’(42.5%)이었으며, ‘기상예보 확인’(21.5%), ‘젖은 휴식 시간 갖기’(20.0%) 등의 순이었다. 쉼터, 보조기구 등 안전 설비, 안전교육 수강 및 수칙 준수는 거의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농업인이 많이 활용하거나 관심을 갖는 대응 방안도 여성농업인과 유사하게 ‘폭염·폭우 시 작업중단/작업시간 조절’(48.4%), ‘기상예보 확인’(20.6%), ‘젖은 휴식 시간 갖기’(15.8%) 등이다($\chi^2=25.906$, $p<.001$).

〈그림 3-11〉 건강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방안(1순위):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의 건강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1순위는 귀농 여부를 제외하고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모든 집단에서 ‘폭염·폭우 시 작업 중단, 작업 시간 조절’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그다음으로 많이 하는 대응 활동에서 차이가 있다.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은 ‘젖은 휴식 시간 갖기’가 각각 20.5%, 22.4%로 두 번째로 높지만 공동경영주는 ‘기상예보 확인’(24.3%)을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0.825$, $p<.001$).

- 50대와 70대 이상은 ‘찾은 휴식 시간 갖기’, 40대 이하와 60대는 ‘기상예보 확인’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대응활동으로 나타났다($\chi^2=74.874$, $p<.001$).
- 영농규모가 중소규모인 농가의 여성은 ‘찾은 휴식 시간 갖기’를, 소규모와 중대규모 이상인 농가의 여성은 ‘기상 예보 확인’을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chi^2=55.618$, $p<.001$).

〈표 3-10〉 건강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방안(1순위):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작업 중단 시간 조절	찾은 휴식 시간 갖기	충분한 수분·영양 섭취	기상 예보 확인	가림막·섶터 등 설치	보조 기구 사용	안전 교육, 안전 수칙 준수	대응 하지 않음	χ^2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411	100.0	48.4	15.8	8.7	20.6	1.7	0.0	2.5	2.2	25.906	
여성농업인(전체)	1553	100.0	42.5	20.0	9.1	21.5	1.7	0.3	3.4	1.5	***	
귀농 여부	비귀농	1355	100.0	42.5	19.6	9.2	21.5	1.8	0.3	3.4	1.6	3.661
	귀농	198	100.0	42.7	22.9	8.5	21.1	1.0	0.1	3.0	0.6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363	100.0	44.0	20.5	9.3	18.3	1.4	0.3	3.1	3.1	50.825
	공동경영주	367	100.0	39.7	14.4	10.5	24.3	2.0	0.0	7.5	1.6	
	경영주 외 농업인	823	100.0	43.1	22.4	8.4	21.6	1.7	0.4	1.7	0.7	
연령	40대 이하	100	100.0	47.7	15.2	9.5	18.1	3.0	0.3	0.6	5.6	74.874
	50대	240	100.0	44.8	23.6	5.7	21.0	2.3	0.0	0.9	1.7	
	60대	665	100.0	38.5	19.2	9.1	24.4	1.4	0.5	6.5	0.3	
	70대 이상	548	100.0	45.5	20.4	10.5	18.7	1.6	0.1	1.2	2.1	
영농 규모	소규모	881	100.0	44.5	19.8	6.5	21.1	1.4	0.5	4.2	1.9	55.618
	중소규모	345	100.0	38.6	24.6	13.6	18.8	0.9	0.0	2.8	0.8	
	중대규모	224	100.0	42.1	15.7	9.1	27.2	3.4	0.0	1.3	1.2	
	대규모	103	100.0	39.5	16.3	16.3	20.7	3.6	0.0	3.4	0.3	

주 1)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2) *** $p<.001$.

2. 생활시간 사용

2.1. 생산 및 돌봄노동시간

2.1.1. 생산 및 돌봄노동시간의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의 농번기 돌봄노동(가사+가족돌봄)시간은 하루 평균 2.5시간, 남성농업인의 돌봄노동시간은 0.7시간으로, 돌봄노동시간의 성별 격차는 1.8시간이다. 여기에 농업 및 유급노동 시간을 합치면, 여성농업인의 총 노동시간은 8.7시간, 남성은 7.9시간으로,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은 남성농업인보다 하루에 48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은 ‘농업 및 유급노동(출퇴근 시간 포함)’에 6.2시간, ‘식사준비, 세탁, 청소 등 가사’에 2.2시간, ‘가족원 돌봄’에 0.3시간을 사용하며, 남성농업인은 ‘농업 및 유급노동(출퇴근 시간 포함)’에 7.2시간, ‘식사준비, 세탁, 청소 등 가사’에 0.5시간, ‘가족원 돌봄’에 0.2시간을 사용한다.

○ 여성농업인의 농한기 돌봄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2.8시간으로 농번기에 비해 18분이 길고, 남성농업인의 돌봄노동시간은 0.8시간이어서 농한기 돌봄노동시간의 성별 격차는 2시간으로 농번기보다 12분이 길다. 여기에 농업 및 유급노동 시간을 합치면, 농한기 여성농업인의 총 노동시간은 5.7시간, 남성은 4.4시간으로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보다 하루에 1시간 18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한기에 여성농업인은 ‘농업 및 유급노동(출퇴근 시간 포함)’에 2.9시간, ‘식사준비, 세탁, 청소 등 가사’에 2.4시간, ‘가족원 돌봄’에 0.4시간을 사용하며, 남성농업인은 ‘농업 및 유급노동(출퇴근 시간 포함)’에 3.6시간, ‘식사준비, 세탁, 청소 등 가사’에 0.6시간, ‘가족원 돌봄’에 0.2시간을 사용한다.

〈표 3-11〉 생산 및 돌봄노동시간: 성별 비교

단위: 시간

	농번기				농한기			
	총노동 시간	농업 및 유급노동	가사	가족돌봄	총노동시 간	농업 및 유급노동	가사	가족돌봄
남성농업인(전체)	7.9	7.2	0.5	0.2	4.4	3.6	0.6	0.2
여성농업인(전체)	8.7	6.2	2.2	0.3	5.7	2.9	2.4	0.4
t/F	-	-14.636 ***	72.14 ***	5.417 ***	-	-9.278 ***	69.422 ***	4.893 ***

주: ***p<0.001.

2.1.2. 여성농업인 특성별 생산 및 돌봄노동시간

○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시간은 농번기, 농한기 모두 큰 차이 없이 대체로 2.2시간~2.4시간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반면, 농업 및 유급노동 시간은 집단 간 차이가 크고, 가족돌봄 시간은 연령과 영농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 농번기 농업 및 유급노동시간은 여성 귀농인, 50대와 60대, 영농규모가 중소규모 이상인 농가의 여성들이 6.7~6.8시간으로 평균보다 30~36분 더 길다. 농한기에는 여성 귀농인, 60대 이하, 영농규모가 중소 및 중대규모 농가의 여성들이(3.2시간~3.5시간) 평균보다 18분~36분을 더 일한다.
-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간 차이가 거의 없으나 농번기에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이 다른 여성들보다 12분 더 길다.
- 가족돌봄 시간은 농번기, 농한기 모두 40대 이하 여성이 50대 이상 여성에 비해 2시간 가량 더 길고, 농사규모가 클수록 가족돌봄 시간이 더 길다.

○ 농번기의 농업 및 유급노동과 가사, 가족돌봄을 모두 합친 총 노동시간은 40대 이하 여성이 10시간 42분으로 가장 길다. 그외 여성 귀농인(9시간 18분), 50대(9시간 12분), 중소규모 이상(9시간 24분~9시간 42분) 여성의 총 노동 시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 농한기의 총 노동시간 역시 40대 이하 여성이 8시간 24분으로 가장 길다. 그 외 총 노동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긴 집단은 여성 귀농인과 50대(6시간 12분), 중소규모 이상 여성(6시간~6시간 30분)이다.

〈표 3-12〉 여성농업인의 생산 및 돌봄노동시간: 특성별 비교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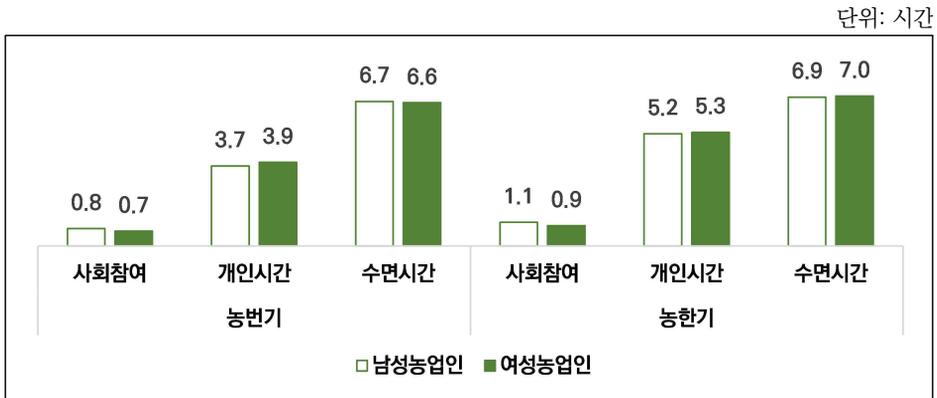
		농번기				농한기			
		총노동 시간	농업 및 유급노동	가사	가족돌봄	총노동 시간	농업 및 유급노동	가사	가족돌봄
귀농여 부	비귀농	8.6	6.1	2.2	0.3	5.7	2.9	2.4	0.4
	귀농	9.3	6.8	2.2	0.3	6.2	3.5	2.4	0.3
	t/F		-4.055 ***	1.393	0.598		-3.557 ***	0.462	0.592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8.8	6.3	2.2	0.3	5.8	3.1	2.4	0.3
	공동경영주	8.7	6.2	2.2	0.3	5.9	3.1	2.5	0.3
	경영주 외 농업인	8.7	6.1	2.3	0.3	5.6	2.8	2.4	0.4
	t/F		2.191	2.231	0.512		5.441**	3.845*	0.214
연령	40대 이하	10.7	6.1	2.4	2.2	8.4	3.3	2.6	2.5
	50대	9.2	6.7	2.2	0.3	6.2	3.4	2.4	0.4
	60대	8.9	6.5	2.2	0.2	5.8	3.2	2.4	0.2
	70대 이상	8.0	5.7	2.2	0.1	5.0	2.5	2.4	0.1
	t/F		22.955 ***	4.058 **	59.883 ***		24.021 ***	2.077	56.057 ***
영농 규모	소규모	8.2	5.8	2.2	0.2	5.3	2.7	2.4	0.2
	중소규모	9.4	6.7	2.3	0.4	6.1	3.2	2.4	0.5
	중대규모	9.5	6.8	2.2	0.5	6.5	3.5	2.4	0.6
	대규모	9.7	6.7	2.3	0.7	6.0	2.8	2.4	0.8
	t/F		28.087 ***	0.585	13.503 ***		10.592 ***	0.837	15.375 ***

주: *p<0.05, **p<0.01, ***p<0.001.

2.2. 사회참여, 개인 및 수면시간

○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시간은 농번기에 0.7시간, 농한기 0.9시간으로 두 시기 남성농업인(0.8시간, 1.1시간)보다 유의미하게 짧다(농번기 $t=-2.658$, $p<.01$, 농한기 $t=-4.541$, $p<.001$). ‘여가, 취미·휴식 등 개인시간’은 농번기 3.9시간, 농한기 5.3시간, ‘수면시간’은 농번기 6.6시간, 농한기 7.0시간으로 여성들은 농한기에 개인시간과 수면시간을 더 길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시간과 수면시간의 성별 차이는 없다.

〈그림 3-12〉 사회참여, 개인 및 수면시간: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개인 및 수면시간을 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귀농 여부를 제외하고 농번기, 농한기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있다.

- 농번기 사회참여 시간은 공동경영주(1시간)가 가장 길고, 60대와 소규모 농가 여성이 0.8시간(48분)으로 다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길다. 농한기에 도 공동경영주(1시간 12분)가 가장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농번기, 농한기 모두 사회참여 시간이 가장 짧는데(각각 18분, 30분) 다른 집단의 절반 수준이다.

- 농번기 개인시간은 70대 이상 여성농업인(4시간 24분)이 가장 길고 (공동) 경영주 외 농업인, 소규모 농가 여성도 4시간 12분~18분으로 다른 집단보다 길다. 농한기 개인시간 역시 70대 이상(5시간 48분)과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5시간 45분)이 가장 길다. 농번기, 농한기 모두 영농규모가 클수록 개인시간이 짧다.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개인시간이 가장 짧다(2시간 42분, 3시간 36분).
- 수면시간은 농한기, 농번기 모두 집단간 수면 시간의 차이가 12분 내외로 적다.

〈표 3-13〉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개인 및 수면시간: 특성별 비교

단위: 시간

		농번기			농한기		
		사회참여	개인시간	수면시간	사회참여	개인시간	수면시간
귀농 여부	비귀농	0.7	3.9	6.6	0.9	5.2	6.9
	귀농	0.7	3.9	6.7	1.1	5.4	7.0
	t/F	-0.672	0.026	-1.364	-1.843	-0.798	-1.865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0.6	3.6	6.8	0.9	4.9	7.1
	공동경영주	1.0	3.4	6.5	1.2	4.5	6.9
	경영주 외 농업인	0.5	4.3	6.7	0.8	5.9	6.9
	t/F	38.595***	23.332***	14.754***	21.039***	34.582***	5.643**
연령	40대 이하	0.3	2.7	6.9	0.5	3.6	7.1
	50대	0.6	3.2	6.6	0.9	4.4	6.9
	60대	0.8	3.8	6.6	1.0	5.4	7.0
	70대 이상	0.7	4.4	6.6	1.0	5.8	6.9
	t/F	19.266***	33.145***	5.168**	18.288***	32.359***	3.177*
영농 규모	소규모	0.8	4.2	6.6	0.9	5.5	6.9
	중소규모	0.5	3.7	6.8	0.9	5.1	7.1
	중대규모	0.6	3.2	6.6	1.0	4.7	6.8
	대규모	0.6	3.2	6.6	1.1	4.6	7.0
	t/F	7.144***	15.058***	4.567**	1.493	8.032***	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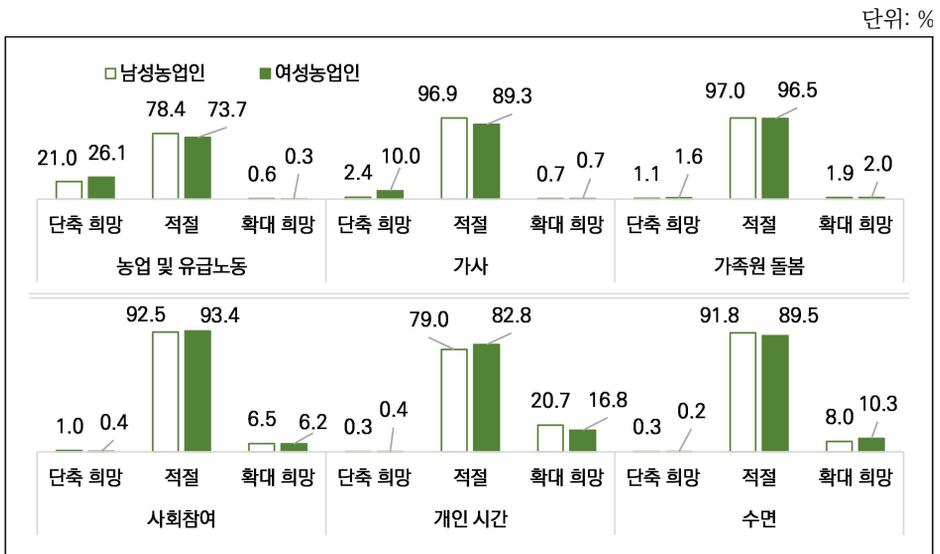
주: *p<0.05, **p<0.01, ***p<0.001.

2.3. 희망하는 일상생활 시간 조절

○ 여성농업인이 바라는 일상생활 시간 사용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 ‘가족원 돌봄’, ‘사회참여’, ‘수면’에 대해 현재의 시간 사용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90%를 상회하였으나, ‘농업 및 유급 노동’의 경우 ‘적절하다’는 비율이 가장 낮은 73.7% 수준이었으며 26.1%가 ‘줄이길 희망’하였다. 여성농업인이 가장 ‘늘리길 희망’하는 시간은 ‘여가, 취미활동, 휴식 등 개인 시간’이었다 (16.8%).

- 남성농업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생활시간은 노동, 가사, 개인시간, 수면시간이다. 노동시간, 가사, 수면시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적절하다’는 응답률이 높고, 개인시간은 남성이 ‘적절하다’는 응답률이 여성보다 3.8%p 낮고 ‘늘리길 희망’하는 비율이 3.9%p 높다.

〈그림 3-13〉 희망하는 일상생활 시간 조절: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이 희망하는 일상생활 시간 조절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농업 및 유급 노동시간’은 ‘현재 적절하다’는 응답이 평균 73.7%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고 대신 ‘현재 수준보다 줄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는데, 공동경영주(37.1%), 50대(35.6%), 대규모 농가(41.2%)에서 ‘줄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가사’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평균 89.3%로 높고, ‘줄이고 싶다’는 응답은 평균 10.0%로 낮은 편인데, 40대 이하(17.5%)와 대규모 농가(15.1%)에서 ‘줄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가족원 돌봄시간’은 96.5%의 여성농업인들이 적절하다고 인식하지만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줄이고 싶다’(10.0%)와 ‘늘리고 싶다’(11.0%)는 응답 비율이 높고 ‘적절하다’(79.1%)는 응답률이 낮다.
- ‘사회참여’는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는데 대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다른 여성들보다 ‘늘리고 싶다’(16.1%)는 응답 비율이 2배 가량 높다.
- ‘개인시간’은 다른 항목에 비해 늘리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는데 평균 응답 비율은 16.8%인데 비해 경영주(23.1%), 40대 이하(31.5%), 대규모 농가(37.1%)에서 ‘더 늘리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 ‘수면시간’은 공동경영주(18.1%)와 대규모 농가(21.6%)에서 ‘늘리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평균(10.3%)의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3-14〉 여성농업인의 희망하는 일상생활 시간 조절: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N	농업 및 유급노동				가사				가족원 돌봄				
		줄이고 싶다	적절 하다	늘리고 싶다	x ²	줄이고 싶다	적절 하다	늘리고 싶다	x ²	줄이고 싶다	적절 하다	늘리고 싶다	x ²	
남성농업인(전체)	502	21.0	78.4	0.6	17.963	2.4	96.9	0.7	113.698	1.1	97.0	1.9	1.825	
여성농업인(전체)	2003	26.1	73.7	0.3	***	10.0	89.3	0.7	***	1.6	96.5	2.0		
귀농 여부	비귀농	1759	25.6	74.1	0.3	1.97	10.6	88.6	0.8	5.167	1.7	96.3	2.1	1.746
	귀농	244	29.1	70.8	0.1		6.1	93.6	0.3		0.8	97.8	1.4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24.2	75.3	0.4	56.85	10.4	88.7	0.9	18.477	1.4	96.6	2.0	0.618
	공동경영주	554	37.1	62.3	0.6		14.2	85.1	0.7		1.4	96.3	2.2	
	경영주 외 농업인	989	20.7	79.3	0.0		7.5	91.9	0.6		1.7	96.5	1.8	
연령	40대 이하	125	18.6	81.2	0.2	24.341	17.5	80.3	2.1	22.052	10.0	79.1	11.0	137.432
	50대	296	35.6	64.3	0.1		11.0	88.6	0.4		0.6	96.5	2.9	
	60대	821	23.0	76.8	0.2		8.3	90.6	1.1		1.5	98.0	0.5	
	70대 이상	761	26.8	72.8	0.4		10.3	89.5	0.2		0.6	97.7	1.7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22.6	77.1	0.3	26.898	9.5	90.3	0.3	18.057	0.9	98.3	0.8	45.064
	중소규모	423	29.1	70.7	0.2		11.2	88.0	0.8		1.7	93.4	4.9	
	중대규모	285	29.4	70.6	0.0		8.5	89.4	2.1		3.7	95.1	1.2	
	대규모	121	41.2	58.8	0.0		15.1	83.5	1.5		2.4	92.4	5.2	
구분	N	사회참여				여가, 휴식 등 개인 시간				수면				
		줄이고 싶다	적절 하다	늘리고 싶다	x ²	줄이고 싶다	적절 하다	늘리고 싶다	x ²	줄이고 싶다	적절 하다	늘리고 싶다	x ²	
남성농업인(전체)	502	1.0	92.5	6.5	5.271	0.3	79.0	20.7	11.091	0.3	91.8	8.0	6.831*	
여성농업인(전체)	2003	0.4	93.4	6.2		0.4	82.8	16.8	**	0.2	89.5	10.3		
귀농 여부	비귀농	1759	0.4	93.2	6.4	1.354	0.2	82.8	17.0	11.13	0.2	89.2	10.6	2.348
	귀농	244	0.4	95.0	4.6		1.5	83.2	15.4		**	0.1	92.0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0.5	93.9	5.7	4.421	0.5	76.4	23.1	19.998	0.5	89.6	9.9	59.925
	공동경영주	554	0.3	95.0	4.7		0.0	84.5	15.5		0.0	81.9	18.1	
	경영주 외 농업인	989	0.5	92.3	7.3		0.5	84.9	14.6		0.2	93.8	6.0	
연령	40대 이하	125	1.7	93.8	4.5	17.553	1.7	66.8	31.5	47.66	1.7	86.0	12.2	14.554*
	50대	296	0.6	93.0	6.4		0.2	80.5	19.3		0.1	88.5	11.4	
	60대	821	0.5	91.4	8.0		0.2	80.8	19.0		0.2	90.0	9.9	
	70대 이상	761	0.0	95.6	4.4		0.5	88.5	11.0		0.1	90.0	9.9	
농업 소득	소규모	1174	0.1	95.1	4.8	36.256	0.4	87.8	11.8	71.499	0.1	90.8	9.1	27.612
	중소규모	423	0.9	94.2	4.9		0.7	76.9	22.5		0.7	90.5	8.9	
	중대규모	285	0.6	89.7	9.7		0.0	79.8	20.2		0.1	87.6	12.3	
	대규모	121	0.9	83.0	16.1		0.0	62.9	37.1		0.0	78.4	21.6	

주: *p<.05, **p<.01, ***p<.001

3. 농외 소득활동 현황

3.1. 지난 1년간 농외 소득활동 여부

- 여성농업인 가운데 지난 1년간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13.2%로, 남성농업인 17.5%에 비해 낮다($\chi^2=14.772$, $p<.001$)
 -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서 겸업농 비율이 41.4%인 것과 비교하면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은 전업농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여성농업인의 지난 1년간 농외 소득활동 여부는 귀농 여부, 농업경영체 지위, 연령, 농업소득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영농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다.
 - 여성 귀농인(25.2%)이 비귀농 여성농업인(11.6%)보다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더 높았다($\chi^2=33.922$, $p<.001$).
 - 농업경영체 지위에 따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31.230$, $p<.001$). 상술하면, 경영주(20.5%), 경영주 외 농업인(12.3%), 공동경영주(8.9%)의 순서로 참여율이 높았다.
 - 연령대가 더 낮은 집단일수록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 참여율이 더 높았다($\chi^2=131.485$, $p<.001$). 구체적으로, 40대 이하 34.4%, 50대 25.9%, 60대 12.7%, 70대 이상 5.4% 수준이었다.
 - 농업소득 1,500만 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농외 소득활동 참여율이 높아지지만, 1,500만 원 이상은 농외소득 참여율이 7.5%로 가장 낮다($\chi^2=32.922$, $p<.001$).

〈표 3-15〉 지난 1년간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여부: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활동하였음	활동하지 않았음	χ ²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17.5	82.5	14.772***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13.2	86.8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11.6	88.4	33.922***
	여성 귀농인	244	100.0	25.2	74.8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20.5	79.5	31.230***
	공동경영주	554	100.0	8.9	91.1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12.3	87.7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34.4	65.6	131.485***
	50대	296	100.0	25.9	74.1	
	60대	821	100.0	12.7	87.3	
	70대 이상	761	100.0	5.4	94.6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12.3	87.7	3.841
	중소규모	423	100.0	15.0	85.0	
	중대규모	285	100.0	15.3	84.7	
	대규모	121	100.0	11.0	89.0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14.3	85.7	32.922***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100.0	18.4	81.6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100.0	19.4	80.6	
	1,500만 원 이상	647	100.0	7.5	92.5	
	잘 모름	103	100.0	12.9	87.1	

주: ***p<.001.

3.2. 지난 1년간 참여한 농외 소득활동 종류 및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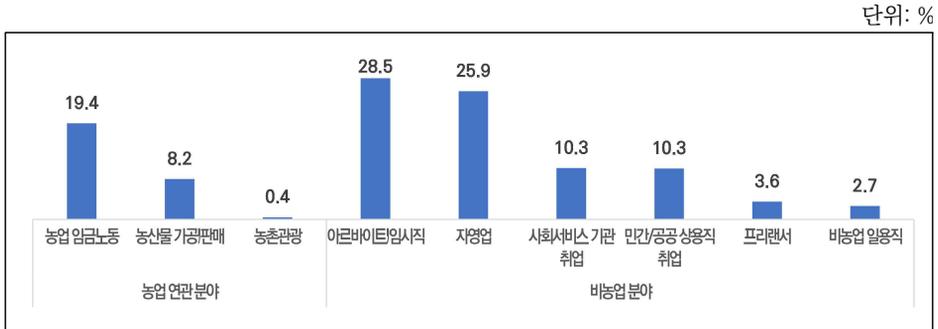
3.2.1. 농외 소득활동 종류

○ 여성농업인이 지난 1년간 참여한 농외활동 종류는 ‘아르바이트(편의점, 식당, 과외 등)/임시직’이 28.5%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많이 참여한 소득활동은 ‘자영업(식당, 상점, 카페 등 운영)’(25.9%), ‘농업 임금 노동’(19.4%), ‘민

간/공공 상용직 취업'과 '사회서비스 기관 취업' 각각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농업 임금노동,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관광 등을 모두 합친 농업 연관 분야 참여율은 28.0%로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이 농업 외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4〉 지난 1년간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종류(중복응답)



주: 중복응답 결과를 응답자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는 100%를 넘을 수 있음

○ '아르바이트, 임시직'과 '자영업'은 여성농업인 대부분의 집단에서 1, 2순위를 차지하는데, 70대 이상 여성은 '아르바이트/임시직' 참여 비율이 51.9%로 다른 집단보다 2배 가량 높고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사회서비스 기관 취업'이 21.5%로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 60대 이상의 고령층, 농업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인 여성들은 농업 연관 부문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농업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인 여성들은 가장 많이 참여한 농외소득 활동이 농업 임금노동(1,000만 원~1,500만 원 41.3%, 1,500만 원 이상 48.0%)이다. 그 외에 농업 임금노동 참여율이 20% 이상으로 높은 집단은 비귀농 여성농업인(23.3%), 공동경영주(21.6%),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23.7%), 60대 이상(60대 27.8%, 70대 이상 22.8%)이다.

- 여성 귀농인과 농업소득 1,500만 원 이상인 여성들은 ‘농산물 가공/판매’에 참여한 비율이 20.8%, 20.0%로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다.

〈표 3-16〉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종류(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N	아르 바이트/ 임시직	자영업	농업 임금 노동	일반 상용직	사회 서비스 기관	농산물 가공 판매	프리 랜서	비농업 일용직	농촌 관광	
여성농업인(전체)	265	28.5	25.9	19.4	10.3	10.3	8.2	3.6	2.7	0.4	
귀농	비귀농	204	29.9	23.4	23.3	10.0	10.0	4.4	3.2	3.0	0.0
여부	귀농	61	23.8	33.9	6.3	11.3	11.3	20.8	4.8	1.6	1.9
농업	경영주	94	30.8	20.2	12.6	15.7	14.7	4.4	3.9	2.7	0.0
경영체	공동경영주	49	26.9	26.9	21.6	13.9	4.3	12.6	1.4	0.0	0.0
지위	경영주 외 농업인	122	27.3	29.8	23.7	4.7	9.3	9.3	4.2	3.8	0.9
연령	40대 이하	43	30.3	29.7	2.7	9.2	21.5	3.4	3.9	0.8	0.0
	50대	77	23.3	21.3	15.5	17.8	13.7	12.6	6.6	2.4	1.5
	60대	104	22.3	31.3	27.8	8.5	7.2	7.0	2.7	2.3	0.0
	70대 이상	41	51.9	16.6	22.8	2.3	0.0	8.0	0.0	6.4	0.0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103	37.2	30.0	5.8	11.3	15.5	0.5	4.8	4.0	1.1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68	25.9	34.2	11.2	12.3	1.7	10.9	3.8	2.5	0.0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32	36.5	10.1	41.3	6.3	9.2	12.3	0.0	2.1	0.0
	1,500만 원 이상	49	6.9	12.2	48.0	9.8	10.2	20.0	4.0	1.4	0.0
	잘 모름	13	34.1	39.8	7.4	4.8	16.0	0.0	0.0	0.0	0.0

주 1) 중복응답 결과를 사례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비율의 총합은 100을 넘을 수 있음.
2)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3.2.2. 농외소득

- 여성농업인이 지난 1년간 농외활동으로 얻은 연간 소득은 ‘5백만 원 미만’ (31.5%)이 가장 많았으며 ‘2천만 원 이상’의 비율이 21.6%로 그 뒤를 이었다. 농외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비율은 전체의 70.4%이다.
- 여성농업인의 지난 1년간 농외소득 수준은 연령과 농업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 50대와 70대 이상은 '5백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70대 이상은 78.4%가 이에 해당하였다. 반면 40대 이하는 '2천만 원 이상'(40.0%)의 고소득 비율이 가장 높고, 60대는 '1천만 원~1천 5백만 원 미만'이 25.9%로 가장 높다($\chi^2=94.728$, $p<.001$).
- 농업소득이 중상위층에 해당하는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집단이 농외소득도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44.8%)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외 집단은 공통적으로 '5백만 원 미만'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chi^2=109.917$, $p<.001$).

〈표 3-17〉 지난 1년간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5백만 원 미만	5백~1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 1천 5백만 원 미만	1천 5백만 원 ~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이상	모름	χ^2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265	100.0	31.5	14.5	18.5	5.9	21.6	8.0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204	100.0	30.0	15.5	17.0	6.6	21.0	9.9	17.214
	여성 귀농인	61	100.0	36.3	11.3	23.3	3.7	23.8	1.7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94	100.0	34.1	15.9	9.9	9.6	26.3	4.3	29.372
	공동경영주	49	100.0	39.6	7.6	19.7	2.3	18.2	12.6	
	경영주 외 농업인	122	100.0	26.2	16.2	24.7	4.5	19.4	9.1	
연령	40대 이하	43	100.0	23.1	13.5	13.7	6.6	40.0	3.0	94.728 ***
	50대	77	100.0	30.0	14.3	16.6	6.8	22.8	9.5	
	60대	104	100.0	17.4	17.9	25.9	7.1	20.5	11.2	
	70대 이상	41	100.0	78.4	7.5	8.1	0.6	2.9	2.5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103	100.0	30.8	13.3	22.6	6.0	23.5	3.8	109.917 ***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68	100.0	40.5	20.4	7.5	4.3	22.2	5.1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32	100.0	27.1	6.8	44.8	3.5	15.7	2.0	
	1,500만 원 이상	49	100.0	27.0	16.4	11.9	9.4	14.0	21.3	
	잘 모름	13	100.0	17.6	5.3	2.7	6.8	46.3	21.2	

주 1)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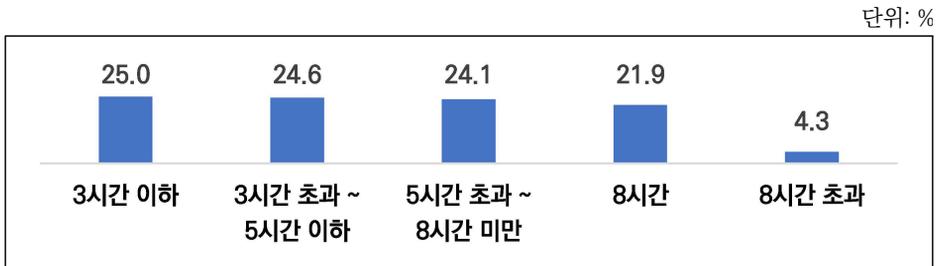
2) *** $p<.001$.

3.2.3. 하루 평균 농외소득 근로시간

○ 여성농업인이 지난 1년간 가장 오래 참여한 농외 소득활동에서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이었다.

- 73.7%의 여성농업인이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고, 21.9%는 8시간, 4.3%는 8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하였다.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에는 25.0%의 여성농업인이 해당하였다.

〈그림 3-15〉 지난 1년간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농외 근로시간



○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70대 이상의 농외 근로시간이 3.8시간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2시간 가량 짧다($F=14.793, p<0.001$).

- 농외활동에 참여한 7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68.9%가 하루 평균 3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고, 50대와 60대는 3시간 ~ 8시간 미만 사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절반 가량이 8시간(45.4%) 일을 하였다.

〈표 3-18〉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농외 근로시간: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시간

구분	전체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5시간 이하	5시간 초과~8시간 미만	8시간	8시간 초과	평균 (시간)	t / F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265	100.0	25.0	24.6	24.1	21.9	4.3	5.5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204	100.0	25.3	23.4	25.8	21.8	3.8	0.265
	여성 귀농인	61	100.0	24.0	28.8	18.4	22.6	6.1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94	100.0	27.5	24.1	15.8	28.2	4.4	0.275
	공동경영주	49	100.0	34.3	18.3	25.6	16.6	5.1	
	경영주 외 농업인	122	100.0	19.3	27.7	29.9	19.2	3.9	
연령	40대 이하	43	100.0	18.6	16.8	15.0	45.4	4.2	14.793 ***
	50대	77	100.0	25.3	20.8	31.6	14.1	8.3	
	60대	104	100.0	10.1	32.8	30.4	24.4	2.3	
	70대 이상	41	100.0	68.9	19.5	3.6	5.9	2.2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103	100.0	23.2	28.1	17.1	26.4	5.3	2.355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68	100.0	37.3	20.3	19.0	20.9	2.4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32	100.0	18.1	21.3	44.7	15.0	0.9	
	1,500만 원 이상	49	100.0	19.6	25.9	37.3	15.9	1.3	
	잘 모름	13	100.0	12.9	23.9	5.3	32.0	25.9	

주: ***p<.001.

3.3. 향후 농외 소득활동 참여 전망

3.3.1. 향후 1년 이내 농외 소득활동 참여 의향

○ 여성농업인의 13.3%는 향후 1년 이내에 농외 소득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남성농업인의 19.0%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이다($\chi^2=26.013$, $p<.001$).

○ 여성농업인의 향후 1년 이내 농외 소득활동 참여 의향은 귀농 여부, 농업경영체 지위, 연령, 농업소득에 따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여성 귀농인이 비귀농 여성농업인에 비해 농외 소득활동 참여 의향(각각 26.3%, 11.5%)이 2배 이상 더 높다($\chi^2=40.456$, $p<.001$).
- 경영주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참여 의향이 20.5%로 다른 집단에 비해 10%p 가량 높고($\chi^2=28.204$, $p<.001$), 연령이 낮을수록 농외소득 참여 의향이 높아 40대 이하 여성은 35.7%가 참여 의향을 밝혔다($\chi^2=136.607$, $p<.001$).
- 농업소득은 중상위층인 1,500만 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 의향이 높아서 '1,000원~1,500만 원 미만' 집단의 농외소득 참여 의향이 22.4%로 가장 높다. 농업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인 여성들은 농외소득 참여 의향이 7.0%로 극히 낮다($\chi^2=41.542$, $p<.001$).

〈표 3-19〉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참여 의향: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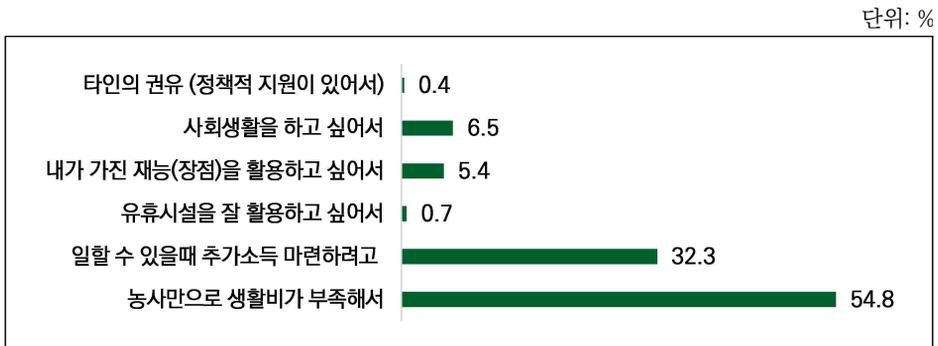
구분	전체		있음	없음	χ^2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19.0	81.0	26.013***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13.3	86.7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11.5	88.5	40.456***
	여성 귀농인	244	100.0	26.3	73.7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20.5	79.5	28.204***
	공동경영주	554	100.0	10.0	90.0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11.8	88.2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35.7	64.3	136.607***
	50대	296	100.0	25.5	74.5	
	60대	821	100.0	13.1	86.9	
	70대 이상	761	100.0	5.1	94.9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14.9	85.1	41.542***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100.0	17.5	82.5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100.0	22.4	77.6	
	1,500만 원 이상	647	100.0	7.0	93.0	
	잘 모름	103	100.0	11.7	88.3	

주: *** $p<.001$.

3.3.2. 농외소득 참여 희망 이유(1순위)

○ 여성농업인들이 농외 소득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이유로 '농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54.8%), '일할 수 있을 때 추가 소득을 마련하려고'(32.3%)가 그 뒤를 이었다. 그외 이유는 10% 미만으로 응답률이 낮아서 농가 소득 부족이 여성의 농외활동의 주된 이유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6〉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희망 이유(1순위)



○ 여성농업인이 농외 소득활동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귀농 여부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농업경영체 지위, 영농규모, 농업소득별 차이는 없었다.

- 여성 귀농인은 '추가 소득 마련'(49.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비귀농 여성농업인은 '농사만으로 생활비 부족'(58.6%)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chi^2=13.142$, $p<.05$).
- 모든 연령대에서 '농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가장 큰 이유이지만 70대 이상은 그 비율이 87.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40대 이하는 '재능 활용'(10.4%), '사회생활'(16.8%)을 이유로 든 비율이 다른 연령대 응답률의 2배 이상 높았다($\chi^2=50.866$, $p<.001$).

〈표 3-20〉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희망 이유(1순위):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농사만 으로 생활비 부족	일할 수 있을 때 추가 소득 마련	유휴 시설을 활용 하려고	재능· 장점을 활용 하려고	사회 생활을 하려고	타인 권유· 정책적 지원	χ ²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266	100.0	54.8	32.3	0.7	5.4	6.5	0.4	-	
귀농 여부	비귀농	202	100.0	58.6	26.7	0.9	5.5	7.7	0.5	13.142*
	귀농	64	100.0	42.8	49.7	0.0	4.8	2.7	0.0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94	100.0	57.1	27.3	0.3	5.9	8.4	1.0	7.401
	공동경영주	55	100.0	57.4	36.8	0.0	2.4	3.4	0.0	
	경영주 외 농업인	117	100.0	51.7	34.2	1.3	6.4	6.5	0.0	
연령	40대 이하	45	100.0	51.1	20.2	0.0	10.4	16.8	1.5	50.866 ***
	50대	75	100.0	45.0	40.1	0.0	5.8	9.2	0.0	
	60대	107	100.0	51.5	40.3	1.7	4.9	1.4	0.3	
	70대 이상	39	100.0	87.6	8.8	0.0	0.0	3.6	0.0	
영농 규모	소규모	150	100.0	54.6	32.7	1.2	2.2	8.6	0.6	20.321
	중소규모	69	100.0	50.1	38.2	0.0	6.0	5.6	0.0	
	중대규모	37	100.0	66.0	17.8	0.0	14.9	1.3	0.0	
	대규모	10	100.0	48.8	39.5	0.0	11.7	0.0	0.0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108	100.0	53.5	31.6	1.4	3.9	9.3	0.3	26.739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64	100.0	58.2	34.7	0.5	1.3	4.9	0.4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37	100.0	73.5	14.2	0.0	5.6	6.8	0.0	
	1,500만 원 이상	45	100.0	41.5	41.6	0.0	15.1	1.8	0.0	
	잘 모름	12	100.0	41.1	46.1	0.0	2.3	7.5	2.9	

주 1)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2)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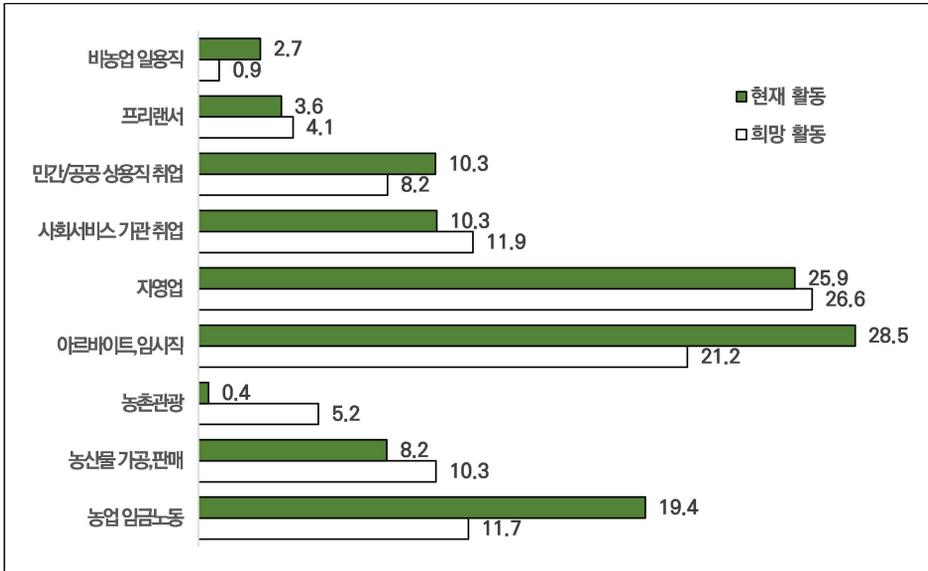
3.3.3. 참여 희망 소득활동 종류(1순위)

○ 여성농업인이 향후 가장 희망하는 소득활동 종류는 ‘자영업’(26.6%)의 비율이 가장 높고, ‘아르바이트/임시직’(21.2%), ‘사회서비스 기관’(11.9%), ‘농업 임금노동’(11.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소득활동 종류와 비교하여 아르바이트/임시직과 농업 임금노동을 희망하는 비율은 낮고 농산물 가공/판매 희망 비율은 약간 더 높다.

〈그림 3-17〉 여성농업인의 희망 농외 소득활동 종류(1순위)

단위: %



○ 여성농업인이 향후 참여하길 희망하는 농외 소득활동 1순위는 다수의 집단에서 자영업이 가장 높은 가운데, 70대 이상과 농업소득이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인 집단은 ‘아르바이트/임시직’이 가장 높고, 농업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인 집단은 ‘농업 임금노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 여성 귀농인과 50대, 농업소득이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인 여성농업인은 ‘농산물 가공/판매’를 희망하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60대 여성농업인은 ‘농업 임금노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25.2%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표 3-21〉 여성농업인의 희망 농외 소득활동 종류(1순위):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농산물 가공 판매	농촌 관광	농업 임금 노동	자영업	프리 랜서	아르 바이트/ 임시직	일반 상용직	비농업 일용직	사회 서비스 기관	x2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266	100.0	10.3	5.2	11.7	26.6	4.1	21.2	8.2	0.9	11.9	-	
귀농 여부	비귀농	202	100.0	6.1	6.5	13.8	26.7	3.9	19.8	8.0	1.1	13.8	26.004
	귀농	64	100.0	23.5	0.8	5.3	26.2	4.5	25.3	8.6	0.0	5.9	**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94	100.0	10.7	3.9	6.6	21.4	4.1	18.5	17.9	1.2	15.6	30.449 *
	공동경영주	55	100.0	16.9	4.7	12.4	25.8	1.1	24.6	3.2	0.0	11.3	
	경영주 외 농업인	117	100.0	6.9	6.4	15.6	31.1	5.4	21.7	2.6	1.0	9.2	
연령	40대 이하	45	100.0	8.3	5.6	2.6	36.6	6.8	12.8	19.7	0.8	6.8	90.714 ***
	50대	75	100.0	20.5	7.1	0.4	24.0	4.9	14.4	10.2	0.0	18.6	
	60대	107	100.0	4.1	3.5	25.2	27.2	3.8	20.0	4.9	0.0	11.2	
	70대 이상	39	100.0	10.0	5.3	7.1	18.4	0.0	47.5	0.0	5.0	6.8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108	100.0	1.6	5.2	7.3	27.8	4.5	27.8	11.2	1.8	13.0	66.099 ***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64	100.0	15.2	3.1	5.3	35.4	3.1	18.7	4.5	0.0	14.8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37	100.0	20.8	10.3	15.7	8.8	0.9	28.6	7.9	0.0	6.9	
	1,500만 원 이상	45	100.0	17.4	3.1	28.8	21.9	7.5	6.4	4.6	0.0	10.4	
	잘 모름	12	100.0	2.9	8.4	9.8	41.7	2.3	8.4	15.3	2.9	8.2	

주 1)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2)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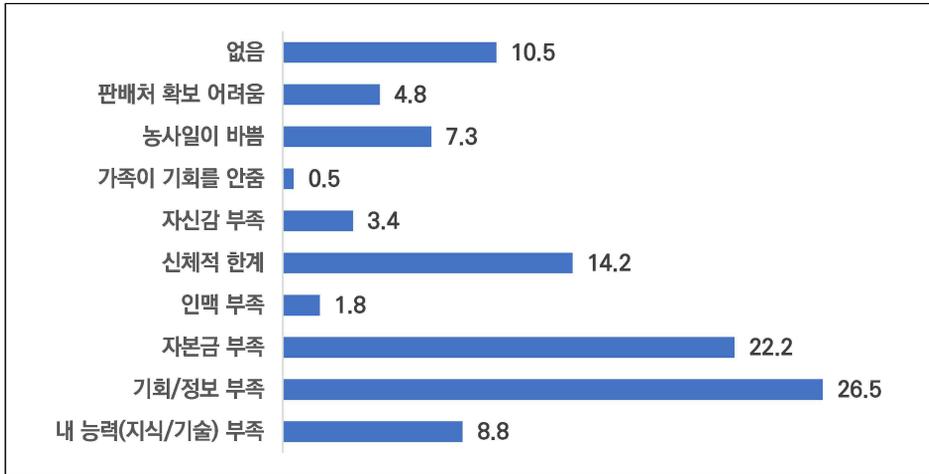
3.3.4. 농외 소득활동에서 예상되는 어려움(1순위)

○ 여성농업인이 농외 소득활동 참여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기회/정보 부족, 자본금 부족, 신체적 한계 등을 응답한 비율이 높아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주된 어려움으로 제시되었다.

- ‘일을 해 볼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26.5%) 응답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자본금 부족’(22.2%), ‘질병, 육체적 한계 포함 신체적 한계’(14.2%), ‘내 능력(지식/기술) 부족’(8.8%) 등으로 나타났다.
-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10.5%로 낮다.

〈그림 3-18〉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어려움(1순위)

단위: %



○ 귀농 여부를 제외하고 농업경영체 지위, 연령, 영농규모에 따라 농외활동 참여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기회/정보 부족’과 ‘자금 부족’이 1, 2위 응답률을 보이는 가운데, 공동경영주, 40대 이하와 50대, 중소규모와 대규모 농가 여성농업인은 ‘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70대 이상은 ‘신체적 한계’를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다.

- 1, 2위 응답률을 제외하면, 경영주 여성농업인, 60대는 ‘신체적 한계’(각각 18.8%, 18.0%)를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대규모와 대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바쁨’(20.2%, 15.4%)을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현저히 높다.

〈표 3-22〉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활동 어려움(1순위):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점

구분	N	능력 부족	기회·관련 정보 부족	자금 부족	인맥 부족	신체적 한계	자신감 부족	가족이 기회를 주지 않음	농사일이 바쁨	판매처 확보	없음	x ²	
여성농업인(전체)	266	8.8	26.5	22.2	1.8	14.2	3.4	0.5	7.3	4.8	10.5	-	
귀농 여부	비귀농	202	10.0	29.5	22.1	1.7	12.4	3.4	0.7	6.4	5.4	8.4	12.119
	귀농	64	5.3	17.0	22.4	2.0	19.9	3.6	0.0	10.2	2.7	16.8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94	14.5	25.7	14.0	3.2	18.8	2.8	0.3	5.8	5.0	9.8	40.154 **
	공동경영주	55	7.7	20.9	44.0	0.0	7.9	0.0	0.0	4.4	8.9	6.2	
	경영주 외 농업인	117	4.7	29.8	18.4	1.5	13.5	5.6	1.0	9.8	2.6	13.0	
연령	40대 이하	45	4.5	23.0	39.2	4.3	5.4	1.9	3.2	5.4	3.2	9.8	45.376 *
	50대	75	7.4	26.8	33.9	0.7	9.4	0.8	0.0	5.3	3.7	11.9	
	60대	107	10.2	29.8	11.2	0.8	18.0	4.0	0.0	8.5	6.9	10.5	
	70대 이상	39	12.8	20.6	9.9	3.8	23.3	8.7	0.0	9.9	2.7	8.4	
영농 규모	소규모	150	11.0	23.6	17.4	2.8	16.9	4.0	0.0	4.6	4.9	14.9	67.719 ***
	중소규모	69	5.5	25.6	33.4	0.9	13.9	4.2	0.4	5.0	7.3	3.7	
	중대규모	37	8.7	38.1	17.0	0.0	6.7	0.8	0.0	20.2	0.7	7.8	
	대규모	10	0.0	33.0	35.9	0.0	4.0	0.0	11.7	15.4	0.0	0.0	

주 1)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2) *p<.05, **p<.01, ***p<.001.

4. 지역사회 활동

4.1. 지역사회 조직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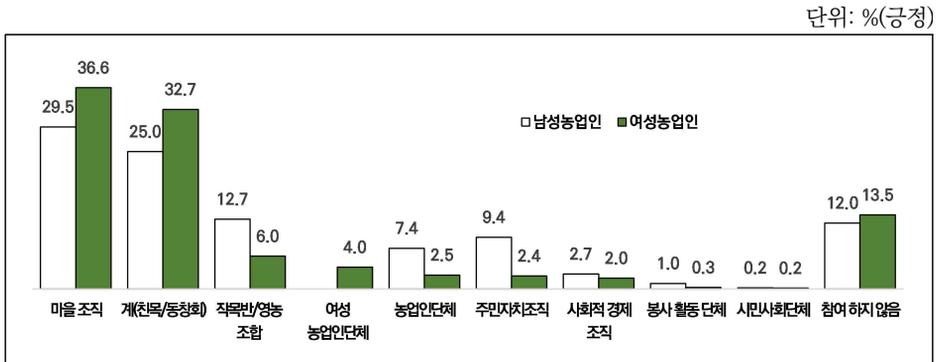
4.1.1. 지역사회 조직 참여 여부

○ 현재 회원이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조직을 조사한 결과, 여성 농업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조직은 마을조직(36.6%)이고 그다음이 친목/동창회 등 모임(32.7%)으로 나타났다. 그 외 생산자 조직이나 사회/정치적

조직의 참여율은 6% 이하로 극히 낮았다. 어떤 조직에도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13.5%였다.

- 남성농업인도 마을조직(29.5%), 친목 모임(25.0%) 참여가 가장 높지만, 여성농업인에 비해 '작목반/영농조합'(12.7%), '주민자치조직'(9.4%), '농업인단체'(7.4%) 등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 참여율이 높다.

〈그림 3-19〉 지역사회 조직참여 여부(중복응답): 성별 비교



주: 중복응답 결과를 사례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비율의 총합은 100을 넘을 수 있음.

- 여성농업인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조직은 모든 집단에서 마을조직과 친목 모임이 1, 2위를 차지하지만, 여성 귀농인, 60대 이하, 중대규모 농가 여성농업인은 마을조직보다 친목모임 참여율이 더 높다.
- 한편, 아무 조직에도 참여하지 않는 비율은 40대 이하(20.4%)가 가장 높고, 여성 귀농인(16.7%), 공동경영주(16.2%), 70대 이상(16.5%), 소규모 농가(17.6%)도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3〉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조직 참여 여부(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N	마을 조직	계·친목 동창회	작목반·영농조합	여성농업인 단체	주민 자치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	농업인 단체	봉사 활동 단체	시민 사회 단체	참여 하지 않음
남성농업인(전체)		502	29.5	25.0	12.7	-	9.4	2.7	7.4	1.0	0.2	12.0
여성농업인(전체)		2003	36.6	32.7	6.0	4.0	2.5	2.4	2.0	0.3	0.2	13.5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37.8	32.5	5.7	3.7	2.4	2.3	2.0	0.3	0.1	13.1
	여성 귀농인	244	27.6	34.1	7.8	5.9	3.2	2.6	1.5	0.1	0.5	16.7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34.8	31.0	6.2	6.2	2.4	4.4	2.8	0.2	0.4	11.6
	공동경영주	554	36.7	30.3	5.6	3.6	4.5	0.8	2.0	0.3	0.1	16.2
	경영주 외 농업인	989	37.5	35.0	6.0	3.1	1.4	2.2	1.5	0.3	0.1	12.8
연령	40대 이하	125	20.0	32.4	7.6	6.6	3.7	3.7	3.9	0.3	1.4	20.4
	50대	296	30.8	32.0	10.2	7.7	2.1	2.2	2.8	0.4	0.2	11.6
	60대	821	33.2	37.0	6.3	3.5	4.0	2.8	1.9	0.3	0.1	10.9
	70대 이상	761	46.9	27.5	3.2	2.2	0.6	1.6	1.3	0.2	0.1	16.5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37.0	32.0	3.6	3.0	3.0	2.3	1.1	0.1	0.1	17.6
	중소규모	423	36.3	33.0	8.6	3.7	1.9	2.6	2.9	0.5	0.0	10.6
	중대규모	285	34.6	35.1	8.7	7.1	2.4	1.8	3.5	0.6	0.5	5.8
	대규모	121	39.2	31.4	9.5	5.3	1.3	3.2	1.8	0.1	0.2	8.0

주 1) 중복응답 결과를 사례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비율의 총합은 100을 넘을 수 있음.

2)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4.1.2.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여성농업인이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나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33.9%), 그다음으로 ‘나이/건강 때문에 활발한 활동이 어려움’(30.2%), ‘집안일이나 경제 활동에 지장’(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집안일이나 경제 활동 지장’을 포함하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편견’(4.9%), ‘가족과의 갈등’(1.4%), ‘보조적 역할만 담당’(0.3%) 등을 합치면 성별로 인한 활동 제약은 23.7%로 집계할 수 있다.

〈그림 3-20〉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조직 미참여 이유(1순위)

단위: %



○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조직 불참 이유 또는 활동 시 어려움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데, 40대 이하와 영농규모가 중소 및 중대규모인 여성은 '가사·경제활동 지장'(각각 32.3%, 33.9%, 29.3%)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하였고, 여성 귀농인,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50대와 60대, 영농규모가 대규모인 여성은 '특별한 이유 없음'을, 비귀농 여성농업인과 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 70대 이상, 영농규모가 소규모인 여성들은 '신체적 제약'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선호하는 단체가 없어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9%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표 3-24〉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조직 미참여 이유(1순위):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가사 경제 활동 지장	가족 갈등 발생	지역내 편견 존재	지역내 선호 단체 없음	신체적 제약	비용 부담	활동 인력 부족 으로 못 쉽	조직내 관계 갈등	적절한 경제적 보상 없음	단체의 보조적 역할만 담당	특별한 이유 없음	χ ²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420	100.0	17.1	3.5	4.9	4.2	30.2	0.8	3.8	1.4	0.0	0.3	33.9	-	
귀농 여부	비귀농	358	100.0	17.6	3.8	5.0	4.5	33.7	0.7	3.4	1.5	0.0	29.5	31.213 ***	
	귀농	62	100.0	13.8	1.5	4.2	1.9	9.8	1.9	5.9	0.3	0.0	59.6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88	100.0	14.5	3.5	6.7	4.9	30.7	0.7	2.0	1.3	0.1	0.7	34.8	75.749 ***
	공동경영주	145	100.0	4.0	5.0	3.7	5.6	24.6	0.0	1.8	1.3	0.0	0.0	54.1	
	경영주 외 농업인	187	100.0	28.4	2.2	5.0	2.7	34.3	1.6	6.2	1.4	0.0	0.3	17.8	
연령	40대 이하	39	100.0	32.3	0.7	0.0	30.9	0.0	0.0	1.0	7.2	0.0	1.7	26.3	256.594 ***
	50대	59	100.0	21.1	4.6	6.9	2.8	0.9	0.0	5.5	1.1	0.0	1.1	56.0	
	60대	149	100.0	25.1	4.7	11.0	2.0	14.1	2.4	4.2	1.3	0.1	0.0	35.0	
	70대 이상	173	100.0	5.4	2.6	0.0	0.5	60.6	0.0	3.6	0.2	0.0	0.0	27.1	
영농규 모	소규모	299	100.0	11.6	3.4	4.2	3.6	36.7	0.1	2.4	1.9	0.0	0.0	36.0	114.789 ***
	중소규모	75	100.0	33.9	4.0	8.5	5.5	17.2	2.7	0.5	0.0	0.2	0.0	27.5	
	중대규모	29	100.0	29.3	5.1	5.1	8.8	11.8	3.9	20.1	0.0	0.0	2.3	13.6	
	대규모	17	100.0	18.4	0.0	0.0	0.0	5.2	0.0	14.5	0.0	0.0	3.6	58.2	

주 1)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2) ***p<.001.

4.2. 농축협 조합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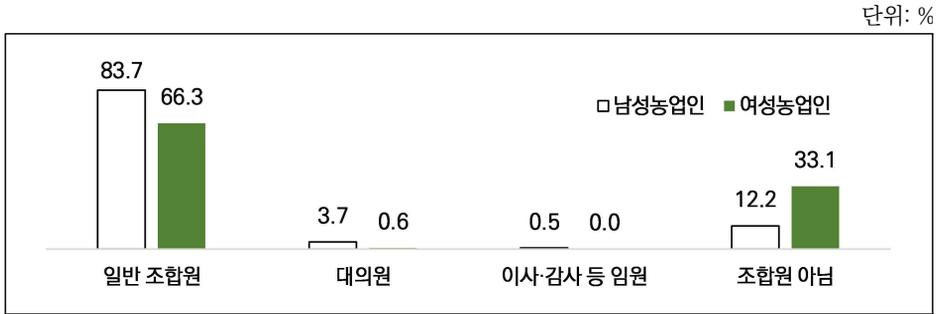
4.2.1. 농축협 조합원 여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의 66.9%는 농축협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농업인 87.8%의 가입 비율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이다($\chi^2=313.937$, $p<.001$).

- 2022년 10월 기준 농협 조합원인 여성은 711,325명으로(농림축산식품부, 2023: 19), 15세 이상 농가 여성인구 1,061천 명의(통계청, 2022) 67.0%에 해당한다. 이는 본 실태조사의 여성농업인 중 조합원 비율인 66.3%와 대동소이하다.⁶⁾

- 또한 여성농업인 중 대의원은 0.6%, 이사·감사는 없는 반면, 남성농업인은 대의원 3.7%, 이사·감사 등 임원이 0.5%로 차이가 있다.

〈그림 3-21〉 농축협 참여 현황: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의 농축협 조합원 참여 현황은 농업경영체 지위, 연령, 영농규모, 농업소득에 따라 집단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 각 집단별 조합원 가입 비율은 경영주 여성농업인이 81.6%로 가장 높고, 50대(73.6%), 영농규모가 소규모인 경우(72.5%), 농업소득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75.5%, 77.7%)에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반면 공동경영주와 농업소득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조합원 가입 비율이 각각 46.0%, 40.6%로 가장 낮았고, 농업소득이 1,500만 원 이상(52.2%)이거나 대규모로 농사짓는 여성(57.0%)의 조합원 가입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 여성농업인이 대의원인 경우는 60대(1.2%)와 농업소득이 1천만 원~1천 5백만 원 미만인 집단에서(1.9%) 약간 더 높게 나타났고, 이·감사 등 임원은 경영주와 60대(각각 0.1%), 농업소득이 1천만 원~1천 5백만 원 미만인 경우(0.4%)에서 발견되었다.

6) 2022년 10월 기준 농축협 조합원 중 여성 비율은 33.9%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3: 19). 여성농업인 중 조합원에 가입한 비율이 남성농업인보다 20%p 이상 낮기 때문에 조합원 중 여성 비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표 3-25〉 여성농업인의 농축협 참여 현황: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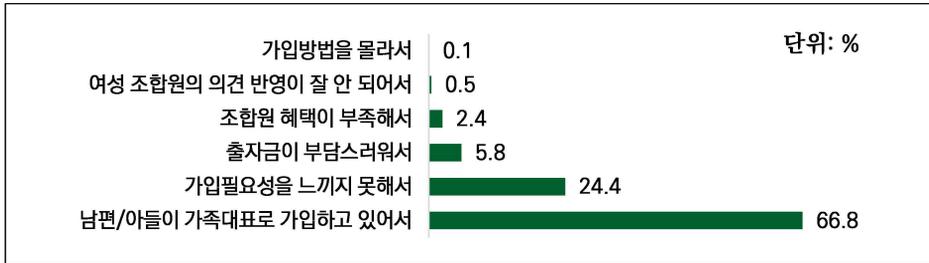
구분	전체		일반 조합원	대의원	이사·감사 등 임원	조합원 아님	x ²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83.7	3.7	0.5	12.2	313.937 ***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66.3	0.6	0.0	33.1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65.8	0.6	0.0	33.6	1.875
	여성 귀농인	244	100.0	69.9	0.5	0.0	29.6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81.6	0.7	0.1	17.5	174.612 ***
	공동경영주	554	100.0	46.0	0.0	0.0	54.0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70.6	0.9	0.0	28.5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70.1	0.3	0.0	29.6	21.691 **
	50대	296	100.0	73.6	0.6	0.0	25.8	
	60대	821	100.0	64.0	1.2	0.1	34.7	
	70대 이상	761	100.0	65.3	0.0	0.0	34.7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65.1	0.3	0.1	34.6	20.625*
	중소규모	423	100.0	72.5	0.9	0.0	26.6	
	중대규모	285	100.0	66.2	1.6	0.0	32.3	
	대규모	121	100.0	57.0	0.0	0.0	43.0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75.5	0.0	0.0	24.5	166.12 ***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100.0	77.7	0.0	0.0	22.3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100.0	72.3	1.9	0.4	25.4	
	1,500만 원 이상	647	100.0	52.2	0.8	0.0	47.0	
	잘 모름	103	100.0	40.6	3.4	0.0	56.0	

주: *p<.05, **p<.01, ***p<.001.

4.2.2. 농축협 조합 불참 이유(1순위)

○ 여성농업인이 농축협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아들이 가족 대표로 가입하고 있어서’(66.8%)이고,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24.4%)는 응답률도 상당하였다.

〈그림 3-22〉 여성농업인의 농축협 조합 미참여 이유(1순위)



○ 여성농업인이 농축협에 참여하지 않는 1순위 이유 중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는 여성 귀농인과 경영주 여성을 제외하고 ‘남편/아들이 가족 대표로 가입하고 있어서’이다. 여성 귀농인과 경영주 여성농업인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하였고, 공동경영주, 50대, 소규모 농가의 여성들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표 3-26〉 여성농업인의 농축협 조합 미참여 이유(1순위):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편·아들이 가입	필요성 못 느낌	출자금 부담	조합원 혜택 부족	여성 의견 반영 잘 안됨	가입 방법 모름	x ²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662	100.0	66.8	24.4	5.8	2.4	0.5	0.1	-	
귀농 여부	비귀농	590	100.0	69.6	21.5	5.9	2.5	0.5	0.1	25.479
	귀농	72	100.0	44.4	47.8	5.5	2.2	0.0	0.0	***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80	100.0	37.9	48.6	6.9	6.1	0.0	0.5	82.613 ***
	공동경영주	300	100.0	66.9	30.1	2.3	0.0	0.7	0.0	
	경영주 외 농업인	282	100.0	75.0	11.4	9.3	3.9	0.3	0.0	
연령	40대 이하	37	100.0	72.6	14.6	7.9	2.4	2.5	0.0	28.669*
	50대	77	100.0	50.5	44.5	4.3	0.7	0.0	0.0	
	60대	284	100.0	71.5	19.9	6.2	2.4	0.0	0.0	
	70대 이상	264	100.0	65.7	24.8	5.6	3.0	0.8	0.1	
영농 규모	소규모	405	100.0	55.6	31.5	8.6	3.7	0.5	0.1	63.805 ***
	중소규모	113	100.0	83.7	13.2	1.3	1.0	0.8	0.0	
	중대규모	92	100.0	87.8	11.0	1.2	0.0	0.0	0.0	
	대규모	52	100.0	81.1	16.7	2.2	0.0	0.0	0.0	

주 1)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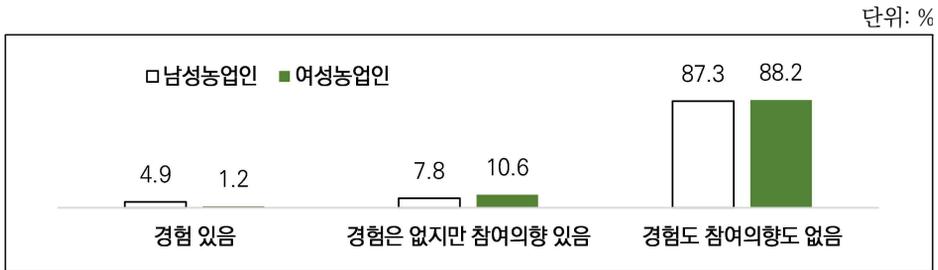
2) *p<.05, ***p<.001.

4.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활동 경험

○ 여성농업인에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경험이 있는’ 비율은 1.2%에 불과하였고, 88.2%는 ‘참여 경험이 없으며 향후 참여도 원치 않는다’고 답하였다.

- 남성농업인의 경우 ‘경험이 있는’ 비율(4.9%)이 여성농업인에 비해 높았으나, ‘경험도 참여 의향도 없는’ 비율(87.3%)은 여성농업인과 유사하였다. ‘경험은 없지만 참여 의향이 있는’ 비율(7.8%)은 여성농업인(10.6%)보다 낮았다($\chi^2=56.844$, $p<.001$).

〈그림 3-23〉 중앙정부·지자체 운영 위원회 활동 경험 여부



○ 여성농업인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활동 경험은 농업경영체 지위, 연령, 농업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경영주 여성농업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활동 경험이 있는’ 비율(2.3%)이 높고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은 ‘활동 경험은 없지만 향후 참여 의향’이 있는 비율(11.8%)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chi^2=12.418$, $p<.05$).
-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비율과 ‘경험은 없지만 향후 참여하길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다($\chi^2=63.181$, $p<.001$).
- 농업소득별로 ‘참여 경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5백만 원~1천

만 원 미만 집단(2.1%)이었다. ‘경험은 없지만 참여 의향은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소득을 잘 모르는 집단(26.9%)과 5백만 원~1천만 원 미만 집단(15.0%)이었다. ‘경험도 참여 의향도 없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1천만 원~1천 5백만 원 집단(96.8%)이었다($\chi^2=58.098$, $p<.001$).

〈표 3-27〉 여성농업인의 정부 위원회 활동 경험 여부: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경험 있음	경험은 없지만 참여의향 있음	경험도 참여의향도 없음	χ^2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4.9	7.8	87.3	56.844 ***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1.2	10.6	88.2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1.1	11.0	87.9	2.168
	여성 귀농인	244	100.0	1.5	8.1	90.4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2.3	9.9	87.7	12.418*
	공동경영주	554	100.0	1.4	9.1	89.5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0.5	11.8	87.7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1.8	24.4	73.8	63.181 ***
	50대	296	100.0	2.4	15.6	82.0	
	60대	821	100.0	1.3	11.4	87.3	
	70대 이상	761	100.0	0.4	5.7	93.9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1.2	10.0	88.9	58.098 ***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100.0	2.1	15.0	82.9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100.0	0.5	2.7	96.8	
	1,500만 원 이상	647	100.0	1.0	8.4	90.6	
	잘 모름	103	100.0	0.0	26.9	73.1	

주: * $p<.05$, *** $p<.001$.

4

교육·자격·건강 등 역량 현황

1. 교육 경험과 욕구

1.1. 교육 경험

1.1.1. 지난 1년간 교육 경험 여부

- 지난 1년간 교육을 받은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22.7%로, 남성농업인(34.2%)보다 11.5%p 낮다($\chi^2=69.336$, $p<.001$).
- 여성농업인 간에는 여성 귀농인과 경영주, 50대 이하, 중소규모 이상의 영농 규모와 1천만 원 이상 농업소득 집단이 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
 - 비귀농 여성농업인 (21.7%)과 비교해 여성 귀농인(30.3%)의 교육 경험 비율이 더 높고($\chi^2=9.036$, $p<.01$), 경영주(30.5%), 공동경영주(24.0%),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18.4%)의 순서로 교육 경험 비율이 높다($\chi^2=26.845$, $p<.001$).
 - 연령별 교육 경험 비율은 40대 이하 30.1%, 50대 29.0%, 60대 24.0%,

70대 이상 17.7%로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경험 비율이 높다($\chi^2=22.369$, $p<.001$).

- 영농규모가 소규모인 경우(18.0%)가 중소규모 이상인 집단에 비해 교육 경험 비율이 낮다($\chi^2=37.182$, $p<.001$).
- 농업소득도 500만 원 미만으로 가장 낮은 여성들의 교육 경험 비율(16.5%)이 500만 원 이상인 여성들보다 크게 낮다($\chi^2=56.812$, $p<.001$).

〈표 4-1〉 여성농업인의 지난 1년간 교육 경험 여부: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있음	없음	χ^2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34.2	65.8	69.336***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22.7	77.3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21.7	78.3	9.036**
	여성 귀농인	244	100.0	30.3	69.7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30.5	69.5	26.845***
	공동경영주	554	100.0	24.0	76.0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18.4	81.6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30.1	69.9	22.369***
	50대	296	100.0	29.0	71.0	
	60대	821	100.0	24.0	76.0	
	70대 이상	761	100.0	17.7	82.3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18.0	82.0	37.182***
	중소규모	423	100.0	30.6	69.4	
	중대규모	285	100.0	27.1	72.9	
	대규모	121	100.0	31.0	69.0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16.5	83.5	56.812***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100.0	24.8	75.2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100.0	35.9	64.1	
	1,500만 원 이상	647	100.0	27.5	72.5	
	잘 모름	103	100.0	7.2	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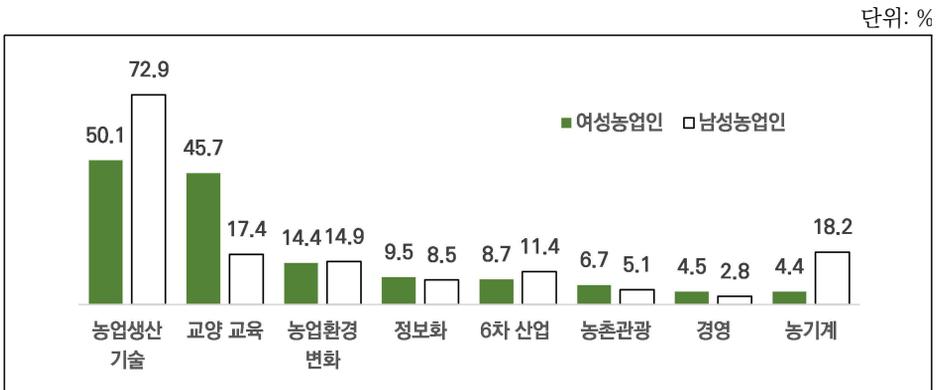
주: ** $p<.01$, *** $p<.001$.

1.1.2. 지난 1년간 받은 교육 종류

○ 지난 1년간 여성농업인이 수강한 교육의 종류는 ‘농업생산·기술’(50.1%), ‘교양 교육’(45.7%), ‘농업환경 변화’(14.4%) 등이고, 그 외 교육들은 10% 미만으로 낮다.

- 남성농업인은 ‘농업생산·기술’(72.9%), ‘농기계’(18.2%), ‘교양교육’(17.4%) 등의 순으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교양 교육’을, 남성은 ‘농기계 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지난 1년간 받은 교육 종류(중복응답): 성별 비교



주: 중복응답 결과를 사례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가 100이 넘을 수 있음.

○ 여성농업인의 귀농 여부, 연령, 농업경영체 지위, 영농규모, 농업소득별로 ‘농업생산 기술’ 교육을 받은 비율이 대체로 가장 높지만, 비귀농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60대, 소규모 농가, 농업소득이 고소득이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교양 교육’을 ‘농업생산 기술’보다 더 많이 받았다.

- 1, 2, 3순위를 차지하는 ‘농업생산 기술’, ‘교양교육’, ‘기타’를 제외하면,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이 다른 연령대 여성보다 비교적 다양한 종류의 교육 경험률이 높다. 특히 ‘농업환경 변화’, ‘정보화’, ‘6차산업화’, ‘농촌관광’, ‘경영’ 교육을 받은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

- 중소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농업환경 변화', '정보화'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고, 농업소득이 500만 원~1,000만 원인 경우와 잘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이 '농업환경 변화'를 받은 비율이 크게 높다.

〈표 4-2〉 지난 1년간 여성농업인이 받은 교육 종류(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N	농업 생산 기술	교양 교육	기타	농업 환경 변화	정보화	6차 산업화	농촌 관광	경영	농기계	자격증, 직업 훈련	신기술	리더십	
남성농업인(전체)	172	72.9	17.4	17.9	14.9	8.5	11.4	5.1	2.8	18.2	4.8	4.1	0.8	
여성농업인(전체)	455	50.1	45.7	26.5	14.4	9.5	8.7	6.7	4.5	4.4	1.9	1.8	0.8	
귀농 여부	비귀농	381	45.5	47.8	27.1	14.4	9.5	8.9	7.5	4.6	4.9	2.0	1.5	0.8
	귀농	74	73.9	34.7	23.4	14.4	9.3	7.6	2.8	3.9	2.1	1.1	3.3	0.4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140	50.0	48.8	29.9	15.8	12.2	15.2	5.2	3.3	6.8	3.4	3.2	1.5
	공동경영주	133	31.9	63.3	26.2	8.9	12.3	8.0	12.9	8.8	5.8	1.9	0.5	0.5
	경영주 외 농업인	182	63.4	30.4	24.2	17.4	5.2	4.3	3.4	2.3	1.6	0.6	1.7	0.4
연령	40대 이하	38	48.1	25.4	10.4	26.3	29.5	20.3	25.5	16.1	11.9	10.3	8.9	2.8
	50대	86	52.7	35.9	24.9	13.1	16.7	17.7	11.3	9.2	5.4	4.4	2.7	1.4
	60대	196	47.8	54.9	22.1	13.4	6.0	7.4	5.0	2.8	3.9	0.4	0.9	0.6
	70대 이상	135	52.4	44.1	38.5	13.4	4.3	1.7	1.1	0.7	2.4	0.0	0.7	0.0
연령	소규모	212	42.8	60.1	33.9	14.1	3.9	4.0	2.9	1.4	2.9	1.4	1.2	0.5
	중소규모	129	53.2	26.2	19.2	17.4	19.1	11.5	15.4	11.7	5.2	1.0	2.9	0.0
	중대규모	77	62.8	44.1	27.4	7.7	9.9	11.9	4.0	3.0	4.7	2.1	2.1	2.8
	대규모	37	54.4	34.8	8.5	19.5	6.8	18.9	3.7	0.0	9.5	6.8	0.9	0.3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119	68.3	21.2	18.0	12.8	9.6	5.8	3.5	2.4	5.7	2.8	2.2	1.0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91	50.6	50.5	42.7	20.1	11.7	4.6	12.0	7.9	3.8	1.5	2.0	0.9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60	51.9	51.8	30.4	13.2	13.2	12.9	11.6	12.6	4.7	0.7	1.0	0.0
	1,500만 원 이상	178	38.3	56.2	20.5	12.5	6.9	11.5	4.9	1.6	4.0	1.9	1.9	0.8
	잘 모름	7	22.7	72.3	77.3	27.5	13.2	4.8	0.0	0.0	0.0	0.0	0.0	0.0

주 1) 중복응답 결과를 사례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가 100이 넘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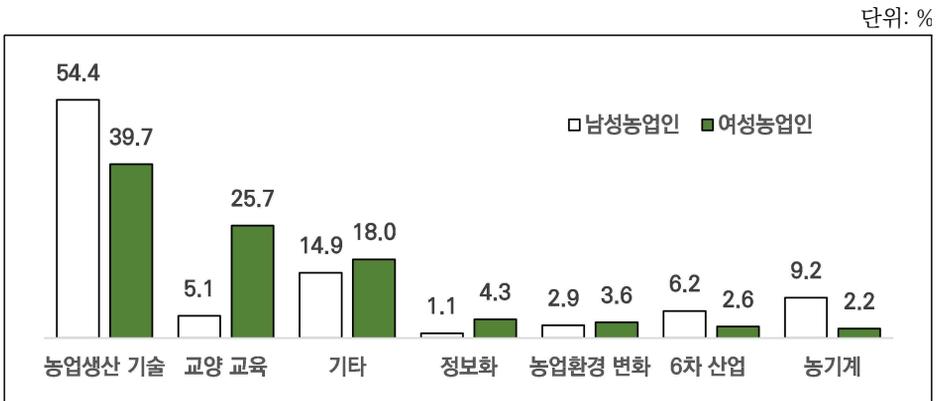
2)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1.1.3. 유익했던 교육(1순위)

○ 지난 1년 동안 받은 교육 중 여성농업인이 가장 유익한 것으로 꼽은 교육은 ‘농업생산·기술’(39.7%)이었으며, ‘교양 교육’(24.6%), ‘기타’(17.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chi^2=164.196$, $p<.001$), 남성 농업인이 꼽은 가장 유익했던 교육 1순위 역시 ‘농업생산·기술’(54.4%)이었으나 ‘기타’(14.9%), ‘농기계’(9.2%)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4-2〉 지난 1년간 받은 교육 중 유익했던 교육(1순위):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이 유익했다고 응답한 교육 종류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교육 경험률이 높은 주제인 ‘농업생산 기술’, ‘교양교육’, ‘기타’ 순으로 1, 2, 3위 응답률을 보였지만, 공동경영주, 소규모 농가, 1,500만 원 이상 농업소득을 보유한 여성농업인은 ‘농업생산 기술’보다 ‘교양교육’이 유익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 유익했던 교육의 1, 2, 3위 응답률을 제외하면, 공동경영주, 40대 이하와 50대, 중소규모 농가와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농업소득 집단에서 ‘정보화’ 교육이 유익했다는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다.

- 또한 40대 이하와 대규모 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농업환경 변화’ 교육이 유익했다는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표 4-3〉 여성농업인이 받은 교육 중 유익했던 교육(1순위):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농기계	농업 생산 기술	6차 산업	농촌 관광	신기술 정보화	자격증 ·직업 훈련	경영	농업 환경 변화	교양 교육	기타	χ ²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172	100.0	9.2	54.4	6.2	1.5	1.9	1.1	1.4	1.4	2.9	5.1	14.9	164.196 ***	
여성농업인(전체)	455	100.0	2.2	39.7	2.6	1.5	0.1	4.3	1.4	1.0	3.6	25.7	18.0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 인	381	100.0	2.5	36.4	2.6	1.7	0.0	4.4	1.6	1.1	2.7	28.5	18.4	23.751 **
	여성 귀농인	74	100.0	0.7	57.1	2.6	0.1	0.4	3.3	0.5	0.5	7.9	11.2	15.7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140	100.0	3.0	35.2	6.5	0.6	0.2	3.5	2.0	1.7	2.2	28.0	17.2	77.563 ***
	공동경영주	133	100.0	2.6	25.4	0.9	1.9	0.0	9.3	1.9	0.0	0.0	39.3	18.7	
	경영주 외 농업인	182	100.0	1.3	53.6	1.0	1.8	0.0	1.2	0.6	1.2	7.2	14.0	18.1	
연령	40대 이하	38	100.0	7.1	33.5	3.7	3.0	0.9	15.4	9.3	0.0	12.2	9.5	5.5	105.992 ***
	50대	86	100.0	1.1	43.6	7.0	0.1	0.0	9.6	3.4	1.9	3.2	13.7	16.4	
	60대	196	100.0	2.6	39.9	2.3	2.8	0.0	1.5	0.0	1.3	1.4	31.6	16.5	
	70대 이상	135	100.0	0.8	38.7	0.0	0.0	0.0	1.8	0.0	0.3	4.6	29.1	24.6	
영농 규모	소규모	212	100.0	2.4	30.5	2.3	1.4	0.0	1.7	0.8	0.2	3.8	36.5	20.4	105.75 ***
	중소규모	129	100.0	1.8	46.6	2.6	2.8	0.0	11.9	0.8	1.7	1.8	12.0	18.0	
	중대규모	77	100.0	1.5	49.8	1.5	0.0	0.0	0.5	1.5	2.7	0.2	22.4	20.0	
	대규모	37	100.0	3.7	47.1	6.9	0.0	0.9	0.3	6.8	0.0	15.6	18.7	0.0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119	100.0	2.7	59.4	3.3	0.4	0.0	4.0	1.8	0.0	5.9	8.7	13.8	102.45 ***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91	100.0	2.5	29.7	1.7	4.0	0.0	8.2	1.5	0.4	1.1	28.9	22.0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60	100.0	1.3	39.6	2.1	0.0	0.0	10.7	0.7	2.3	0.2	17.6	25.5	
	1,500만 원 이상	178	100.0	2.0	32.5	2.9	1.4	0.2	0.5	1.4	1.6	4.6	39.1	13.7	
	잘 모름	7	100.0	0.0	22.7	0.0	0.0	0.0	0.0	0.0	0.0	0.0	0.0	77.3	

주 1)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2)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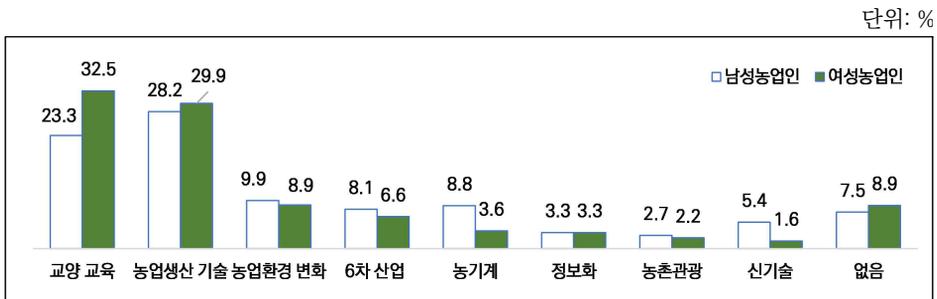
1.2. 교육 욕구

1.2.1. 향후 받고 싶은 교육(1순위)

○ 여성농업인은 향후 받고 싶은 교육으로 ‘교양 교육’(3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농업생산·기술’(29.9%), ‘농업환경변화’(8.9%) 등이 뒤를 이었다. 유일한 교육으로 ‘농업생산 기술’을 가장 많이 꼽은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인데, 이는 여성농업인들의 낮은 학습 의지를 나타낸다기보다 여가·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부족한 농촌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남성농업인이 꼽은 향후 듣고 싶은 교육 1순위는 ‘농업생산·기술’(28.2%), ‘교양 교육’(23.3%), ‘농업환경변화’(9.9%) 등의 순서였다($\chi^2=137.868$, $p<.001$).

〈그림 4-3〉 향후 받고 싶은 교육(1순위):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들이 향후 받고 싶은 교육 1순위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교양 교육’, ‘농업생산 기술’의 2종류가 6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외 교육 종류를 희망하는 비율은 10% 이내로 낮다.

- 여성 귀농인,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50대와 60대, 농업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인 여성농업인들은 ‘농업생산 기술’을 가장 받고 싶은 교육으로 꼽았고, 그 외 여성들은 ‘교양 교육’을 가장 받고 싶은 교육으로 응답하였다.

〈표 4-4〉 여성농업인들이 향후 받고 싶은 교육(1순위):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농업생산 기술	농기계	교양 교육	농업환경 변화	6차 산업	정보화	농촌 관광	x ²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28.2	8.8	23.3	9.9	8.1	3.3	2.7	137.868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29.9	3.6	32.5	8.9	6.6	3.3	2.2	***	
귀농 여부	비귀농	1759	100.0	28.1	3.8	33.0	9.4	6.4	3.4	2.3	30.95
	귀농	244	100.0	42.5	2.4	28.9	5.7	8.2	2.3	1.2	**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27.2	4.3	32.7	8.2	7.7	2.8	3.1	98.016
	공동경영주	554	100.0	33.2	3.3	38.7	4.0	5.3	2.1	0.3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29.3	3.5	29.0	12.1	6.8	4.2	2.8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28.9	2.3	29.3	7.9	9.6	2.9	2.8	174.659
	50대	296	100.0	38.0	4.5	28.4	10.7	4.9	2.1	2.3	
	60대	821	100.0	34.4	3.5	31.9	9.3	6.0	4.4	1.6	
	70대 이상	761	100.0	22.0	3.6	35.3	8.0	7.4	2.6	2.7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29.9	4.3	26.5	9.9	7.3	4.3	2.5	176.112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368	100.0	28.4	2.1	27.3	12.8	6.9	4.0	3.5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166	100.0	22.4	2.5	34.1	9.6	10.8	5.7	2.7	
	1,500만 원 이상	647	100.0	35.0	3.1	39.0	5.3	5.3	1.5	1.1	
	잘 모름	103	100.0	15.0	9.4	50.2	10.5	1.7	0.8	1.6	
구분	전체		자격증· 직업훈련	신기술	경영	리더십	기타	없음	x ²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1.3	5.4	1.2	0.3	0.0	7.5	137.868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1.3	1.6	1.0	0.1	0.1	8.9	***		
귀농 여부	비귀농	1759	100.0	1.2	1.6	1.0	0.1	0.1	9.4	30.95	
	귀농	244	100.0	1.8	1.2	0.5	0.4	0.0	4.9	**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2.9	2.9	1.1	0.3	0.0	6.9	98.016	
	공동경영주	554	100.0	1.4	0.9	0.0	0.2	0.0	10.5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0.5	1.3	1.5	0.0	0.3	8.9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2.8	7.7	0.5	0.3	0.0	5.1	174.659	
	50대	296	100.0	3.2	2.1	0.3	0.0	0.0	3.6		
	60대	821	100.0	1.1	1.4	1.3	0.1	0.0	4.9		
	70대 이상	761	100.0	0.6	0.5	0.9	0.2	0.3	15.8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2.2	1.3	0.0	0.2	0.4	11.3	176.112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368	100.0	0.6	1.1	0.4	0.1	0.0	12.8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166	100.0	1.0	1.1	2.4	0.2	0.0	7.5		
	1,500만 원 이상	647	100.0	0.8	2.2	2.1	0.1	0.0	4.5		
	잘 모름	103	100.0	1.1	1.6	0.3	0.0	0.0	7.7		

주 1)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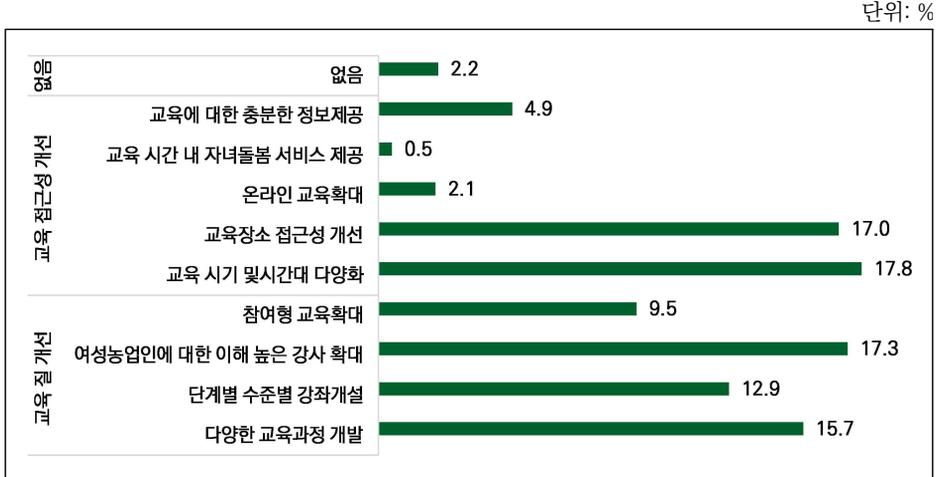
2) **p<.01, ***p<.001.

1.2.2. 교육 참여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1순위)

○ 여성농업인들은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1순위로 ‘교육 시기 및 시간대 다양화’(17.8%)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그다음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강사 확대’(17.3%), ‘교육 장소 접근성 개선’(17.0%),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15.7%), ‘단계별 수준별 강좌 개설’(12.9%) 등이 뒤를 이었다.

- 교육 정보, 자녀돌봄 서비스, 온라인 교육, 교육장소, 교육시간 관련 5개 문항은 ‘교육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것으로 응답 비율을 모두 합치면 42.3%가 된다. 반면, 참여형 교육, 강사의 질, 수준별 강좌, 다양한 교육과정의 4개 문항은 ‘교육의 질 개선’과 관련한 것으로 응답 비율을 모두 합치면 55.4%이다. 여성농업인들은 교육 접근성보다는 교육의 질 개선을 더 많이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4〉 교육 참여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1순위)



○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를 위해 필요한 개선 필요사항 1순위 응답은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 비귀농 여성농업인은 ‘교육 시기 및 시간대 다양화’(18.3%)를, 여성 귀농인은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24.0%)을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chi^2=26.341$, $p<.01$).
- 경영주 여성은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18.4%)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공동경영주는 ‘교육 시기 및 시간대 다양화’(23.0%)를, 경영주 외 농업인은 ‘교육 장소 접근성 개선’(17.7%)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였다($\chi^2=50.772$, $p<.001$).
- 70대 이상 고령 집단에서는 ‘교육장소 접근성 개선’(23.3%)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40대와 50대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15.8%, 20.0%)을, 60대는 ‘교육 시기 및 시간대 다양화’(19.0%)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다($\chi^2=155.617$, $p<.001$).
- 농업소득의 경우, 5백만 원 미만 집단과 1천 5백만 원 이상의 양극단에서 공통적으로 ‘교육 시기 및 시간대 다양화’(18.6%, 22.0%)를 가장 많이 제시하였고, 중위소득층인 5백만 원~1천만 원 미만과 1천만 원~1천 5백만 원 미만 집단에서는 ‘교육 장소 접근성 개선’(22.8%, 18.4%)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다. 소득을 모른다고 답한 집단에서는 ‘단계별·수준별 강좌 개설’이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chi^2=162.757$, $p<.001$).

〈표 4-5〉 교육 참여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1순위):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단계별 수준별 강좌 개설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해 높은 강사 확대	참여형 교육 확대	교육시기, 시간대 다양화	x ²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15.7	12.9	17.3	9.5	17.8	-	
귀농 여부	비귀농	1759	100.0	14.5	13.8	17.5	9.4	18.3	26.341
	귀농	244	100.0	24.0	6.9	15.8	10.2	14.1	**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18.4	12.6	17.9	9.5	14.6	50.772 ***
	공동경영주	554	100.0	15.6	9.5	19.6	10.4	23.0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14.4	15.0	15.8	9.0	16.4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15.8	13.0	9.2	13.3	14.2	155.617 ***
	50대	296	100.0	20.0	16.6	20.7	11.1	14.6	
	60대	821	100.0	16.2	13.9	18.7	9.1	19.0	
	70대 이상	761	100.0	13.4	10.5	15.9	8.7	18.4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15.9	13.1	15.0	8.2	18.6	162.757 ***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368	100.0	10.8	13.2	24.2	10.2	12.7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166	100.0	16.4	15.1	11.3	13.6	16.0	
	1,500만 원 이상	647	100.0	18.4	11.0	18.1	9.5	22.0	
	잘 모름	103	100.0	13.2	19.6	13.7	10.0	7.4	
구분	전체		교육장소 접근성 개선	온라인 교육 확대	교육시간내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	충분한 교육정보 제공	없음	x ²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17.0	2.1	0.5	4.9	2.2	-	
귀농 여부	비귀농	1759	100.0	16.6	2.1	0.5	4.8	2.3	26.341
	귀농	244	100.0	19.6	1.8	0.4	5.9	1.2	**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16.6	3.3	0.7	4.5	1.9	50.772 ***
	공동경영주	554	100.0	16.1	1.3	0.0	2.2	2.3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17.7	2.0	0.7	6.7	2.3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9.8	8.9	4.1	7.9	3.9	155.617 ***
	50대	296	100.0	9.9	4.1	0.4	2.4	0.2	
	60대	821	100.0	14.8	1.5	0.1	5.4	1.4	
	70대 이상	761	100.0	23.3	0.9	0.4	4.9	3.6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15.0	2.5	0.3	8.2	3.2	162.757 ***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368	100.0	22.8	1.2	1.3	2.4	1.1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166	100.0	18.4	2.1	0.0	4.5	2.5	
	1,500만 원 이상	647	100.0	15.7	1.1	0.3	3.4	0.5	
	잘 모름	103	100.0	15.5	8.6	0.6	1.6	9.8	

주 1)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2) **p<.01, ***p<.001.

2. 자격증 보유 현황과 수요

2.1. 현재 보유한 자격증 개수

- 여성농업인의 91.5%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격증이 1개인 비율이 5.7%, 2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2.9%로 낮다.
- 여성농업인 간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농업소득이 중간 이하로 낮은 경우에 자격증 보유 비율이 높았다. 귀농 여부와 농업경영체 지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 자격증 보유 비율이 40대 이하 25.5%, 50대 19.5%, 60대 9.0%이나, 70대 이상은 1%로 거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chi^2=21.512$, $p<.001$).
 - 농업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집단이 1,000만 원 이상 집단에 비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chi^2=2.953$, $p<.05$).

〈표 4-6〉 여성농업인의 자격증 보유 현황: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개

구분	전체		없음	1개	2개 이상	평균	t / F	
	N	비율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91.5	5.7	2.9	0.17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92.2	5.3	2.5	0.16	-0.977
	여성 귀농인	244	100.0	86.5	8.3	5.3	0.22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86.4	9.4	4.2	0.27	2.538
	공동경영주	554	100.0	93.5	3.1	3.4	0.15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92.7	5.4	2.0	0.13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74.5	13.7	11.8	0.70	21.512 ***
	50대	296	100.0	80.5	13.3	6.2	0.34	
	60대	821	100.0	91.0	6.2	2.8	0.17	
	70대 이상	761	100.0	99.0	0.8	0.2	0.02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90.8	5.6	3.6	0.19	2.953*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100.0	86.7	10.1	3.3	0.25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100.0	95.3	2.5	2.2	0.07	
	1,500만 원 이상	647	100.0	94.0	4.0	1.9	0.13	
	잘 모름	103	100.0	91.2	5.9	2.8	0.12	

주: * $p<.05$, *** $p<.001$.

2.2. 현재 보유한 자격증의 도움 여부와 도움된 자격증 종류

- 자격증을 보유한 여성농업인 중 80.7%는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5〉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자격증의 도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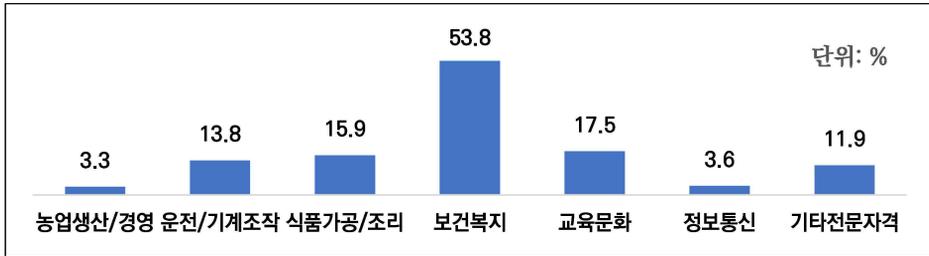


-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⁷⁾ 보건복지 분야 자격증이 53.8%로 가장 높고, 교육/문화 관련 자격증 17.5%, 식품가공/조리 관련 자격증 15.9% 순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과 관련한 자격증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7) 도움이 된 자격증과 향후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의 명칭을 직접 기입하게 하였고, 조사된 자격증들을 다음과 같이 7개 종류로 구분하였다.

자격증 분류	내용
농업생산 및 경영	유기농, 스마트농업, 도시농부, 조경기사, 치유농업사, 양봉검사, 인공수정사, 기타 농업 관련 자격증
운전 및 기계조작	대형운전면허1종, 드론, 원동기면허, 화물운송, 지게차, 트랙터, 기타 농기계 관련 자격증
식품 가공 및 조리	식품가공기능사, 조리사, 영양사, 제과제빵사, 바리스타, 푸드카빙
보건복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실버인지자격,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 관리
교육문화	교사, 교원자격증, 보육교사, 아동보호사, 상담사, 예술사, 공예사, 문화해설사, 기타 강사 자격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산회계, 컴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기타 컴퓨터 관련
기타전문자격	미용사, 공인중개사, 보험설계사, 소방자격증, 행정사, 법무사, 농어민손해사정인, 청년지도사, 자기개발관련

〈그림 4-6〉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이 된 자격증 종류(중복응답)



주: 중복응답 결과를 응답자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는 100%를 넘을 수 있음.

○ 귀농 여부, 농업경영체 지위, 연령별 모든 집단에서 보건/복지 관련 자격증이 도움되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여성 귀농인과 공동경영주, 50대 여성 농업인은 도움되었다는 자격증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 여성 귀농인은 교육/문화(23.5%), 운전/기계조작(19.4%), 공동경영주는 식품가공/조리(31.9%), 교육/문화(24.2%), 50대는 식품가공/조리(28.0%), 운전/기계조작(18.6%), 60대는 교육/문화(28.4%) 관련 자격증이 도움되었다는 응답률이 다른 집단보다 크게 높았다.

〈표 4-7〉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이 된 자격증 종류(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N	농업생산/경영	운전/기계조작	식품가공/조리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보통신	기타전문자격	
여성농업인(전체)	137	3.3	13.8	15.9	53.8	17.5	3.6	11.9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09	2.8	12.4	15.6	58.2	16.0	3.1	12.9
	여성 귀농인	28	5.3	19.4	17.3	36.4	23.5	5.7	8.2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55	2.5	15.5	14.8	58.4	12.9	6.8	7.4
	공동경영주	27	2.3	2.5	31.9	48.5	24.2	4.6	19.3
	경영주 외 농업인	55	4.5	17.9	9.0	51.8	18.8	0.0	12.8
연령	40대 이하	24	0.0	11.4	17.6	56.8	18.9	10.6	8.8
	50대	49	2.5	18.6	28.0	50.1	5.7	3.1	9.7
	60대	59	5.5	10.2	6.2	54.0	28.4	1.6	15.7
	70대 이상	5	0.0	22.2	5.9	71.8	0.0	0.0	5.4

주 1) 중복응답 결과를 응답자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는 100%를 넘을 수 있음.

2)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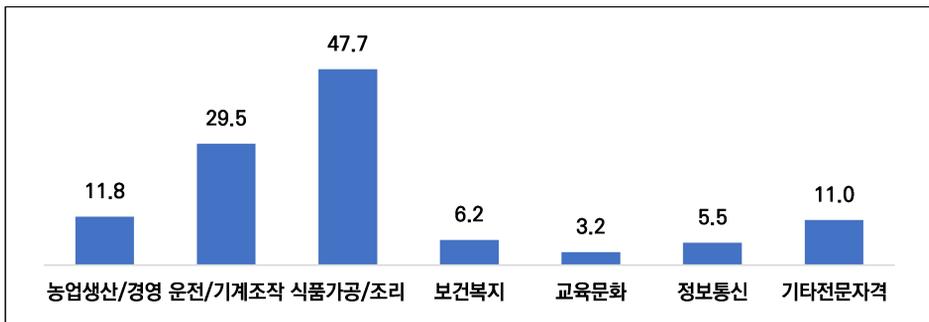
2.3. 향후 취득 희망 자격증 유무 및 종류

○ 여성농업인의 96.0%는 향후 취득하길 희망하는 자격증이 없다고 답하였다. 도움이 된 자격증 종류에 대한 조사결과를 고려하면 여성농업인들에게 자격증은 농외 소득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인식·활용되고 있으므로, 자격증 취득 의향은 농외 소득활동 의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사에 참여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들은 농외활동 참여 의향이 낮고 농업에 전념하려는 의지가 높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의향 역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짐작된다.

○ 향후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의 종류로는 ‘식품가공/조리’ 분야가 47.7%로 가장 높아서, 도움이 된 자격증 응답이 ‘보건복지’ 부문에 쏠려 있는 것과 대비된다. 그다음으로 취득 의향이 높은 부문은 ‘운전/기계조작’(29.5%), ‘농업생산/경영’(11.8%), ‘기타 전문자격’(11.0%) 등 이고 그 외 분야는 희망하는 비율이 낮다.

- 여성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외소득 활동 1순위가 자영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그림 3-17〉 참조), 현재는 비농업 부문의 여성 인력 수요가 높은 보건/복지/교육 관련 자격증을 주로 보유·활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자영업 창업에 도움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4-7〉 여성농업인의 향후 취득 희망 자격증 종류(중복응답)



주: 중복응답 결과를 응답자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는 100%를 넘을 수 있음.

○ 여성농업인의 귀농 여부, 농업경영체 지위, 연령별 모든 집단에서 ‘식품가공/조리’ 부문 자격증 취득 의향이 가장 높지만, 여성 귀농인과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40대 이하 및 50대 여성농업인은 그에 못지 않게 ‘운전/기계조작’ 관련 자격증을 희망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표 4-8〉 향후 취득 희망 자격증 종류(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N	농업생산 /경영	운전/기 계조작	식품가공 /조리	보건 복지	교육 문화	정보 통신	기타전문 자격
여성농업인(전체)		79	11.8	29.5	47.7	6.2	3.2	5.5	11.0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58	13.0	28.2	50.0	6.6	4.3	4.3	9.5
	여성 귀농인	21	8.4	33.4	41.1	5.1	0.0	8.7	15.4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28	10.8	25.5	51.7	10.8	2.5	7.3	5.8
	공동경영주	20	0.0	21.8	60.3	3.5	3.4	5.7	23.4
	경영주 외 농업인	31	20.3	38.2	35.9	3.7	3.7	3.7	7.7
연령	40대 이하	22	7.8	34.0	46.3	6.7	1.1	9.3	17.3
	50대	29	23.2	34.1	37.5	1.7	0.0	0.0	6.6
	60대 이상	28	2.5	21.0	59.6	10.8	8.5	8.5	10.8

주 1) 중복응답 결과를 응답자 수로 나눈 비율이므로 합계는 100%를 넘을 수 있음.

2)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3.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3.1.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의 성별 차이

○ 스마트폰/PC 정보 검색, 이메일/메신저 사용, 소셜미디어 서비스, 온라인 예약/쇼핑/결제, 온라인 공공행정 서비스, 온라인 금융거래, 키오스크 주문, 셀프주유소 8개 항목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조사하였다.

- 여성농업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이 높은 부문은 정보 검색, 이메일, 셀프주유소 이용이며, 그 외 공공행정, 금융거래, 온라인 예약/결제, 소셜미디어, 키오스크 활용 역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혼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 높은 항목은 ‘이메일/메신저 사용’(59.1%), ‘스마트폰/PC 정보 검색’(56.4%), ‘셀프주유소 이용’(58.0%)이다.
 - 반대로 ‘사용할 줄 모름(전혀 사용할 줄 모름 + 있는 걸 알지만 사용할 줄 모름)’의 응답률이 50% 이상 높은 항목은 ‘온라인 공공행정 서비스’(66.6%), ‘소셜미디어 서비스’(58.6%), ‘온라인 예약/쇼핑/결제’(55.1%)이다.
- ‘온라인 예약/쇼핑/결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성농업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이 여성보다 높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 < .001$). ‘사용할 수 있으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 결과를 합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비율의 성별 차이는 더 커진다.
 - 남성농업인이 ‘혼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50% 이상 높은 항목은 ‘셀프주유소 이용’(70.8%), ‘스마트폰/PC 정보 검색’(61.8%), ‘이메일/메신저 사용’(59.3%)으로 여성농업인과 항목은 같으나 응답률이 높은 항목의 순위가 다르고 비율도 더 높다.
 - 남성농업인이 ‘사용할 줄 모른다’는 응답이 50% 이상 높은 항목은 ‘온라인 공공행정 서비스’(63.1%), ‘온라인 예약/쇼핑/결제’(55.9%) ‘소셜미디어 서비스’(54.6%)로 여성농업인과 항목은 같으나 응답 비율은 더 낮다.

〈표 4-9〉 디지털 기술 역량: 성별 비교

단위: %

	구분	전체	사용할 줄 모름	사용할 줄		사용할 수 있음	사용할 수 있으나 도움 필요	혼자 능숙하게 사용함	x ²
				전혀 사용할 줄 모름	알지만 사용할 줄 모름				
스마트폰/PC 정보 검색	남성	100.0	25.0	10.3	14.7	75.1	13.3	61.8	25.615 ***
	여성	100.0	31.3	14.5	16.8	68.7	12.3	56.4	
이메일/메신저 사용	남성	100.0	26.6	13.0	13.6	73.4	14.1	59.3	31.457 ***
	여성	100.0	31.2	17.2	14.0	68.8	9.7	59.1	
소셜미디어 서비스	남성	100.0	54.6	35.1	19.5	45.3	18.5	26.8	35.892 ***
	여성	100.0	58.6	40.9	17.7	41.4	12.7	28.7	
온라인 예약/ 쇼핑/결제	남성	100.0	55.9	34.7	21.2	44.2	16.8	27.4	25.603 ***
	여성	100.0	55.1	37.4	17.7	44.9	13.1	31.8	
온라인 공공행정 서비스	남성	100.0	63.1	39.1	24.0	37.0	16.4	20.6	27.935 ***
	여성	100.0	66.6	46.7	19.9	33.4	15.6	17.8	
온라인 금융거래	남성	100.0	45.3	25.2	20.1	54.7	16.4	38.3	37.922 ***
	여성	100.0	49.1	32.7	16.4	50.9	12.9	38.0	
키오스크 주문	남성	100.0	46.8	26.6	20.2	53.1	19.2	33.9	11.269 *
	여성	100.0	48.3	30.7	17.6	51.7	19.2	32.5	
셀프주유소	남성	100.0	14.4	8.7	5.7	85.6	14.8	70.8	38.479 ***
	여성	100.0	28.7	19.1	9.6	71.3	13.3	58.0	

주 1) '셀프주유소'는 운전능력이 없는 경우(비해당)를 제외한 비율임. 여성농업인의 34.8%, 남성농업인의 9.7%가 비해당에 해당하였음.

2) *p<.05, ***p<.001.

3.2. 여성농업인 특성별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차이

3.2.1. 스마트폰/PC 정보 검색

○ 스마트폰/PC 정보 검색은 여성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률(68.7%)이 두 번째로 높은 항목이지만, 비귀농,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70대 이상, 농업소득이 낮은 여성농업인의 활용 가능 응답률은 낮은 편이다.

- 여성 귀농인이 '혼자 능숙하게 사용'하는 비율(72.7%)이 비귀농 여성농업인(54.1%)에 비해 18.6%p 높다($\chi^2=29.594$, $p<.001$).
- 농업경영체 지위별로 '혼자 능숙하게 사용한다'의 응답 비율은 유사하지만 '사용할 수 있으나 도움 필요'의 응답을 합치면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지위의 여성이 경영주(70.4%) 및 공동경영주(70.7%) 여성에 비해 활용 가능 응답률이(66.7%) 다소 낮다($\chi^2=34.544$, $p<.001$).
- 40대 이하는 99.4%, 50대는 91.8%, 60대는 72.1%의 여성농업인 '혼자 능숙하게 사용'하지만 70대 이상의 여성농업인은 18.6%만이 응답하여, 고령 여성농업인의 스마트 기기 활용 정보 검색 역량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chi^2=900.33$, $p<.001$).
- 농업소득이 높을수록 '혼자 능숙하게 사용한다'와 '사용할 수 있으나 도움 필요'의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chi^2=82.489$, $p<.001$).

〈표 4-10〉 여성농업인의 스마트폰/PC 정보 검색 역량: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용할 줄 모름	전혀 사용할 줄 모름	알지만 사용할 줄 모름	사용할 수 있음	사용할 수 있으나 도움 필요	혼자 능숙하게 사용함	χ^2	
	N	비율								
전체	2003	100.0	31.3	14.5	16.8	68.7	12.3	56.4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33.0	15.2	17.8	67.0	12.9	54.1	29.594
	여성 귀농인	244	100.0	19.7	9.5	10.2	80.4	7.7	72.7	***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29.7	17.1	12.6	70.4	12.8	57.6	34.544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554	100.0	29.4	8.4	21.0	70.7	14.4	56.3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0.3	0.0	0.3	99.7	0.3	99.4	900.33
	50대	296	100.0	4.1	0.9	3.2	96.0	4.2	91.8	
	60대	821	100.0	13.9	2.2	11.7	86.2	14.1	72.1	
	70대 이상	761	100.0	65.9	35.5	30.4	34.1	15.5	18.6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34.4	19.0	15.4	65.6	9.6	56.0	82.489
	5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68	100.0	35.6	16.5	19.1	64.4	10.8	53.6	
	1,000만 원 ~ 1,500만 원 미만	166	100.0	29.1	12.0	17.1	70.9	13.8	57.1	
	1,500만 원 이상	647	100.0	22.7	6.8	15.9	77.3	16.1	61.2	
	잘 모름	103	100.0	53.2	28.9	24.3	46.9	10.0	36.9	

주: *** $p<.001$.

3.2.2. 이메일/메신저 활용

○ 이메일/메신저 활용은 여성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률(68.8%)이 가장 높은 항목이지만, 그 중에서도 비귀농,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70대 이상, 농업소득이 낮은 여성농업인의 활용 가능 응답률은 다른 집단보다 낮다.

- 여성 귀농인이 '혼자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비율(69.8%)이 비귀농 여성농업인 (57.3%)에 비해 12.5%p 높다($x^2=14.159$, $p<.01$).
- 공동경영주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에 비해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12.4%)는 응답 비율이 6~8%p 가량 낮고 '혼자 능숙하게 사용한다'(60.9%)는 비율은 2~3%p 가량 높다($x^2=23.551$, $p<.001$).
- 정보 검색과 마찬가지로 60대 이하는 대부분이 사용할 수 있지만(40대 이하 97.2%, 50대 90.4%, 60대 86.1%), 70대 이상은 37.0%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x^2=769.255$, $p<.001$).
- 농업소득이 높을수록 사용할 수 있다는 비율이 높다.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71.6%)과 1,500만 원 이상(78.8%)인 집단의 사용 가능 비율이 하위 두 집단(500만 원 미만 65.5%,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63.7%)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x^2=91.172$, $p<.001$).

〈표 4-11〉 여성농업인의 이메일/메신저 활용 역량: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용할 줄 모름	전혀 사용할 줄 모름	알지만 사용할 줄 모름	사용할 수			x ²	
	N	비율				있음	사용할 수 있으나 도움 필요	혼자 능숙하게 사용함		
전체	2003	100.0	31.2	17.2	14.0	68.8	9.7	59.1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 인	1759	100.0	32.6	18.0	14.6	67.4	9.8	57.6	14.159 **
	여성 귀농인	244	100.0	21.4	11.9	9.5	78.6	8.8	69.8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31.0	20.2	10.8	69.1	11.8	57.3	23.551 ***
	공동경영주	554	100.0	30.2	12.4	17.8	69.8	8.9	60.9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31.9	18.6	13.3	68.1	9.2	58.9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2.8	0.0	2.8	97.2	1.6	95.6	769.255 ***
	50대	296	100.0	9.6	6.1	3.5	90.4	4.3	86.1	
	60대	821	100.0	13.9	7.5	6.4	86.1	6.8	79.3	
	70대 이상	761	100.0	62.9	34.9	28.0	37.0	16.2	20.8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34.5	19.3	15.2	65.5	7.9	57.6	91.172 ***
	5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68	100.0	36.2	19.2	17.0	63.7	10.7	53.0	
	1,000만 원 ~ 1,500만 원 미만	166	100.0	28.5	19.3	9.2	71.6	10.4	61.2	
	1,500만 원 이상	647	100.0	21.2	9.7	11.5	78.8	11.5	67.3	
	잘 모름	103	100.0	57.7	39.9	17.8	42.3	6.2	36.1	

주: **p<.01, ***p<.001.

3.2.3. 소셜미디어 서비스 활용

○ 여성농업인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활용 가능 비율은 41.4%로 높지 않으며, 비귀농,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70대 이상, 농업소득이 중간 구간에 위치한 여성농업인의 활용 가능 응답률은 더 낮다.

- 여성 귀농인이 '혼자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비율(49.4%)이 비귀농 여성농업인 (25.9%)에 비해 13.5%p 높다($x^2=59.664$, $p<.001$).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여성은 '혼자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32.9%, 33.5%이지만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은 그 비율이 24.1%로 낮다($x^2=31.544$, $p<.001$).

- 앞선 두 항목과 마찬가지로 70대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의 대부분(91.4%)은 사용할 줄 모르고, 60대 여성농업인도 절반 정도(51.0%)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50대는 77.7%, 40대 이하는 93.1%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연령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chi^2=895.035$, $p<.001$).
- 농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로 적거나 1,500만 원 이상으로 높은 양극단 구간에 속한 여성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41.7%, 50.2%로 중간의 두 구간에 위치한 여성농업인보다 유의미하게 높다($\chi^2=91.258$, $p<.001$).

〈표 4-12〉 여성농업인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활용 역량: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용할 줄 모름	전혀 사용할 줄 모름	알지만 사용할 줄 모름	사용할 수 있음	사용할 수 있으나 도움 필요	혼자 능숙하게 사용함	χ^2	
	N	비율								
전체	2003	100.0	58.6	40.9	17.7	41.4	12.7	28.7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60.7	42.6	18.1	39.4	13.5	25.9	59.664
	여성 귀농인	244	100.0	43.5	28.4	15.1	56.5	7.1	49.4	***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54.4	40.9	13.5	45.6	12.7	32.9	31.544
	공동경영주	554	100.0	52.4	34.4	18.0	47.6	14.1	33.5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64.0	44.5	19.5	36.0	11.9	24.1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7.0	2.5	4.5	93.1	7.3	85.8	895.035
	50대	296	100.0	22.3	10.6	11.7	77.7	13.5	64.2	
	60대	821	100.0	49.1	27.1	22.0	51.0	19.7	31.3	
	70대 이상	761	100.0	91.4	73.8	17.6	8.6	5.8	2.8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58.4	41.8	16.6	41.7	12.8	28.9	91.258
	5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68	100.0	71.1	55.0	16.1	28.8	9.1	19.7	
	1,000만 원 ~ 1,500만 원 미만	166	100.0	60.9	43.2	17.7	39.1	9.3	29.8	
	1,500만 원 이상	647	100.0	49.8	28.5	21.3	50.2	16.4	33.8	
	잘 모름	103	100.0	66.5	57.4	9.1	33.5	6.9	26.6	

주: *** $p<.001$.

3.2.4. 온라인 예약, 쇼핑, 결제 시스템 활용

○ 온라인 예약/쇼핑/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여성농업인은 44.9%이고, 비귀농,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70대 이상, 농업소득이 1,500만 원 미만 구간들에 위치한 여성농업인의 활용 가능 응답률은 더 낮다.

- 여성 귀농인은 53.0%가 ‘혼자 능숙하게 사용’하지만 비귀농 여성농업인은 그 비율이 28.8%로 크게 차이가 난다($\chi^2=57.347$, $p<.001$).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여성은 ‘혼자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36.9%, 33.5%이지만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은 그 비율이 28.5%로 낮고,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는 응답률도 43.0%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 비해 크게 높다($\chi^2=57.315$, $p<.001$).
- 앞선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70대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은 대부분이(92.8%) 사용할 줄 모르고, 60대는 56.7%, 50대는 85.7%, 40대 이하는 99.5%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60대의 경우는 ‘혼자 능숙하게 사용’하는 비율은 33.0%로 높지 않지만 도와주면 사용할 수 있다는 비율이 23.7%로 높다($\chi^2=1141.842$, $p<.001$).
- 농업소득이 1,500만 원 미만의 세 구간에 속한 여성농업인은 60% 전후가 사용할 줄 모른다고 응답한 반면 1,500만 원 이상 여성농업인은 55.7%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chi^2=97.96$, $p<.001$).

〈표 4-13〉 여성농업인의 온라인 예약/쇼핑/결제 시스템 활용 역량: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용할 줄 모름	전혀 사용할 줄 모름	알지만 사용할 줄 모름	사용할 수 있음	사용할 수 있으나 도움 필요	혼자 능숙하게 사용함	x ²	
	N	비율								
전체	2003	100.0	55.1	37.4	17.7	44.9	13.1	31.8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57.5	39.1	18.4	42.4	13.6	28.8	57.347
	여성 귀농인	244	100.0	37.9	24.8	13.1	62.1	9.1	53.0	***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52.1	38.0	14.1	47.9	11.0	36.9	57.315
	공동경영주	554	100.0	48.0	26.8	21.2	52.0	18.5	33.5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60.5	43.0	17.5	39.5	11.0	28.5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0.6	0.6	0.0	99.5	1.0	98.5	1141.842
	50대	296	100.0	14.2	7.5	6.7	85.7	8.9	76.8	
	60대	821	100.0	43.2	23.2	20.0	56.7	23.7	33.0	
	70대 이상	761	100.0	92.8	70.4	22.4	7.1	5.2	1.9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57.1	41.7	15.4	42.9	10.1	32.8	97.96
	5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68	100.0	66.6	45.9	20.7	33.4	8.1	25.3	
	1,000만 원 ~ 1,500만 원 미만	166	100.0	57.5	43.2	14.3	42.5	9.6	32.9	
	1,500만 원 이상	647	100.0	44.2	25.8	18.4	55.7	21.0	34.7	
	잘 모름	103	100.0	64.9	40.9	24.0	35.1	7.1	28.0	

주: ***p<.001.

3.2.5. 온라인 공공행정 서비스(홈텍스, 민원24 등) 활용

○ 온라인 공공행정 서비스는 여성농업인의 활용 역량이 가장 낮은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여성농업인은 33.4%로 낮다. 비귀농,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60대 이상, 농업소득이 1,500만 원 미만 구간들에 위치한 여성농업인의 활용 가능 응답률이 유의미하게 낮다.

- 여성 귀농인의 29.1%는 ‘혼자 능숙하게 사용’하지만 일반 여성농업인은 그 비율이 16.2%로 낮다($x^2=30.288$, $p<.001$).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여성이 ‘혼자 능숙하게 사용’하는 비율은 각각 25.9%, 13.1%로 차이가 있지만 ‘도움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응답을 합치면 두

집단 간의 사용 가능 응답률(경영주 38.3%, 공동경영주 38.2%)의 차이는 거의 없다. 반면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은 사용 가능 응답률이 28.4%로 10%p 가량 낮다($\chi^2=95.007$, $p<.001$).

- 70대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의 95.3%가 사용할 줄 모르며 60대 역시 사용할 줄 모르는 비율이 60.8%로 높다. 반면 50대는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67.1%, 40대는 89.0%로 높아서 60대 이상과 50대 이하 집단 간의 사용 역량 차이가 확연하다($\chi^2=931.505$, $p<.001$).
- 농업소득이 500만 원 ~ 1,000만 원 미만인 여성들의 사용 역량이 가장 낮고(사용할 수 있음 23.5%), 500만 원 미만과 1,000만 원 ~ 1,500만 원 미만 여성농업인도 사용 가능 응답률이 31% 가량으로 낮다. 반면 1,500만 원 이상 고소득 여성농업인들은 41.9%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chi^2=164.015$, $p<.001$).

〈표 4-14〉 여성농업인의 온라인 공공행정 서비스 활용 역량: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용할 줄 모름	전혀 사용할 줄 모름	알지만 사용할 줄 모름	사용할 수 있음	사용할 수 있으나 도움 필요	혼자 능숙하게 사용함	χ^2	
	N	비율								
전체	2003	100.0	66.6	46.7	19.9	33.4	15.6	17.8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67.6	48.1	19.5	32.3	16.1	16.2	30.288
	여성 귀농인	244	100.0	59.3	36.5	22.8	40.8	11.7	29.1	***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61.8	45.6	16.2	38.3	12.4	25.9	95.007
	공동경영주	554	100.0	61.8	37.5	24.3	38.2	25.1	13.1	***
연령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71.6	52.4	19.2	28.4	11.7	16.7	
	40대 이하	125	100.0	10.9	3.0	7.9	89.0	15.1	73.9	931.505
	50대	296	100.0	33.0	11.2	21.8	67.1	23.6	43.5	***
	60대	821	100.0	60.8	35.6	25.2	39.3	23.6	15.7	
농업 소득	70대 이상	761	100.0	95.3	79.8	15.5	4.7	3.9	0.8	
	500만 원 미만	719	100.0	68.4	49.2	19.2	31.6	10.7	20.9	
	5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68	100.0	76.5	61.7	14.8	23.5	6.5	17.0	164.015
	1,000만 원 ~ 1,500만 원 미만	166	100.0	68.0	55.4	12.6	31.9	16.6	15.3	***
	1,500만 원 이상	647	100.0	58.1	31.6	26.5	41.9	26.1	15.8	
	잘 모름	103	100.0	70.0	56.9	13.1	30.0	14.4	15.6	

주: *** $p<.001$.

3.2.6. 온라인 금융거래(폰뱅킹, 모바일/인터넷 뱅킹등) 활용

○ 여성농업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용 가능 응답률은 50.9%이고, 비귀농,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70대 이상, 농업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여성농업인의 활용 가능 응답률은 더 낮다.

- 여성 귀농인은 61.5%가 ‘혼자 능숙하게 사용’하지만 비귀농 여성농업인은 그 비율이 34.7%로 여성 귀농인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chi^2=66.461$, $p<.001$).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여성은 ‘혼자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43.2%, 38.3%로 차이가 나지만 ‘도움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을 합치면 공동경영주 여성의 사용 가능자 비율은 59.5%로 경영주 여성(53.0%)보다 높아진다.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도 35.4%가 ‘혼자 능숙하게 사용’하여 공동경영주 여성과 차이가 적으나 ‘도움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은 45.2%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 비해 낮다($\chi^2=75.582$, $p<.001$).
- 70대 이상의 91.0%는 사용할 줄 모르고, 60대 이하는 사용 가능 응답률이 높다(60대 67.3%, 50대 92.7%, 40대 이하 100.0%)($\chi^2=1187.234$, $p<.001$).
- 농업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여성농업인의 사용 가능 응답률이 45% 내외로 낮고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500만 원 이상 소득구간의 여성들은 53.9%, 61.2%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chi^2=92.867$, $p<.001$).

〈표 4-15〉 여성농업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용 역량: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용할 줄 모름	전혀 사용할 줄 모름	알지만 사용할 줄 모름	사용할 수 있음	사용할 수 있으나 도움 필요	혼자 능숙하게 사용함	x ²	
	N	비율								
전체	2003	100.0	49.1	32.7	16.4	50.9	12.9	38.0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51.8	34.7	17.1	48.1	13.4	34.7	66.461 ***
	여성 귀농인	244	100.0	28.7	17.7	11.0	71.3	9.8	61.5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47.0	34.3	12.7	53.0	9.8	43.2	75.582 ***
	공동경영주	554	100.0	40.6	22.5	18.1	59.5	21.2	38.3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54.8	37.6	17.2	45.2	9.8	35.4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0.0	0.0	0.0	100.0	5.0	95.0	1187.234 ***
	50대	296	100.0	7.3	4.5	2.8	92.7	6.5	86.2	
	60대	821	100.0	32.7	16.3	16.4	67.3	23.9	43.4	
	70대 이상	761	100.0	91.0	66.6	24.4	9.0	5.0	4.0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54.3	38.9	15.4	45.7	9.6	36.1	92.867 ***
	5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68	100.0	55.6	38.7	16.9	44.5	8.6	35.9	
	1,000만 원 ~ 1,500만 원 미만	166	100.0	46.1	35.9	10.2	53.9	14.0	39.9	
	1,500만 원 이상	647	100.0	38.8	19.7	19.1	61.2	18.4	42.8	
	잘 모름	103	100.0	58.3	43.2	15.1	41.6	15.8	25.8	

주: ***p<.001.

3.2.7. 식당, 카페 등에서 주문 시 키오스크 활용

○ 키오스크를 이용한 주문이 가능한 여성농업인은 51.7%이며, 이 역시 비귀농,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70대 이상, 농업소득이 1,500만 원 미만 구간들에 위치한 여성농업인의 활용 가능 응답률이 유의미하게 낮다.

- 여성 귀농인은 51.5%가 '혼자 능숙하게 사용', 18.9%는 '도와주면 사용' 할 수 있어서 70.4%가 사용 가능하지만 비귀농 여성농업인은 사용 가능 응답률이 49.1%로 크게 낮다($x^2=54.833$, $p<.001$).
- '혼자 능숙하게 사용'하는 비율은 경영주 여성(37.6%)이 다른 두 집단보다 높지만 '도와주면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합친 비율은 경영주 52.4%, 공동

경영주 59.4%로 높다. 반면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의 사용 가능 응답률은 47.0%로 더 낮다($\chi^2=54.075$, $p<.001$).

- 70대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과 60대 이하 여성농업인 간의 차이가 확연하다. 70대 이상 여성은 82.4%가 사용할 줄 모르지만 60대는 62.2%, 50대는 90.3%, 40대 이하는 99.4%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chi^2=986.243$, $p<.001$).
- 농업소득이 1,500만 원 미만의 세 구간에 속한 여성농업인은 사용 가능자가 50%가 안 되지만 1,500만 원 이상 여성농업인은 63.4%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chi^2=134.696$, $p<.001$).

〈표 4-16〉 여성농업인의 키오스 활용 역량: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용할 줄 모르			사용할 수 있음			혼자 능숙하게 사용함	χ^2
	N	비율	전혀 사용할 줄 모르	알지만 사용할 줄 모르	사용할 수 있음	사용할 수 있으나 도움 필요				
전체	2003	100.0	48.3	30.7	17.6	51.7	19.2	32.5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50.9	32.9	18.0	49.1	19.3	29.8	54.833
	여성 귀농인	244	100.0	29.6	15.3	14.3	70.4	18.9	51.5	***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47.5	33.2	14.3	52.4	14.8	37.6	54.075
	공동경영주	554	100.0	40.6	24.1	16.5	59.4	28.1	31.3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53.0	33.3	19.7	47.0	16.3	30.7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0.6	0.0	0.6	99.4	3.2	96.2	986.243
	50대	296	100.0	9.7	2.9	6.8	90.3	19.2	71.1	
	60대	821	100.0	37.8	17.0	20.8	62.2	27.0	35.2	
	70대 이상	761	100.0	82.4	61.4	21.0	17.5	13.5	4.0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52.2	37.6	14.6	47.7	13.7	34.0	134.696
	5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368	100.0	55.1	36.8	18.3	44.8	13.5	31.3	
	1,000만 원 ~ 1,500만 원 미만	166	100.0	51.6	34.8	16.8	48.4	18.5	29.9	
	1,500만 원 이상	647	100.0	36.5	18.0	18.5	63.4	30.6	32.8	
	잘 모름	103	100.0	64.8	34.6	30.2	35.2	7.2	28.0	

주: *** $p<.001$.

3.2.8. 셀프주유소 이용

○ 여성농업인의 34.8%는 운전을 하지 못한다. 운전을 할 수 있는 여성농업인 중 셀프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71.3%로 높은 편이다. 여성농업인 간에는 비귀농, 70대 이상, 농업소득이 중간 수준인 여성농업인의 활용 가능 응답률이 유의미하게 낮다. 농업경영체 지위에 따른 차이는 없다.

- 여성 귀농인은 74.6%가 '혼자 능숙하게 사용'하지만 비귀농 여성농업인은 그 비율이 55.1%로 많이 낮다($\chi^2=41.734$, $p<.001$).
- 70대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은 운전을 못 하는 비율(62.4%)이 높은 가운데 운전 가능자의 15.3%만이 셀프주유소를 이용할 줄 안다. 60대 이하의 운전 가능자가 대략 80% 이상이고 그중 80% 이상, 50대 이하는 95% 이상이 셀프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chi^2=826.756$, $p<.001$).
- 농업소득이 낮을수록 운전을 못하는 비율이 높은 가운데,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의 중간층 두 구간의 여성농업인들의 셀프주유소 이용 가능 비율이 양 극단의 소득구간보다 낮다($\chi^2=71.414$, $p<.001$).

〈표 4-17〉 여성농업인의 셀프주유소 활용 역량: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운전할 수 있음									운전을 못 함	
	전체		사용할 줄 모름			사용할 수 있음			χ ²		
	N	비율	전혀 사용할 줄 모름	알지만 사용할 줄 모름	사용할 수 있음	사용할 수 있으나 도움 필요	혼자 능숙하게 사용				
전체	1417	100.0	28.7	19.1	9.6	71.3	13.3	58.0	-	34.8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208	100.0	31.4	21.7	9.7	68.6	13.5	55.1	41.734	36.7
	여성 귀농인	209	100.0	12.9	3.8	9.1	87.0	12.4	74.6	***	20.4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991	100.0	28.0	19.5	8.5	72.0	13.5	58.5	10.011	29.9
	공동경영주	124	100.0	25.0	12.1	12.9	75.0	11.3	63.7		27.1
	경영주 외 농업인	302	100.0	32.4	20.5	11.9	67.6	13.6	54.0		41.3
연령	40대 이하	153	100.0	2.0	0.7	1.3	98.1	3.3	94.8	826.756	11.5
	50대	324	100.0	4.9	0.9	4.0	95.1	9.3	85.8		10.9
	60대	607	100.0	17.3	8.1	9.2	82.7	21.6	61.1		21.2
	70대 이상	333	100.0	84.7	65.2	19.5	15.3	6.9	8.4		62.4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573	100.0	29.9	20.8	9.1	70.2	8.4	61.8	71.414	43.1
	5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243	100.0	37.9	28.0	9.9	62.1	11.1	51.0		35.3
	1,000만 원 ~ 1,500만 원 미만	125	100.0	35.2	23.2	12.0	64.8	15.2	49.6		36.3
	1,500만 원 이상	411	100.0	21.7	11.7	10.0	68.4	21.7	46.7		25.0
	잘 모름	65	100.0	15.4	9.2	6.2	84.6	9.2	75.4		33.9

주: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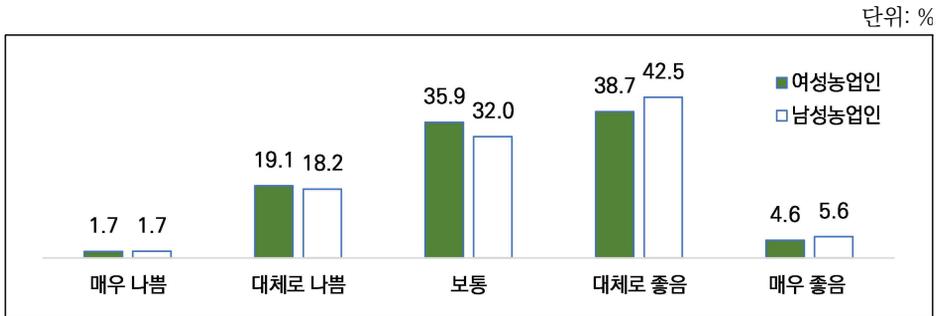
4. 건강상태

4.1. 주관적 건강상태

○ 여성농업인이 평가한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평균 3.25점으로 양호한 편이나 남성농업인의 주관적 건강상태(3.32점)보다는 유의미하게 낮다($t=-2.433, p<.05$).

- 여성농업인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35.9%)이라는 응답과 ‘대체로 좋음’(38.7%)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남성농업인은 ‘대체로 좋음’(42.5%)의 비율이 여성농업인보다 높다.

〈그림 4-7〉 주관적 건강상태: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여성 귀농인이(3.45점) 비귀농 여성농업인(3.23점)과 비교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자신의 건강 수준이 더 양호하였다($t=-3.761, p<.001$).
-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F=76.571, p<.001$), 70대 이상(2.90점)은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50대와 60대를 제외하고 각 연령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영농규모가 중소규모(3.34점)이거나 중대규모(3.40점)인 여성농업인이 소규모(3.19점)이거나 대규모(3.24점)인 여성농업인에 비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하였다($F=6.393, p<.001$).

〈표 4-18〉 여성농업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점수

구분	전체		매우 나쁨	대체로 나쁨	보통	대체로 좋음	매우 좋음	평균	t / F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1.7	18.2	32.0	42.5	5.6	3.32	-2.433*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1.7	19.1	35.9	38.7	4.6	3.25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1.9	20.1	35.8	38.0	4.3	3.23	-3.761***
	여성 귀농인	244	100.0	0.5	11.9	36.6	43.8	7.1	3.45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1.4	18.7	34.3	39.9	5.7	3.30	1.263
	공동경영주	554	100.0	2.3	17.2	41.2	35.4	3.8	3.21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1.5	20.3	33.6	40.0	4.6	3.26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0.0	4.7	29.3	51.6	14.4	3.76	76.571***
	50대	296	100.0	0.0	8.6	34.9	49.9	6.6	3.54	
	60대	821	100.0	0.6	12.3	37.0	46.9	3.2	3.40	
	70대 이상	761	100.0	3.9	32.8	36.2	23.4	3.8	2.90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2.3	21.2	37.5	33.0	5.9	3.19	6.393***
	중소규모	423	100.0	1.2	15.7	34.3	45.5	3.4	3.34	
	중대규모	285	100.0	0.3	16.8	28.9	51.2	2.9	3.40	
	대규모	121	100.0	0.8	15.7	42.7	40.3	0.5	3.24	

주 1) '매우 나쁨 1 ~ 매우 좋음 5'로 조사하였고, 평균이 5점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좋음.

2) *p<.05, ***p<.001.

4.2. 정신적 건강상태

○ 여성농업인이 지난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2.4%,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0.2%로 여성농업인의 정신건강 상태는 양호하였다.

- 남성농업인도 절대적 수치로는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하지만(우울감 경험 2.8%, 자살생각 경험 0.9%), 여성농업인과 비교하면 자살생각 경험은 남성이 유의미하게 높다($\chi^2=9.021$, $p<.01$).

〈그림 4-8〉 지난 1년간 우울감 및 자살생각 경험 여부: 성별 비교

단위: %



주: 우울감을 느낀 사람과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 여성농업인들 중에서 우울감 경험은 영농규모, 자살생각 경험은 농업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영농규모가 중소규모 및 중대규모인 여성농업인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더 양호하였음에도 정신적 건강상태는 더 나쁘게 나타났다. 영농규모가 소규모(1.8%)이거나 대규모(0.6%)인 여성농업인보다 중소규모(3.4%)와 중대규모(4.0%)인 여성농업인이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chi^2=8.138, p<.05$).
- 자살생각 경험은 농업소득이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인 중상위층에서 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평균적 경험(0.2%)의 약 7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chi^2=14.231, p<.01$).

〈표 4-19〉 지난 1년간 우울 및 자살생각 경험 여부: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우울감 경험여부			자살생각 경험여부			
	N	비율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2.8	97.2	0.66	0.9	99.1	9.021**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2.4	97.6		0.2	99.8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2.5	97.5	0.681	0.2	99.8	0.556
	여성 귀농인	244	100.0	1.6	98.4		0.0	100.0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2.2	97.8	1.725	0.4	99.6	1.769
	공동경영주	554	100.0	1.8	98.2		0.1	99.9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2.8	97.2		0.1	99.9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2.2	97.8	6.441	0.5	99.5	4.307
	50대	296	100.0	0.8	99.2		0.4	99.6	
	60대	821	100.0	2.2	97.8		0.0	100.0	
	70대 이상	761	100.0	3.3	96.7		0.3	99.7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1.8	98.2	8.138*	0.1	99.9	0.649
	중소규모	423	100.0	3.4	96.6		0.3	99.7	
	중대규모	285	100.0	4.0	96.0		0.3	99.7	
	대규모	121	100.0	0.6	99.4		0.0	100.0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2.9	97.1	3.725	0.0	100.0	14.231**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368	100.0	2.2	97.8		0.0	100.0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166	100.0	1.8	98.2		1.5	98.5	
	1,500만 원 이상	647	100.0	2.4	97.6		0.2	99.8	
	잘 모름	103	100.0	0.0	100.0		0.0	100.0	

주: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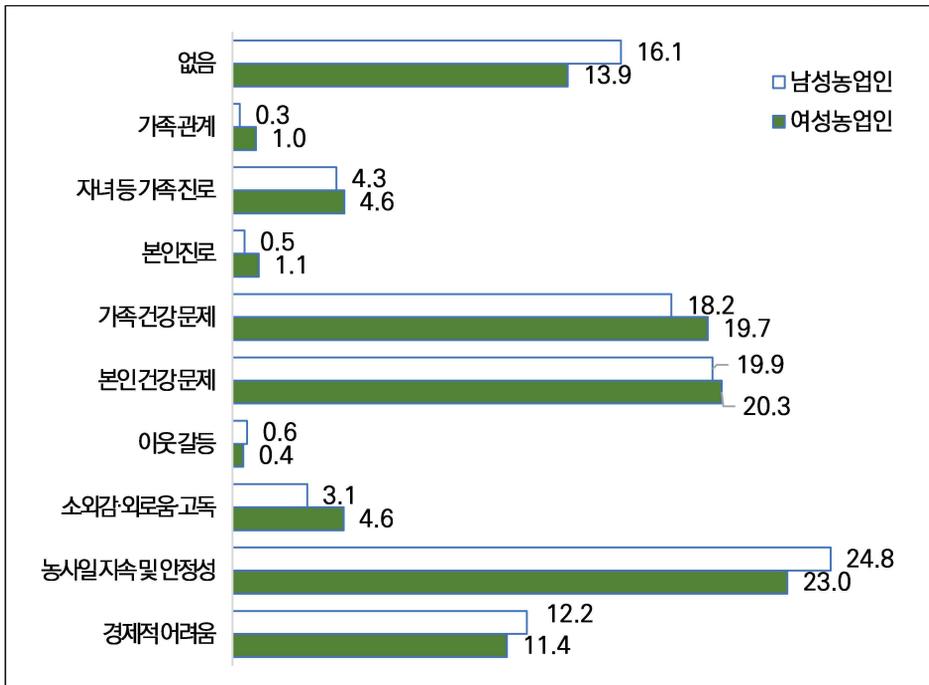
4.3. 현재 가진 가장 큰 고민

○ 현재 여성농업인이 현재 가진 가장 큰 고민은 ‘농사일의 지속 및 안정성’(23.0%)이었으며, ‘본인 건강문제’(20.3%), ‘가족 건강문제’(19.7%), ‘경제적 어려움’(11.4%)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별다른 고민이 없다’는 비율은 13.9% 수준이었다.

-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 모두 농사일의 지속성, 건강, 경제적 어려움을 고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27.611$, $p<.01$).
- 구체적으로, 남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보다 '농사일의 지속 및 안정성'(24.8%)과 '경제적 어려움'(12.2%)을 걱정하는 비율이 더 높고, '본인 건강문제'(19.9%)와 '가족 건강문제'(18.2%)를 걱정하는 비율은 더 낮았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남성농업인보다 '가족관계', '자녀 등 가족의 진료', '소외감, 외로움, 고독'이 고민거리라는 응답 비율이 높다.

〈그림 4-9〉 현재 가진 가장 큰 고민(1순위): 성별 비교

단위: %



○ 여성농업인이 현재 가진 가장 큰 고민은 모든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비귀농 여성농업인의 고민거리는 ‘농사일 지속 및 안정성’(24.0%), ‘본인의 건강’(21.1%)이 가장 크지만 여성 귀농인은 ‘가족의 건강문제’(26.8%)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경제적 어려움’(16.7%)으로, ‘농사일 지속 및 안정성’(15.9%)은 상대적으로 후순위 고민으로 나타났다($\chi^2=49.922$, $p<.001$).
- 경영주 여성과 공동경영주의 가장 큰 고민은 ‘농사일 지속 및 안정성’(26.0%, 22.7%)이었으나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은 ‘가족 건강문제’(27.0%)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그다음이 ‘농사일 지속 및 안정성’(21.8%)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건강문제’는 경영주 여성(24.0%)의 주된 고민거리이기도 하다($\chi^2=124.703$, $p<.001$).
- 40대 이하는 ‘가족의 건강’(20.4%)과 ‘자녀 등 가족의 진로’(18.0%)가, 50대는 ‘가족의 건강’(21.3%)과 ‘경제적 어려움’(21.2%), 60대는 ‘농사일 지속 및 안정성’(27.1%), ‘가족의 건강’(21.4%), 70대 이상은 ‘본인의 건강문제’(34.3%)와 ‘농사일 지속 및 안정성’(24.9%)을 가장 큰 고민으로 제시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고민거리의 차이를 보였다($\chi^2=441.636$, $p<.001$).
- 영농규모가 소규모이거나, 중대규모 또는 대규모인 여성은 ‘농사일 지속 및 안정성’(각각 21.9%, 31.2%, 26.4%), ‘본인의 건강’(각각 21.6%, 18.2%, 22.6%)을, 중소규모인 여성은 ‘가족의 건강’(25.2%)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제시하였다($\chi^2=79.02$, $p<.001$).
- 농업소득이 소규모인 여성은 ‘가족의 건강문제’(25.4%), ‘본인의 건강문제’(22.3%), ‘농사일 지속 및 안정성’(20.2%)이 주된 고민거리이고, 500만원~1,000만원 미만인 여성과 1,500만원 이상인 여성들은 ‘농사일 지속 및 안정성’(각각 28.5%, 24.8%)이, 1,000만원~1,500만원 미만인 여성들은 ‘가족의 건강’(21.4%)이 가장 큰 고민거리로 나타났다($\chi^2=109.339$, $p<.001$).

〈표 4-20〉 여성농업인의 현재 가장 큰 고민(1순위):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체		경제적 어려움	농사일 지속 및 안정성	소외감·외로움·고독	이웃 갈등	본인 건강 문제	가족 건강 문제	본인 진로	자녀 등 가족 진로	가족 관계	없음	χ ²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12.2	24.8	3.1	0.6	19.9	18.2	0.5	4.3	0.3	16.1	27.611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11.4	23.0	4.6	0.4	20.3	19.7	1.1	4.6	1.0	13.9	**		
귀농 여부	일반	1759	100.0	10.6	24.0	5.2	0.4	21.1	18.7	1.0	4.0	1.0	14.0	49.922	
	귀농	244	100.0	16.7	15.9	0.6	0.4	14.3	26.8	1.5	9.5	0.9	13.4	***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9.6	26.0	6.7	0.8	24.0	10.8	1.5	5.9	1.9	12.7	124.703	
	공동경영주	554	100.0	15.8	22.7	7.2	0.6	16.5	14.1	1.0	3.4	1.1	17.6		***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9.7	21.8	2.2	0.2	20.7	27.0	0.9	4.7	0.4	12.4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16.2	9.2	9.7	0.5	2.7	20.4	5.7	18.0	3.4	14.2	441.636	
	50대	296	100.0	21.2	12.6	1.5	2.3	8.7	21.3	3.0	9.8	0.6	19.2		***
	60대	821	100.0	10.5	27.1	3.2	0.0	14.1	21.4	0.7	3.8	0.6	18.5		
	70대 이상	761	100.0	7.7	24.9	6.5	0.2	34.3	17.1	0.1	1.3	1.1	6.8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11.7	21.9	4.7	0.2	21.6	18.7	1.3	3.5	0.9	15.6	79.02	
	중소규모	423	100.0	9.7	19.5	5.8	0.9	17.5	25.2	0.9	4.9	1.1	14.5		***
	중대규모	285	100.0	10.7	31.2	2.0	0.0	18.2	18.2	1.1	8.9	1.5	8.3		
	대규모	121	100.0	16.0	26.4	5.3	2.6	22.6	14.3	0.0	4.3	0.0	8.6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9.9	20.2	2.8	0.2	22.3	25.4	1.2	3.0	1.1	13.9	109.339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100.0	11.4	28.5	7.4	0.0	17.7	16.6	0.8	3.5	0.2	14.0		***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100.0	17.8	17.9	2.7	1.5	17.5	21.4	2.1	7.5	1.5	10.3		
	1,500만 원 이상	647	100.0	13.2	24.8	5.7	0.7	19.6	14.0	0.8	6.5	0.9	13.9		
	잘 모름	103	100.0	0.0	20.3	3.7	0.3	24.2	23.8	1.9	3.7	2.6	19.4		

주 1)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2) **p<.01, ***p<.001.

5

양성평등 현황

1. 농촌의 여성 지위와 성평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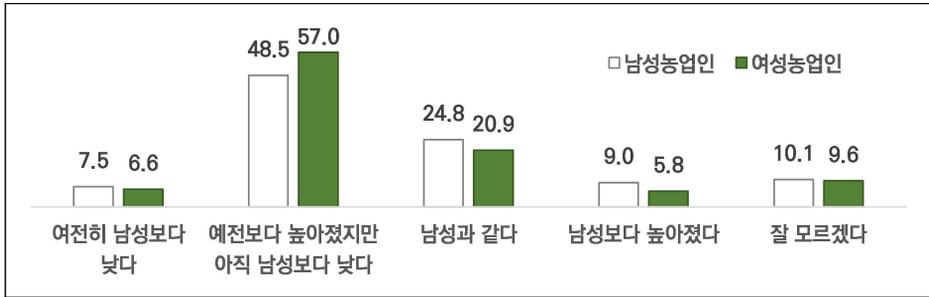
1.1. 거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

○ 여성농업인의 57.0%는 현재 거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예전보다는 높아졌지만 아직 남성보다 낮다'고 평가하였다.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 (6.6%)는 응답률을 합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응답률은 63.6%이다. '남성과 같다'는 응답은 20.9%로 높지 않고 '남성보다 높아졌다'는 응답률은 5.8%로 낮다.

- 남성농업인들도 56.0%가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평가하지만 그 비율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낮다($\chi^2=38.36$, $p<.001$).

〈그림 5-1〉 거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인식: 성별 비교

단위: %



○ 농촌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은 여성농업인 안에서도 차이가 있다.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와 ‘아직 남성보다 낮다’는 응답률을 합쳐서 살펴보면, 비귀농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영농규모가 중대규모 이상으로 큰 여성, 농업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응답률이 높다. 즉 농업생산 및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농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농업경영체의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의 여성 지위에 대해 비판적이다. 연령별 차이는 없다.

- 비귀농 여성농업인(63.8%)이 여성 귀농인(61.8%)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는 응답률이 2.0%p 높고($\chi^2=11.107$, $p<.05$), 공동경영주 여성(76.2%)이 경영주(62.7%), 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56.9%)보다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chi^2=98.432$, $p<.001$).
- 영농규모가 중대규모(69.5%), 대규모(67.5%)인 여성농업인이 중소규모 이하 여성농업인보다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응답률이 5%p 가량 더 높다($\chi^2=79.745$, $p<.001$).
- 농업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는 응답률이 높아, 1,500만 원 이상인 여성농업인에 와서는 78.9%로 응답률이 높다. 반면 농업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32.0%가 ‘남성과 같다’고 응답하여 여성의 지위 수준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chi^2=245.527$, $p<.001$).

〈표 5-1〉 거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인식: 특성별 비교

단위: %

	전체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아직 남성보다 낮다	남성과 같다	남성보다 높아졌다	잘 모르겠다	χ^2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7.5	48.5	24.8	9.0	10.1	38.36 ***	
여성농업인	2003	100.0	6.6	57.0	20.9	5.8	9.6		
귀농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6.9	56.9	20.1	6.1	9.9	11.107*
	여성 귀농인	244	100.0	3.8	58.0	26.8	3.7	7.7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11.3	51.4	20.3	6.4	10.5	98.432 ***
	공동경영주	554	100.0	4.0	72.2	11.5	3.8	8.5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5.8	51.1	26.6	6.7	9.9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5.5	63.5	21.1	3.3	6.5	18.729
	50대	296	100.0	7.1	60.2	20.4	3.4	9.0	
	60대	821	100.0	5.4	57.6	22.0	6.5	8.6	
	70대 이상	761	100.0	7.8	54.1	20.0	6.5	11.6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6.9	55.5	20.5	3.8	13.4	79.745 ***
	중소규모	423	100.0	6.8	54.9	23.4	9.1	5.8	
	중대규모	285	100.0	3.5	66.0	19.8	6.9	3.7	
	대규모	121	100.0	9.7	57.8	19.7	11.8	1.0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5.8	41.8	32.0	5.9	14.5	245.527 ***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368	100.0	6.0	58.1	21.9	4.6	9.3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166	100.0	9.8	55.7	17.0	10.0	7.5	
	1,500만 원 이상	647	100.0	5.6	73.3	12.3	6.1	2.6	
	잘 모름	103	100.0	15.0	58.9	0.9	0.9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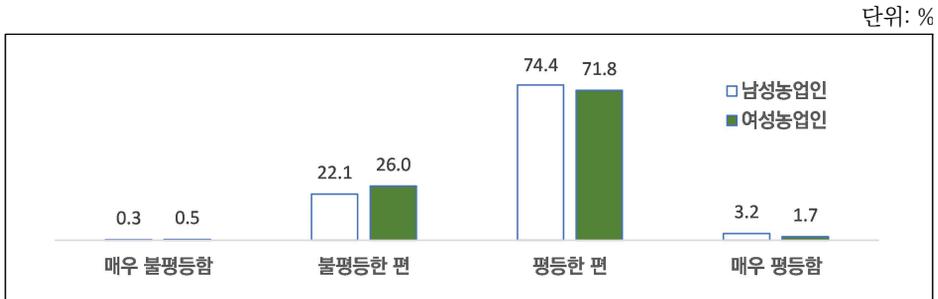
주: *p<.05, ***p<.001.

1.2. 농촌의 성평등 수준

○ 농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73.5%가 평등하다(평등함+매우 평등함)고 응답하였고, 26.5%만이 불평등하고 응답하여 여성 지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 여성농업인들은 남성보다 여성의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긴 하지만 이것을 성불평등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여성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이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남성농업인들은 77.5%가 농촌이 성평등하다고 응답하여 여성보다 농촌 성평등을 긍정하는 비율이 높다($\chi^2=17.466$, $p<.01$).

〈그림 5-2〉 농촌의 성평등 수준 인식: 성별 비교



- 귀농인 여부, 연령, 농업소득에 따라 농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여성들의 응답 차이가 있다.
 - 여성 귀농인의 83.3%가 농촌이 성평등하다고 응답하여 비귀농 여성(72.2%)에 비해 긍정 인식이 높았다($\chi^2=31.655$, $p<.001$)
 - 경영주 여성이 농촌의 성평등을 긍정하는 비율(69.1%)이 공동경영주(77.4%)와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73.4%)보다 낮다($\chi^2=23.467$, $p<.01$).
 - 40대 이하는 45.8%가 농촌이 성불평등하다고 응답하여, 성평등 긍정 인식 비율이 높은 50대 이상과 인식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chi^2=65.860$, $p<.001$).
 - 농업소득 구간별 차이는 거의 없으나, 농업소득을 ‘잘 모른다’는 여성들의 성불평등 응답률이 42.9%로 높았다. 이 집단은 주로 고령이면서 경영주 외

농업인인 여성들이 속해 있어서(〈표 2-10〉 참조) 농가 경제 및 경영권을 남성
 성이 독점하고 있고 무엇보다 농업소득 정보조차 부부간에 공유되지 못하
 고 있는 현실 때문에 성불평등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chi^2=39.527$,
 $p<.001$).

〈표 5-2〉 여성농업인의 농촌 성평등 수준 인식: 특성별 비교

단위: %, 점

		전체		매우 불평등함	불평등한 편	평등한 편	매우 평등함	4점 평균	χ^2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0.3	22.1	74.4	3.2	2.80	17.466 **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0.5	26.0	71.8	1.7	2.75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0.5	27.3	71.0	1.2	2.73	31.655 ***
	여성 귀농인	244	100.0	0.4	16.3	78.0	5.3	2.88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0.3	30.5	66.8	2.3	2.71	23.467 **
	공동경영주	554	100.0	0.1	22.5	77.2	0.2	2.77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0.8	25.8	71.1	2.3	2.75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0.5	45.3	49.6	4.6	2.58	65.860 ***
	50대	296	100.0	0.1	31.7	65.6	2.6	2.71	
	60대	821	100.0	0.2	20.5	77.2	2.1	2.81	
	70대 이상	761	100.0	0.9	26.4	72.1	0.6	2.72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0.7	24.8	72.9	1.6	2.75	11.417
	중소규모	423	100.0	0.3	27.3	69.8	2.6	2.75	
	중대규모	285	100.0	0.0	25.9	73.1	1.0	2.75	
	대규모	121	100.0	0.0	32.8	65.1	2.1	2.69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0.5	22.9	75.3	1.4	2.78	39.527 ***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368	100.0	1.7	28.4	68.0	1.9	2.70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166	100.0	0.0	29.1	69.7	1.2	2.72	
	1,500만 원 이상	647	100.0	0.0	24.5	73.1	2.4	2.78	
	잘 모름	103	100.0	0.0	42.9	56.8	0.3	2.57	

주: ** $p<.01$, *** $p<.001$

2. 성역할에 대한 태도

- 성역할 인식은 농가 및 마을에서의 성역할 구분(4개 문항)과 가정 및 직업에서의 성역할 구분(4개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 ‘매우 동의한다’(4점)로 조사하였다. 성역할 분리를 긍정하는 문항들은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4점에 가까울수록 성역할 분리에 동의하지 않는 인식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 ‘보통’에 해당하는 중위값은 2.5점으로 2.5점 미만은 성역할 분리에 동의하고 2.5점 이상은 성역할 분리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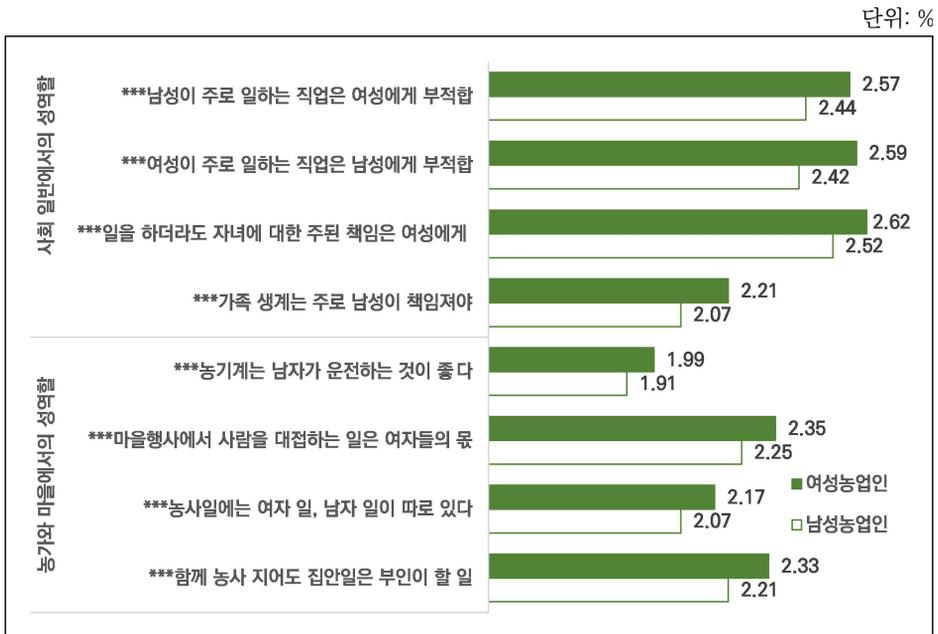
2.1.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

- 여성농업인은 성역할 분리에 동의하지 않거나 남성에 비해 동의하는 정도가 약하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 농가와 마을에서의 성역할 분리에 대한 여성농업인들의 평균적 인식은 모든 문항에서 ‘보통’인 2.5점 이하로 나타나 성역할 분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정도는 남성보다 약하다.
 - 여성농업인들은 ‘마을행사에서의 손님 대접은 여성 몫이다’(2.35점)와 ‘집 안일은 부인의 일’(2.33점)이라는 데 동의하는 편이며, ‘농기계는 남자가 운전’(1.99점), ‘농사일에 여자, 남자 일이 따로 있다’(2.17점)에 대해서는 더 크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성농업인들은 모든 문항에서 여성보다 성역할 구분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하며, 특히 ‘농기계는 남자가 운전’(1.91점)에 대해서는 더 크게 동의하였다.

○ 가정과 직업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평균적 인식은 남녀 모두 농가 및 마을에서의 성역할 분리보다 점수가 더 높고 여성농업인의 인식이 더 평등지향적이다.

- 여성농업인들은 ‘직업에서의 성별 분리’에 동의하지 않지만 남성농업인들은 동의하여 성별로 상반된 인식을 보인 반면, ‘남성 생계부양 책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 ‘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남녀 모두 동의하지 않아 자녀 양육·돌봄의 남성 역할 분담 인식이 농업인들에게도 확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3〉 성역할 인식: 성별 비교



주 1)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성역할을 긍정하는 내용의 문항은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4점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인식을 나타내도록 함. '보통'에 해당하는 2.5점 미만은 성역할에 동의, 2.5점 이상은 성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냄.

2) 문항의 *표시는 성별 응답값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한 것임. ***p<0.001.

2.2. 여성농업인의 특성별 비교

2.2.1. 농가와 마을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 귀농 여부, 연령, 농업소득별로는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고, 농업경영체 지위와 영농규모별로는 일부 문항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 여성 귀농인이 비귀농 여성농업인보다 응답값이 유의미하게 높지만 ‘마을 행사에서 사람 대접은 여성의 일’이라는 문항에만 동의하지 않고 그 외 항목에 대해서는 2.5점 미만의 점수를 보여 동의하는 쪽에 가깝게 나타났다. 비귀농 여성농업인은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사일에서의 성별 분리, 마을행사에서의 대접=여성, 농기계=남성 문항에서 농업경영체 지위별 차이가 유의미하다. 세 문항 모두 경영주 여성의 응답값이 가장 높고 공동경영주 여성의 응답값이 가장 낮지만 세 집단 모두 응답값은 2.5점 미만으로 낮다.
 - 모든 항목에서 연령이 젊을수록 응답값이 높는데, 40대 이하의 성역할 태도가 50대 이상의 중노년층과 확연히 구분된다. 50대 이상은 모든 문항에 대해 보통 이하의 점수를 보여 성역할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40대 이하 여성농업인들은 ‘집안일은 부인의 일’, ‘마을행사에서의 사람 대접은 여성의 몫’이라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40대 이하 여성농업인들도 ‘농사일에서의 성역할 구분’과 ‘남성의 농기계 운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는 청년여성농업인들이 여성의 가사/돌봄 전담에는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지만 농업생산에서의 성역할에는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영농규모별로는 ‘집안일은 부인의 일’, ‘농사일에서의 성역할 구분’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영농규모가 소규모인 여성들이 ‘집안일은 부인의 일’에 동의하는 정도가 중소규모 이상 여성들과 비교하여 확연히 강하

다. ‘농사일에서의 성역할’은 중대규모 여성의 응답값이 가장 높고 중소규모, 대규모 및 소규모 여성 순으로 응답값이 낮아졌다. 그러나 영농규모별로 성평등한 역할 태도를 보이는 집단은 없으며, 소규모로 농사짓는 여성 농업인들의 태도가 가장 보수적이다.

- 농업소득별로는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만 농업소득 수준에 따라 성역할 태도가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모든 문항에서 중하 소득층(500만 원~1,000만 원 미만)의 점수가 가장 높고 ‘집안 일은 부인이 할 일’은 하위 소득층(500만 원 미만)이, ‘농사일에서의 성역할 구분’과 ‘마을행사에서 사람 대접은 여성의 몫’, ‘농기계는 남성이 운전’ 문항에서는 고소득(1,500만 원 이상) 집단이 가장 점수가 낮다. 대체로 농업소득이 아주 적거나 아주 많은 여성들의 성역할 태도가 더 보수적이다. 그러나 영농규모와 마찬가지로 성평등한 역할 태도를 보이는 집단은 없다.

〈표 5-3〉 여성농업인의 농가와 마을에서의 성역할 인식: 특성별 비교

단위: %

		사례수	함께 농사지어도 집안일은 부인이 할 일	농사일에는 여자 일, 남자 일이 따로 있다	마을행사에서 사람을 대접하는 일은 여자들의 몫	농기계는 남자가 운전하는 것이 좋다
귀농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2.31	2.15	2.33	1.98
	여성 귀농인	244	2.48	2.32	2.55	2.09
	t / F	-	3.969***	3.364***	4.307***	2.043*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2.37	2.24	2.42	2.15
	공동경영주	554	2.33	2.12	2.22	1.87
	경영주 외 농업인	989	2.32	2.17	2.40	1.99
	t / F	-	1.114	3.006	12.401***	2.043*
연령	40대 이하	125	2.80	2.38	2.60	2.22
	50대	296	2.51	2.32	2.45	2.14
	60대	821	2.38	2.20	2.35	2.00
	70대 이상	761	2.14	2.04	2.28	1.89
	t / F	-	54.997***	15.297***	7.816***	14.706***
영농규모	소규모	1174	2.26	2.12	2.32	2.00
	중소규모	423	2.46	2.22	2.42	1.96

		사례수	함께 농사지어도 집안일은 부인이 할 일	농사일에는 여자 일, 남자 일이 따로 있다	마을행사에서 사람을 대접하는 일은 여자들의 몫	농기계는 남자가 운전하는 것이 좋다
	중대규모	285	2.41	2.31	2.39	2.01
	대규모	121	2.41	2.13	2.39	1.98
	t / F	-	13.323***	5.284**	2.147	0.438
농업소득	500만 원 미만	719	2.28	2.16	2.40	1.98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368	2.37	2.28	2.41	2.22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166	2.31	2.17	2.31	2.14
	1,500만 원 이상	647	2.35	2.12	2.27	1.82
	잘 모름	103	2.55	2.17	2.40	2.15
	t / F	-	4.271**	2.603*	3.538**	20.598***

주 1)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성역할을 긍정하는 내용의 문항은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4점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인식을 나타내도록 함. '보통'에 해당하는 2.5점 미만은 성역할에 동의, 2.5점 이상은 성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냄.

2) *p<.05, **p<.01, ***p<.001.

2.2.2. 사회 일반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 귀농 여부 및 연령별로는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값의 차이가 있고, 농업경영체 지위, 영농규모, 농업소득별로는 일부 문항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 여성 귀농인이 비귀농 여성농업인보다 응답값이 유의미하게 높고 특히 '여성의 자녀 책임 전담'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었다. 비귀농 여성농업인도 '직업에서의 성역할 구분'과 '여성의 자녀 책임 전담'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의 생계 부양 책임'에는 두 집단 모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 공동경영주는 '남성의 생계부양 책임'에는 세 집단 중 가장 크게 동의하였고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은 남성에게 부적합하다'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부정적 태도를 보여, 가족 내 성역할 분리와 직업에서의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항목에서 연령이 젊을수록 응답값이 높는데, 농가와 마을에서의 성역할은 40대 이하와 그 외 집단 간 차이가 확인했던 것과 달리 사회 일반적 성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60대 이하와 70대 이상 간의 차이가 확인하다. ‘남성의 생계 부양 책임’을 제외한 문항들에서 70대 이상 여성들만 보수적 태도를 보였다.
- 영농규모와 농업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일관되지는 않는다. 영농규모가 소규모인 여성들과 농업소득이 중상층(1,000만 원~1,500만 원)인 여성들이 ‘남성의 생계 부양 책임’에 가장 동의하였다. ‘여성의 자녀 책임 전담’은 영농규모가 중대규모인 여성들이 가장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고 ‘여성이 주로 하는 직업이 남성에게 부적합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이 중하층이거나 잘 모른다는 여성이 가장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농업경영체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여성들의 성역할 태도가 일관되게 평등지향적이거나 보수적인 것은 아니다.

〈표 5-4〉 여성농업인의 사회 일반에서의 성역할 인식: 특성별 비교

단위: %

		사례수	가족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은 남성에게 부적합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은 여성에게 부적합
귀농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2.17	2.56	2.54	2.54
	여성 귀농인	244	2.47	3.04	2.93	2.82
	t / F	-	6.795***	9.325***	7.804***	6.227***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2.28	2.58	2.54	2.59
	공동경영주	554	2.14	2.58	2.67	2.59
	경영주 외 농업인	989	2.21	2.66	2.57	2.55
	t / F	-	5.585**	2.333	5.065**	0.884
연령	40대 이하	125	2.37	2.95	2.86	2.65
	50대	296	2.38	2.79	2.75	2.69
	60대	821	2.24	2.66	2.61	2.65
	70대 이상	761	2.08	2.45	2.46	2.42
	t / F	-	19.026***	23.671***	17.456***	17.55***

		사례수	가족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은 남성에게 부적합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은 여성에게 부적합
영농규모	소규모	1174	2.17	2.56	2.60	2.58
	중소규모	423	2.27	2.69	2.61	2.49
	중대규모	285	2.28	2.73	2.60	2.66
	대규모	121	2.22	2.62	2.39	2.51
	t / F	-	3.441*	4.738**	2.551	3.913**
농업소득	500만 원 미만	719	2.19	2.65	2.54	2.61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2.22	2.64	2.68	2.54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2.07	2.51	2.50	2.50
	1,500만 원 이상	647	2.24	2.62	2.59	2.57
	잘 모름	103	2.27	2.49	2.74	2.56
	t / F	-	2.472*	1.66	3.285*	0.862

주 1)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성역할을 긍정하는 내용의 문항은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4점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인식을 나타내도록 함. '보통'에 해당하는 2.5점 미만은 성역할에 동의, 2.5점 이상은 성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냄.

2) *p<.05, **p<.01, ***p<.001.

3. 성평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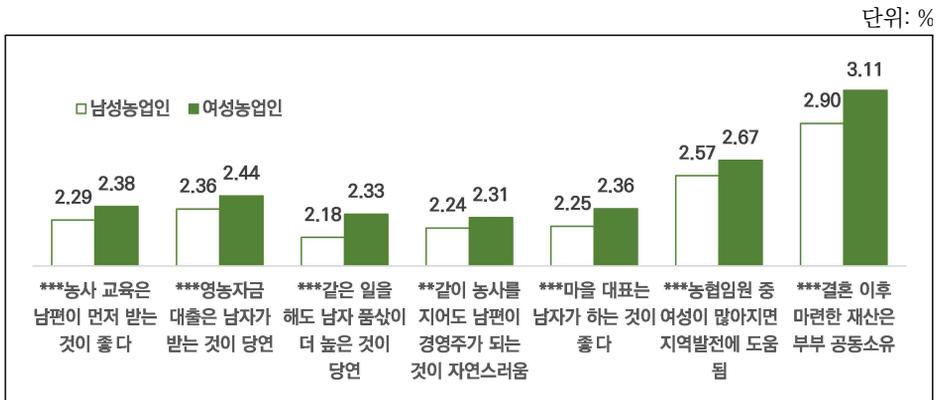
○ 성평등 인식은, 농사교육, 영농자금 대출, 경영주, 마을대표 등에서의 남성 우위에 대한 인식, 성별 임금격차, 재산의 부부 공동소유, 농협임원 중 여성 비율 확대의 긍정적 영향의 총 7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 성역할 인식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대표성이나 우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항들은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4점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인식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 '보통'에 해당하는 중위값은 2.5점으로 2.5점 미만은 성차별에 동의하고, 2.5점 이상은 성평등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1. 성별에 따른 성평등 인식

- 모든 응답값의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여성농업인의 평균적 인식이 남성농업인보다 성평등 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농사 교육, 영농자금 대출, 농업경영주, 마을대표는 남성이 하는 것이 좋거나 당연하다는 문항, ‘같은 일을 해도 남성의 품삯이 더 높은 것이 당연하다’는 문항에는 여성농업인들도 ‘보통’인 2.5점 미만의 응답값을 보여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의하는 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다.
- 반면, ‘농협의 여성임원이 많아지면 지역발전에 도움된다’와 ‘결혼 이후 마련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에는 남녀 모두 동의하였고, 동의 정도는 여성농업인이 더 강하다.

〈그림 5-4〉 성평등 인식: 성별 비교



주 1)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성차별을 긍정하는 내용의 문항은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4점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인식을 나타내도록 함. ‘보통’에 해당하는 2.5점 미만은 성역할에 동의, 2.5점 이상은 성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냄.

2) 문항의 *표시는 성별 응답값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한 것임. **p<.01, ***p<.001.

3.2. 여성농업인의 특성별 비교

- 영농규모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항에서 여성농업인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여성 귀농인,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50대 이하, 농업소득이 중간 정도인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농업생산 및 경영권, 지역참여의 성별 균등에 대한 인식이 높다. 다만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을 뿐, 응답값은 보통인 2.5점 이하인 경우가 더 많아서 여성 내부의 성평등 인식 차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농협 여성임원 확대가 지역발전에 도움’ 문항에서만 여성 귀농인의 응답값이 비귀농 여성농업인보다 낮고 그 외 모든 문항에서는 여성 귀농인의 응답값이 더 높다. 여성 귀농인은 ‘농사교육의 남편 우선 이수’(2.61점), ‘영농자금 대출은 남성이 받는 것이 당연’(2.74점)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농협 여성임원 확대가 지역발전에 도움된다’(2.44점)는 데에는 약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남성이 경영주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움’(2.39점)과 ‘마을대표는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2.47점)에는 약하지만 긍정하는 인식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 귀농인이 농업생산 자원(교육, 자금)에 대해서는 성평등한 접근권에 동의하지만 대표성(농협 임원, 농업경영주, 마을대표)은 남성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농업경영체 지위별로는 농사교육, 자금대출, 남성의 더 높은 품삯, 경영주 지위, 마을 대표의 남성 우위를 묻는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모든 문항들에서 경영주의 응답값이 가장 높다. 특히 ‘영농자금 대출은 남성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2.58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외 문항들은 2.5점 미만으로 나타나 공동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보다 응답값은 높지만 인식 자체는 자원 접근성 및 대표성의 남성 우선성과 중심성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 연령이 낮을수록 성평등 인식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청년여성농업인들은 모든 문항에서 성평등한 인식을 보였다. 50대는 ‘농사 교육은 남자가 먼저’(2.58점), ‘영농자금 대출은 남자가 받는 것’(2.69점)이 더 좋다는 문항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경영주와 마을대표의 남성 우선성, 남성의 더 높은 품삯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여성 귀농인과 유사하게 농업생산 자원은 성별로 동등하게 접근되어야 하지만 경영권과 대표성은 남성이 갖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60대 이상은 ‘결혼 이후 재산 공동소유’를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남성 우선성 및 대표성에 동의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60대보다는 70대 이상의 인식이 훨씬 더 보수적이다.
- 영농규모별로는 마을대표 관련 문항만 응답값의 차이가 유의한데, 중대규모 여성농업인이 ‘마을대표는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에 동의하지 않았고 다른 집단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경영주, 결혼 이후 재산 공동소유 문항을 제외하고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다. 대체로 농업소득이 최저 수준(5백만 원 미만)인 경우가 그 외 집단과 대비하여 보수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값의 차이는 있지만 농업소득이 높은 집단의 인식이 성평등한 것은 아니었다.

〈표 5-5〉 여성농업인의 성평등 인식: 특성별 비교

단위: %

		사례수	농사 교육은 남편이 먼저 받는 것이 좋다	영농자금 대출은 남자가 받는 것이 당연	같은 일을 해도 남자 품삯이 더 높은 것이 당연	같이 농사 지어도 남편이 경영주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움	마을 대표는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농협 여성임원 많아지면 지역발전에 도움 됨	결혼 이후 마련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귀농 여부	일반	1759	2.34	2.40	2.32	2.29	2.35	2.70	3.11
	귀농	244	2.61	2.74	2.37	2.39	2.47	2.44	3.11
	t / F	-	5.034***	7.349***	0.967	2.119*	2.721**	5.067***	-0.061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2.49	2.58	2.47	2.45	2.43	2.63	3.07
	공동경영주	554	2.33	2.47	2.36	2.28	2.37	2.70	3.10
	경영주 외 농업인	989	2.34	2.36	2.24	2.25	2.32	2.67	3.13
	t / F	-	7.089***	13.717***	13.997***	12.842***	4.207*	1.243	2.624
연령	40대 이하	125	2.74	2.76	2.51	2.60	2.56	2.62	3.23
	50대	296	2.58	2.69	2.42	2.48	2.44	2.62	3.15
	60대	821	2.40	2.47	2.32	2.32	2.39	2.66	3.05
	70대 이상	761	2.21	2.26	2.26	2.18	2.27	2.70	3.14
	t / F	-	26.441***	38.961***	5.457**	25.005***	11.393***	1.04	6.645***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2.40	2.45	2.31	2.28	2.31	2.70	3.14
	중소규모	423	2.37	2.47	2.37	2.36	2.41	2.60	3.06
	중대규모	285	2.35	2.40	2.31	2.33	2.53	2.65	3.08
	대규모	121	2.25	2.38	2.42	2.32	2.31	2.63	3.07
	t / F	-	1.531	0.962	1.202	1.596	9.396***	1.801	3.121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2.27	2.34	2.22	2.31	2.32	2.73	3.12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368	2.47	2.53	2.47	2.36	2.36	2.63	3.15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166	2.41	2.45	2.29	2.24	2.28	2.65	3.09
	1,500만 원 이상	647	2.38	2.47	2.36	2.28	2.41	2.66	3.08
	잘 모름	103	2.70	2.67	2.42	2.37	2.51	2.38	3.11
	t / F	-	8.6***	7.008***	7.492***	1.543	3.192*	4.073**	1.073

주 1)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성차별을 긍정하는 내용의 문항은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4점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인식을 나타내도록 함. '보통'에 해당하는 2.5점 미만은 성차별에 동의, 2.5점 이상은 성차별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냄.

2) *p<.05, **p<.01, ***p<.001

4. 성별 규범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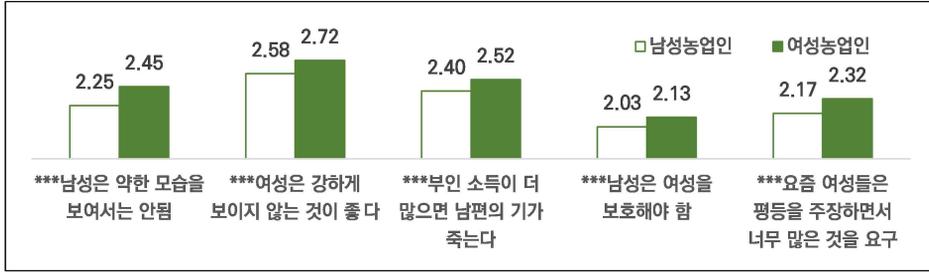
- 성별 규범은 성별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기질, 태도, 속성 등에 대한 것으로 여성다움, 남성다움과 관련된다. 강함, 더 큰 경제력, 여성에 대한 보호자 등이 남성적 속성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 등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성별 규범을 나타내는 문항들은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4점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인식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4.1. 성별에 따른 성별 규범에 대한 태도

- 모든 문항에서 여성농업인의 점수가 남성농업인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 여성농업인들은 남성성 규범에는 동의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여성성 규범에는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성별 규범에 대한 모순적 인식을 드러내었다.
 -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2.45점),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2.13점)에는 동의하지만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2.72점)와 ‘부인 소득이 더 많으면 남편의 기가 죽는다’(2.52점)에는 동의하지 않다.
 - 남성농업인들도 ‘여성이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2.58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외 성별 규범에는 동의하였다.
- 이 결과는 농촌에서 기대되는 여성성, 남성성 모두 ‘강함’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극성, 조신함 등을 여성적 속성으로 이해하는 통념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5〉 성별 규범에 대한 태도: 성별 비교

단위: %



주 1)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성별 규범을 긍정하는 내용의 문항은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4점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인식을 나타내도록 함. '보통'에 해당하는 2.5점 미만은 성별 규범에 동의, 2.5점 이상은 성별 규범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냄.

2) 문항의 *표시는 성별 응답값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한 것임.***p<0.001.

4.2. 여성농업인의 특성별 비교

○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문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항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대체로 여성 귀농인, 50대 이하, 영농규모가 중대규모인 여성들의 응답값이 높다. 그러나 성역할 및 성평등 인식과 달리 성별 규범에 대한 집단간 응답값의 차이는 크지 않다.

- 여성 귀농인은 남성성과 여성성 규범 모두를 거부하지만 비귀농 여성농업인은 남성성 규범에는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와 '부인 소득이 더 많으면 남편 기가 죽는다'에 대해 여성 귀농인은 반대하지만(각각 2.64점, 2.69점) 비귀농 여성농업인은 동의하고(각각 2.42점, 2.49점),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에는 두 집단 모두 동의하지 않았으며 여성 귀농인의 점수가 더 높다(비귀농 2.70점, 귀농 2.87점).
- 공동경영주 여성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에 비해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에 동의하는 정도가 강하고 '부인 소득이 더

많으면 남편의 기가 죽는다'에는 동의하는 태도를 보여 성별 규범에 대한 보수적 태도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이 젊을수록 성평등한 인식이 높지만 고령 여성농업인도 일부 문항에서는 성평등한 태도를 보여 연령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에는 모든 연령대가 반대하고,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에는 50대 이하 여성들이, '부인 소득이 더 많으면 남편 기가 죽는다'에는 60대 이하가 반대하여 7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보수적 인식과 구분되었다.
- 영농규모가 중대규모인 여성들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여성성 규범에 더 크게 반대하거나 남성성 규범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다.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에는 모든 여성들이 반대를 하지만 중대규모 여성들의 응답값이 가장 높고, '부인소득이 더 높으면 남편 기가 죽는다'에는 중대규모 여성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요즘 여성들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에는 모든 여성들이 동의하지만 중대규모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미하게 약하였다.
- 농업소득이 중간 수준인 두 구간에 속한 여성들의 응답값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에는 모든 여성들이 반대하고 '부인 소득이 더 높으면 남편 기가 죽는다'에는 모든 여성들이 동의하여, 농업소득에 따른 성별 규범 인식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표 5-6〉 여성농업인의 성별 규범에 대한 태도: 특성별 비교

단위: %

		사례수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안됨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부인 소득이 남편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 기가 죽는다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함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2.42	2.70	2.49	2.14	2.31
	여성 귀농인	244	2.64	2.87	2.69	2.08	2.36
	t / F	-	4.337***	3.604***	3.967***	-1.721	1.03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2.49	2.71	2.53	2.15	2.33
	공동경영주	554	2.37	2.72	2.39	2.16	2.35
	경영주 외 농업인	989	2.47	2.72	2.58	2.10	2.30
	t / F	-	5.345**	0.013	10.886***	2.269	1.275
연령	40대 이하	125	2.64	2.87	2.68	2.25	2.43
	50대	296	2.54	2.81	2.66	2.13	2.42
	60대	821	2.49	2.70	2.55	2.14	2.34
	70대 이상	761	2.34	2.68	2.40	2.10	2.24
	t / F	-	10.532***	4.363**	11.656***	2.077	6.798***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2.43	2.69	2.48	2.12	2.27
	중소규모	423	2.52	2.68	2.51	2.09	2.39
	중대규모	285	2.45	2.95	2.70	2.24	2.46
	대규모	121	2.39	2.65	2.45	2.09	2.19
	t / F	-	1.477	14.141***	6.54***	3.432*	9.025***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2.50	2.68	2.58	2.25	2.12	2.09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2.40	2.81	2.51	2.41	2.15	2.17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2.34	2.75	2.41	2.30	2.11	2.09
	1,500만 원 이상	2.42	2.70	2.46	2.38	2.18	2.17
	잘 모름	2.55	2.70	2.64	2.12	2.03	2.10
	t / F	-	2.817*	2.276	3.383**	1.899	7.223***

주 1)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성별 규범을 긍정하는 내용의 문항은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4점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인식을 나타내도록 함. '보통'에 해당하는 2.5점 미만은 성별 규범에 동의, 2.5점 이상은 성별 규범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냄.

2) *p<.05, **p<.01, ***p<.001.

5. 가족 내 성평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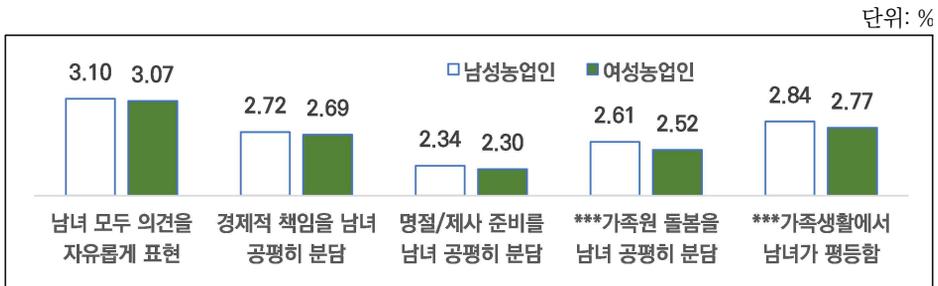
○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은 가족 내 의견 표현의 자유, 경제/돌봄/가족행사 등에서
 서의 공평 분담, 전반적 성평등 수준의 5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5.1. 성별에 따른 가족 내 성평등 수준 인식

○ 여성농업인들은 ‘자신의 가족생활에서 남녀가 평등’(2.77점)하다고 생각하
 며, 특히 ‘자유로운 의견 표현’(3.07점)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경제적 책임
 의 공평 분담’(2.69점), ‘가족원 돌봄의 공평 분담’(2.52점)이 이루어지고 있
 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명절/제사 준비의 남녀 공평 분담’(2.30점)은 부정
 적으로 평가하였다.

-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가족생활의 성평등’(2.84점), ‘가족원 돌봄의 공평 분
 담’(2.61점)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그 외 문항의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그림 5-6〉 가족 내 성평등 수준 인식: 성별 비교



주 1)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4점에 가까울수록 가족이 성평등하다고 평가함. ‘보통’에 해당하는 2.5점 미만은 가족이 성불평등, 2.5점 이상은 성평등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2) 문항의 *표시는 성별 응답값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한 것임. *** $p < .001$.

5.2. 여성농업인의 특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의 가족 내 성평등 수준 인식은 귀농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고 농업경영체 지위, 연령, 영농규모, 농업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공동경영주, 50대, 농사규모가 중대규모 이하인 여성들이 자신들의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였고, 농업소득별로는 문항에 따라 응답 결과가 상이하였다.

- '경제적 책임의 공평분담'은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여성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자유로운 의견 표현', '전반적 성평등'은 공동경영주 여성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명절/제사 준비'와 '가족원 돌봄'의 성별 공평 분담에 대한 평가는 지위별 차이가 없었다.
- 연령별로는 '자유로운 의견 표현', '경제적 책임의 공평 분담', '가족생활의 전반적 성평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50대 여성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자신의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 영농규모별로는 '명절/제사 준비의 공평 분담'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대규모로 농사짓는 여성들이 유일하게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평가하였다.
- 농업소득별로는 모든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데 대체로 소득이 가장 적은 집단의 응답값이 가장 높지만 그렇다고 소득이 높을수록 일관되게 긍정적 평가 인식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 '자유로운 의견 표현'은 농업소득이 가장 적거나(500만 원 미만) 잘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경제적 책임의 공평 분담'은 농업소득이 가장 적은 여성과 가장 많은 여성(1,500만 원 이상), 잘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명절/제사 준비의 공평 분담'은 모든 여성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농업소득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다. '가족원 돌봄의 공평분담'은 소득 구간별 차이는 없고 소득을 잘 모르는 여성들이 유일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5-7〉 여성농업인의 가족 내 성평등 수준 인식: 특성별 비교

단위: %

		사례수	남녀 모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경제적 책임의 남녀 공평 분담	명절/제사 준비 남녀 공평 분담	가족원 돌봄의 남녀 공평 분담	가족생활에서 남녀가 평등함
귀농 여부	비귀농	1759	3.08	2.70	2.29	2.52	2.77
	귀농	244	3.04	2.64	2.33	2.49	2.77
	t / F	-	0.886	1.277	-0.738	0.631	0.076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3.04	2.71	2.35	2.55	2.75
	공동경영주	554	2.93	2.77	2.25	2.50	2.65
	경영주 외 농업인	989	3.17	2.64	2.31	2.51	2.84
	t / F	-	36.281***	6.716**	2.454	0.766	17.128***
연령	40대 이하	125	3.05	2.66	2.41	2.53	2.66
	50대	296	2.97	2.61	2.23	2.50	2.65
	60대	821	3.14	2.78	2.29	2.51	2.83
	70대 이상	761	3.05	2.63	2.32	2.53	2.77
	t / F	-	7.655***	9.346***	2.111	0.143	7.608***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3.09	2.68	2.31	2.53	2.78
	중소규모	423	3.03	2.74	2.26	2.50	2.80
	중대규모	285	3.07	2.67	2.21	2.49	2.69
	대규모	121	3.05	2.63	2.55	2.54	2.73
	t / F	-	1.1	1.412	4.764**	0.397	2.334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3.25	2.72	2.40	2.57	2.93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368	2.95	2.58	2.28	2.51	2.60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166	2.97	2.66	2.36	2.52	2.75
	1,500만 원 이상	647	2.98	2.74	2.25	2.51	2.70
	잘 모름	103	3.05	2.71	1.84	2.17	2.66
	t / F	-	29.48***	3.736**	21.434***	6.029***	22.408***

주 1)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4점에 가까울수록 가족이 성평등하다고 평가함. '보통'에 해당하는 2.5점 미만은 가족이 성불평등, 2.5점 이상은 성평등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2) **p<.01, ***p<.001.

6. 마을 성평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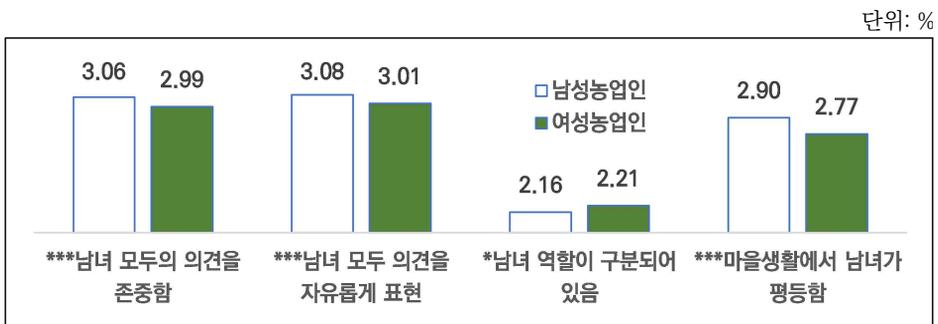
○ 마을의 성평등 수준은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의견 존중’, ‘남녀 역할 구분’, ‘마을의 전반적 성평등’의 4개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6.1. 성별에 따른 마을 성평등 수준 인식

○ 여성농업인들은 ‘마을생활에서 남녀가 평등’(2.77점)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자유로운 의사표현’(3.01점)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남녀 모두의 의견이 존중’(2.99점) 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마을 내 성역할’(2.21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남성농업인들은 여성보다 마을 성평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와 같은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5-7〉 마을 성평등 수준 인식: 성별 비교



주 1)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마을 내 성역할 구분’은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4점에 가까울수록 마을이 성평등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도록 함. ‘보통’에 해당하는 2.5점 미만은 마을이 성불평등, 2.5점 이상은 마을이 성평등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2) 문항의 *표시는 성별 응답값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한 것임. * p<.05, ***p<.001.

6.2. 여성농업인의 특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의 마을 성평등 수준 인식은 귀농 여부, 농업경영체 지위, 연령, 영농규모, 농업소득에 따라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 귀농인,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50대 이상, 영농규모가 소규모 혹은 중대규모 이상이거나 농업소득이 적은 여성이 마을 성평등 수준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모든 문항에서 여성 귀농인이 비귀농인보다 마을 성평등 수준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농업경영체 지위별로는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마을 내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남녀 모두의 의견 존중'이 이루어진다고 더 긍정평가하였다.
 - 연령별로는 '마을 내 성역할 구분'과 '마을 내 전반적 성평등'에서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연령이 젊을수록 마을 내 성역할 구분에 반대하고 마을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 영농규모별로는 '마을 내 성역할 구분'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중소규모로 농사짓는 여성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응답값이 가장 낮다.
 - 농업소득이 가장 적은 여성들이 마을 내 성평등 수준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5-8〉 여성농업인의 마을 성평등 수준 인식: 특성별 비교

단위: %

		사례수	남녀 모두의 의견을 존중함	남녀 모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남녀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	마을생활에서 남녀가 평등함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2.98	3.00	2.18	2.75
	여성 귀농인	244	3.05	3.10	2.43	2.94
	t / F	-	-1.998*	-2.46*	5.271***	-4.655***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2.92	2.91	2.24	2.73
	공동경영주	554	2.96	3.00	2.16	2.76
	경영주 외 농업인	989	3.03	3.06	2.22	2.80
	t / F	-	7.187***	10.985***	2.001	2.584
연령	40대 이하	125	2.99	2.92	2.37	2.50
	50대	296	2.97	3.00	2.28	2.74
	60대	821	2.99	3.00	2.24	2.81
	70대 이상	761	2.98	3.05	2.12	2.79
	t / F	-	0.174	2.302	7.792***	9.08***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2.81	2.99	2.31	2.66
	중소규모	423	2.97	3.04	2.18	2.75
	중대규모	285	3.03	3.00	2.28	2.82
	대규모	121	2.97	2.92	2.29	2.80
	t / F	-	1.38	3.343	4.422**	2.398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3.08	3.13	2.22	2.85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368	3.06	2.94	2.20	2.68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166	3.05	2.91	2.07	2.81
	1,500만 원 이상	647	2.86	2.97	2.24	2.76
	잘 모름	103	2.72	2.87	2.23	2.54
	t / F	-	20.827***	13.32***	2.468	9.176***

주 1)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4점에 가까울수록 마을이 성평등하다고 평가함. '보통'에 해당하는 2.5점 미만은 마을이 성불평등, 2.5점 이상은 마을이 성평등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2) *p<.05, **p<.01, ***p<.001.

7. 농촌의 여성 안전 인식과 경험

7.1. 여성폭력에 대한 태도

○ 이 조사에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가정폭력을 ‘여성폭력’으로 정의하고, 여성폭력과 관련한 고정관념, 피해자 책임론 등(8개 문항)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성폭력을 허용하거나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문항의 응답 결과는 역코딩하여 4점에 가까울수록 여성폭력을 허용하지 않고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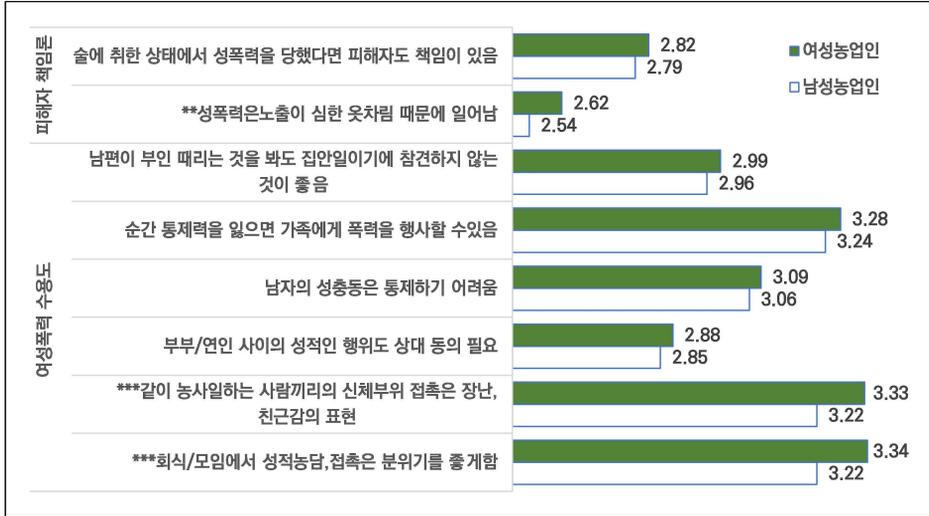
7.1.1. 성별에 따른 여성폭력에 대한 태도

○ 여성농업인들은 남성의 성추동 혹은 충동적 기질, 동의 없는 신체 접촉, 가정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귀책을 묻는 태도에도 부정적이었다.

- 남성농업인들도 일부 문항에서 여성농업인보다 응답값이 유의하게 낮긴 하지만 모든 문항에 대해 보통 이상의 응답값을 보여 성폭력 고정관념에 동의하지 않고 피해자 책임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성별 차이가 나는 문항은 ‘같이 농사일하는 사람끼리의 신체부위 접촉은 장난, 친근감 표현’(남 3.22점, 여 3.33점), ‘회식/모임에서 성적 농담과 접촉은 분위기를 좋게 함’(남 3.22점, 여 3.34점),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남’(남 2.54점, 여 2.62점)이다.

〈그림 5-8〉 여성폭력에 대한 태도: 성별 비교

단위: %



주 1)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여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긍정하는 내용의 문항은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4점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인식을 나타내도록 함. '보통'에 해당하는 2.5점 미만은 성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2.5점 이상은 성폭력에 허용적이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나타냄.

2) 문항의 *표시는 성별 응답값 차이의 통계적 유의도를 표시한 것임. **p<.01, ***p<.001.

7.1.2. 여성농업인의 특성별 비교

가) 여성폭력에 대한 허용도

○ 귀농 여부에 따라서는 '같이 농사일하는 사람끼리의 신체부위 접촉은 장난, 친근감 표현', '회식/모임에서 성적 농담과 접촉은 분위기를 좋게 함', '순간 통제력을 잃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서 차이가 있다. 귀농, 비귀농 여성 모두 성폭력 고정관념을 거부하지만 귀농하지 않은 원주민 여성농업인의 태도가 더 단호하다.

○ 남성의 성적 충동 관련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농업경영체 지위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여성폭력에 가장 비타협적인 집단은 문항에 따라 다르다. 경영주 여성은 모든 종류의 여성폭력 관련 통념을 거부하는 태도가 강하지만

공동경영주 여성은 남성의 충동성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강하고,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은 농작업에서의 성희롱과 부부간의 일방적 성행위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 ‘회식, 모임에서의 성적 농담’에는 공동경영주 여성이, ‘농사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이, ‘순간 통제력 상실하면 가정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은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니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경영주 여성이 가장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부부/연인간 성행위에 동의 필요’에는 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이 가장 강하게 동의하였다.

○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청장년 여성농업인들은 부부/연인 간의 일방적 성행위와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보는 것에 강한 반대 의견을 표하였고, 60대 이상은 농작업 시 성희롱에 가장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 영농규모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집단 간 차이가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부부/연인 간의 일방적 성행위에는 대규모로 농사짓는 여성이 가장 반대하였고,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치부하는 통념에는 중대규모로 농사짓는 여성들이 가장 거부감을 표하였다.

○ 농업소득이 낮을수록 가정 밖에서의 성희롱, 성폭력에 더 비타협적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가정 내 폭력에 더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 ‘같이 농사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신체 접촉’에는 500만 원 이하 여성이,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치부하는 통념에는 중간층 소득 구간에 위치한 여성들이 가장 크게 반대 의견을 보였다. ‘부부/연인 간 성행위에 동의 필요’에는 1,5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의 여성, ‘순간 통제력을 상실하면 가정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1,000만 원 이상 소득 구간의 여성들이 더 반대하였다.

〈표 5-9〉 여성농업인의 여성폭력 수용도: 특성별 비교

단위: %

		사례수	회식/ 모임에서 성적 농담이나 접촉은 분위기를 줄게함	같이 농사일하는 사람들끼리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것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	부부/연인 사이의 성적인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필요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통제하기 어려움	순간 통제력을 잃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 것을 봐도 집안일기기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음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3.35	3.35	2.88	3.08	3.31	2.99
	여성 귀농인	244	3.23	3.18	2.86	3.17	3.05	2.99
	t / F	-	-2.881**	-3.007**	0.475	1.853	-3.466***	-0.018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3.37	3.38	2.86	3.14	3.40	3.07
	공동경영주	554	3.41	3.24	2.67	3.09	3.37	2.92
	경영주 외 농업인	989	3.28	3.36	3.00	3.06	3.17	2.99
	t / F	-	7.501***	5.278**	28.938***	1.959	15.567***	5.94**
연령	40대 이하	125	3.30	3.16	3.12	3.04	3.30	3.35
	50대	296	3.29	3.22	3.01	3.17	3.34	3.03
	60대	821	3.36	3.38	2.83	3.07	3.28	3.01
	70대 이상	761	3.34	3.35	2.85	3.09	3.24	2.90
	t / F	-	1.045	5.414**	8.295***	1.213	0.963	15.731***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3.31	3.32	2.92	3.06	3.30	2.95
	중소규모	423	3.40	3.34	2.81	3.17	3.15	3.02
	중대규모	285	3.34	3.31	2.75	3.08	3.35	3.10
	대규모	121	3.43	3.49	3.06	3.07	3.33	2.98
	t / F	-	2.800	2.381	6.324***	2.186	3.891**	3.545*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3.34	3.46	2.98	3.04	3.15	2.98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368	3.37	3.28	2.92	2.99	3.24	3.11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	166	3.34	3.23	3.02	3.20	3.36	3.16
	1,500만 원 이상	647	3.32	3.26	2.65	3.17	3.36	2.91
	잘 모름	103	3.32	3.26	3.28	3.06	3.67	2.86
	t / F	-	0.383	9.726***	26.736***	4.494**	19.583***	7.107***

주 1)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여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긍정하는 내용의 문항은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4점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인식을 나타내도록 함. '보통'에 해당하는 2.5점 미만은 성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2.5점 이상은 성폭력에 허용적이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나타냄.

2) *p<.05, **p<.01, ***p<.001.

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인식

○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여성 귀농인과 농업소득을 잘 모른다고 답한 여성들은 '성폭력이 노출이 심한 옷차림 탓'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농업소득을 잘 모른다고 답한 여성들은 '술 취한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에도 동의하였다.

〈표 5-10〉 여성농업인의 피해자 책임론 인식: 특성별 비교

단위: %

		사례수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도 책임이 있음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2.64	2.84
	여성 귀농인	244	2.45	2.71
	t / F	-	-3.166**	-2.368*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2.77	2.92
	공동경영주	554	2.61	2.88
	경영주 외 농업인	989	2.55	2.75
	t / F	-	9.196***	7.188***
연령	40대 이하	125	2.83	2.93
	50대	296	2.58	2.74
	60대	821	2.62	2.81
	70대 이상	761	2.59	2.85
	t / F	-	2.632*	1.76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2.58	2.80
	중소규모	423	2.66	2.88
	중대규모	285	2.57	2.78
	대규모	121	2.95	2.92
	t / F	-	6.106***	1.499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2.66	2.85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2.50	2.91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2.50	2.79
	1,500만 원 이상	647	2.68	2.83
	잘 모름	103	2.48	2.35
	t / F	-	4.375**	8.733***

주 1) 4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여성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을 긍정하는 내용의 문항은 응답 결과를 역코딩하여 4점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인식을 나타내도록 함. '보통'에 해당하는 2.5점 미만은 성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2.5점 이상은 성폭력에 허용적이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나타냄.

2)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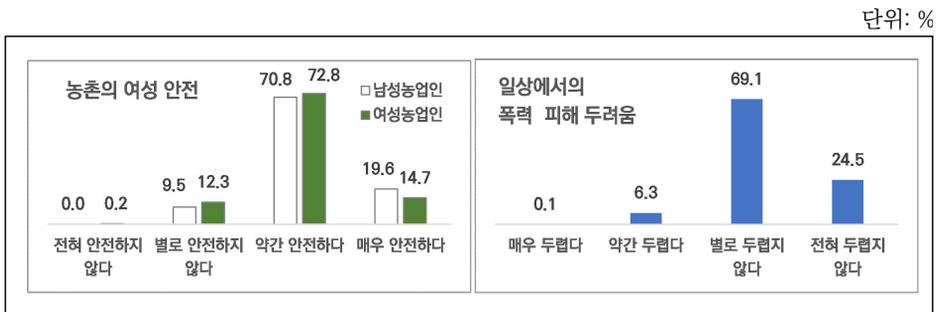
7.2. 농촌의 여성 안전

7.2.1. 농촌 여성 안전 인식과 폭력 피해 두려움

○ 여성농업인들의 87.5%는 농촌이 여성에게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93.6%는 일상생활에서 폭력 피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여성농업인은 농촌의 여성 안전 수준을 4점 만점에 3.02점으로 평가하였고, 남성농업인은 3.10점으로 평가하여 여성보다 약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027, p<.001$).

〈그림 5-9〉 여성농업인이 느끼는 농촌의 여성 안전과 폭력 피해 두려움



- 주 1) '농촌의 여성 안전'은 남녀 모두에게 조사하였고, 일상생활에서의 폭력 피해 두려움은 여성만 조사함.
 2) 4점에 가까울수록 농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폭력 피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음.

○ 귀농하지 않은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여성, 농업소득이 중간 이상 높은 여성들이 농촌을 덜 안전하다 인식하고, 일상에서 폭력 피해 두려움도 상대적으로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하 청장년 여성농업과 영농규모가 아주 적거나 아주 큰 여성들도 폭력 피해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고 있었다.

- 농촌의 여성 안전 인식은 여성 귀농인,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농업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여성들에서 더 높다.
- 농촌 안전을 강하게 확신하는 여성들이 일상에서의 폭력 피해 두려움도 거

의 느끼지 않고 있었다. 여성 귀농인,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 농업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여성들은 일상에서의 폭력 피해 두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고 있으며, 70대 이상 고령 여성과 영농규모가 중간 규모인 여성들도 폭력 피해 두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농촌의 여성 안전 수준과 폭력피해 두려움: 특성별 비교

단위: %

		사례수	농촌의 여성 안전		일상생활에서 폭력 피해 두려움	
			4점 평균	t / F	4점 평균	t / F
남성농업인(전체)		502	3.10	-5.027***	-	-
여성농업인		2003	3.02		3.18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3.01	-2.671**	3.16	-3.549***
	여성 귀농인	244	3.11		3.30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3.03	21.672***	3.15	25.684***
	공동경영주	554	2.90		3.08	
	경영주 외 농업인	989	3.09		3.25	
연령	40대 이하	125	2.99	2.409	3.12	3.786*
	50대	296	3.03		3.12	
	60대	821	3.05		3.17	
	70대 이상	761	2.99		3.22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3.00	3.162*	3.17	3.146*
	중소규모	423	3.03		3.24	
	중대규모	285	3.09		3.20	
	대규모	121	3.05		3.08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3.09	7.183***	3.30	16.339***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3.01		3.18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3.04		3.11	
	1,500만 원 이상	647	2.95		3.08	
	잘 모름	103	2.96		3.17	

주 1) '농촌의 여성 안전'은 남녀 모두에게 조사하였고, 일상생활에서의 폭력 피해 두려움은 여성만 조사함.

2) 4점에 가까울수록 농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폭력 피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음.

3)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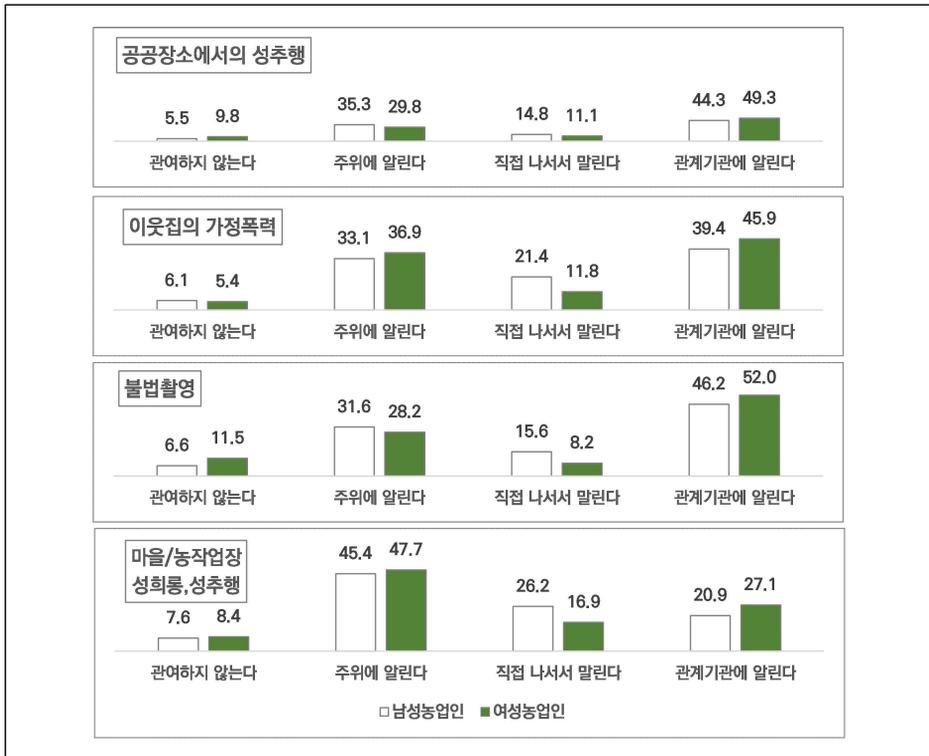
7.2.2. 여성폭력 목격시 대응행동

○ 여성폭력을 목격했을 때 여성농업인의 90% 이상은 관계기관이나 주위에 알리거나 말리는 등 관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관여하지 않겠다는 응답률은 남녀 모두 10% 내외로 낮지만 대응 방법에서 남성은 ‘직접 말린다’는 응답 비율이 여성보다 높고 여성은 ‘관계기관에 알린다’는 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 남녀 모두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불법촬영, 이웃의 가정폭력은 관계기관에 알린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마을/농작업장에서의 성희롱, 성추행은 주변에 알린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다.

〈그림 5-10〉 여성폭력 목격시 대응행동: 성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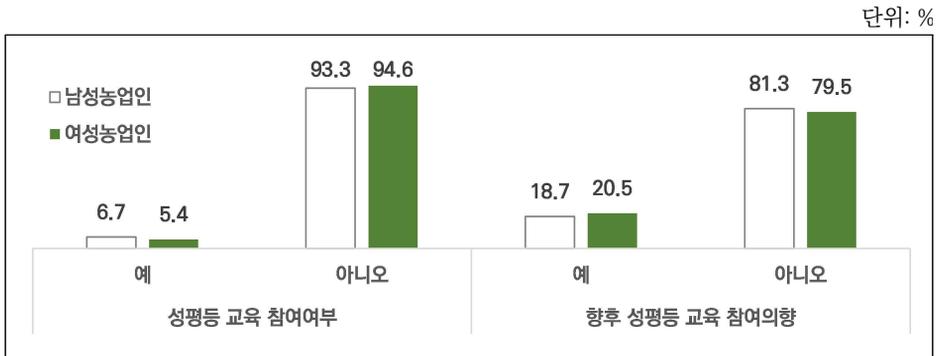


8. 성평등 교육

8.1. 성평등 교육 경험 및 향후 참여 의향

○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예방, 여성농업인 정책 등을 포함하여 성평등 교육을 받은 비율은 여성농업인 중 5.4%로 낮고 남성농업인(6.7%)의 성평등 교육 참여율이 오히려 더 높다. 그러나 향후 성평등 교육 참여 의향은 여성농업인이 20.5%로 남성(18.7%)보다 더 높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림 5-11〉 성평등 교육 참여 여부 및 향후 참여 의향: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 중에는 여성 귀농인(10.2%), 40대 이하(10.2%), 농업소득이 1,500만 원 이상(7.1%) 여성들의 성평등 교육 참여율이 높다. 성평등 교육 참여율이 높은 여성들이 대체로 향후 성평등 교육 참여 의향도 높지만, 농업소득별로는 교육 참여율과 참여 의향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 여성 귀농인(28.5%), 40대 이하(36.7%)의 참여 의향이 다른 집단보다 확연히 높다.
- 농업소득이 중상위층(1,000만 원~1,500만 원 미만)인 여성들은 교육 참여

율은 4.6%로 낮지만 참여 의향은 28.3%로 가장 높다. 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고소득층 여성농업인은 오히려 향후 참여 의향이(16.5%) 가장 낮다.

- 농업경영체 지위별로는 경영주(6.8%) 및 공동경영주(6.7%) 여성의 성평등 교육 참여율이 약간 더 높지만 향후 참여 의향은 경영주(21.6%)와 경영주 외 농업인(23.0%) 여성에게서 높고, 공동경영주 여성의 참여 의향은(15.0%) 가장 낮다.

〈표 5-12〉 성평등 교육 경험 및 향후 참여 의향: 특성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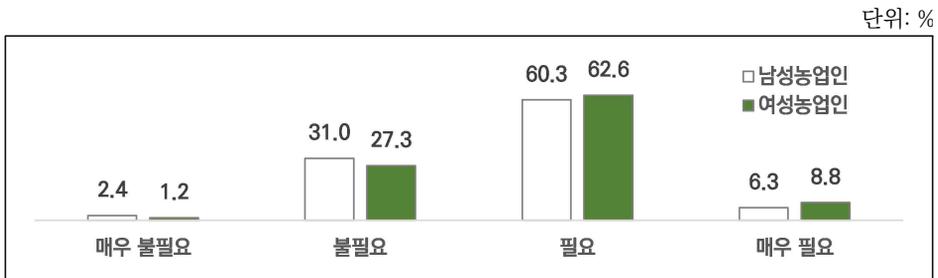
구분	N	성평등 교육 참여 여부			향후 성평등 교육 참여 의향			
		예	아니오	χ^2	예	아니오	χ^2	
남성농업인(전체)	502	6.7	93.3	3.125	18.7	81.3	2.021	
여성농업인(전체)	2003	5.4	94.6		20.5	79.5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4.7	95.3	12.833***	19.4	80.6	11.37***
	여성 귀농인	244	10.2	89.8		28.5	71.5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6.8	93.2	7.589*	21.6	78.4	14.576***
	공동경영주	554	6.7	93.3		15.0	85.0	
	경영주 외 농업인	989	4.0	96.0		23.0	77.0	
연령	40대 이하	125	10.2	89.8	9.173*	36.7	63.3	35.867***
	50대	296	5.2	94.8		23.3	76.7	
	60대	821	4.1	95.9		21.9	78.1	
	70대 이상	761	6.0	94.0		15.2	84.8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5.5	94.5	5.923	19.1	80.9	4.356
	중소규모	423	5.7	94.3		22.9	77.1	
	중대규모	285	2.8	97.2		23.2	76.8	
	대규모	121	8.6	91.4		19.3	80.7	
농업 소득	5백만 원 미만	719	5.9	94.1	14.289**	19.5	80.5	18.441**
	5백만 원~1천만 원 미만	368	3.1	96.9		24.9	75.1	
	1천만 원~1천5백만 원 미만	166	4.6	95.4		28.3	71.7	
	1천5백만 원 이상	647	7.1	92.9		16.5	83.5	
	잘 모름	103	0.3	99.7		24.0	76.0	

주: *p<.05, **p<.01, ***p<.001

8.2. 성평등 교육 필요성 인식

○ 여성농업인들의 성평등 교육 참여 의향(20.5%)은 높지 않았지만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높다. 여성농업인의 71.4%, 남성농업인의 66.6%가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성평등 교육이 성별을 떠나 모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2〉 성평등 교육 필요성 인식: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간에는 농업경영체 지위, 연령, 영농규모, 농업소득별로 성평등 교육 필요성 인식의 차이가 있다.

-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를 합친 비율은 경영주(73.9%)와 공동경영주(75.7%) 여성이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68.0%)보다 높다($\chi^2=15.354$, $p<.05$).
- 연령이 낮을수록 성평등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40대 이하 20.1%, 50대 13.2%). '필요하다'는 응답을 합치면 7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필요성 인식(68.3%)이 60대 이하 여성들보다 확연히 낮고 60대 이하 여성들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chi^2=52.126$, $p<.001$).
- 영농규모가 중소규모인 여성들의 교육 필요성 인식이(62.8%) 다른 여성들보다 10%p 이상 낮고($\chi^2=28.020$, $p<.01$),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이하

인 여성들의 필요성 인식이 60% 중후반대로 80%에 육박하는 1,000만 원 이상 여성들보다 현저히 낮다($\chi^2=57.116$, $p<.001$).

○ 한편, 향후 성평등 교육 참여 의향을 가진 여성들은 99.3%가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주목할 점은 참여의향이 없는 여성들도 64.4%가 교육의 필요성에 동감했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낮은 참여 의향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받기 어려운 여러 현실적 이유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5-13〉 성평등 교육 필요성 인식: 여성농업인 특성별 비교

단위: %

		전체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함	매우 필요함	χ^2
		N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2.4	31.0	60.3	6.3	23.055 ***
여성농업인		2003	100.0	1.2	27.3	62.6	8.8	
성평등 교육 참여 의향	있다	410	100.0	-	0.7	80.0	19.3	227.829 ***
	없다	1592	100.0	1.5	34.2	58.2	6.2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1.1	27.0	63.2	8.7	3.408
	여성 귀농인	244	100.0	2.1	29.6	58.1	10.2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1.0	25.1	64.9	9.0	15.354*
	공동경영주	554	100.0	0.9	23.4	67.9	7.8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1.5	30.6	58.6	9.4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2.4	27.4	50.1	20.1	52.126 ***
	50대	296	100.0	0.1	28.6	58.2	13.2	
	60대	821	100.0	1.8	23.6	67.5	7.1	
	70대 이상	761	100.0	0.9	30.9	61.1	7.2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1.5	24.6	65.6	8.3	28.020 **
	중소규모	423	100.0	0.5	36.7	53.8	9.0	
	중대규모	285	100.0	1.1	25.6	62.7	10.6	
	대규모	121	100.0	1.6	24.8	64.5	9.2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1.6	31.2	57.0	10.2	57.116 ***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100.0	1.8	34.0	58.9	5.2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100.0	0.0	21.6	64.2	14.1	
	1,500만 원 이상	647	100.0	1.0	19.8	71.3	7.8	
	잘 모름	103	100.0	0.0	32.7	57.1	10.1	

주: * $p<.05$, ** $p<.01$, *** $p<.00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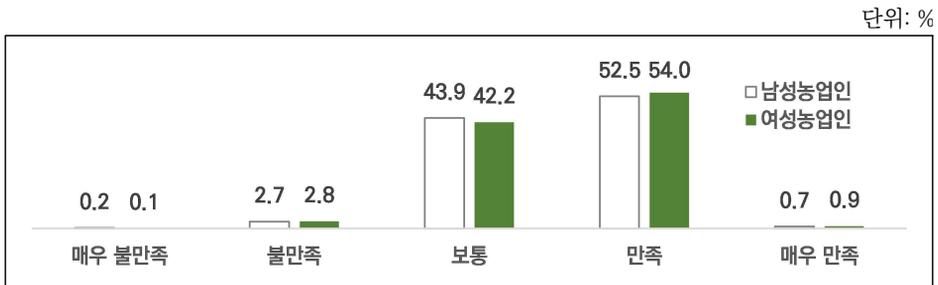
농촌생활 만족도와 정책 요구

1. 농촌생활 만족도

1.1. 전반적 삶의 만족도

○ 여성농업인들은 전반적으로 농촌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점 만점에 여성농업인의 삶의 만족도는 3.52점, 남성농업인의 만족도는 3.51점이고, 성별 차이는 없다.

〈그림 6-1〉 전반적 삶의 만족도: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 중에는 여성 귀농인, 40대 이하,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소득이 고소득인 여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다.

- 70대 이상 여성, 영농규모가 소규모임 여성, 농업소득이 가장 낮거나 중상층(1,000만 원~1,500만 원 미만)인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다.

〈표 6-1〉 여성농업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특성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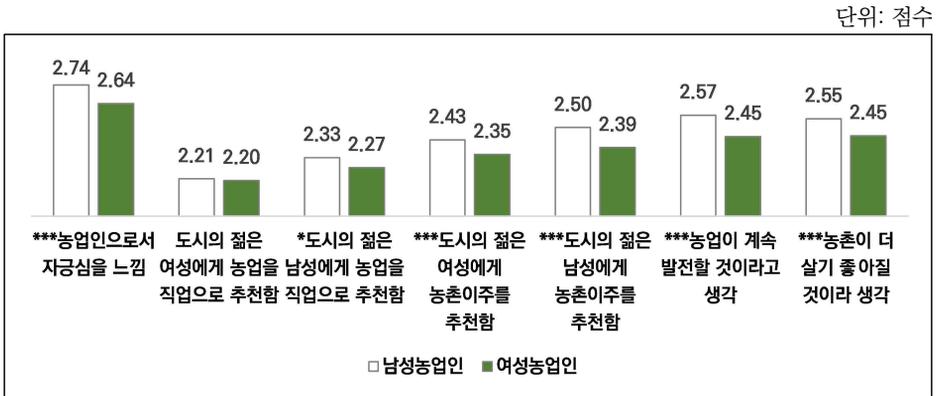
		사례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t / F
남성농업인(전체)		(502)	0.2	2.7	43.9	52.5	0.7	3.51	1.051
여성농업인		2003	0.1	2.8	42.2	54.0	0.9	3.52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0.0	3.1	43.2	52.9	0.7	3.50	-3.279 **
	여성 귀농인	244	0.6	0.7	34.8	61.8	2.1	3.63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0.1	3.7	43.5	51.4	1.2	3.53	0.812
	공동경영주	554	0.1	3.1	40.4	56.2	0.2	3.43	
	경영주 외 농업인	989	0.1	2.3	42.6	54.0	1.1	3.53	
연령	40대 이하	125	0.0	2.9	35.2	61.3	0.6	3.63	16.947 ***
	50대	296	0.0	3.6	40.4	54.8	1.2	3.56	
	60대	821	0.1	2.0	34.7	62.2	0.9	3.58	
	70대 이상	761	0.1	3.4	52.1	43.6	0.8	3.43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0.0	2.5	45.5	51.2	0.7	3.49	3.633*
	중소규모	423	0.0	1.7	38.2	58.7	1.4	3.51	
	중대규모	285	0.2	4.9	39.3	54.5	1.1	3.53	
	대규모	121	0.5	4.9	30.6	63.6	0.3	3.53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0.2	3.2	46.1	49.3	1.3	3.49	8.806 ***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0.2	3.2	46.1	49.0	1.6	3.50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0.0	3.5	46.2	50.1	0.2	3.47	
	1,500만 원 이상	647	0.0	2.4	32.4	64.8	0.4	3.61	
	잘 모름	103	0.0	0.6	56.1	43.3	0.0	3.43	

주: *p<0.05, **p<0.01, ***p<0.001.

1.2.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평가

-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대한 기대, 도시 청년에게 농업과 농촌이주 추천 등에 동의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하여 농업농촌 생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 여성농업인들은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 사항에서는 ‘보통’인 2.5점 미만의 점수를 보여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의 청년여성, 청년남성에게 농업 및 농촌이주를 추천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 남성농업인들은 농업인 자긍심을 여성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고, ‘청년남성에게 농촌이주 추천’, ‘농업이 계속 발전’, ‘농촌이 더 살기 좋아질 것’에 긍정적 태도를 보여 여성들과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남성농업인들도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이주 추천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림 6-2〉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평가: 성별 비교



주 1) 전혀 아니다 1 ~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조사하였고, 4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태도를 나타냄.

2) 문항에 *표시는 성별 응답값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표시한 것임. * $p < .05$, *** $p < .001$.

- 여성농업인들 사이에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인식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농업인 자긍심을 제외하고 응답값이 긍정적인 경우는 드물

다. 공동경영주 여성은 청년여성에게 농업 및 농촌 이주를 추천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가 가장 약하였으나 농업 발전 전망은 비관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40대 이하 및 60대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농촌 이주 추천에 덜 부정적이고 농업 및 농촌 발전에는 낙관적 태도를 보여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긍정적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귀농인은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약하고 따라서 청년 여성에게 농업을 추천하는 것에 더 부정적이다. 그러나 청년 남성에게 농촌 이주를 추천하는 것에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 농업경영체 지위별로 농업인 자긍심을 느끼는 차이는 없으나,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이 청년여성에게 농업이나 농촌 이주를 추천하는 것에 가장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농업 발전에 대해서는 경영주 여성과 함께 긍정하는 인식을 보였다. 공동경영주는 반대로 청년여성에게 농업과 농촌 이주를 추천하는 것에 반대하는 태도가 가장 약하지만 농업 발전 전망은 비관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 50대 여성은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가장 약하고, 70대 이상 여성과 함께 청년여성과 청년남성에게 농업과 농촌 이주를 추천하는 것에 가장 부정적이며 농업 및 농촌 발전에도 가장 비관적 태도를 보였다. 40대 이하와 60대 여성은 그 반대여서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영농규모가 소규모인 여성들이 농업 및 농촌 이주 추천, 농업 및 농촌 발전에 가장 부정적이다.
- 모든 문항에서 농업소득을 '잘 모른다'고 답한 여성들의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다. 또한 청년에게 농업 및 농촌 이주 추천, 농촌 발전 전망에 대해 농업소득이 중하위 수준 이하인 여성들에서 부정적 태도가 강하였고 농업 발전에 대해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여성과 가장 높은 여성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표 6-2〉 여성농업인의 농업능촌 생활에 대한 평가: 특성별 비교

단위: 명, 점수

		사례수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낀	도시 젊은 여성에게 농업을 직업으로 추천	도시 젊은 남성에게 농업을 직업으로 추천	도시 젊은 여성에게 농촌이주 추천	도시 젊은 남성에게 농촌이주 추천	농업이 계속 발전할 것	농촌이 더 살기 좋아질 것
성별 (전체)	남성농업인	(502)	2.74	2.21	2.33	2.43	2.50	2.57	2.55
	여성농업인	2003	2.64	2.20	2.27	2.35	2.39	2.45	2.45
	t / F	-	-5.275 ***	-0.58	-2.091 *	-3.711 ***	-4.631 ***	-4.926 ***	-3.796 ***
귀농 여부	비귀농	1759	2.66	2.22	2.29	2.34	2.37	2.44	2.44
	귀농	244	2.49	2.07	2.18	2.41	2.50	2.54	2.53
	t / F	-	4.303 ***	2.732 **	1.731	-1.394	-2.299 *	-1.832	-1.663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2.62	2.20	2.28	2.31	2.39	2.50	2.50
	공동경영주	554	2.61	2.29	2.32	2.47	2.37	2.32	2.42
	경영주 외 농업인	989	2.66	2.15	2.24	2.30	2.40	2.50	2.45
	t / F	-	1.350	5.851 **	1.631	10.005 ***	0.258	9.627 ***	1.300
연령	40대 이하	125	2.63	2.44	2.41	2.53	2.49	2.67	2.63
	50대	296	2.47	2.10	2.19	2.22	2.33	2.38	2.37
	60대	821	2.72	2.29	2.35	2.44	2.45	2.55	2.55
	70대 이상	761	2.62	2.11	2.20	2.27	2.33	2.34	2.35
	t / F	-	12.992 ***	11.186 ***	6.257 ***	12.438 ***	4.455 **	12.693 ***	10.928 ***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2.62	2.14	2.24	2.34	2.35	2.39	2.40
	중소규모	423	2.70	2.31	2.33	2.44	2.49	2.58	2.57
	중대규모	285	2.58	2.24	2.26	2.26	2.34	2.51	2.47
	대규모	121	2.66	2.26	2.46	2.37	2.48	2.47	2.49
	t / F		2.248	5.032**	2.878*	3.22*	4.121**	6.184***	4.563**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2.67	2.07	2.14	2.33	2.39	2.46	2.47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368	2.57	2.14	2.29	2.29	2.29	2.52	2.42
	1천만 원~ 1천5백만 원 미만	166	2.70	2.41	2.36	2.38	2.50	2.50	2.55
	1,500만 원 이상	647	2.66	2.36	2.41	2.46	2.45	2.46	2.53
	잘 모름	103	2.36	2.01	2.16	1.90	2.09	1.95	1.80
	t / F	-	7.235 ***	16.236 ***	9.273 ***	16.796 ***	6.377 ***	6.799 ***	15.672 ***

주: *p<0.05, **p<0.01,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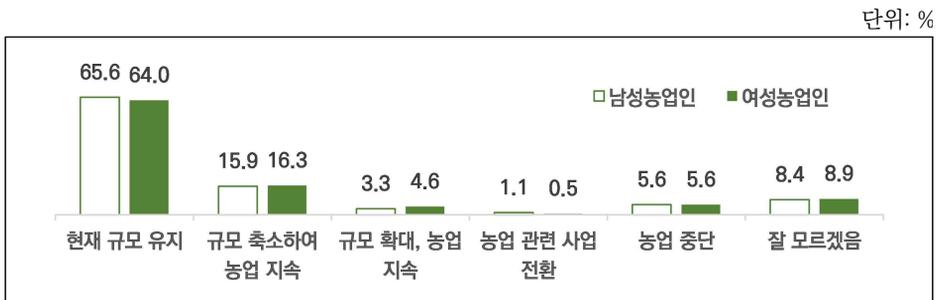
2. 농업 유지 전망 및 농촌 계속 거주 의향

2.1. 향후 5년 이내 농업 지속 전망

○ 여성농업인의 84.9%는 향후 5년 동안은 농업을 지속할 것이라 응답하였고, 그만두겠다는 응답은 5.6%로 낮다. 응답 분포의 성별 차이는 없다.

- 여성농업인은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64.0%로 가장 높고, 16.3%는 ‘규모를 축소하여 유지’, 4.6%는 ‘규모를 확대하여 농업을 지속’할 것이라 하였다.

〈그림 6-3〉 향후 5년 이내 농업 지속 전망: 성별 비교



○ 여성농업인 중에는 70대 이상이 농업을 그만두겠다는 비율이 13.1%로 다른 집단보다 높고, 50대 이하와 여성 귀농인은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비율이 높다(40대 이하 13.9%, 50대 17.6%, 여성 귀농인 17.6%). 60대는 70.5%가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여 농업 유지 전망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업을 지속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지만(소규모 82.6%, 중소규모 87.4%, 중대규모 88.2%, 대규모 91.6%), 농업 규모를 축소하여 유지하겠다는 응답률이 영농규모에 상응하여 높다.

○ 농업소득은 변동성이 있어 일관된 응답 흐름을 보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농업 소득이 높은 경우에 농업 유지 의향이 높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표 6-3〉 여성농업인의 향후 5년 이내 농업 지속 전망: 특성별 비교

단위: 명, %

	전체		농업 지속	농업 지속			농업 관련 창업	농업 중단	잘 모르겠음	x ²	
	사례수	비율		규모 유지	규모 축소	규모 확대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84.8	65.6	15.9	3.3	1.1	5.6	8.4	10.205	
여성농업인	2003	100.0	84.9	64.0	16.3	4.6	0.5	5.6	8.9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84.6	64.6	17.2	2.8	0.3	5.8	9.3	125.452 ***
	여성 귀농인	244	100.0	87.3	60.0	9.7	17.6	2.2	4.7	5.8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82.7	63.6	13.5	5.6	0.9	7.8	8.6	63.125 ***
	공동경영주	554	100.0	83.4	54.2	21.5	7.7	0.8	6.6	9.2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86.7	69.7	14.7	2.3	0.2	4.1	8.8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88.4	68.8	5.7	13.9	4.2	1.1	6.4	396.235 ***
	50대	296	100.0	90.1	65.5	7.0	17.6	1.2	0.9	7.9	
	60대	821	100.0	92.3	70.5	19.3	2.5	0.2	1.1	6.2	
	70대 이상	761	100.0	74.4	55.7	18.5	0.2	0.0	13.1	12.5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82.6	66.5	12.2	3.9	0.6	6.8	10.1	98.226 ***
	중소규모	423	100.0	87.4	66.7	14.6	6.1	0.3	6.0	6.2	
	중대규모	285	100.0	88.2	55.9	28.5	3.8	0.7	2.7	8.4	
	대규모	121	100.0	91.6	49.9	33.7	8.0	0.9	0.0	7.6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86.2	72.0	12.6	1.6	0.1	6.0	7.6	141.740 ***
	500만 원~ 1,000만 원 미만	368	100.0	81.0	59.6	17.5	3.9	0.6	3.9	14.5	
	1천만 원~ 1천5백만 원 미만	166	100.0	89.4	70.0	17.1	2.3	1.9	4.6	4.0	
	1,500만 원 이상	647	100.0	86.5	57.0	20.7	8.8	0.6	7.0	5.9	
	잘 모름	103	100.0	72.6	58.8	8.9	4.9	1.0	2.4	24.1	

주: ***p<0.001.

2.2. 농촌 계속 거주 의향

- 여성농업인의 90.0%는 농촌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고, 4.6%만이 계속 거주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응답 분포의 성별 차이는 없다.
- 여성농업인 중 여성 귀농인(91.5%), 연령이 높을수록(70대 이상 94.1%), 영농규모가 적을수록(소규모 91.8%, 중소규모 90.9%) 농촌 계속 거주 의향이 유의미하게 더 높다. 농업소득에 따라서는 계속 거주 의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92.9%)과 중상 수준인 집단(94.2%)에서 계속 거주 의향이 높기 때문이다.
 - 40대 이하 청년여성농업인의 계속 거주 의향(81.9%)은 70대 이상과 비교하여 10%p 가량 낮다.
- 향후 5년 이내 농업 규모를 유지(93.9%)하거나 확대(97.8%)하겠다는 경우에 계속 거주 의향이 높고, 축소하겠다는 경우에는 계속 거주 의향이 82.3%로 낮아진다. 영농규모가 적을수록 계속 거주 의향이 높은 것을 함께 고려하면, 농업의 규모화가 여성농업인의 농촌 정주에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농업 지속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집단('잘 모름')은 농촌 계속 거주 의향이 69.8%로 낮고 계속 거주할지도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27.4%로 높다.
 - 주목할 점은 '농업을 중단'하겠다는 집단도 93.9%가 농촌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한 점이다. 이는 여성농업인에게 농업 중단이 농촌 이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6-4〉 여성농업인의 농촌 계속 거주 의향: 특성별 비교

단위: %

		전체		농촌 계속 거주	농촌 계속 거주 않을 것	잘 모르겠음	x ²
		사례수	비율				
남성농업인(전체)		502	100.0	92.0	3.4	4.6	5.546
여성농업인(전체)		2003	100.0	90.0	4.6	5.3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00.0	89.8	5.1	5.1	9.053*
	여성 귀농인	244	100.0	91.5	1.2	7.2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00.0	90.9	4.1	5.0	9.093
	공동경영주	554	100.0	88.8	6.7	4.5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0.0	90.4	3.7	6.0	
연령	40대 이하	125	100.0	81.9	9.2	8.9	57.935 ***
	50대	296	100.0	87.5	4.6	7.9	
	60대	821	100.0	88.5	7.5	4.0	
	70대 이상	761	100.0	94.1	0.7	5.2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00.0	91.8	2.8	5.4	35.646 ***
	중소규모	423	100.0	90.9	4.5	4.6	
	중대규모	285	100.0	84.0	9.7	6.3	
	대규모	121	100.0	84.9	9.9	5.2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00.0	92.9	2.2	4.9	53.982 ***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100.0	88.3	2.9	8.8	
	1천만 원~1천5백만 원 미만	166	100.0	94.2	3.9	2.0	
	1,500만 원 이상	647	100.0	87.5	8.5	3.9	
	잘 모름	103	100.0	85.5	3.9	10.6	
농업 지속 전망	현재 규모 유지	1283	100.0	93.9	2.7	3.4	292.435 ***
	규모 축소	327	100.0	82.3	15.3	2.4	
	규모 확대	92	100.0	97.8	1.1	1.1	
	농관련 창업	11	100.0	81.8	-	18.2	
	농업 중단	114	100.0	93.9	1.8	4.4	
	잘 모르겠다	179	100.0	69.8	2.8	27.4	

주: *p<0.05,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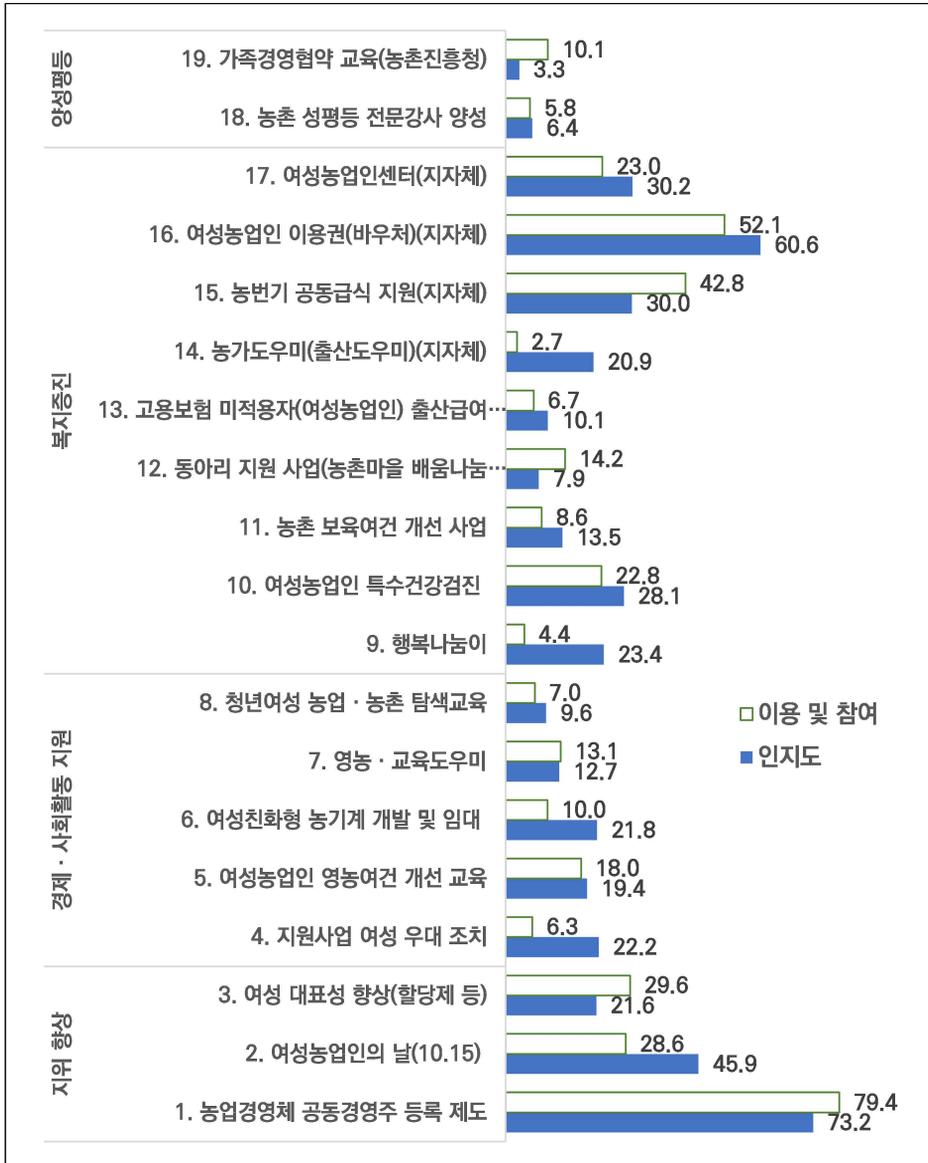
3.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3.1.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와 이용도

- 여성농업인들의 관련 정책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정책 참여 및 이용율은 더 낮다. 지위 향상 관련 정책과 지자체 소관 사업이 다수인 복지 영역을 제외한 정책 인지도는 많이 낮다. 부처나 지자체가 공모, 지정 등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보다는 제도를 통해 추진되거나 사업량이 많은 정책의 인지도가 높다.
 - 인지도가 30% 이상인 정책사업으로는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73.2%), 여성농업인 이용권(행복바우처)(60.6%),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운영(45.9%), 여성농업인센터(30.2%), 농번기 공동급식(30.0%)이 있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28.1%)의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 인지도가 10% 미만으로 낮은 사업은 농촌 성평등 관련 정책, 동아리 지원 사업, 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교육(시골언니 프로젝트)이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농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영농/교육도우미도 10% 초반으로 인지도가 낮다.
-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용 및 참여도를 확인한 결과, 인지도가 높은 사업들은 정책 이용도도 높게 나타났다.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79.4%)와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42.8%)은 인지도보다 정책 이용 및 참여율이 더 높다.
- 그러나 정책 인지도가 30% 이상 높은 사업 중 이용 및 참여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들도 상당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날(28.6%), 여성농업인 이용권(52.1%), 여성농업인센터(23.0%)가 그러하다.

〈그림 6-4〉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와 이용도(중복응답)

단위: %



주 1) 중복응답이므로 항목별 비율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있음.

2) '이용 및 참여율'은 해당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여성농업인 특성별로 정책 인지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여성농업인의 날이 상위 1, 2, 3 순위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에 따라 인지도가 30% 이상으로 높은 사업의 종류에서 차이가 있었다. 50대 여성과 영농규모가 중대규모 이상으로 큰 여성, 농업소득이 중상위 수준인 여성들에서 정책 인지도가 30% 이상 높은 사업들이 많았다. 집단 간 인지도 차이가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여성 귀농인이 여성친화 농기계 임대 사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인지도는 비귀농 여성농업인의 2배 가까이 높다. 비귀농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 바우처에 대해 여성 귀농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별로는 정책 인지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이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정작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들은 이 제도를 58.0%만이 안다고 응답하여 제도 운용과 현실 간의 괴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여성농업인의 날, 위원회 등 여성 할당제는 공동경영주 여성의 인지도가 가장 높고, 행복나눔이 사업은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의 인지도가 가장 높다.
- 연령별로는 행복나눔이,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연령에 따른 인지도 차이가 유의하였다. 모든 사업에서 70대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의 인지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하게 낮다. 50대 이하 청장년 여성들은 지원 사업의 여성 우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농번기 공동급식, 여성농업인센터를 30% 이상이 안다고 응답하였고, 50대는 여성친화 농기계 임대 사업, 60대는 여성농업인센터 인지도가 30% 이상 높다.
- 영농규모별로는 공동경영주 제도, 여성농업인의 날을 제외한 사업들에서 인지도 차이가 있다. 영농규모가 클수록 정책 인지도가 30% 이상인 사업

들이 더 많은데, 특히 대규모로 농사짓는 여성농업인들은 위원회의 여성 할당제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중대규모로 농사짓는 여성들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농번기 공동급식, 여성농업인센터 인지도가 30% 이상으로 높았다. 영농규모가 중소규모 이하인 여성들은 상위 1, 2, 3순위를 제외하고 정책 인지도가 30% 이상 높은 사업은 없었다.

- 농업소득별로는 위원회 등 여성할당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인지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농업소득이 중상위 수준(1,000만 원~1,500만 원 미만)인 여성은 지원사업 여성 우대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중하위 수준인 여성들은 농번기 공동급식, 고소득 여성들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센터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6-5〉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상위 10순위(중복응답): 특성별 비교

단위: %

		사례수	공동 경영주	여성 농업인의 날	위원회 등 여성 할당제	지원 사업 여성 우대	여성 친화 농기계 임대	행복 나눔이	여성 농업인 특수 검진	농번기 공동 급식	여성 농업인 바우처	여성 농업인 센터
여성농업인 전체		2003	73.2	45.9	18.7	21.6	21.8	23.4	28.1	30.0	60.6	30.2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73.0	45.6	18.3	21.0	21.0	22.7	25.6	29.7	61.5	30.5
	여성 귀농인	244	74.2	47.7	22.0	25.7	27.1	28.1	46.7	32.5	54.0	28.3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64.7	46.4	14.2	22.3	21.4	19.1	26.5	34.1	59.5	32.4
	공동경영주	554	58.0	50.7	20.3	21.1	25.0	21.2	30.6	28.8	58.4	32.6
	경영주 외 농업인	989	85.6	43.0	19.9	21.5	20.1	26.5	27.5	28.9	62.3	27.9
연령	40대 이하	125	78.5	43.5	22.6	33.6	18.4	27.3	31.3	37.9	66.3	37.3
	50대	296	77.1	52.5	27.5	30.1	32.0	27.9	43.1	34.9	62.3	32.5
	60대	821	75.1	50.0	23.5	24.8	23.5	23.1	28.6	28.3	59.7	32.6
	70대 이상	761	68.6	39.3	9.5	12.9	16.4	21.2	21.4	28.7	60.1	25.5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71.6	44.4	17.7	21.4	20.4	22.4	27.9	28.9	57.3	28.5
	중소규모	423	72.5	46.0	15.9	20.5	20.6	21.8	23.5	27.4	63.7	24.9
	중대규모	285	79.8	47.9	29.1	19.2	25.4	25.1	33.6	30.7	63.4	37.1
	대규모	121	74.9	55.0	14.0	33.2	30.7	34.5	33.9	48.4	76.1	48.9

		사례수	공동 경영주	여성 농업인의 날	위원회 등 여성 할당제	지원 사업 여성 우대	여성 친화 농기계 임대	행복 나눔이	여성 농업인 특수 검진	농번기 공동 급식	여성 농업인 바우처	여성 농업인 센터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80.8	41.8	16.1	21.8	21.1	21.5	21.2	26.2	52.3	23.6
	500만 원~ 1천만 원 미만	368	81.8	48.9	21.3	22.1	18.5	26.7	22.3	31.3	72.8	19.1
	1천만 원~ 1천5백만 원 미만	166	85.4	58.3	22.0	19.9	31.6	30.8	36.2	41.2	67.9	33.9
	1,500만 원 이상	647	56.1	50.8	19.2	18.8	24.6	21.3	37.1	29.4	60.6	41.5
	잘 모름	103	76.7	13.0	18.8	38.7	4.7	24.7	27.9	38.9	63.7	39.0

주: 집단 간의 인지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항목을 음영으로 표시함.

3.2. 여성농업인 정책 만족도

○ 여성농업인 정책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책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든 사업에 대해 5점 만점에 3점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 만족도가 4점 이상으로 높은 사업은 대부분 개인에게 현금이나 서비스가 직접 제공되는 복지 시책 사업들이다. 참여자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사업은 ‘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 교육’(4.55점)이었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4.24점), ‘동아리 지원 사업’(4.21점), ‘행복나눔이’(4.16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4.15점), ‘여성농업인 이용권’(4.06점) 사업의 만족도도 높다.
- 노동부담 경감, 법적 지위,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관련 사업들의 만족도가 3점대 후반으로 그다음을 이었다.
- 여성 대표성 향상, 적극적 우대조치, 가족경영협약 등 농촌 성평등 증진과 관련한 사업들의 만족도는 3.5점 내외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

〈그림 6-5〉 여성농업인 정책 경험자의 정책 만족도

단위: 점수



주: 각 정책별로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함. 5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함.

4. 여성농업인을 위한 과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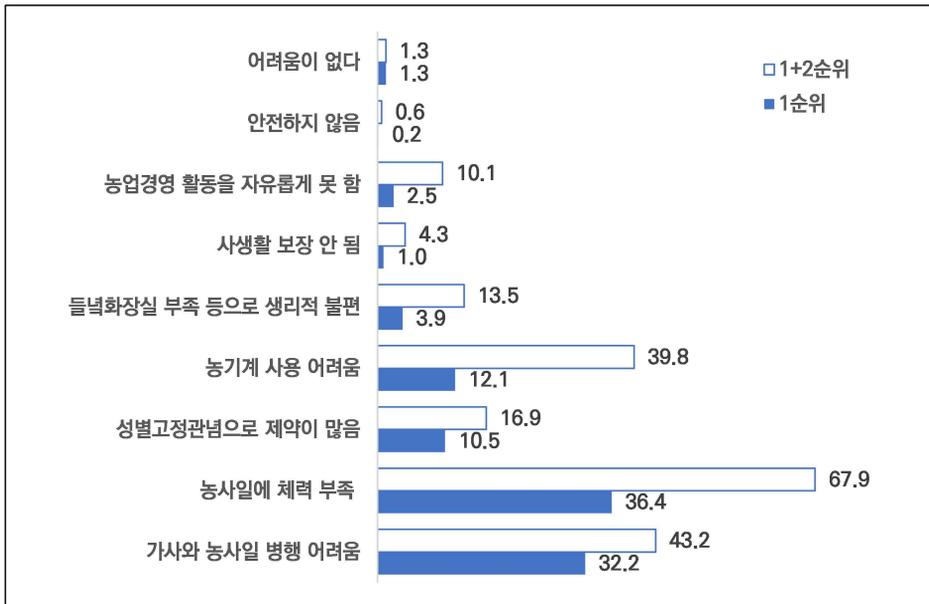
4.1. 농업농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

○ 농업농촌에서 여성이어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농사일의 체력 부족’,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이 가장 크게 조사되어, 여성농업인에게는 ‘노동 부담’이 핵심적인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농촌에서의 여성 어려움을 2순위 응답까지 합해서 살펴보면, ‘농사일 체력 부족’이 67.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 43.2%, 농기계 사용 어려움 39.8% 순으로 나타나 생산 및 노동 활동과 관련한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높다.

〈그림 6-6〉 농업농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

단위: %



- 1순위 응답결과를 여성농업인 특성별로 비교한 결과, ‘농사일 체력 부족’과 ‘가사와 농업 병행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1, 2위를 차지하는 것은 공통적이며 3위 이하 어려움의 내용에서 집단별 차이가 있었다. 공동경영주와 영농규모가 중소규모인 여성, 농업소득이 고소득인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이 높고, 50대와 농업소득이 중하 수준인 여성들은 ‘농기계 사용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높다. 40대 이하 청년여성농업인들은 ‘들녘화장실 부족 등 생리적 불편’을 어려움으로 꼽은 비율이 높다.

〈표 6-6〉 농업농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1순위): 특성별 비교

단위: %

		사례수	가사와 농업 병행	농사일 체력 부족	성별 고정 관념	농기계 사용	들녘 화장실 부족 등 생리적 불편	사생활 미보장	농업 경영 활동 제한	안전 하지 않음	어려움 없음	x ²
여성농업인 전체		2003	32.2	36.4	10.5	12.1	3.9	1.0	2.5	0.2	1.3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31.3	36.5	11.0	12.2	4.1	1.1	2.4	0.2	1.2	15.203
	여성 귀농인	244	38.8	35.0	6.6	11.2	2.8	0.1	2.9	0.0	2.4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28.9	38.5	9.8	10.5	4.3	1.1	3.5	0.2	3.1	89.869 ***
	공동경영주	554	30.6	36.6	18.1	9.3	2.4	1.4	1.5	0.0	0.0	
	경영주 외 농업인	989	34.7	35.2	6.6	14.3	4.6	0.6	2.6	0.2	1.2	
연령	40대 이하	125	31.5	31.5	10.7	8.4	11.0	0.0	2.8	0.0	4.2	130.193 ***
	50대	296	30.0	38.2	6.0	15.2	1.5	3.0	4.2	0.8	1.1	
	60대	821	30.4	32.5	13.9	11.3	6.6	1.0	2.9	0.0	1.3	
	70대 이상	761	35.2	40.5	8.6	12.3	0.7	0.3	1.4	0.1	0.9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31.9	36.4	11.4	12.7	3.0	0.2	2.8	0.1	1.4	100.586 ***
	중소규모	423	34.2	29.6	16.0	10.2	5.4	2.4	1.2	0.0	1.0	
	중대규모	285	31.3	45.1	1.8	10.2	6.5	1.1	2.0	0.4	1.6	
	대규모	121	31.2	38.4	3.3	16.5	1.0	2.5	5.2	0.8	1.1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38.3	33.5	9.3	11.8	3.6	0.2	2.4	0.1	1.0	121.707 ***
	500만 원~ 1천만 원 미만	368	32.1	36.0	6.1	18.5	2.9	0.1	2.1	0.1	2.1	
	1천만 원~ 1천5백만 원 미만	166	32.0	42.3	5.0	8.5	5.5	3.8	2.2	0.0	0.6	
	1,500만 원 이상	647	27.2	36.2	16.9	9.0	4.2	1.6	3.0	0.3	1.4	
	잘 모름	103	22.4	49.1	3.6	15.8	5.1	0.9	1.9	0.0	1.3	

주 1)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2) ***p<0.001.

4.2. 농촌사회에서 여성 활동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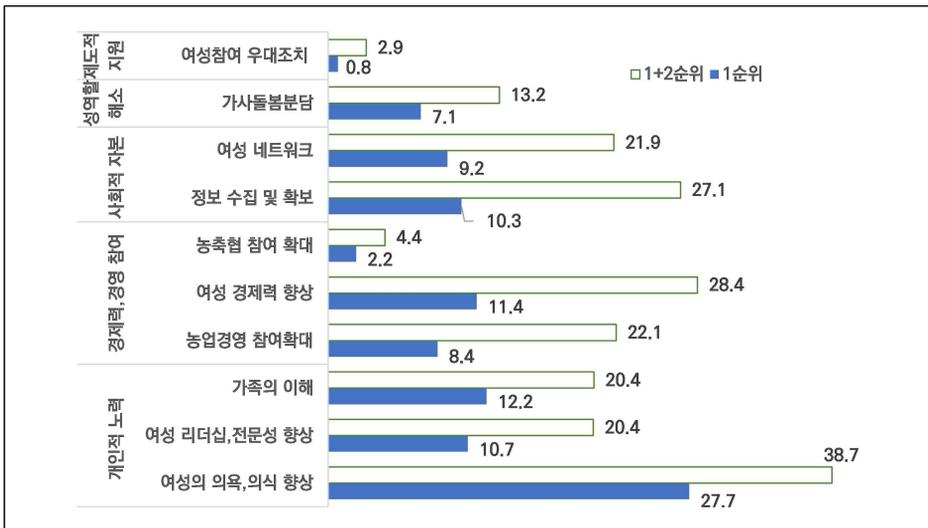
○ 농촌에서 여성의 활동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1순위 응답은 '여성 자신의 의욕 및 의식 향상', '가족의 이해', '여성의 경제력 향상', '여성 리더십, 전문성 향상', '정보 수집 및 확보'가 상위 5위를 차지하였다. 5개 사항 중 3개가 개인적 노력에 해당한다.

○ 그러나 2순위 응답까지 합치면 여성농업인들은 개인적 노력, 여성의 경제·경영 참여, 사회적 자본이 고루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자신의 의욕과 의식 향상’(38.7%), ‘여성의 경제력 향상’(28.4%), ‘정보 수집 및 확보’(27.1%), ‘농업경영 참여 확대’(22.1%), ‘여성 네트워크’(21.9%)가 상위 5위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 1순위 응답 결과가 개인적 노력에 치중된 반면, 2순위까지의 응답 결과는 개인적 노력보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 증진과 사회적 자본 획득이 중요 요소를 보여준다.

〈그림 6-7〉 농촌에서 여성 활동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



○ 여성농업인 특성별로 1순위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모든 집단에서 ‘여성 자신의 의욕과 의식 향상’ 응답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집단별로 강조하는 필요사항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들이 있다.

- 여성 귀농인은 ‘가족의 이해’(16.7%)를 필요사항으로 꼽은 비율이 비귀농 여성에 비해 많이 높다.

- 공동경영주 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 자신의 경제력 향상’(15.1%)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높다.
- 40대 이하 여성은 ‘여성 네트워크’(18.2%)를, 50대 여성은 ‘가족의 이해’(16.6%)를, 70대 이상 여성은 ‘여성 자신의 경제력 향상’(15.6%)을 필요사항으로 꼽은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다.
- 영농규모가 중대규모인 여성들은 ‘농업경영 참여 확대’(16.6%)를 더 강조하였고, 농업소득이 중하 및 중상 수준인 여성들은 ‘정보 수집과 확보’(각각 14.7%, 20.4%)를, 농업소득이 고소득인 여성들은 ‘가족의 이해’(15.5%), ‘여성 자신의 경제력 향상’(16.9%)을 필요사항으로 꼽은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높다.

〈표 6-7〉 농촌에서 여성 활동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1순위): 특성별 비교

단위: %

	사례수	개인적 노력			경제력, 경영 참여			사회적 자본		성역할 해소	제도적 지원	x ²	
		여성 의욕·의식 향상	여성 리더십, 전문성 향상	가족의 이해	농업 경영 참여 확대	여성 자신의 경제력 향상	농협 참여 확대	여성 네트워크	정보 수집, 확보	가사/돌봄 분담	여성 참여 우대 조치		
여성농업인 전체	2003	27.7	10.7	12.2	8.4	11.4	2.2	10.3	9.2	7.1	0.8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28.6	10.4	11.5	8.1	11.8	2.2	10.4	9.2	7.0	0.7	15.653
	여성 귀농인	244	21.6	13.3	16.7	10.7	8.4	2.2	9.1	8.7	8.3	1.0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29.7	11.6	11.7	9.1	10.0	1.3	12.4	8.3	4.8	1.2	62.893 ***
	공동경영주	554	32.2	5.9	10.6	9.7	15.1	1.2	8.1	10.4	6.4	0.5	
	경영주 외 농업인	989	24.3	13.0	13.3	7.4	10.0	3.1	10.5	8.9	8.6	0.7	
연령	40대 이하	125	29.0	11.6	11.4	6.0	7.6	0.2	18.2	9.0	6.8	0.2	87.614 ***
	50대	296	27.8	12.8	16.6	9.0	9.1	0.8	6.6	9.7	6.2	1.3	
	60대	821	32.7	11.8	11.0	9.7	8.9	1.8	9.8	7.1	6.3	0.9	
	70대 이상	761	22.2	8.7	11.8	7.2	15.6	3.4	10.9	11.3	8.4	0.5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27.4	10.3	11.8	6.9	12.0	2.8	10.7	9.7	7.7	0.7	65.936 ***
	중소규모	423	31.2	8.8	12.8	6.6	12.3	0.4	11.5	8.3	6.8	1.2	
	중대규모	285	24.4	15.0	12.7	16.9	8.0	2.6	6.5	9.3	3.8	0.8	
	대규모	121	26.5	12.1	12.1	9.2	10.6	1.4	10.9	7.0	10.1	0.0	

	사례수	개인적 노력			경제력, 경영 참여			사회적 자본		성역할 해소	제도적 지원	χ^2	
		여성 의욕·의식 향상	여성 리더십, 전문성 향상	가족의 이해	농업 경영 참여 확대	여성 자신의 경제력 향상	농협 참여 확대	여성 네트워크	정보 수집, 확보	가사/돌봄 분담	여성 참여 우대 조치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25.6	10.8	10.9	6.7	10.8	3.4	12.2	8.5	9.8	1.3	198.016 ***
	500만 원~1천만 원 미만	368	27.5	16.0	10.4	6.5	7.9	1.9	9.4	14.7	5.5	0.2	
	1천만 원~1천5백만 원 미만	166	27.8	9.8	11.8	4.7	4.9	0.5	13.5	20.4	5.4	1.2	
	1,500만 원 이상	647	31.0	7.6	15.5	11.0	16.9	0.8	6.9	4.9	4.8	0.5	
	잘 모름	103	22.3	13.1	6.9	17.1	4.3	6.4	15.9	3.0	11.0	0.0	

주 1)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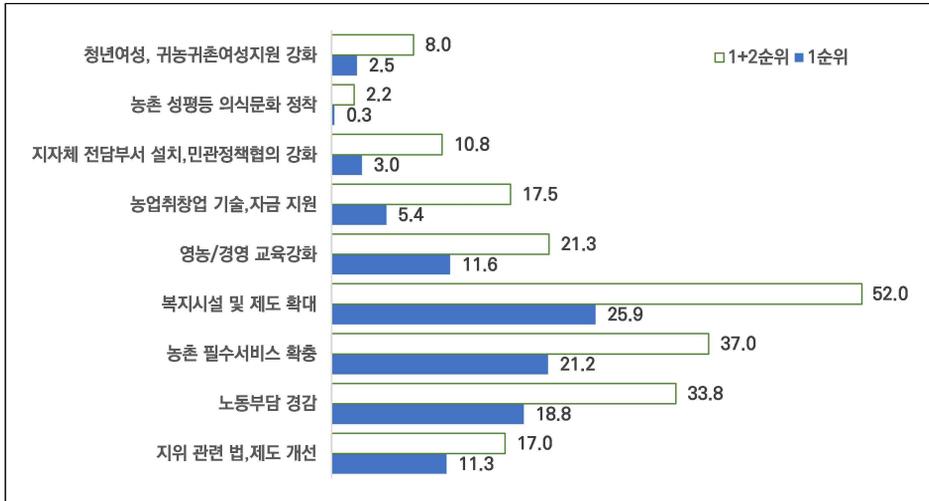
2) ***p<0.001.

4.3. 여성농업인을 위한 과제

-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2순위 응답까지 합쳐서 살펴 보면, 복지 시설 및 제도 확대(52.0%), 농촌 필수서비스 확충(37.0%), 노동부담 경감(33.8%)의 세 과제가 상위 순위를 차지하였다.
- 그럼에도 어느 특정 과제로 응답이 쏠리지 않고, 영농 교육(21.3%), 취창업 지원(17.5%),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법제도 개선(17.0%)을 요구하는 비율도 상당하다.
- 이처럼 비교적 고르게 정책 요구가 제출되는 것은 다영역, 다부처 차원의 여성농업인정책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이행을 점검, 평가하고 실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책 관리 수단을 고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6-8〉 여성농업인을 위한 과제

단위: %



○ 여성농업인 특성별로 1순위 응답결과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집단에서 ‘복지 확대’와 ‘농촌 필수서비스 확충’이 가장 높거나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 여성 귀농인, 공동경영주, 50대와 70대 이상, 영농규모가 크거나 농업소득이 높은 여성들에서 ‘과중 노동부담 경감’과 ‘영농 및 경영 교육 강화’를 요청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과중 노동부담 경감’ 응답률이 높은 집단은 여성 귀농인(25.5%), 50대(24.1%)와 70대 이상(22.2%), 대규모로 농사짓는 여성(24.8%), 농업소득이 중하 수준(24.8%)이거나 중상 수준(23.3%)인 여성들이다.
- ‘영농 및 경영 교육 강화’ 응답률이 높은 집단은 공동경영주(17.2%), 영농규모가 중소규모인 경우(18.0%), 농업소득이 1,500만 원 이상 고소득인 여성(16.8%)들이다.

〈표 6-8〉 여성농업인을 위한 과제: 특성별 비교(1순위)

단위: %

	사례수	지위 관련 법, 제도 개선	과중 노동 부담 경감	농촌 필수 서비스 확충	복지 확대	영농, 경영 교육 강화	농업 취창업 기술, 자금 지원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민관정책 협의 강화	농촌 성평등 의식 문화 정착	청년, 귀농 귀촌 여성 지원 강화	χ^2	
여성농업인 전체	2003	11.3	18.8	21.2	25.9	11.6	5.4	3.0	0.3	2.5	-	
귀농 여부	비귀농 여성농업인	1759	12.2	17.9	21.4	24.5	12.1	5.8	3.3	0.3	2.6	41.87 ***
	여성 귀농인	244	4.6	25.5	20.3	36.2	8.5	2.4	0.9	0.0	1.7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12.2	19.1	26.2	22.9	9.6	5.6	2.4	0.4	1.6	97.36 ***
	공동경영주	554	11.6	16.7	15.1	24.0	17.2	7.1	6.8	0.0	1.6	
	경영주 외 농업인	989	10.7	19.9	22.3	28.4	9.4	4.3	1.1	0.4	3.4	
연령	40대 이하	125	12.2	5.4	32.5	29.1	15.9	3.8	0.6	0.0	0.5	66.849 ***
	50대	296	11.3	24.1	17.6	26.0	11.2	6.6	1.4	0.0	1.9	
	60대	821	12.2	15.9	22.0	26.5	11.5	4.2	4.7	0.6	2.4	
	70대 이상	761	10.1	22.2	20.0	24.6	11.3	6.4	2.1	0.1	3.2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13.2	19.6	19.2	25.1	10.7	5.6	3.9	0.3	2.3	80.351 ***
	중소규모	423	7.1	17.0	20.4	26.6	18.0	6.4	1.8	0.5	2.2	
	중대규모	285	10.9	15.8	28.6	29.9	6.9	4.3	1.8	0.0	1.9	
	대규모	121	8.3	24.8	26.4	21.5	9.1	1.7	1.2	0.1	7.0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14.4	18.2	24.5	25.6	7.4	4.4	2.0	0.4	3.1	177.852 ***
	500만 원~ 1천만 원 미만	368	5.5	24.8	13.7	34.1	14.5	4.9	1.1	0.0	1.3	
	1천만 원~ 1천5백만 원 미만	166	6.6	23.3	23.5	30.2	6.8	8.7	0.6	0.0	0.2	
	1,500만 원 이상	647	11.8	17.3	20.6	19.1	16.8	6.2	5.7	0.4	2.0	
	잘 모름	103	14.6	4.3	25.7	34.1	6.0	3.3	2.9	0.0	9.1	

주 1) 각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값을 음영 처리함.

2) **p<0.001.

7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요약⁸⁾

1.1. 여성농업인의 일반적 특성

- 2023년 실태조사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중 귀농인은 12.2%, 다문화 여성농업인은 0.6%, 비귀농 여성농업인 87.2%이다.
- 연령별로는 60대 40.9%, 70대 이상 38.0%, 50대 14.8%, 40대 이하 6.3% 순으로, 60대의 비율이 70대 이상보다 높은 것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의 특징이라 하겠다.
 - 일반 여성농업인은 60대와 70대, 여성 귀농인은 50대와 6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 여성 귀농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51.3%가 배우자의 연고지인 반면 남성 귀농인은 60.7%가 자신의 연고지로 귀농을 하였다.

⁸⁾ 주요 결과 요약은 <표 7-1>에 정리하였다.

- 실태조사에 참여한 여성농업인의 85.5%가 유배우 상태이며, 평균 가구원 수는 2.25명, 가구형태로는 ‘부부가구’가 67.1%, ‘1인가구’가 10.6%이다.
 - 여성농업인 1인가구의 70% 이상이 70대 이상이다.
-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을 제외하고 60대 이상 여성농업인 중 성인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60대 12.0%, 70대 이상 14.8%로 낮다. 그러나 60.6%의 여성농업인이 작년 한 해 동안 최소 10일 이상 자녀로부터 농사일 도움을 받았다.
- 자녀가 농업승계를 했거나 예정인 비율은 9.8%로 낮고, ‘물려줄 생각은 있지만 자녀가 희망하지 않는다’(15.2%)를 포함하면 25.0%의 여성농업인들은 자녀에게 농업을 물려주길 바라고 있다.
- 실태조사 참여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는 경영주가 23.0%, 공동경영주가 27.6%,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은 49.4%이다.
 - 연령이 젊고, 배우자가 없거나, 1인가구인 경우 경영주 비율이 높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사별, 이혼 후 남성의 경영주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여성이 농업경영주가 되는 지배적 경로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여성농업인의 평균 경지면적은 0.98ha로 남성농업인의 평균 경지면적 1.15ha보다 적고, 88.1%가 중소규모 이하의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다. 농업소득은 60.1%가 1,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였다.
- 여성농업인 본인 명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53.0%이고, 기계/시설(1.6%), 자동차(14.2%)를 소유한 비율은 낮다.

1.2.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 현황

- 여성농업인의 주관적 직업 지위 인식은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와 상당 부분 불일치하였다.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는 경영주 23.0%, 공동경영주 27.6%,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49.4%이나, 주관적 직업 지위는 공동경영주 51.2%, 가족종사자 25.9%, 경영주 22.9%로 조사되었다.
 - 등록 지위가 경영주인 여성의 22.1%는 자신을 공동경영주로 인식하고 있고, 공동경영주인 여성은 8.4%가 자신을 경영주로, 37.1%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인식하며,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은 8.8%가 자신을 경영주로, 63.5%가 공동경영주로 인식하고 있었다.
- 여성농업인은 농사일 전체 중 평균 50.2%를 담당하고, 수확, 잡초관리, 수확 후 관리, 파종/육묘/정식 등 노동집약적 농작업을 주로 전담하고 있었다. 반면 농업경영 참여에서는 50% 이상 담당하는 경영일이 없다는 비율이 39.6%로 높다.
 - 농사일 담당 비중은 여성 귀농인(56.6%), 경영주 여성(69.5%), 50대(55.4%), 영농규모가 소규모인 농가(51.6%), 농업소득이 500만 원 미만으로 낮은 경우(52.9%)에 높다.
 - 50% 이상 담당하는 경영일이 없다는 응답은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48.5%), 40대 이하(47.1%)와 70대 이상(44.0%)에서 높다.
- 여성농업인들은 77.2%가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였고, 신체 건강에는 50.3%가, 정신 건강에는 43.6%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생산 관련해서는 '작목 품종 변경'(23.3%), '파종/수확 시기 조절'(18.9%),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14.6%), '친환경 농법 적용 확대'(14.0%) 등을, 건강 대책으로는 '폭염·폭우 시 작업중단/작업시간 조절'(42.5%), '기상예보 확인'(21.5%), '갇은 휴식 시간 갖기'(20.0%) 등을 주로 실천하고 있었다.

- 농업생산에 대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50대와 60대가, 신체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50대가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 여성농업인은 농번기에 농업/유급 노동 6.2시간, 가사/돌봄 노동 2.5시간을 일하고, 농한기에는 농업/유급 노동 2.9시간, 가사/돌봄 노동 2.8시간을 일하여 남성농업인보다 농번기는 48분, 농한기는 1시간 18분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회참여, 개인시간, 수면시간의 성별 차이는 없었다.
 - 남성농업인은 농번기에 농업/유급 노동 7.2시간, 가사/돌봄 노동 0.7시간을 일하고, 농한기에는 농업/유급 노동 3.6시간, 가사/돌봄 노동 0.8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가족돌봄노동 시간이 5시간 이상으로 길어, 총노동시간이 농번기 10시간 42분, 농한기 8시간 24분으로 가장 길다. 이에 따라 사회참여 시간, 개인시간, 수면시간 모두 가장 짧다.
- 여성농업인 중 농외 소득활동 참여율은 13.2%로 조사되었고, 향후 농외 소득활동 참여 의향도 13.3%로 높지 않았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들이 전업농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농외 소득활동 참여 의향은 여성 귀농인(26.3%), 40대 이하(35.7%), 50대(25.5%) 여성농업인이 높다.
- 여성농업인이 농외소득에 참여하려는 주된 이유는 농가의 소득 부족 때문으로 조사되었고, 농외소득 활동 참여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기회나 정보 부족’(26.5%), ‘자본금 부족’(22.2%), ‘신체적 한계’(14.2%), ‘내 능력(지식/기술) 부족’(8.8%) 등이었다.
 - 40대 이하와 50대 여성은 ‘자금 부족’(각각 39.2%, 33.9%), 70대 이상은 ‘신체적 한계’(23.3%)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 조사에 참여한 여성농업인의 86.5%는 지역사회 조직에 참여하고 있으나, 참여 조직이 부녀회 등 마을조직(36.6%), 계모임(친목·동창회)(32.7%) 중심이

어서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33.1%의 여성농업인이 농축협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출자금 부담 등 경제적 이유는 극히 낮고 ‘남편/아들이 가족대표로 가입하고 있어서’(66.8%)라는 가부장적 이유가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다.

-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20.4%가 아무 조직에도 참여하지 않는데, ‘가사 및 경제 활동 지장’(32.3%)과 ‘지역 내 선호하는 단체가 없어서’(30.9%)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3. 여성농업인의 역량: 교육, 자격, 디지털 역량, 건강

○ 지난 1년간 교육을 받은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22.7%로 남성농업인에 비해 11.5%p 낮다. 수강한 교육의 종류는 ‘농업생산·기술’(50.1%), ‘교양 교육’(45.7%), ‘농업환경 변화’(14.4%)이고, 유익하다고 평가한 교육도 ‘농업생산·기술’(39.7%), ‘교양 교육’(25.7%)으로 조사되었다.

-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18.4%)과 70대 이상 여성농업인(17.7%)은 교육을 받은 비율이 낮다.

○ 그러나 향후 받고 싶은 교육은 ‘교양 교육’(32.5%), ‘농업생산·기술’(29.9%), ‘농업환경변화’(8.9%) 순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이 교육에 기대하는 것이 학습뿐만 아니라 심과 재충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육 이외에 여성농업인이 여가·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교양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은 70대 이상(35.3%)이 높고, 60대 이하는 농업생산기술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기 및 시간대 다양화’(17.8%),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강사 확대’(17.3%), ‘교육 장소

접근성 개선'(17.0%),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15.7%), '단계별 수준별 강좌 개설'(12.9%)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여성 귀농인, 경영주, 5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을, 60대는 '교육 시기와 시간대 다양화', 70대 이상은 '교육 장소 접근성 개선'을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 여성농업인의 91.5%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향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비율도 4.0%로 낮다. 자격증이 농외 소득활동 수단으로 활용됨을 고려할 때 전업농에 가까운 여성농업인들의 자격증 보유 욕구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향후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 종류는 '식품가공/조리' 분야(47.7%), '운전/기계조작'(29.5%)이 높게 나타났다.

○ 여성농업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은, '혼자 능숙하게 사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보 검색(56.4%), 이메일/메신저 사용(59.1%), 셀프주유소 이용(56.9%)에서는 높지만 온라인 공공행정 서비스(17.8%), 금융거래(38.0%), 온라인 예약/결제(31.8%), 소셜미디어(28.7%), 키오스크 활용(32.5%) 역량은 낮았다.

- 70대 이상 여성농업인은 모든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비율이 10%대로 극히 낮다.

○ 여성농업인의 현재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으로 좋다는 비율이 79.2%이고, 지난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2.4%,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0.2%로 정신건강 상태도 양호하였다.

- 70대 이상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지만 정신건강 상태는 연령별 차이가 없다.

○ 여성농업인이 현재 가진 가장 큰 고민은 '농사일의 지속 및 안정성'(23.0%)이고, '본인 건강문제'(20.3%), '가족 건강문제'(19.7%), '경제적 어려움'(11.4%)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별다른 고민이 없다'는 비율은 13.9%이다.

1.4. 양성평등 현황

- 여성농업인의 63.6%가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고 평가하였고 이는 남성농업인보다 7.6%p 높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73.5%는 농촌이 성평등하다고 응답하여, 여성농업인들이 생각하는 ‘농촌 성평등’이 여성의 동등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농업인의 성역할 태도는 남성보다 평등지향적이지만, 응답값 자체는 농사일 및 마을에서의 성역할 분리, 남성의 생계부양 책임에 여성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을행사에서의 손님 대접은 여성 몫’, ‘함께 농사를 지어도 집안일은 부인의 일’, ‘농기계는 남자가 운전’, ‘농사일에 여자, 남자 일이 따로 있다’, ‘남성 생계부양 책임’에 여성들도 동의하는 응답값을 보였다.
 - ‘직업에서의 성별 분리’에 여성농업인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남성농업인들은 동의하여 성별로 상반된 인식을 보인 반면, ‘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남녀 모두 동의하지 않아 자녀돌봄 분담 인식이 농업인들에게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60대 이하 여성농업인과 7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성역할 태도는 세대 간 단절이라 할 만큼 차이가 크다.
- 농업생산 자원의 성별 균등한 접근권, 경영 및 지역사회의 성별 균등한 대표성에 대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응답값이 남성보다 높긴 하지만 인식 자체는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농사 교육, 영농자금 대출, 농업경영주, 마을대표는 남성이 하는 것이 좋거나 당연하다는 문항, ‘같은 일을 해도 남성의 품삯이 더 높은 것이 당연하다’는 문항에 여성농업인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성평등 인식의 연령별 차이는 50대 이하와 60대 이상 간에 크게 나타났다.
- 성별 규범에 대한 태도도 여성이 남성보다 평등지향적이지만, 남성성 규범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에는 여성농업인들도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여성성 규범(‘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부인 소득이 더 많으면 남편의 기가 죽는다’)은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 여성농업인들은 ‘자신의 가족생활에서 남녀가 평등’(2.77점)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자유로운 의견 표현’(3.07점)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책임의 공평 분담’(2.69점), ‘가족원 돌봄의 공평 분담’(2.52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명절/제사 준비의 남녀 공평 분담’(2.30점)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여성농업인들은 ‘마을생활에서 남녀가 평등’(2.77점)하다고 생각하며, ‘자유로운 의견 표현’(3.01점), ‘남녀 모두의 의견이 존중’(2.99점)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마을 내 성역할’(2.21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마을의 성평등 수준 인식은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간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 여성농업인들은 남성의 성충동 혹은 충동적 기질, 동의 없는 신체 접촉, 가정 폭력에 비타협적인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귀책을 묻는 태도에도 부정적이었다. 응답값이 여성보다 낮긴 하지만 남성농업인들도 여성 폭력에 대한 태도는 비타협적이었다. 다만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탓’이라는 진술에 ‘보통’에 해당하는 태도를 보여 남성농업인이 2차 가해자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평등 교육 참여율은 여성농업인 5.4%, 남성농업인 6.7%, 참여 의향은 여성농업인 20.5%, 남성농업인 18.7%로 낮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71.4%, 남성농업인의 66.6%가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성평등 교육이 성별을 떠나 모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 귀농인(28.5%)과 40대 이하(36.7%) 여성농업인의 성평등 교육 참여 의향이 다른 집단보다 확연히 높았다.

1.5. 농업농촌 생활 만족도와 정책 요구

- 여성농업인들의 96.2%는 삶의 만족도에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84.9%는 향후 5년 간 농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90.0%는 농촌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을 밝혔다. 그러나 도시의 청년여성, 청년남성에게 농업 및 농촌이주를 추천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에서 여성이어서 겪는 어려움은 '농사일의 체력 부족'(36.4%),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32.2%), '농기계 사용 어려움'(12.1%)으로, '노동 부담'이 핵심적인 어려움으로 조사되었다.
-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1+2순위)로 복지 시설 및 제도 확대(52.0%), 농촌 필수서비스 확충(37.0%), 노동부담 경감(33.8%), 영농 교육(21.3%), 취창업 지원(17.5%),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법제도 개선(17.0%)이 제시되었다.
- 여성농업인들의 관련 정책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데, 지위 향상 관련 정책과 지자체 소관 사업이 다수인 복지 정책의 인지도가 높고, 농촌 성평등 관련 정책, 동아리 지원 사업, 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교육(시골언니 프로젝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농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영농/교육 도우미 등은 인지도가 10% 내외로 낮다.
 -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73.2%), 여성농업인 이용권(행복바우처)(60.6%),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운영(45.9%), 여성농업인센터(30.2%), 농번기 공동급식(30.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28.1%) 등이다.

〈표 7-1〉 202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요약표

영역	항목	문항	주요 결과
일반 특성	개인적 특성	귀농 및 다문화 여부	• 여성 귀농인 12.2%, 다문화 여성농업인 0.6%, 일반여성농업인 87.2% ※ 2022 농림어업조사: 전체 농가 중 다문화 농가 0.9%
		귀농 시기	• 2000년대 이전 15.0%, 2000년대 17.8%, 2010년대 58.9%, 2020년대 7.3%
		귀농인의 연고지 유형 (중복응답)	• 여성: 배우자의 연고지 51.3%, 자신의 연고지 22.8%, 무연고지 30.2% • 남성: 배우자의 연고지 7.2%, 자신의 연고지 60.7%, 무연고지 29.9%
		연령	• 40대 이하 6.3%, 50대 14.8%, 60대 40.9%, 70대 이상 38.0% ※ 2022 농림어업조사: 40대 이하 6.0%, 50대 16.7%, 60대 36.4%, 70대 이상 40.9%
		학력	• 중학 졸업 이하 51.2%, 고졸(중퇴) 41.9%, 전문대학 재학 이상 6.9%
	농가 특성	가구 형태	• 여성: 1인가구 10.6%, 부부가구 67.2%, 2세대 이상/기타 22.3% • 남성: 1인가구 1.6%, 부부가구 75.3%, 2세대 이상/기타 23.1%
		자녀의 영농 도움	• 최소 10일 이상 자녀로부터 농사일 도움 받은 경우 60.6%
		자녀의 농업승계 전망	• 물려줄 예정 혹은 물려줌 9.8%, 물려줄 생각은 있으나 자녀가 희망하지 않음 15.2%, 물려줄 생각도 없고 자녀도 희망하지 않음 49.1%, 모르겠음 25.9%
		영농규모	• 평균 경지면적: 여성 0.98ha, 남성 1.15ha • 경영주 성별에 따른 표준영농규모 4개 구간별 비율 -여성: 소규모 64.8%, 중소규모 23.3%, 중대규모 8.2%, 대규모 3.7% -남성: 소규모 50.0%, 중소규모 26.2%, 중대규모 16.0%, 대규모 7.9%
		농업소득	• 경영주 성별에 따른 농업소득 분포 -여성: 500만 원 미만 42.4%, 500~1,000만 원 미만 17.7%, 1,000~1,500만 원 미만 9.5%, 1,500만 원 이상 23.9%, 잘 모름 6.5% -남성: 500만 원 미만 34.1%, 500~1,000만 원 미만 17.5%, 1,000~1,500만 원 미만 9.0%, 1,500만 원 이상 34.6%, 잘 모름 4.7%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	• 경영주 23.0%, 공동경영주 27.6%,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49.4%		
여성농업인 자산 보유 (중복응답)	• 부동산: 농지 53.0%, 집/건물 28.8% • 동산: 예금 통장 96.1%, 보험 65.0%, 자동차 14.2%, 기타 금융 6.4%, 기계/시설 1.6% • 자산 없음 1.1%		

영역	항목	문항	주요 결과
경제/사회 활동 참여 현황	영농 활동	주관적 직업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주 22.9%, 공동경영주 51.2%, 무급 가족종사자 2.9%, 무급 가족종사자 23.0%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별 주관적 직업 지위 인식 경영주: 경영주 71.0%, 공동경영주 22.1%, 무급가족종사자 6.1% 공동경영주: 경영주 8.4%, 공동경영주 53.3%, 무급가족종사자 37.1% (공동)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8.8%, 공동경영주 63.5%, 무급가족종사자 22.9%
		농사일 담당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 담당 비중: 50.2% -25%~50% 미만 40.0%, 50~75% 미만 39.7%, 75% 이상 14.3%
		50% 이상 담당 농작업 종류(중복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노동집약적 작업에 여성 노동력 투입 비중이 높음. -수확작업 67.8%, 잡초관리 63.5%, 수확 후 관리 58.3%, 파종/육묘관리/정식 37.4%, 출하 준비 32.8%, 판매지 결정 32.0% 등
		50% 이상 담당 농업경영일 종류 (중복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농업 재배 및 생산 관련 결정을 담당, 자금, 농지, 기계 관련 결정을 50% 이상 담당하는 비율은 극히 낮음 -판로결정 47.2%, 농사기술 및 판매 정보 19.4%, 농작물 규모 및 종류 선정 18.1%, 고용인력 선정 12.0%, 경영 일지 기록 7.4%, 농업용 대출 및 상환 결정 7.2%, 농지 및 기계 구입 5.0%, 농지 임차 1.3%, 50% 이상 담당 경영일 없음 39.6%
		기후변화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매우 부정적 28.0%, 부정적 49.2%, 별 영향 없음 22.1%, 긍정 영향 0.7% -남성: 매우 부정적 32.6%, 부정적 47.8%, 별 영향 없음 18.0%, 긍정 영향 1.5% 농업인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매우 부정적 8.1%, 부정적 42.2%, 별 영향 없음 47.7%, 긍정 영향 2.0% -남성: 매우 부정적 10.0%, 부정적 44.2%, 별 영향 없음 44.0%, 긍정 영향 0.0% 농업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매우 부정적 6.9%, 부정적 36.7%, 별 영향 없음 55.1%, 긍정 영향 1.3% -남성: 매우 부정적 9.9%, 부정적 37.2%, 별 영향 없음 50.4%, 긍정 영향 2.5%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생산에서의 대응(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작목 품종 변경 23.3%, 파종/수확 시기 조절 18.9%,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14.6%, 친환경 농법 적용 확대 14.0%, 재배 환경 조절 11.9% 등 -남성: 작목 품종 변경 22.3%, 친환경 농법 적용 확대 19.2%, 파종/수확 시기 조절 16.7%,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14.9%, 재배 환경 조절 10.6% 등 건강 관련 대응(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폭염 폭우 시 작업중단/작업시간 조절 42.5%, 기상예보 확인 21.5%, 잦은 휴식 시간 갖기 20.0%, 충분한 수분/영양 섭취 9.1% 등 -남성: 폭염 폭우 시 작업중단/작업시간 조절 48.4%, 기상예보 확인 20.6%, 잦은 휴식 시간 갖기 15.8%, 충분한 수분/영양 섭취 8.7% 등

영역	항목	문항	주요 결과
생활시간 사용	생산 및 돌봄노동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번기 총노동시간: 여성 8.7시간, 남성 7.9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농업/유급노동 6.2시간, 가사노동 2.2시간, 가족원 돌봄 0.3시간 -남성: 농업/유급노동 7.2시간, 가사노동 0.5시간, 가족원 돌봄 0.2시간 • 농한기 총노동시간: 여성 5.7시간, 남성 4.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농업/유급노동 2.9시간, 가사노동 2.4시간, 가족원 돌봄 0.4시간 -남성: 농업/유급노동 3.6시간, 가사노동 0.6시간, 가족원 돌봄 0.2시간
		사회참여/ 개인/수면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사회참여 0.7시간, 개인시간 3.9시간, 수면시간 6.6시간 -남성: 사회참여 0.8시간, 개인시간 3.7시간, 수면시간 6.7시간 • 농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사회참여 0.9시간, 개인시간 5.3시간, 수면시간 7.0시간 -남성: 사회참여 1.1시간, 개인시간 5.2시간, 수면시간 6.9시간
		희망하는 일상생활 시간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이길 희망하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농업/유급노동 26.1%, 가사노동 10.0% -남성: 농업/유급노동 21.0%, 가사노동 2.4% • 늘리길 희망하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사회참여 6.2%, 개인시간 16.8%, 수면시간 10.3% -남성: 사회참여 6.5%, 개인시간 20.7%, 수면시간 8.0%
농외 소득활동	농외 소득활동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함: 여성 13.2%, 남성 17.5% • 여성의 참여 분야(중복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르바이트/임시직 28.5%, 자영업 25.9%, 농업임금노동 19.4%, 사회서비스 기관 취업 10.3%, 민간/공공 상용직 취업 10.3%, 농산물 가공판매 8.2%, 프리랜서 3.6%, 비농업 일용직 2.7%, 농촌관광 0.4% • 여성의 농외소득: 2천만원 미만 7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백만 원 미만 31.5%, 5백~1천만 원 미만 14.5%, 1천만~1천5백만 원 미만 18.5%, 1천5백만 원~2천만 원 미만 5.9%, 2천만 원 이상 21.6%, 잘 모름 8.0% • 여성의 농외활동 하루평균 근로시간: 5.5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시간 이하 25.0%, 3시간 초과~5시간 이하 24.6%, 5시간 초과~8시간 미만 24.1%, 8시간 21.9%, 8시간 초과 4.3%
		향후 농외 소득활동 참여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의향 있음: 여성 13.3%, 남성 19.0% • 여성의 참여 희망 이유(1순위): 농가 소득 부족이 주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 54.8%, 일할 수 있을 때 추가 소득 마련 32.3%,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6.5%, 재능(장점) 활용 5.4%, 유희시설 활용 0.7%, 타인의 권유/정책 지원 0.4% • 여성의 참여 희망 분야(1순위): 농업 연관 분야 27.2%, 비농업 분야 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 26.6%, 아르바이트/임시직 21.2%, 사회서비스 기관 취업 11.9%, 농업 임금노동 11.7%, 농산물 가공판매 10.3%, 민간/공공 상용직 취업 8.2%, 농촌관광 5.2%, 프리랜서 4.1%, 비농업 일용직 0.9%

영역	항목	문항	주요 결과
	지역/사회 활동	농외 소득활동 참여 어려움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 없음 10.5% • 기회/정보 부족 26.5%, 자본금 부족 22.2%, 신체적 한계 14.2%, 내 능력(지식/기술) 부족 8.8%, 농사일 바쁨 7.3%, 판매처 확보 어려움 4.8%, 자신감 부족 3.4%, 인맥 부족 1.8%
		지역사회 조직 참여율과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조직 없음: 여성 13.5%, 남성 12.0% • 조직 종류(중복응답): 여성은 부녀회 포함 마을조직과 친목 모임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마을조직 36.6%, 계(친목/동창회) 32.7%, 작목반/영농조합 6.0%, 여성농업인단체 4.0%, 농업인단체 2.5%, 주민자치조직 2.4%, 사회적경제 조직 2.0% 등 -남성: 마을조직 29.5%, 계(친목/동창회) 25.0%, 작목반/영농조합 12.7%, 주민자치조직 9.4%, 농업인단체 7.4%, 사회적경제 조직 2.7% 등
		지역사회 조직 미참여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이유/어려움 없음 33.9%, 나이/건강 때문에 30.2%, 집안일/경제활동 지장 17.1%, 지역사회의 편견 4.9%, 선호 단체 없음 4.2%, 활동을 쉴 수 없음 3.8%, 가족과 갈등 3.5% 등
		농축협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일반 조합원 66.3%, 대의원 0.6%, 임원 0%, 비참여 33.1% -남성: 일반 조합원 83.7%, 대의원 3.7%, 임원 0.5%, 비참여 12.2% • 여성의 비참여 이유(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아들이 가족대표로 가입하고 있어서 66.8%,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4.4%, 출자금 부담 5.8%, 조합원 혜택 부족 2.4%, 여성 조합원 의견 잘 반영 안 되어서 0.5%, 가입방법을 몰라서 0.1%
		정부 위원회 참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참여 경험 있음 1.2%, 경험 없지만 참여의향 있음 10.6%, 경험도 참여의향도 없음 88.2% • 남성: 참여 경험 있음 4.9%, 경험 없지만 참여의향 있음 7.8%, 경험도 참여의향도 없음 87.3%
교육/자격/건강 등 역량	교육	교육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받은 경험 있음: 여성 22.7%, 남성 34.2% • 받은 교육 종류(중복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농업생산기술 50.1%, 교양교육 45.7%, 농업환경 변화 14.4%, 정보화 9.5%, 6차산업 8.7% 등 -남성: 농업생산기술 72.9%, 농기계 18.2%, 교양교육 17.4%, 농업환경 변화 14.9%, 6차산업 11.4% 등 • 유익했던 교육(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농업생산기술 39.7%, 교양교육 25.7%, 정보화 4.3% 등 -남성: 농업생산기술 54.4%, 농기계 9.2%, 6차산업 6.2% 등
		받고 싶은 교육 종류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교양교육 32.5%, 농업생산기술 29.9%, 농업환경 변화 8.9%, 6차 산업 6.6%, 농기계 3.6% 등 • 남성: 농업생산기술 28.2%, 교양교육 23.3%, 농업환경 변화 9.9%, 농기계 8.8%, 6차 산업 8.1% 등
		여성의 교육 참여를 위한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개선 42.3%, 교육 질 개선 5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시기 및 시간대 다양화 17.8%,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강사 확대 17.3%, 교육 장소 접근성 개선 17.0%,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15.7%, 단계별 수준별 강좌 개설 12.9% 등

영역	항목	문항	주요 결과
자격증	보유 자격증 수		• 자격증 없음 91.5%, 1개 5.7%, 2개 이상 2.9%
	도움이 된 자격증 종류 (중복응답)		• 보유 자격증이 도움이 되었음 80.7% -보건복지 분야 53.8%, 교육/문화 분야 17.5%, 식품가공/조리 분야 15.9%, 운전/기계조작 관련 분야 13.8%, 정보통신 분야 3.6%, 농업생산/경영 관련 분야 3.3%
	향후 취득 희망 자격증 종류(중복응답)		• 향후 취득희망 자격증 없음 96.0% -식품가공/조리 47.7%, 운전/기계 조작 29.5%, 농업생산/경영 11.8%, 보건복지 6.2%, 정보통신 5.5%, 교육문화 3.2%, 기타 11.0%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의 비율		• 스마트폰/PC 정보 검색: 여성 31.3%, 남성 25.0% • 이메일/메신저 사용: 여성 31.2%, 남성 26.6% • 소셜미디어 서비스: 여성 58.6%, 남성 54.6% • 온라인 예약/쇼핑/결제: 여성 55.1%, 남성 55.9% • 온라인 공공행정 서비스: 여성 66.6%, 남성 63.1% • 온라인 금융거래: 여성 49.1%, 남성 45.3% • 키오스크 주문: 여성 48.3%, 남성 46.8% • 셀프주유소: 여성 28.7%, 남성 14.4%
		건강 상태	• 주관적 건강상태(5점 만점): 여성 3.25점, 남성 3.32점 • 우울감 경험: 여성 2.4%, 남성 2.8% • 자살생각: 여성 0.2%, 남성 0.9%
건강	현재 가장 큰 고민(1순위)		• 여성: 없음 13.9%, 농사일 지속 및 안정성 23.0%, 본인 건강 문제 20.3%, 가족 건강문제 19.7%, 경제적 어려움 11.4%, 소외감/외로움/고독 4.6%, 자녀 등 가족 진로 4.6% 등 • 남성: 없음 16.1%, 농사일 지속 및 안정성 24.8%, 본인 건강 문제 19.9%, 가족 건강문제 18.2%, 경제적 어려움 12.2%, 자녀 등 가족 진로 4.3%, 소외감/외로움/고독 3.1% 등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인식		• 여성: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 6.6%, 아직 남성보다 낮다 57.0%, 남성과 같다 20.9%, 남성보다 높아졌다 5.8% • 남성: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 7.5%, 아직 남성보다 낮다 48.5%, 남성과 같다 24.8%, 남성보다 높아졌다 9.0%
양성평등 현황	농촌의 여성 지위와 성평등	농촌의 성평등 수준	• 여성: 매우 불평등 0.5%, 불평등 26.0%, 평등 71.8%, 매우 평등 1.7% / 4점 만점 2.75점 • 남성: 매우 불평등 0.3%, 불평등 22.1%, 평등 74.4%, 매우 평등 3.2% / 4점 만점 2.80점
	양성평등 의식	성역할에 대한 태도	• 농가 및 마을에서의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4점 성평등) -함께 농사지어도 집안일은 부인이 할 일: 여 2.33점, 남 2.21점 -농사일에는 여자 일, 남자 일이 따로 있다: 여 2.17점, 남 2.07점 -마을행사에서 사람 대접은 여자들의 몫: 여 2.35점, 남 2.25점 -농기계는 남자가 운전하는 것이 좋다: 여 1.99점, 남 1.91점 • 사회 일반에서의 성역할 분리에 대한 태도 -가족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 여 2.21점, 남 2.07점 -일을 해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 여 2.62점, 남 2.52점 -여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은 남성에게 부적합: 여 2.59점, 남 2.42점 -남성이 주로 일하는 직업은 여성에게 부적합: 여 2.57점, 남 2.44점

영역	항목	문항	주요 결과
		성평등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생산/경영 자원의 동등 접근(4점 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 교육은 남편이 먼저 받는 것이 좋다: 여 2.38, 남 2.29 - 영농자금 대출은 남자가 받는 것이 당연: 여 2.44, 남 2.36 - 같은 일을 해도 남자 품삯이 더 높은 것이 당연: 여 2.33, 남 2.18 - 결혼 이후 마련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여 3.11, 남 2.90 • 경영/지역사회 대표성(4점 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이 농사지어도 남성 경영주가 자연스러움: 여 2.31, 남 2.24 - 마을 대표는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여 2.36, 남 2.25 - 농협 여성임원 많아지면 지역발전에 도움 됨: 여 2.67, 남 2.57
		성별 규범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성 규범(4점 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여 2.72, 남 2.58 - 부인 소득이 남편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 기가 죽는다: 여 2.52, 남 2.40 -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 여 2.32, 남 2.17 • 남성성 규범(4점 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안됨: 여 2.45, 남 2.25 -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함: 여 2.13, 남 2.03
	가족/마을 성평등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내 성평등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모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여 3.07, 남 3.10 • 경제적 책임의 남녀 공평 분담: 여 2.69, 남 2.72 • 명절/제사 준비 남녀 공평 분담: 여 2.30, 남 2.34 • 가족원 돌봄의 남녀 공평 분담: 여 2.52, 남 2.61 • 가족생활에서 남녀가 평등함: 여 2.77, 남 2.84 • 마을 성평등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모두의 의견을 존중함: 여 2.99, 남 3.06 • 남녀 모두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 여 3.01, 남 3.08 • 남녀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 여 2.21, 남 2.16 • 마을생활에서 남녀가 평등함: 여 2.77, 남 2.90 	
여성 안전	여성폭력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폭력 관련 고정관념(4점 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식/모임에서 성적농담이나 접촉은 분위기를 좋게함: 여 3.34, 남 3.22 - 같이 농사일하는 사람들끼리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것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 여 3.33, 남 3.22 - 부부/연인 사이의 성적인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여 2.88, 남 2.85 -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통제하기 어려움: 여 3.09, 남 3.06 - 순간 통제력을 잃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 여 3.28, 남 3.24 -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 것을 봐도 집안일이기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음: 여 2.99, 남 2.96 • 피해자 책임론(4점 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발생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탓: 여 2.62, 남 2.54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도 책임이 있음: 여 2.82, 남 2.79 	

영역	항목	문항	주요 결과
		농촌의 여성 안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전혀 안전하지 않다 0.2%, 별로 안전하지 않다 12.3%, 약간 안전하다 72.8%, 매우 안전 14.7% 남성: 전혀 안전하지 않다 0%, 별로 안전하지 않다 9.5%, 약간 안전하다 70.8%, 매우 안전 19.6%
		일상에서의 폭력 피해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두렵다 0.1%, 약간 두렵다 6.3%, 별로 두렵지 않다 69.1%, 전혀 두렵지 않다 24.5%
농촌 생활 만족도와 정책 요구	농업농촌 생활 만족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삶의 만족도(5점): 여 3.52, 남 3.51 •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평가(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낌: 여 2.64, 남 2.74 -도시 젊은 여성에게 농업을 직업으로 추천: 여 2.20, 남 2.21 -도시 젊은 남성에게 농업을 직업으로 추천: 여 2.27, 남 2.33 -도시 젊은 여성에게 농촌이주 추천: 여 2.35, 남 2.43 -도시 젊은 남성에게 농촌이주 추천: 여 2.39, 남 2.50 -농업이 계속 발전할 것: 여 2.45, 남 2.57 -농촌이 더 살기 좋아질 것: 여 2.45, 남 2.55
		향후 5년 이내 농업 지속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현재 규모 유지 64.0%, 규모 축소하여 지속 16.3%, 규모 확대하여 지속 4.6%, 농업 관련 창업 0.5%, 농업 중단 5.6% • 남성: 현재 규모 유지 65.6%, 규모 축소하여 지속 15.9%, 규모 확대하여 지속 3.3%, 농업 관련 창업 1.1%, 농업 중단 5.6%
		농촌 계속 거주 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90.0%, 남성 92.0%
	정책 요구	여성농업인 정책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위 향상, 복지 정책 인지도 높은 편 • 인지도 상위 10순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위 향상: 공동경영주 73.2%, 여성농업인의 날 45.9%, 위원회 등 여성 할당제 18.7% -경제사회 활동 지원: 지원사업 여성 우대 22.2%, 여성친화 농기계 임대 21.8% -복지 증진: 행복나눔이 23.4%,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28.1%, 농번기 공동급식 30.0%, 여성농업인 바우처 60.6%, 여성농업인센터 30.2% • 인지도 하위 10순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위향상: 여성 대표성 향상(할당제 등) 21.6% -경제사회 활동 지원: 영농여건 개선 교육 19.4%, 영농/교육 도우미 12.7%, 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 교육(시골언니 프로젝트) 9.6% -복지 증진: 농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13.5%,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0.1%, 동아리 지원 7.9% -양성평등 확산: 농촌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6.4%, 가족경영협약 교육 3.3%
		농업농촌에서 여성으로서의 어려움(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일 체력 부족 36.4%, 가사와 농사일 병행 어려움 32.2%, 농기계 사용 어려움 12.1%,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한 제약 10.5%, 들녘화장실 부족 등 생리적 어려움 3.9%, 농업경영 활동 제약 2.5%, 사생활 미보장 1.0%, 안전하지 않음 0.2%, 어려움 없음 1.3%

영역	항목	문항	주요 결과
		여성농업인 활동력 증대를 위한 과제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노력 5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자신의 의욕, 의식 향상 27.7%, 가족의 이해 12.2%, 여성 리더십/전문성 향상 10.7% • 경제/경영 참여 확대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경제력 향상 11.4%, 농업경영 참여 확대 8.4%, 농축협 참여 확대 2.2% • 사회적 자본 축적 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수집 및 확보 10.3%, 여성 네트워크 9.2% • 성평등 환경 조성 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돌봄 분담 7.1%, 여성참여 우대 조치 0.8%
		여성농업인을 위한 과제 (1+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시설 및 제도 확대 52.0%, 농촌 필수서비스 확충 37.0%, 노동부담 경감 33.8%, 영농/경영 교육 강화 21.3%, 지위 향상 법제도 개선 17.0%, 농업취창업 지원 17.5%, 지자체 전담부서/민관정책협의 강화 10.8%, 청년/귀농귀촌 여성지원 강화 8.0%, 농촌 성평등 확산 2.2%

2. 정책 시사점

2.1.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2.1.1.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향상 및 내실화

○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 도입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이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하였고, 그에 따라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농업인 지위 향상은 충분하지 않다.

-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이 정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 지위와 여성농업인들이 인지한 직업 지위 간의 괴리가 상당하였다.

○ 공동경영주 제도의 성과 평가, 이에 기반한 공동경영주 대상 정책사업 확대 노력을 통해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동경영주 제도의 인지도(73.2%)는 매우 높으므로 제도 자체의 홍보나 제도보다는 공동경영주 제도의 성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지위를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동경영주 대상의 농업인수당 지급(지자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여성에 대한 출산급여 지급(고용노동부),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여성에 대한 출산바우처 지급(경남) 등의 정책 성과 평가가 중요 방법이 될 수 있다.

2.1.2. 여성농업인의 농축협 참여 확대

- 본 실태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의 농축협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출자금 부담 등 경제적 이유보다는 복수조합원 가입의 필요를 체감하지 못한 탓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남편이나 아들이 가입해 있으면 본인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가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잘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 따라서 여성 조합원 비율이 높거나 여성 조합원 대상 사업이 우수한 농축협의 사례를 발굴하여 성과를 확산함으로써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출자금 부담을 이유로 든 비율이 낮긴 하지만 출자금 등 경제적 부담이 여성의 농축협 가입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여성 조합원 가입 및 임원 진출의 진입장벽을 조사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2.2.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개선 및 확대

2.2.1. 여성농업인의 필요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연령별로 희망하는 교육내용과 개선요구에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별 교육 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양 교육은 70대 이상에서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60대 이하는 농업생

산 기술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농업생산 기술 교육은 현재 농업인 대상 교육의 주류를 이루는 교육이므로 기 개설된 교육에 대한 여성 농업인의 접근성, 교육 효과 등을 평가하여 기존 교육 개선 및 필요시 여성 대상 별도 교육과정 개설 등 여성농업인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디지털 기술 활용, 특히 온라인 공공행정, 금융거래, 예약/쇼핑/결제는 공공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에서 더욱 필요하고 유용함에도 여성농업인의 활용 역량이 매우 낮으므로, 이와 관련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2.2. 여성농업인의 교육 접근성 개선

- 여성농업인들은 교육의 시간과 장소 관련한 접근성 개선, 교육 과정의 다양화 및 단계별 수준별 개설을 교육 개선사항으로 요구하였다. 특히 교육 접근성으로, 60대는 ‘교육 시기와 시간대 다양화’, 70대 이상은 ‘교육 장소 접근성 개선’을 가장 필요로 하였으므로, 연령별 수요에 맞추어 온라인/주말 교육, 찾아가는 교육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2.3. 여성농업인의 지역사회 역할 강화를 위한 여성 네트워크 지원

- 여성농업인의 대부분이 마을조직과 친목 성격의 모임에 가입해 있어 지역사회 활동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미흡한 문제가 있다. 여성농업인의 상당수는 여성의 활동력 증진을 위해 정보 수집 및 확보, 여성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40대 이하 여성농업인은 지역사회 조직 참여율이 낮는데 ‘지역 내 선호 단체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성 단체 중심이 아닌 여성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년여성 농업농촌 진로탐색 교육 사업이 지역의 여성 네트워크 조직화 효과도 거두고 있으므로 이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유효하겠다.

2.3.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경감과 자녀돌봄 분담

○ 50대와 60대는 농업노동력의 주력층으로 농업노동 부담이 크고 40대 이하는 농사일과 가사의 병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 편의장비 보급, 여성친화 농기계 임대 사업, 영농여건 개선 교육, 농촌 보육환경 개선 등 일·가정 양립과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의 인지도와 참여율은 높지 않다. 사업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 실행에서 여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신규 시책을 추진하기보다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여 사업이 여성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개선하고, 사업량을 확대하는 노력이 더 우선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여성친화 농기계 임대 사업의 경우 소형 농기계가 없는 임대사업소가 있거나 임대농기계 부족으로 부인의 이름으로 남성농업인들이 소형 농기계를 임대하여 정작 여성농업인들이 임대할 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 또한 농촌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형 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혹은 ‘농촌형 공동육아 지원’ 등 시설 보육 중심에서 탈피하여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임금근로자는 남편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여 돌봄을 분담할 수 있지만 농업인은 남성의 돌봄 분담이 순전히 개인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여성 전담 구조를 해소하기 쉽지 않다. 농촌에서 남성의 돌봄 분담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및 사업 추진

- 농촌의 성차별적 문화와 인식은, 여성의 돌봄노동 전담을 당연시하여 이중노동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시간 부족, 건강과 체력적 한계 등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있었다. 또한 농촌지역의 보수적 인식은 청년 여성농업인과 귀농·귀촌 여성들의 정착을 저해하는 핵심적 장애물로 지적되는데, 여성 귀농인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의 연고지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7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성평등 관련 인식이 매우 보수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성평등 인식개선과 문화확산 노력은 중요한 과제이다.
- 농촌 성평등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젊을수록 높았으나 여성농업인들조차 성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대상별 성평등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성평등 교육 필요성은 매우 높았으나, 참여 의향은 높지 않았으므로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시간, 공간적 접근성 / 온라인 접근성 등), 기 양성된 농촌 성평등 전문가들이 농촌 상황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운영하도록 한다.
 - 70대 이상 여성농업인의 성평등 인식이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교육의 핵심 대상으로 하기보다 성평등 인식이 유동적이어서 세대간 가치관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50대와 60대 여성농업인을 핵심 교육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농촌 성평등 증진에 더 효과적이다.
- 법정 교육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같은 가장 기초적 조치에서조차 농업 부문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마을이장, 부녀회장, 농협 임원 및 대의원 등에 대한 교육을 준의무화하도록 한다.
 - 필요시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제106조(사업), 제111조(사업)에 교육·지원사

업에 '임원 및 조합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농업인단체에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 노력을 부과한다.

○ 성평등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도 필요하다. 공모사업, 실천 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모니터단 운영) 등이 방안이 될 수 있겠다.

- 성평등 마을규약 제정, 부녀회를 포함한 마을 기구의 기능과 위상 재정립, 남녀가 함께하는 마을행사 운영 가이드라인, 남성 주민의 가사·돌봄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마을주민 대상 양성평등 교육 사례 등 농촌에 적합한 성평등 실천을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 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을 의무화한다.

2.5. 정책추진 체계 강화

○ 지자체로 이관된 여성농업인 정책의 인지도 및 이용도, 만족도가 높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정책 체감도 증진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정책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자체와의 정책 협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 록 1

응답자 특성

〈부표 1〉 응답자 특성

항목		여성농업인		남성농업인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2003	100.0	502	100.0
유형	비귀농 농업인	1759	87.8	445	88.6
	귀농인	244	12.2	57	11.4
농업 경영체 지위	경영주	460	22.9	502	100.0
	공동경영주	554	27.7	-	-
	경영주 외 농업인	989	49.4	-	-
연령	40대 이하	125	6.3	28	5.7
	50대	296	14.8	53	10.5
	60대	821	40.9	167	33.3
	70대 이상	761	38.0	254	50.5
학력	중학교졸업 이하(중퇴포함)	1026	51.2	205	40.8
	고등학교졸업(중퇴포함)	840	41.9	237	47.3
	전문대학재학(중퇴포함)	137	6.9	60	11.9
가구 형태	1인가구	212	10.6	8	1.6
	부부가구	1345	67.2	378	75.3
	2세대 이상/기타	446	22.3	116	23.1
혼인 상태	미혼	11	0.5	4	0.7
	기혼	1713	85.5	481	95.9
	사별/이혼	279	13.9	17	3.4
거주 지역	특 광역시	194	9.7	54	10.8
	경기	217	10.8	65	12.9
	강원	119	5.9	32	6.4
	충북	127	6.3	34	6.7
	충남	234	11.7	57	11.3
	전북	185	9.2	46	9.2

항목		여성농업인		남성농업인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남	283	14.1	62	12.3
	경북	320	16.0	79	15.8
	경남	264	13.2	57	11.4
	제주	60	3.0	16	3.2
영농 규모	소규모	1174	58.6	251	50.0
	중소규모	423	21.1	132	26.2
	중대규모	285	14.2	80	16.0
	대규모	121	6.0	39	7.8
농업 소득	500만 원 미만	719	35.9	171	34.1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368	18.4	88	17.5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166	8.3	45	9.0
	1,500만 원 이상	647	32.3	175	34.6
	잘 모름	103	5.1	24	4.7

2018년 대비 통계 변경 내역

1. 변경 사항 개요

- 2018년 조사 대비 작성변경 사항은 1) 조사항목, 2) 모집단, 3) 조사기간, 4) 공표범위(결과표), 5) 표본설계, 6) 표본오차의 6가지임

〈부표 2〉 2018년 대비 2023년 실태조사의 주요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총 6개 부문 76문항 • 여성 귀농인 -총 6개 부문 76문항 • 농촌지역 다문화 여성 -총 6개 부문 81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 7개 부문 70문항 • 남성농업인 -여성농업인 조사문항 중 일부 문항 발체하여 조사 -7개 부문 42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통계와의 중복 회피 및 확률표집을 위해 여성농업인 조사로 일원화 • 정책환경 및 수요 변화를 반영, 정책 연계성 높은 항목으로 조정하여 내실화 도모 • 개정된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반영하여 양성평등 영역을 신설하고 성별 격차 조사를 위해 남성농업인을 비교집단으로 조사 설계를 진행함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모집단 -농림어업총조사 농가 내 여성농업인 -귀농어귀촌인통계의 귀농여성농업인 -체류외국인통계의 다문화 여성농업인 • 조사모집단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농가 중 동 지역 제외한 읍/면 지역 농가의 여성 -2016년 귀농어귀촌인통계의 귀농인 중 동 지역 제외한 읍/면 지역 여성 귀농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모집단 - '농업농촌및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업인 정의(시행령 제3조 1항의 1호~3호)를 충족하는 전국의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 • 조사모집단 -2023년 농업경영체(농업인)중 여성농업인이 소속된 경영체 1,167,804개에 속해 있는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통계 중복 회피 및 확률표집을 위해 다문화, 귀농여성을 여성농업인 조사로 일원화 - 농림어업총조사와 본 조사 주기의 불일치 해소 및 여성농업인 추출 용이를 위해, 농가 및 농업인 자격 검증 및 현행화 요건을 갖추고 있는 농업경영체(농업인)를 조사모집단으로 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2016년 체류외국인통계의 결혼이민자 중 동 지역 제외 읍/면 지역 결혼여성이민자		
조사기간	• 10월 6일 ~ 10월 31일	• 8월 1일 ~ 9월 31일	• 다문화, 귀농여성 분리 조사를 여성농업인 단일조사로 변경함에 따라 조사설계 기간이 단축되어 조사기간을 앞당기고, 조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기간을 2배 연장함
공표범위 (결과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 특성: 연령, 가구형태, 가구원수, 혼인상태, 월평균 지출액, 거주지역(권역), 영농규모, 품목, 경작면적, 농산물판매액 -19문항 귀농여성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 특성: 귀농귀촌유형, 연령, 가구형태, 가구원수, 혼인상태, 월평균지출액, 거주지역(권역), 영농규모, 품목, 경작면적, 농산물판매액 -10문항 다문화 여성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 특성: 농업생산여부, 연령, 거주지역(권역), 결혼전국적, 한국국적취득 여부, 한국거주기간, 가구형태, 가구원수, 자녀여부, 월평균지출액 -6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자 특성: 귀농여부, 연령, 학력, 가구형태, 가구원수, 혼인상태, 거주지역(시도), 경작면적, 농업소득 -기본 및 가구사항 제외 5개 부문 51문항 남성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규모가 작아 응답자 특성별 비교시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결과만 공표 -기본 및 가구사항 제외 5개 부문 34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설계 및 조사항목 변경에 따라 응답자 특성 항목을 일부 수정함 조사항목의 대폭적 수정으로 결과공표 항목을 확대함 양성평등 실태와 의식의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항목의 남성농업인 전체 응답값을 공개함
표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내 농가에서 2018년 7월 기준으로 최근 1년('17.6.~'18.6.)내 3개월 이상 농업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여성농업인 (2,000가구) • 일반여성농업인 1,500, 귀농여성농업인 250, 다문화 농가 250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 중 2023년 8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22.8~'23.7) 3개월 이상 농업에 참여한 만 15세 이상 여성농업인(2,000명)과 남성농업인(5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률표집을 위해 귀농, 다문화여성 관련 사항을 여성농업인 문항에 포함, 여성농업인 단일조사로 표본을 설계함 • 양성평등 영역의 성별 격차 조사를 위해 남성농업인을 별도 표본추출하여 비교군으로 조사함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3% Point (신뢰수준 95%) • 귀농여성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0% Point (신뢰수준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 신뢰수준 ±2.19%p • 남성농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 신뢰수준 ±4.3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 대상 및 규모 조정에 따른 수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다문화 여성 -±6.20% Point (신뢰수준 95%) • 통합표본 -±2.19% Point (신뢰수준 95%) 		

2. 조사내용 변경

○ 조사표를 단일화하고, 유사통계 중복 회피 및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조사 영역을 수정함

- 귀농 및 다문화 여성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남김
- ‘농어업인등 복지실태조사’ 중복 회피를 위해 복지 영역을 삭제
- 양성평등 영역 신설, 경제·사회활동 참여 현황에 기후위기 영향 및 대응 조사항목 추가
- 가독성을 위해 문항 표현 수정 및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응답 범주를 다수 항목에서 수정

○ 여성농업인: 7개 영역 70문항

- 기본사항 6, 가구현황 8, 경제·사회활동 참여 현황 22, 교육 현황 8, 건강 현황 4, 양성평등 현황 13, 정책수요 및 향후계획 9

○ 남성농업인: 7개 영역 42문항

- 여성농업인 조사문항 중 일부 문항을 발췌하여 조사
- 기본사항 4, 가구현황 4, 경제·사회활동 참여 11, 교육 4, 건강 4, 양성평등 의식 10, 정책 수요 및 향후 계획 5

〈부표 3〉 2023년 조사항목 및 신규 대비

조사영역	2023년 조사 항목		2018년 조사 (여성농업인)	
0. 인적사항	SQ1. 나이	남	○	
	SQ2. 1년 중 직접 농사 기간	남	○	
	SQ3. 거주 지역(17개 시도)	남	○	
A. 기본사항	1. 귀농여부 및 시기	남	○	
	2. 혼인상태	남	○	
	3. 거주지역의 연고지 유형	남		
	4. 최종학력	남	○	
	5. 원래 국적		○	
	5-1. 한국어 실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B. 가구 현황	6. 동거 가구원 수	남		
	6-1. 동거 가구원	남	○	
	7. 자녀 유무 및 자녀 수		○	
	7-1. 지난 1년 간 자녀가 농사일 도운 기간(일)		○	
	7-2. 자녀의 농업승계 예정 여부		○	
	8. 농사규모	남	○	
	9. 농업소득	남	△(농산물 판매익)	
	10. 본인 명의 자산		○	
	(18년 항목 중 삭제) 가구원별 기본사항(혼인상태, 학력, 직업), 자녀로부터 생활비 보조 유무, 월평균 가계지출액			
	C. 경제사회 활동 참여 현황	11. 농업 종사 총 기간	남	○
12. 주관적 직업 지위 인식			○	
13. 농사일 전체 담당 비중		남	○	
14. 50% 이상 담당 작업: 농사일(14-1), 농업경영(14-2)			△	
15. 기후변화의 영향(농업생산, 신체건강, 정신건강)		남		
15-1. 농업생산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법(2순위)		남		
15-2. 농작업시 건강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방법(2순위)		남		
16. 생활시간 사용(노동, 가사, 가족원 돌봄, 사회참여, 개인시간, 수면)				
16-1. 시간 사용량		남	△(농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16-2. 바라는 시간		남		
17. 지난 1년 농외 소득활동 여부		남	○	
17-1. 농외 소득활동 종류			○	
17-2. 가장 오래 한 농외 소득활동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지난 1년간 농외활동 기간)	
17-3. 작년 1년간 총 농외소득			△(월평균 농외소득)	

조사영역	2023년 조사 항목	2018년 조사 (여성농업인)
	18. 향후 1년 이내 농외 소득활동 의향	남 ○
	18-1. 농외 소득활동 희망 이유(2순위)	○
	18-2. 희망하는 농외 소득활동 종류(2순위)	○
	18-3. 농외 소득활동을 하려고 할 때 예측되는 어려움(2순위)	○
	19.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조직	남 ○
	19-1. 지역사회 단체 미참여 이유 혹은 활동에서의 어려움(2순위)	
	20. 농축협 참여 유형	남 △ (조합원 여부)
	20-1. 농축협 조합원 미가입 이유	
	21. 정부 위원회 활동 경험	남
(18년 항목 중 삭제) 농업 종사 이유		
D. 교육 현황	22. 지난 1년간 교육 참여 경험 유무	남
	22-1. 받은 교육 종류	남 △ (최근 3년간)
	22-2. 받은 교육 중 유익했던 교육(3순위)	남 ○
	22-3. 향후 받고 싶은 교육(3순위)	남 ○
	23. 교육 개선 사항(2순위)	○
	24. 보유 자격증 수	
	24-1. 도움이 된 자격증 종류(2가지)	△(중요한 자격증)
	24-2. 향후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 종류(2가지)	
	(18년 항목 중 삭제) 교육장소, 교육일시	
E. 건강 현황	25. 주관적 건강상태	남 ○
	26. 최근 1년 간 우울증상 경험 유무	남
	27. 최근 1년 간 자살 생각 유무	남
	28. 현재 주된 고민 사항(2순위)	남
	(18년 항목 중 삭제) 일상활동 제약 여부, 아플 때 주된 이용 기관, 의료기관 이용 어려움, 치료 포기 경험 유무, 의료기관 미이용 이유, 6세 미만 자녀 돌봄 관련 사항, 농촌 보육시설 중요 조건, 초등 자녀 돌봄 사항, 연금·보험 가입 현황, 문화행사 관람 및 시설 이용 경험, 문화 미경험 이유	
F. 양성평등 현황	29. 거주 지역의 여성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	남 ○
	30. 성역할 인식(11개 문항)	남
	31. 성별 관계 인식(9개 문항)	남
	32. 가족 내 양성평등 현황(5개 문항)	남
	33. 마을의 양성평등 현황(4개 문항)	남
	34. 농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남
	35. 농촌의 여성 안전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남

조사영역	2023년 조사 항목	2018년 조사 (여성농업인)	
	36. 일상생활에서의 여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정도	남	
	37. 여성폭력에 대한 수용도(8개 문항)	남	
	38. 지난 3년간 폭력피해 경험 유무(5개 폭력 유형별)	남	
	38-1. 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남	
	39. 여성폭력 목격시 대응 방법(4가지 폭력 상황별)	남	
	40. 최근 3년간 성평등 교육 경험	남	
	40-1. 성평등 교육 참여 여부	남	
	40-2. 향후 교육 참여 의향	남	
	40-3. 성평등 교육 필요성 인식	남	
	41. 전반적 삶의 만족도	남	
	42.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7개 문항)	남	○
	43. 향후 5년 이내 농업에 대한 계획	남	○
	44. 농촌 계속 거주 의향	남	○
	45. 농업농촌에서 여성이어서 겪는 어려움(2순위)		○
	46. 농촌에서 여성의 활동력 향상을 위한 필요 사항(2순위)		○
G. 정책 수요 및 향후 계획	47. 온라인 및 무인 서비스 활용 역량(8개 문항)	남	△(정보화 기기 보유 및 이용도)
	48.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 및 기관 경험(19개 정책유형별)		○
	48-1. 인지도		○
	48-2. 참여 여부		○
	48-3. 참여 만족도		○
	49. 여성농업인을 위한 과제(2순위)		○
	(18년 항목 중 삭제) 농업 계속 이유, 농촌 계속 거주 이유		

Q15-2. (Q15=1, 2 응답자만)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귀하가 현재 적용하고 있거나 가장 관심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1) 폭염, 폭우 시 작업 중단, 작업 시간 조절 2) 잦은 휴식 시간 갖기 3) 충분한 수분, 영양(보조식품 등) 섭취
 4) 날씨, 기상예보 확인 5) 가림막, 쉼터 등 설치 6) 보조기구(일음조끼 등) 사용
 7) 농작업 안전교육 수강 및 안전수칙 준수 노력 강화 8) 대응하지 않음 9) 기타()

Q16. 귀하와 배우자는 일반적인 평일 하루에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하십니까? 농번기와 농한기를 구분하여 적어 주십시오. 또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 3시간, 3.5시간 등 30분 단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30분은 0.5시간으로 적어 주십시오.

※ 미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본인의 시간만 적어 주십시오.

	Q16-1. 사용하는 시간				Q16-2. 본인의 바라는 시간		
	Q16-1-1. 농번기		Q16-1-2. 농한기		줄이고 싶다	적절하다	늘리고 싶다
	A. 본인	B. 배우자	A. 본인	B. 배우자			
1. 농업 및 유급 노동 (출퇴근 시간 포함)	()시간	()시간	()시간	()시간	1)	2)	3)
2.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 가사	()시간	()시간	()시간	()시간	1)	2)	3)
3. 자녀, 노부모 등 가족원 돌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1)	2)	3)
4. 자원봉사, 마을 지역 활동 등 사회참여	()시간	()시간	()시간	()시간	1)	2)	3)
5. 여가, 취미활동, 휴식 등 개인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1)	2)	3)
6. 수면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1)	2)	3)

Q17. 귀하는 지난 1년간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활동을 하였습니까?

※ '농업생산 이외의 소득활동'은 농업생산 이외 분야에서 1) 임금(소득)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2)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거나, 3) 육아휴직, 병가, 회사사정 등으로 인한 일시휴직 상태를 말합니다.

- 1) 하였음 2) 하지 않았음 Q18번으로 이동

Q17-1. 귀하가 지난 1년간 종사한 농업생산 이외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다음의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십시오.

농업생산 이외 일 보기	1) 농산물 가공·판매(장류, 액즙, 직거래 등)	2) 농촌관광(농가식당, 숙박, 체험 등)
	3) 농업 임금노동(풍상 노동 등)	4) 자영업(식당, 상점, 카페 등 운영)
	5) 프리랜서(창작, 디자인 등 1인사업자)	6) 아르바이트(편의점, 식당, 과일 등) 혹은 임시직 취업
	7) 일반 상용직 취업	8) 비농업 부문 일용직(건설노동 등)
	9) 사회서비스 기관 취업(간병, 요양보호사, 급식조리사, 방과후교사, 아이돌보미 등)	
	10) 기타()	

Q17-2. 귀하가 하신 농업생산 이외의 일 중 가장 오래 한 일은 무엇인지 위 보기에서 골라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1. 가장 오래 한 일: () 2. 하루 평균 근로시간: ()시간

Q17-3. 귀하가 작년 1년동안 **농업생산 이외** 일에서 번 소득은 총 얼마입니까? **연간소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 1) 500만 원 미만 | 2)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 3) 1,000만 원-1,500만 원 미만 |
| 4) 1,500만 원-2,000만 원 미만 | 5) 2,000만 원-2,500만 원 미만 | 6) 2,500만 원-3,000만 원 미만 |
| 7) 3,000만 원-3,500만 원 미만 | 8) 3,500만 원-4,000만 원 미만 | 9) 4,000만 원-4,500만 원 미만 |
| 10) 4,500만 원-5,000만 원 미만 | 11) 5,000만 원 이상 | 12) 잘 모른다 |

Q18. 귀하는 향후 1년 이내 **농업생산 이외**의 일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지난 1년간 농업 이외 일을 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도 응답

- 1) 있다 2) 없다 **☞ Q19번으로 이동**

Q18-1. 귀하가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답해주시요.

1순위 2순위

- | | |
|----------------------------|------------------------------------|
| 1) 농사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 2) 일할 수 있을 때 추가소득 마련하려고 (노후자금 마련) |
| 3) 유희시설(장비)을 잘 활용하고 싶어서 | 4) 내가 가진 재능(장점)을 활용하고 싶어서 |
| 5)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 6) 타인의 권유 (정책적 지원이 있어서) |
| 7) 농사일이 힘들어서 직업 전환을 하고 싶어서 | 8) 기타 (구체적:) |

Q18-2. 귀하가 하고 싶은 **농업생산 이외** 일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농업생산 이외 일 보기	1) 농산물 가공판매(장류, 액즙, 직거래 등)	2) 농촌관광(농가식당, 숙박, 체험 등)
	3) 농업 임금노동(물상 노동 등)	4) 자영업(식당, 상점, 카페 등 운영)
	5) 프리랜서(창작, 디자인 등 1인사업자)	6) 아르바이트(편의점, 식당, 과외 등) 혹은 임시직 취업
	7) 일반 상용직 취업	8) 비농업 부문 일용직(건설노동 등)
	9) 사회서비스 기관 취업(간병, 요양보호사, 급식조리사, 방과후교사, 아이돌보미 등)	
	10) 기타()	

Q18-3. 귀하가 향후 희망하는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을 하려고 할 때 **예측되는 어려움**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1) 내 능력(지식/기술) 부족 | 2) 일을 해 볼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 | 3) 자본금 부족 |
| 4) 인맥(네트워크) 부족 | 5) 신체적 한계(질병 또는 육체적 한계 포함) | 6) 자신감 부족 |
| 7) 서류작성이 어려움 | 8) 가족(남편, 사부모)이 기회를 주지 않음 | 9) 농사일이 바빠 시간이 없음 |
| 10) 판매처 확보 어려움 | 11) 기타(구체적:) | 12) 없다 |

Q19. 다음 중 귀하가 **회원**이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사회 조직**은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 | | | |
|----------------------------------|---------------------------------|--------------------------------|
| 1) 마을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마을조직 | 2) 주민자치회, 마을개발위원회 등 주민 자치 조직 | |
| 3)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 4) 로컬푸드,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 |
| 5) 여성농업인단체 | 6) 농업인단체 | 7) 의용소방대 등 봉사활동 단체 |
| 8) (비농업 부문) 시민사회 단체 | 9) 계(친목, 동창회) | 10) 기타() |
| 11) 참여하지 않음 ☞ Q19-1번으로 이동 | | |

Q19-1. (Q19=11 응답자만) 다음 중 귀하께서 지역사회 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혹은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1) 단체 활동에 시간을 빼앗겨 집안일이나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음 | 2) 단체 활동에 대해 가족과 갈등이 생김 |
| 3) 단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마을, 지역사회에 편견이 있음 | 4) 거주 지역에 선호하는 단체가 없음 |
| 5) 나이, 건강 때문에 활발한 활동이 어려움 | 6) 활동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움 |
| 7) 쉬고 싶어도 활동할 사람이 부족해서 단체 활동을 할 수 없음 | 8)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인식 차이나 갈등 |
| 9) 단체 활동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10)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보다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하게 됨 |
| 11) 기타() | 12) 특별한 이유나 어려움이 없음 |

Q20. 귀하께서는 농축협 조합원입니까?

- 1) 일반 조합원 2) 대의원 3) 이사·감사 등 임원 4) 조합원 아님 ☞ Q20-1로 이동

Q20-1. 귀하께서 농축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가입하는 방법을 몰라서 | 2) 출자금에 부담스러워서 |
| 3) 조합원이 되더라도 혜택이 부족해서 | 4) 여성 조합원의 의견 반영이 잘 안 되어서 |
| 5) 남편이나 아들이 가족대표로 가입하고 있어서 | 6)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 7) 기타() | |

Q21. 귀하께서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농업발전위원회, 농정혁신위원회, 귀농위원회,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이 있음

- 1) 있다 2) 경험은 없지만 할 의향은 있다 3) 경험도 없고 앞으로도 할 의향이 없다

PART D. 교육 현황

Q22. 귀하는 지난 1년동안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 Q22-3으로 이동

Q22-1. 다음 중 귀하가 받은 교육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주십시오.

교육 종류 보기	1) 농기계 교육	2) 작물재배, 사육 등 농업생산 기술 교육
	3) 가공, 유통, 판매 등 6차산업 관련 교육	4) 체험, 민박 등 농촌관광 관련 교육
	5) 드론, 스마트팜 등 신기술 교육	6) 정보화 교육
	7) 자격증, 직업훈련 교육	8) 회계, 재무, 행정사무 등 경영 관련 교육
	9) 기후위기 혹은 농업환경 변화 관련 교육	10) 정치, 정책, 지역사회, 의사소통 등 리더십 교육
	11) 취미, 여가, 자기개발 등 교양 교육	12) 기타 ()

Q22-2. 받은 교육 중 유익했던 교육은 무엇인지 위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로 3가지를 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Q22-3. (모든 응답자) 앞으로 받고 싶은 교육은 무엇인지 위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로 3가지를 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Q23. 귀하가 비교적 편하게 각종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1) 다양한 교육과정(내용) 개발 | 2) 단계별, 수준별 강좌 개설 |
| 3) 여성농업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강사 확대 | 4) 현장실습, 체험 등 참여형 교육 확대 |
| 5) 교육 시기 및 시간대(저녁시간, 농한기 등) 다양화 | 6) 교육 장소의 지리적 접근성 개선(가까운 곳) |
| 7) 온라인교육 확대 | 8) 교육 시간 내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 |
| 9) 교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 10) 기타() |

Q24. 현재 귀하께서 보유한 자격증은 모두 몇 개입니까? 총 ()개

※ '자격증'은 시험을 통해 취득한 국가공인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말합니다. 교육수료만으로 발급되는 자격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는 1종 대형과 특수면허만 해당됩니다.

Q24-1.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 중 귀하에게 도움이 된 자격증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자격증인지 2개까지 적어 주십시오.

- 1) 없다 2) 있다 → 자격증 명칭: (1.), (2.)

Q24-2. 귀하가 향후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자격증인지 2개까지 적어 주십시오.

- 1) 없다 2) 있다 → 자격증 명칭: (1.), (2.)

PART E. 건강 현황

Q25.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1) 매우 나쁨 2) 대체로 나쁨 3) 보통 4) 대체로 좋음 5) 매우 좋음

Q26.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 1) 예 2) 아니오

Q27.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 1) 예 2) 아니오

Q28. 귀하는 현재 무엇을 가장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다음의 보기 중 순서대로 2개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1) 경제적 어려움 | 2) 농사일의 지속, 안정성 | 3) 소외감/외로움/고독 | 4) 이웃/지역주민들과의 갈등 |
| 5) 본인의 건강 문제 | 6) 가족의 건강 문제 | 7) 본인의 진로 | 8) 자녀 등 가족의 진로 |
| 9) 가족 관계 | 10) 기타() | 11) 특별히 없음 | |

PART F. 양성평등 현황

Q29.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현재 여성의 지위가 어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여성 지위는)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 2) (여성 지위는) 예전보다 높아졌지만 아직 남성보다 낮다
 3) (여성 지위는) 남성과 같다 4) (여성 지위가) 남성보다 높아졌다
 5) 잘 모르겠다

Q30.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더라도 식사 준비,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은 부인이 할 일이다	1)	2)	3)	4)
2. 농사일에는 여자 일, 남자 일이 따로 있다	1)	2)	3)	4)
3. 마을 행사에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은 여자들 몫이다	1)	2)	3)	4)
4. 농기계는 남자가 운전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농협 임원 중 여자가 많아지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1)	2)	3)	4)
6. 농사와 관련된 중요한 교육은 남편이 먼저 받는 것이 좋다	1)	2)	3)	4)
7. 영농자금 대출은 남자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	1)	2)	3)	4)
8. 하는 일이 같아도 남자의 품성이 여자보다 높은 것은 당연하다	1)	2)	3)	4)
9.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더라도 남편이 경영주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1)	2)	3)	4)
10. 결혼 이후 마련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로 해야 한다	1)	2)	3)	4)
11. 마을 대표는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1)	2)	3)	4)

Q31. 귀하는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1)	2)	3)	4)
2.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1)	2)	3)	4)
3.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1)	2)	3)	4)
4. 여성이 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1)	2)	3)	4)
5.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1)	2)	3)	4)
6.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1)	2)	3)	4)
7. 부인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1)	2)	3)	4)
8.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1)	2)	3)	4)
9.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1)	2)	3)	4)

Q32. 귀하는 귀하의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가족은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1)	2)	3)	4)
2. 나의 가족은 경제적 책임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	1)	2)	3)	4)
3. 나의 가족은 명절, 제사 준비를 남녀가 공평하게 한다.	1)	2)	3)	4)
4. 나의 가족은 자녀, 노부모 등 가족원의 돌봄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	1)	2)	3)	4)
5. 나의 가족생활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1)	2)	3)	4)

Q33. 귀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남성, 여성 모두의 의견을 존중한다.	1)	2)	3)	4)
2.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남성, 여성 모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1)	2)	3)	4)
3.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남성, 여성이 하는 활동이 구분되어 있다.	1)	2)	3)	4)
4.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	1)	2)	3)	4)

Q34. 귀하는 농촌이 얼마나 성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평등함 2) 불평등한 편 3) 평등한 편 4) 매우 평등함

Q35. 귀하는 농촌이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안전하지 않다 2) 별로 안전하지 않다 3) 약간 안전하다 4) 매우 안전하다

Q36.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두렵다 2) 약간 두렵다 3) 별로 두렵지 않다 4) 전혀 두렵지 않다

Q37. 다음의 각 의견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화석이나 마을 모임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 농담이나 접촉은 분위기를 좋게 만든다	1)	2)	3)	4)
2. 같이 농사일하는 사람들끼리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은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다	1)	2)	3)	4)
3.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1)	2)	3)	4)
4. 부부나 연인 사이의 성적인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1)	2)	3)	4)
5.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1)	2)	3)	4)
6. 남자는 성충동이 일어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	1)	2)	3)	4)
7. 화가 너무 나서 순간 통제력을 잃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2)	3)	4)
8. 마을에서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 것을 보거나 들어도 집안일이기 때문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2)	3)	4)

Q38. 귀하는 지난 3년 동안 누군가에 의해 다음과 같은 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한 가지라도 '있다'에 응답한 경우 Q38-1번으로 이동

항목	있다	없다
1. 신체적 폭력(물건을 던지는 행위, 흉기위협, 밀치거나 때리는 행위 등)	1)	2)
2. 정서적 폭력(언어폭력, 자해위협, 아끼는 사람 또는 동물 위협, 짐을 못 자게 하는 행위 등)	1)	2)
3. 성적 폭력(외모 비하 또는 평가, 음란물 게시, 신체노출, 신체접촉, 성관계 강요 등)	1)	2)
4. 경제적 폭력(경제적 책임 회피, 소비를 제한하는 행위, 돈을 감지 않는 행위 등)	1)	2)
5. 통제적 폭력(친구 또는 가족, 친척과의 연락안남 통제, 핸드폰 또는 위치 감시 등)	1)	2)

Q38-1.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귀하는 어떻게 대응하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1) 참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2) 그 자리에서 가해자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였다
 3)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였다 4) 가족, 친구,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5) 경찰에 신고하였다 6) 전문기관(상담소, 가족센터, 피해지원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7) 마을부녀회, 여성단체 등에 알리고 조치를 상의하였다 8) 기타()

Q39.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목격했을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항목	관여하지 않는다	주위에 알린다	직접 나서서 말한다	관계기관 (경찰 등)에 알린다
1. 거리, 대중교통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을 때	1)	2)	3)	4)
2.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1)	2)	3)	4)
3. 바로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을 때	1)	2)	3)	4)
4. 마을, 하우스, 농작업장 등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목격했을 때	1)	2)	3)	4)

Q40. 귀하께서는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인식 함양 등 성평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향후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평등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향후 참여 의향도 모든 응답자가 응답

Q31-1. 성평등 교육 참여 여부		Q31-2. 향후 교육 참여 의향		Q31-3. 성평등 교육 필요성 인식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매우 불필요	불필요	필요	매우 필요
1)	2)	1)	2)	1)	2)	3)	4)

PART G. 정책 수요 및 향후 계획

Q41.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불만족

Q42. 귀하는 농업·농촌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	1)	2)	3)	4)
2. 나는 도시에 사는 젊은 여성에게 농업을 직업으로 추천하겠다	1)	2)	3)	4)
3. 나는 도시에 사는 젊은 남성에게 농업을 직업으로 추천하겠다	1)	2)	3)	4)
4. 나는 도시에 사는 젊은 여성에게 농촌으로 이주해 사는 것을 추천하겠다	1)	2)	3)	4)
5. 나는 도시에 사는 젊은 남성에게 농촌으로 이주해 사는 것을 추천하겠다	1)	2)	3)	4)
6. 나는 앞으로 농업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7. 나는 앞으로 농촌이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Q43. 귀하는 향후 5년 이내 농업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 1)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확대·축소 계획 없음)
- 2) 규모를 줄여서 농업을 계속할 것이다
- 3) 규모를 확대해서 농업을 계속할 것이다
- 4) 농업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이다
- 5) 농업을 그만둘 것이다
- 6) 잘 모르겠다

Q44.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농촌 지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 1) 그렇다
- 2) 아니다
- 3) 잘 모르겠다

Q45. 귀하는 농업과 농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기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렵다
- 2) 농사일에 체력이 부족해 어렵다
- 3) 성별 고정관념이 강해서 의사표현, 활동 등에 제약이 많다
- 4) 농기계 사용이 어렵다
- 5) 들녘화장실, 공중화장실 부족으로 생리적 불편이 크다
- 6)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활동하기 불편하다
- 7) 정책 지원, 자금 확보, 농산물 판매 등 농업경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 8) 안전하지 않다
- 9) 기타 (구체적:)
- 10) 어려움이 없다

Q46. 귀하는 농촌사회에 여성이 활동력을 넓히는데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여성 자신의 의욕·의식 향상
- 2) 가족의 이해
- 3) 여성들의 네트워크(인맥)
- 4) 각종 정보 수집 및 확보
- 5) 여성 리더십, 전문성 향상
- 6) 농업 경영 참여 확대
- 7) 여성 자신의 경제력 향상
- 8) 농축협 참여 확대
- 9) 기사, 돌봄의 분담
- 10) 여성활동제 등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우대조치
- 11) 기타 ()

Q47. 귀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다음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혹은 무인 서비스를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십니까? ※ '셀프주유소 이용'은 운전가능자만 응답합니다.

항목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	있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사용할 줄 모른다	사용할 수는 있으나 누가 도와야 한다	혼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비해당
1. 스마트폰, PC에서 날씨, 뉴스 등 정보 검색	1)	2)	3)	4)	
2. 이메일, 메신저(카카오톡 등) 사용	1)	2)	3)	4)	
3. 소셜미디어 서비스(블로그,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등)	1)	2)	3)	4)	
4. 온라인 예약, 쇼핑, 결제	1)	2)	3)	4)	
5. 출택스, 민원24 등 온라인 공공행정 서비스	1)	2)	3)	4)	
6. 폰뱅킹,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온라인금융거래 이용	1)	2)	3)	4)	
7. 식당, 카페 등에서 키오스크 주문	1)	2)	3)	4)	
8. 셀프주유소 이용	1)	2)	3)	4)	9)

Q48. 귀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음의 제도나 시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참여하거나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 혹은 이용한 경우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항목	Q48-1. 인지여부		Q48-2. 참여여부		Q48-3. 참여 시 만족도				
	안다	모른다	예	아니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지위 향상	1.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2. 여성농업인의 날(10.15)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농협 조합원·임원 및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 할당제 등)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경제·사회 활동 지원	4. 여성농업인 우대 정책 (후계농업경영인, 사회적 농장, 농산물 우수직매장 선정시 가점 부여)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5. 여성농업인 영농여건 개선 교육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및 임대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7. 영농교육도우미 (사고·질병 및 교육참여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8. 청년여성 농업·농촌 탐색교육(사골언니 프로젝트)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9. 행복나눔이(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지원)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1. 농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복지 증진	12. 동아리 지원 사업(농촌마을 배움나눔 지원사업)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3. 고용보험 미적용자(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원(고용노동부)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4. 농가도우미(출산도우미)(지자체)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5.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지자체)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6. 여성농업인 이용권(바우처)(지자체)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7. 여성농업인센터(지자체)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양성 평등 증진	18. 농촌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9. 가족경영협약 교육(농촌진흥청)	1) 2)	1) 2)	1) 2)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Q49. 귀하는 여성농업인을 위해 앞으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1) 여성농업인 지위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 2)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노동부담 경감 |
| 3) 농촌 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교통 등 필수서비스 확충 | 4)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 확대 |
| 5)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영농경영 교육 강화 | 6) 여성농업인의 농업 관련 취창업을 위한 기술과 자금 지원 |
| 7) 지자체의 여성농업인정책 전달부서 설치 및 민관 정책협의 강화 | 8) 농촌 지역의 양성평등 의식문화 정착 |
| 9) 여성농업인 후계세대 양성을 위한 청년 및 귀농·귀촌여성 지원 강화 | 10) 기타 () |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국내외 문헌〉

- 강혜정·마상진(2007), 《여성농업인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강혜정(2008),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 꿈지모(2005). “귀농 여성이 개척하는 새로운 자유의 영역: 충남 홍동 지역 귀농 여성들의 삶에 대한 보고서”, 《여성과 환경》 42: 203-217.
- 김수옥·박은희(2003),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현황과 육성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5(3): 65-85.
- 김영옥·김이선(200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김영옥·김이선(1999), 《21C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옥·김경미·박재규·김이선(2005),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중간평가》, 농림부.
- 김이선·김영택·장희영·박신규·이순미(2021), 《농업·농촌의 변화와 성 인 지적 정책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종숙·정명채(1992),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주숙(1982), “농촌여성의 농업생산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농촌경제》 5(2): 34-49.
- 김홍주, 하영진, 이현진, 김혜인. 2021. 농업분야 주요사업 성인지통계. 농림축산식품부.
- 마상진·김용렬·김정섭·이순미·최재현(2021),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박성정·이선주·진명숙·장희영(2012), 《귀농·귀촌여성의 농촌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신규·조경옥·조아영(2013), 《귀농·귀촌 여성의 전북지역 정착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성지혜(2013), “귀농한 가족, 귀농하지 않은 여성: 청도군 귀농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농촌사회》 23(2): 91-138.
- 안석·엄진영·박지연(2018),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엄진영·김선웅(2019), “여성농업인의 연령집단별 영농활동 비중 결정요인 분석”, 《농촌경제》 42(4): 1-21.
- 유찬희·승준호·김종인·김현정(2022).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과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준상(2007), “여성농업인의 농업기술 축정을 통한 전문교육체계 계획”,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2): 247-263.

- 이순미(2021),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순미(2023), “농촌 가부장제 실행 원리로서 가족농 규범과 성 통제: 청년여성 후계농업인의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5(3): 91-133.
- 이순미·마상진·최재현(2022), 《농촌 청년여성 생활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순미·위라겸·정인경(2020), 《농어촌의 미래 여성농어업인 인력육성 방안》,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 이호철·최수영·박재홍(200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방안”, 《농촌사회》 12(1): 37-62.
- 임선주·정경운(2016), “농촌지역 고령여성의 노동신화 분석-마을기업의 보도기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7(2): 299-321.
- 임선희·이영세·권정숙(2001), “여성농업인의 일과 학습실태와 평생학습과제”, 《평생교육학연구》 7(2): 107-133.
- 임소영·김정섭·김남훈·하인혜(2020),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21-2025) 수립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임소영·김남훈·박대식·하인혜(2021), 《농촌 지역사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위와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새봄·김성용·김규리(2022), 《여성농업인실태조사 품질개선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통계청.
- 정기환(1997),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2015),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 《농정포커스》 10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김태환·박은지·이영근(2020),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정은미·마상진·민자혜(2012),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박대식·김우태(2013),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 정은미·박석두·김용렬·김우태(2013),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성은 외. 2022. 더 나은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 전략-민생회복 분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조형(1981),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 《아세아연구》 24(2): 49-91.
- 진명숙·박성정(2012), “귀농귀촌 여성의 농촌생활 경험 분석: 진안 사례”, 《여성연구》 83: 275-297.

진양명숙(2014), “젠더 관점에서 본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과정과 그 특성”, 《농촌경제》 37(3): 79-100.

태희원·송미영·신유리(2021),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정착 활성화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허미영(2004), “한국 환경농가 여성의 삶: 지속가능성수용과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0(2): 179-214.

홍은파(2010), “여성농업인 영농교육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1): 49-79.

FAO(2020), FAO Policy on Gender Equality 2020-2030.

〈법령, 정부 문서 등 기타 자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법률 제18533호, 2021.11.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7%AC%EC%84%B1%EB%86%8D%EC%96%B4%EC%97%85%EC%9D%B8+%EC%9C%A1%EC%84%B1%EB%B2%95#liBgcolor0>), 검색일: 2023. 4. 26.

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자료(2021. 11. 3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1.30.):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제고, 성평등 증진 기대”.

농림축산식품부(2023), 《2023 여성농업인 정책 자료집: 모아모아 한눈에》.

통계청(2020),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지침서》.

〈통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통계청(2020),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2022), 농림어업조사.

통계청(2019), 생활시간조사.

농촌진흥청(2017),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